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四聲通解』의 한자음 연구

－ 관련 韻書와의 비교를 통하여 －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金 旻 敬

2021年 2月

『四聲通解』의 한자음 연구

- 관련 韻書와의 비교를 통하여 -

指導教授 金 恩 希

金 旼 敬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1年 2月

金旼敬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安 在 哲

委 員

李 滢 鎬

委 員

金 恩 希

委 員

배 영 환

委 員

金 恩 希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1年 2月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동기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현황	4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6
II. 漢語 中古音과 『四聲通解』 관련 韻書	8
1. 漢語 中古音	8
2. 『中原音韻』	13
3. 『東國正韻』·『訓蒙字會』·『全韻玉篇』	17
III. 漢語 中古音과 『四聲通解』의 聲母	26
1. 牙音	30
2. 舌音	36
3. 唇音	43
4. 齒音	51
5. 喉音	74
IV. 漢語 中古音과 『四聲通解』의 韻母	83
1. 通攝	84
2. 梗攝	87
3. 曾攝	89
4. 宕攝	90
5. 江攝	93
6. 山攝	94
7. 臻攝	99

8. 咸攝	103
9. 深攝	105
10. 效攝	106
11. 流攝	110
12. 止攝	112
13. 蟹攝	115
14. 果攝	119
15. 假攝	120
16. 遇攝	122
V. 결론	126
참고문헌	131
【ABSTRACT】	135
【부록】	
1. 東音과 華音의 韻書 통계 도표	137
2. 漢語 中古音의 41聲類와 관련 韻書 대조표	138
3. 漢語 中古音과 『東國正韻』·『四聲通解』·『全韻玉篇』 대조표	158

I. 서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四聲通解』¹⁾는 1517년 조선시대 譯官이었던 崔世珍이 편찬한 韻書로서, 14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당시 중국 한자음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韻書이다. 『四聲通解』는 훈민정음으로 한자음을 기록하고 있어 중국 한자음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의 음가를 추정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료 중 하나이다. 『四聲通解』에서는 齒音을 표기하기 위한 ‘스·츠·짜·사·쓰(齒頭)’과 ‘스·츠·짜·사·쓰(正齒)’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申叔舟의 『四聲通考』를 따른 것인데, 『四聲通考』 凡例 第5條에서 ‘무릇 齒音의 齒頭音은 혀를 올려 치아에 닿는 것이므로 그의 소리가 얇다. 正齒音은 혀를 말아 경구개에 닿는 것이므로 그의 소리가 깊다. 우리나라의 齒音 ‘스·즈·츠’은 齒頭音과 正齒音의 사이에 있는데, 훈민정음에도 齒頭音과 正齒音의 구별이 없다. 지금 齒頭音은 ‘스·즈·츠’으로 표기하고, 正齒音은 ‘스·즈·츠’으로 표기하여 구분한다.’라고 하였다.²⁾ 또한, 齒頭音 ‘짜·쓰’과 正齒音 ‘짜·쓰’은 各自 並書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全濁字를 표기하기 위한 글자이다. 이점을 살펴보면 당시 학자들은 훈민정음으로 새로운 글자까지 만들어서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훈민정음으로 중국 한자음을 표기한 韻書는 중국 한자음을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1886년 설립된 국제어음학회에서는 국제음성기호(IPA)를 고안한 이후,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를 알파벳으로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의 언어학자 Karlgren은 국제음성기호를 사용해 漢語 中古音의 음가를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王力과 董同龢 등의 학자들 또한 중국에서 한자음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反切을 분석하여 과거의 한자음을 국제음성기호로 再構해냈다. 현재 중국어학계뿐만 아니라 국어학계에서도 全濁字를 표기했던 各自 並書 ‘쓰’을 Karlgren이 국제음성기호로 나타낸 유성음 /z³⁾로 추정하고 있다. 필자는 各自

1) 여기서는 1614년에 간행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목활자본을 1973년 서울대 문리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영인한 것을 참고하였다.

2) 한가준, 「최세진의 『四聲通解』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42쪽.

3) 대체로 추정음에 대해서는 ‘[]’를 사용하여야 하나, 본고에서는 漢語 中古音 41聲母 및 관련 韻書의 字

並書 ‘ㅍ’이 과연 유성음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四聲通解』와 『訓蒙字會』(1527)는 동일 저자에 의해 훈민정음으로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이 표기됐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四聲通解』와 『訓蒙字會』의 한자음을 비교할 경우,⁴⁾ 훈민정음의 淸音과 濁音의 조음 방식에 관한 특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全淸字를 표기하기 위한 ‘ㄱ·ㄷ·ㅂ·ㅈ·ㅅ·ㅎ’과 全濁字를 표기하기 위한 ‘ㄱ·ㄷ·ㅂ·ㅈ·ㅅ·ㅎ’⁵⁾ 중, ‘ㄱ·ㄷ·ㅂ·ㅈ·ㅅ·ㅎ’과 ‘ㄱ·ㄷ·ㅂ·ㅈ·ㅅ·ㅎ’에서 어떠한 대립이 나타나는지 현재 명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기존 학자들이 齒音의 ‘ㅅ’과 ‘ㅍ’을 무성 마찰음 /s/와 유성 마찰음 /z/로 추정할 바가 있어, 본고에서는 ‘ㅅ’과 ‘ㅍ’이 실제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대립되는 음운 변별 자질로 구별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各自並書가 사용된 韻書는 『東國正韻』(1448), 『洪武正韻譯訓』(1455), 『四聲通考』(세종 때), 『四聲通解』이다. 漢語 中古音과 비교를 해보면, 중국 북방의 近代音을 표기하고 있는 『四聲通解』의 齒音은 齒頭와 正齒를 구분하지만, 全濁字를 各自並書 ‘ㅍ·ㅍ’, ‘ㅍ·ㅍ’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여기서 ‘ㅍ·ㅍ’을 기존 연구에 따라 유성 마찰음 /z/라고 했을 때, 중국 북방의 近代音을 기록한 『四聲通解』에서도 全濁 邪母, 禪母인 ‘ㅍ·ㅍ’를 유성 마찰음으로서 표기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四聲通解』의 ‘ㅍ·ㅍ’이 동일 저자가 편찬한 『訓蒙字會』에서 ‘ㅅ’으로 표기된 점을 고려하면, 全淸 ‘ㅅ’과 全濁 ‘ㅍ’은 기존 학자들의 추정음과는 별개로 한국 한자음에서 무성 마찰음으로 발음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淸音과 濁音인 ‘ㅅ’과 ‘ㅍ’이 실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아닐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各自並書의 음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한국 한자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東國正韻』,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고 있는 『四聲通解』, 한국 한자음을 표기하고 있는 『訓蒙字會』 및 『全韻玉篇』을 대상으로 하여 총체적인 비교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四聲通解』는 『洪武正韻』(1375)부터 『四聲通解』(1517)까지 약 150년의 음을 기록하였고, 이후 한국의 마지막 韻書인 『奎章全韻』(1796)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간 영

母 및 韻母를 음운 자질로 인정하여 음운 기호 ‘/’를 사용하기로 한다.

4) 『四聲通解』는 중국 近代音을 반영한다고 평가받고, 『訓蒙字會』은 16세기 초 한국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5)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ㄱ ㄷ ㅂ ㅈ ㅅ ㅎ 爲 全淸, ㅋ ㆁ ㆁ ㆁ ㆁ 爲 次淸, ㆁ ㆁ ㆁ ㆁ ㆁ 爲 全濁, ㅇ ㄴ ㄹ ㅇ ㄷ ㄱ 爲 不淸不濁.

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韻書이다.

본고는 『四聲通解』 한자음의 성격을 관련 韻書와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동일 시기 동일 저자의 『四聲通解』와 『訓蒙字會』, 그리고 『東國正韻』, 『中原音韻』, 『全韻玉篇』을 본고의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지금까지 『四聲通解』에 대한 연구는 주로 漢語 中古音과 중국 韻書와의 비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한국 한자음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것까지도 연구 범위를 확장 시켜 보았다.

2. 선행 연구 현황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四聲通解』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국어학적인 논의와 중국어학적인 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학적 논의는 1957년 김민수의 논문 「四聲通解」를 주목할 수 있는데,⁶⁾ 이 논문은 『四聲通解』를 처음으로 소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후의 논문에서는 『四聲通解』의 문헌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비교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1973년 강신항의 「『四聲通解』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四聲通解』의 편찬과정을 자세히 제시했으며, 기존 학자들의 추정음을 따라 聲母 및 韻母를 분석하였다. 2004년에는 이강로가 『四聲通解의 음운학적 연구』⁷⁾를 출간했다. 이강로는 이 책에서 『四聲通解』의 수록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韻母를 中聲, 終聲, 聲調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중국어학적 논의는 1993년 이재돈의 「『四聲通解』에 반영된 16세기 중국어 음계 연구」⁸⁾에서 『四聲通解』와 『中原音韻』의 음운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99년 이재돈의 「崔世珍의 中國語 音韻學 연구」⁹⁾에서는 최세진이 편찬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중국어 음운학을 연구하였다. 좀 더 세부적인 연구는 2002년 이영월의 「『四聲通解』를 통한 早期官話 연구」¹⁰⁾에서 이루어졌고, 이어서 2005년 이영월의 논문 「試論 『四聲通解』 音系特徵」¹¹⁾에서 『四聲通解』의 聲母와 韻母의 음계를 정리했다. 2011년 주성일의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¹²⁾에서는 중국 한자음의 주음 방식과 연계하여 『四聲通解』에 반영된 중국어 음계를 聲母를 기준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후 2012년 「『四聲通解』 動靜字음을 통한 현대 한어 동형이음의 정착과정 고찰」¹³⁾, 2013년 이순미의 「『四聲通解』 속의 근대한어 어휘 초탐」¹⁴⁾, 2017년 曲曉雲의 「『四聲通解』

6) 김민수, 「四聲通解」, 『한글』 122, 1957, 524쪽-530쪽.

7) 이강로, 『사성통해의 음운학적 연구』, 박이정, 2004.

8) 이재돈, 「『四聲通解』에 반영된 16세기 중국어 음계 연구」, 『中國文學』 21, 1993, 287쪽-314쪽.

9) 이재돈, 「崔世珍의 中國語 音韻學 연구」, 『中國學報』 40, 1999, 27쪽-50쪽.

10) 이영월, 「『四聲通解』를 통한 早期官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1) 이영월, 「試論 『四聲通解』 音系特徵」, 『중국언어연구』 21, 한국중국언어학회, 2005.

12) 주성일,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 『중국문학연구』 42, 한국중문학회, 2011, 293쪽-328쪽.

13) 朱星一, 「『四聲通解』動靜字음을 통한 현대한어 동형이음의 정착과정 과찰」, 『中國文學研究』 49, 2012, 279쪽-302쪽.

14) 이순미, 「『四聲通解』속의 근대 한어 어휘 초탐」, 『中國語文論叢』 57, 2013, 21쪽-42쪽.

‘東董送屋’韻所引『蒙古韻略』考」¹⁵⁾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四聲通解』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1957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어학과 중국어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국어학적 연구는 崔世珍의 생애 및 『四聲通解』의 역사적 편찬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중국어의 韻母는 운미와 따로 분리되어 연구될 수 없는데, 韻母를 中聲, 終聲, 聲調로 나누어 연구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中聲과 終聲이 합쳐진 韻母로 연구하려고 한다. 중국어학적 연구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四聲通解』의 음운체계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주로 『四聲通解』와 관련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러 韻書에서 나타나는 한국 한자음과의 영향 관계까지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漢語 中古音을 기준으로 관련 韻書와의 비교를 통해, 『四聲通解』 한자음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中古 시기 四聲七音의 체계를 갖춘 漢語 中古音은 한자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漢語 中古音과 『四聲通解』의 비교는 중국 한자음의 실제 음가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관련 韻書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 한자음에 미친 영향과 음변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5) 曲曉雲, 「『四聲通解』‘東董送屋’韻所引『蒙古韻略』考」, 『중국언어연구』 68, 2017, 1쪽-24쪽.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四聲通解』는 中宗 시기 譯官이었던 崔世珍에 의해 쓰인 韻書로서, 15세기 申叔舟가 지은 『四聲通考』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편찬되었다. 崔世珍은 중국 韻書인 『洪武正韻』을 申叔舟가 諺譯하여 편찬한 『洪武正韻譯訓』(1455)에서, 당시 실제 쓰이던 한자를 새로 추가하여 『續添洪武正韻譯訓』(16세기)을 지었다. 『續添洪武正韻譯訓』은 『四聲通解』보다 앞서 편찬되었는데, 현재는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 『續添洪武正韻譯訓』의 내용을 『四聲通考』의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四聲通解』(1517)이다. 『四聲通解』는 훈민정음으로만 한자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洪武正韻譯訓』에서 받아들인 正音·俗音과 崔世珍이 청취하여 기록한 16세기 초의 今俗音, 이 세 가지 음운체계를 담고 있다.

『四聲通解』의 저자 崔世珍은 『四聲通解』에서 舌上音 ‘知·徹·澄’母를 正齒音 ‘照·穿·牀’母로 합류시키고, 모두 ‘ㄷ·ㄷ·ㅈ’으로 표기했다. 또한, 凡例 第13條에서 밝혔듯이 入聲 ‘ㄹ·ㄷ·ㅂ’은 漢語의 俗音과 『韻會』(『古今韻會舉要』, 1297) 및 『蒙韻』(『蒙古字韻』, 1269-1292 추정)에서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藥’韻에 해당하는 글자를 제외하고, 正音에서부터 入聲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崔世珍이 현실 한자음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崔世珍은 質正官으로서 중국을 여러 차례 왕래하였으며, 중국 사신이 왔을 때도 왕의 옆에서 통역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17가지나 되는 번역과 저술을 남겼으며, 『四聲通考』를 『四聲通解』로, 『翻譯老乞大』¹⁶⁾와 『翻譯朴通事』를 『老朴集覽』으로, 『千字文』과 『類舍』을 『訓蒙字會』로 새롭게 편찬하여 말과 글의 연구 및 보급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申叔舟가 지은 『四聲通考』의 미비점과 俗音이 불일치하여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술된 『四聲通解』는 그 내용과 체제에서 매우 실용적인 특성을 보여준다.¹⁷⁾

동일 저자가 편찬한 『四聲通解』와 『訓蒙字會』에서 나타난 표기상의 차이를 통해서도 당시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席’은 『四聲通解』에서 ‘씨’로 표기되어 있고, 『訓蒙字會』에서는 ‘석’으로 표기되어 있다. ‘族’은 『四聲通解』에서

16) 서명이 책에는 ‘『老乞大』’라고만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원본인 『老乞大』와 1670년(현종 11)의 『老乞大諺解』와 구별하여 『翻譯老乞大』라고 하기로 한다.

17) 박태권, 「최세진의 학문 세계와 『사성통해(四聲通解)』」, 『국어사연구』 6, 국어사학회, 2006, 7쪽.

‘쭈’로 표기되어 있고, 『訓蒙字會』에서는 ‘죽’으로 표기되어 있다. 『四聲通解』 내에서도 표기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 한자음을 표기할 때는 各自並書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말 어휘를 표기할 때는 各自並書를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말 어휘에는 各自並書가 아닌 合用並書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四聲通解』의 우리말 어휘 중 ‘꾸미다’가 있는데, 지금은 경음인 ‘꾸미다’로 읽힌다. 그러나 16세기 당시에는 지금처럼 各自並書를 사용해 ‘꾸미다’로 표기하지 않고, ‘스’계 合用並書인 ‘시’을 사용해 ‘꾸미다’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四聲通解』의 음운체계를 漢語 中古音 및 相關 韻書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漢語 中古音은 崔世珍이 『四聲通解』 앞부분에서 聲母의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 『廣韻』의 字母圖를 제시한 바가 있으며, 四聲七音의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자음의 조음 위치 및 淸音과 濁音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漢語 中古音과의 비교를 통해 『四聲通解』 한자음에 반영된 전반적인 음계의 특징을 분석한 후, 『四聲通解』의 한자음이 한국 한자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의 첫 단계는 董同龢의 추정음을 기준으로 漢語 中古音의 36字母와의 비교를 통해 『四聲通解』의 음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四聲通解』가 底本으로 삼았던 『洪武正韻譯訓』이 『中原音韻』을 반영했기 때문에, 『中原音韻』의 추정음도 참고하려고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상적인 한국 한자음을 표기한 『東國正韻』과 비교하여, 漢語 中古音의 ‘牙音·舌音·脣音·齒音·喉音’ 및 淸音과 濁音을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 어떻게 반영하여 표기했는지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중국 한자음을 표기한 『四聲通解』와 한국 한자음을 표기한 『訓蒙字會』의 한자음 체계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8세기에 편찬되어 지금까지도 옥편의 규범적 구실을 하고 있는 『全韻玉篇』의 한자음과도 비교 고찰해보려고 한다.

Ⅱ. 漢語 中古音과 『四聲通解』 관련 韻書

1. 漢語 中古音

본고에서 분석하는 漢語 中古音은 『廣韻』(1008) 및 『韻鏡』에 반영된 唐末의 어음을 대상으로 하며, 6-7세기의 음계는 이와 구분하여 前期 中古音이라고 한다. 中古音에서 近代音으로의 과도기적 단계를 지칭할 때는 董同龢의 분기를 근거로 近古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上古音부터 近代音까지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① 上古音(先秦語音): 『詩經』을 주체로 하고, 『詩經』에서 用韻한 것과 諧聲字¹⁸⁾를 근거로 하여 고찰해 낸 어음 계통은 周代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諧聲字의 예로 ‘河字從可字, 翁字從公字, 江字從工字, 楷字從皆字’ 등을 들 수 있으며, 上古音 시기에 韻書가 편찬된 기록이 없으므로, 同源詞¹⁹⁾ 등도 上古音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② 中古音(隋唐宋初): 『切韻』이 대표하는 음계로 隋와 唐初가 중심이 된다. 早期韻圖는 『切韻』과 같은 계통의 韻書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니, 『切韻』을 고증하는데 가장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불경의 번역은 唐代에 가장 성하였고, 梵漢對音 중에는 唐代 語音의 흔적도 적지 않다. 현대 방언은 『切韻』 계통에서 연원된 것이며, 『切韻』 음류의 실제 음가는 산 재료 중에서 측량하여 얻을 수 있다. 域

18) 諧聲은 六書 중의 하나로, 形聲이라고도 한다. 形聲字는 뜻을 나타내는 形符(義符)와 글자의 소리를 나타내는 聲符로 구성되어 있다. 『詩經』의 압운자를 분석했을 때, 解性자의 성부와 독음이 부합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淸代의 段玉裁는 ‘同聲必同部’라는 법칙으로 귀납하였다. 이 밖에 金鏡(2002)에서는 “우리들이 상고음을 연구하기 위하여 諧聲字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를 단지 시각적 문자로서만이 아닌 청각적인 언어 실체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비록 동일한 聲符로 諧聲된 글자들이지만, 그 중에는 방음 지역에서 조자되어 서로 다른 음가를 지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불규칙 音變으로 처리되거나, 무리한 해석 혹은 단지 의문으로만 남겨놓은 상당수의 諧聲字에 대한 음운학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자료의 부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고 방음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金鏡, 「해성자에 반영된 상고한어의 방음연구」, 『중어중문학』 31, 2002, 70쪽.

19) 同源詞는 形·音·義가 같거나 비슷한 한자음의 부류로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形은 달라도 音과 義가 같은 경우로 洪·鴻·宏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形·音·義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로 濃·膿·穉을 예로 들 수 있다.

外 譯音도 역시 唐音의 걸가지 別派로 현대 방언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다.

③ 近古音(宋末·元初): 『韻會』로 대표되는 음계로, 『韻會』는 표면상으로는 전통적인 韻書의 체제를 쓰고 있지만, 각 韻 안에는 오히려 等韻의 지식을 이용하고 있고, 모든 글자를 다시 새롭게 주음을 하여 새로운 배열을 가한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실제 어음 계통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서, 『韻會』의 어음이 中古와 近代를 이어 주는 교량이라고 할 수 있다.

④ 近代音(元末·清初): 『中原音韻』(1324)으로 대표되는 음계로, 元代에 민간 문학인 北曲이 크게 유행했는데, 『中原音韻』은 元曲을 위하여 만든 까닭으로 전통적인 韻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고, 당시의 실제 어음을 표준으로 한 것이다. 북방 관화의 始祖라고 할 수 있다.²⁰⁾

601년(隨) 陸法言이 中古音의 대명사인 『切韻』이라는 韻書를 펴냈지만, 현재는 유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切韻』의 唐寫本 殘卷과 王仁昫의 『刊謬補缺切韻』의 唐寫本, 宋代에 펴낸 『廣韻』 등을 통해 학자들은 『切韻』의 음운체계를 연구해 왔다. 1947년 발견된 王仁昫의 『切韻』은 唐代의 『切韻』 增補本으로는 유일한 완본이지만 뒤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漢語 中古音 연구는 모두 『廣韻』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²¹⁾

『廣韻』의 체제는 『切韻』과 대동소이하다. 『廣韻』은 陳彭年, 丘雍 등이 칙령을 받아 『切韻』을 수정하여 1007년에 완성하였으며, 1008년에 『大宋重修廣韻』이란 명칭으로 바뀌었다. 『廣韻』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廣韻』은 모두 5권으로 평성자가 많아 분권한 것도 『切韻』과 같다. 『切韻』보다 13운이 더 많은 206운으로, 평성 57운, 상성 55운, 거성 60운, 입성 34운으로 되어 있다.

둘째, 모두 26,194자를 수록하였고, 주석도 많이 증가되었다.

셋째, 운부의 순서는 李舟의 『切韻』의 순서를 채택하여, 평·상·거·입성운이 대응되도록 하였다. 添운 다음에 놓였던 蒸운, 登운을 靑운 다음으로 옮겼고, 陽운 앞에 놓였던 覃운, 談운을 侵운 뒤로 옮겼다. 또 입성운의 순서를 바꿔서 양성운에 대응되도록 하였다. 즉, -p운미 운은 조음 위치가 같은 -m운에 대응시키고, -t운은 -n운에, -k운은 -ŋ운에 대응되도록 입성운의 순서를 바꿔놓았다.²²⁾ 『廣韻』의 聲母와 韻母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20) 董同龢 著, 공재석 譯, 『漢語音韻學』, 汎學圖書, 1975, 22-23쪽을 요약 및 보충하였다.

21)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교방, 2014, 114-115쪽.

22)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교방, 2014, 118쪽.

1) 『廣韻』의 41聲母

<표1> 『廣韻』의 41聲母

		全清	次清	全濁	次濁	全清	全濁
脣音	重脣	幫	滂	並	明		
	輕脣	非	敷	奉	微		
舌音	舌頭	端	透	定	泥		
	舌上	知	徹	澄	娘		
齒音	齒頭	精	清	從		心	邪
	正齒(2)	莊	初	牀		疏	
	正齒(3)	照	穿	神		審	禪
牙音		見	溪	羣	疑		
喉音		影	曉	匣	喻		
喉音					爲		
半舌					來		
半齒					日		

『廣韻』 41聲母는 전통적인 36字母와 비교하여, 正齒音 ‘莊·初·牀·疏’ 4개와 喉音 ‘爲’ 1개가 증가한 것이다. 41聲母는 『廣韻』의 반절 상자와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漢語 中古音의 聲母 체계를 한눈에 살피기에 편리하다.

절운계 韻書의 聲母 체계를 종합해 보면, 6-7세기 및 守溫의 30字母에 이르기까지 脣音에서 중순음과 경순음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36字母에서부터 분화되기 시작했다. 다시 『廣韻』에서 正齒 2등이 분화되고, 喻母가 ‘喻母와 爲母’로 분화되어, 41聲母가 됨을 알 수 있다.²³⁾

2) 『廣韻』의 206韻

『廣韻』은 漢語 中古音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서, 漢語 中古音 추정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므로, 『廣韻』의 206韻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2>는 206韻 및 四聲相配와 獨用·同用の 상황을 배열하고, 후기 等韻圖의 十六攝과의 대조를 나타낸 것이다.²⁴⁾ 만약 四聲을 따지지 않는다면, 206운은 61개의 운류로 나눌 수 있다.

23) 문성호, 「漢語 中古音과 訓民正音의 音韻 研究 - 粵語, 梵語, 『東國正韻』 漢字音의 音韻 比較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0쪽.

24) <표2>는 顧義生·楊亦鳴, 한중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296-297쪽을 참고했고, 설명은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59쪽을 참조하여 攝과 음성 운미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표2> 광운 206운 표와 후기 등운도의 十六攝 대조

	16攝	上(28)下(19)平聲·57 운	上聲·55운	去聲·60운	入聲·34운
1	通攝	一東 獨用	一董 獨用	一送 獨用	一屋 獨用
2		二同 鐘同用		二宋 用同用	二沃 燭同用
3		三鐘	二腫 獨用	三用	三燭
4	江攝	四江 獨用	三講 獨用	四絳 獨用	四覺 獨用
5	止攝	五支 脂之同用	四紙 旨止同用	五寘 至志同用	음성운미 /-i/
6		六脂	五旨	六至	
7		七之	六止	七志	
8		八微 獨用	七尾 獨用	八未 獨用	
9	遇攝	九魚 獨用	八語 獨用	九御 獨用	음성운미
10		十虞 模同用	九麌 同用	十遇 暮同用	
11		十一模	十姥	十一暮	
12	蟹攝	十二齊 獨用	十一薺 獨用	十二霽 祭同用	음성운미 /-i/
13				十三祭	
14				十四泰	
15		十三佳 皆同用	十二蟹 駭同用	十五卦 怪夬同用	
16		十四皆	十三駭	十六怪	
17				十七夬	
18		十五灰 哈同用	十四賂 海同用	十八隊 代同用	
19		十六哈	十五海	十九代	
20				二十廢 獨用	
21	臻攝 (元은 예외로 山攝)	十七眞 諄臻同用	十六軫 準同用	二十一震 稕同用	五質 術櫛同用
22		十八諄	十七準	二十二稕	六術
23		十九臻			七櫛
24		二十文 欣同用	十八吻 隱同用	二十三問 獨用	八物 獨用
25		二十一欣	十九隱	二十四焮 獨用	九迄 獨用
26		二十二元 魂痕同用	二十阮 混很同用	二十五願 愿同用	十月 沒同用
27		二十三魂	二十一混	二十六愿	十一沒
28		二十四痕	二十二很	二十七恨	
29	山攝	二十五寒 桓同用	二十三旱 緩同用	二十八翰 換同用	十二曷 末同用
30		二十六桓	二十四緩	二十九換	十三末
31		二十七刪 山同用	二十五潁 産同用	三十諫 禫同用	十四黠 鎋同用
32		二十八産	二十六産	三十一禫	十五鎋
33		下平聲 一先 仙同用	二十七銑 獮同用	三十二霰 線同用	十六屑 薛同用
34		二仙	二十八獮	三十三線	十七薛
35	效攝	三蕭 宵同用	二十九筱 小同用	三十四嘯 笑同用	음성운미 /-u(w)/
36		四宵	三十小	三十五笑	
37		五肴 獨用	三十一巧 獨用	三十六效 獨用	
38		六豪 獨用	三十二皓 獨用	三十七號 獨用	
39	果攝	七歌 戈同用	三十三哿 果同用	三十八箇 過同用	음성운미

40		八戈	三十四果	三十九過	
41	假攝	九麻 獨用	三十五馬 獨用	四十禡 獨用	음성운미
42	宕攝	十陽 唐同用	三十六養 蕩同用	四十一漾 宕同用	十八葍 鐸同用
43		十一唐	三十七蕩	四十二宕	十九鐸
44	梗攝	十二庚 耕清同用	三十八梗 耿靜同用	四十三映 諍勁同用	二十陌 麥昔同用
45		十三耕	三十九耿	四十四諍	二十一麥
46		十四清	四十靜	四十五勁	二十二昔
47		十五青 獨用	四十一迥 獨用	四十六經 獨用	二十三錫 獨用
48	曾攝	十六蒸 登同用	四十二拯 等同用	四十七證 嶝同用	二十四職 德同用
49		十七登	四十三等	四十八嶝	二十五德
50	流攝	十八尤 侯幽同用	四十四有 厚黝同用	四十九宥 候幼同用	음성운미 /-u(w)/
51		十九侯	四十五厚	五十候	
52		二十幽	四十六黝	五十一幼	
53	深攝	二十一侵 獨用	四十七寢 獨用	五十二沁 獨用	二十六緝 獨用
54	咸攝	二十二覃 談同用	四十八感 敢同用	五十三勘 闞同用	二十七合 盍同用
55		二十三談	四十九敢	五十四闞	二十八盍
56		二十四鹽 添同用	五十琰 忝同用	五十五艷(木忝)同用	二十九葉 帖同用
57		二十五添	五十一忝	五十六(木忝)	三十帖
58		二十六咸 銜同用	五十二賺 檻同用	五十七陷 鑿同用	三十一洽 狎同用
59		二十七銜	五十三檻	五十八鑿	三十二狎
60		二十八嚴 凡同用	五十四儼 范同用	五十九釅 梵同用	三十三業 乏同用
61		二十九凡	五十五范	六十梵	三十四乏

攝은 攝내 음의 운미가 같은 것을 뜻하므로, 攝을 통해 61운류에서 평·상·거성과 입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다. 입성운은 『廣韻』에서 양성운과만 짝을 이룬다. 『廣韻』의 通攝·江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ŋ/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k/이다. 止攝은 음성 운미로 운미에 /-i/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일률적이지는 않다. 遇攝은 음성 운미로 단운모에 가깝다. 蟹攝은 음성 운미 /-i/를 지닌다. 臻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n/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t/이다. 山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n/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t/이다. 效攝은 음성 운미로, 운미가 /-u(w)/이다. 果攝은 음성 운미로, 단운모에 가깝다. 假攝은 음성 운미로, 단운모에 가깝다. 宕攝·梗攝·曾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ŋ/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k/이다. 流攝은 음성 운미로, 운미가 /-u(w)/이다. 深攝·咸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m/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p/이다. 25)

25) 문성호, 「漢語 中古音과 訓民正音의 音韻 研究 -粵語, 梵語, 『東國正韻』 漢字音의 音韻 比較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4-26쪽.

漢語 中古音은 관련 韻書와 시기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한자음의 특성상 한번 정착되면 음변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韻書와 비교 연구를 진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한자음은 중국의 上古音과 中古音이 잘 남아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四聲七音이라는 전통적인 성운학 체계가 확립되어 한자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崔世珍이 『四聲通解』를 저술하면서 앞부분에 『韻會』 및 『洪武正韻』의 字母圖와 함께 『廣韻』의 字母圖를 음계 분류의 참고용으로 제시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 漢語 中古音을 각 韻書의 한자음의 연원을 확인하는데 참고하려고 한다.

2. 『中原音韻』

『中原音韻』은 1324년에 江西高安 지방의 사람인 周德清이 편찬한 韻書이다. 총 5,876개의 한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19개의 韻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이전의 韻書와 다르게 각 聲調 아래 운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운부터 분류하고, 각 운 아래 聲調를 분류하였다.

『中原音韻』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3가지가 있다. 즉, ‘平分陰陽’, ‘入派三聲’, ‘濁上變去’²⁶⁾이다. 趙蔭棠에 의하면, 명대와 청대의 韻書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²⁷⁾, 이전의 三十六字母에 있는 濁音を 淸音에 합류시킨 가장 최초의 운서는 『中原音韻』이다.²⁸⁾

『中原音韻』의 聲母와 韻母 체계는 다음과 같다.²⁹⁾

26) ‘平分陰陽’이란 무성음 聲母를 가진 平聲字는 陰平, 유성음 聲母를 가진 平聲字는 陽平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入派三聲’이란 入聲字였던 글자들이 『中原音韻』에서 다른 세 성조로 入派되었음을 의미한다. ‘濁上變去’란 全濁 聲母를 가진 上聲字는 聲母의 무성음화와 함께 聲調가 去聲으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27) 趙蔭棠, 『等韻源流』, 商務印書館, 1957, 208쪽.

28) 김 혜, 『『滿文原檔』의 차용 표기에 나타난 만주어와 한어의 음운 현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1-12쪽.

29) 『中原音韻』의 聲母와 韻母의 내용은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4, 182-189쪽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1) 『中原音韻』의 聲母

<표3> 『中原音韻』 聲母 재구음³⁰⁾

조음방식 조음위치	과열/과찰음		마찰음		공명음
	무기	유기	무성	유성	
순 음	p	p ^h	f	v	m
설 음	t	t ^h			n l
치두음	ts	ts ^h	s		
정치음	tʂ	tʂ ^h	ʂ		r
후아음	k	k ^h	x		ŋ ∅

위의 聲母 체계를 漢語 中古音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명음을 제외한 유성 장애음 聲母가 무성음이 되었다. 평성의 유성 장애음 聲母는 같은 조음 위치의 유기음으로 변하였고, 측성의 유성 장애음 聲母는 같은 조음 위치의 무기음으로 변하였다. 예를 들면, 中古 시기 유성 장애음 聲母를 가졌던 평성의 徒/du/는 /t^hu/가 되었고, 상성의 杜/du/는 /tu/가 되었다.

둘째, 舌上音 知계가 正齒音 照계에 합류되었다. 正齒音은 『切韻』시기 莊계와 章계로 갈라져 있었는데, 莊계는 주로 2등운과 결합하고, 간간이 3등운과도 결합하였으며, 章계는 3등운과만 결합하였다. 운도 시기에는 莊계가 더 이상 3등운과 결합하지 않게 되어, 章계와 상보적 분포를 하게 되면서, 莊계와 章계 聲母는 같은 聲母, 즉 36자모의 照계로 합류하였고, 『中原音韻』 시기에는 舌上音 知계도 正齒音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章계 聲母는 莊계와 병합된 후, 개음 /i-/가 탈락되기 시작했는데, 『中原音韻』에 그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中原音韻』에는 支思운에서 章계와 莊계가 병합되었고, 다른 韻書에서는 병합되지 않았다. 『中原音韻』에서 知계는 결합하는 韻母가 2등이나 아니면 3등이나에 따라 각각 莊계나 章계와 같이 쓰였다.³¹⁾ 이로써 정치음 聲母가 여전히 개음 /i-/와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影母는 喻母에 완전히 합류되어 영성모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평분음양’의 음운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影母의 평성자가 『中原音韻』에서 양평이 아닌 음평에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影母가 평성이 음양조로 나뉘던

30) 寧繼福, 『中原音韻表稿』, 吉林文史出版社, 1985에서 재구해 낸 聲母 체계를 제시하였다.

31) 예를 들면 章계 聲母 글자 眞과 중고 시기 3등운자인 知계 聲母 글자 珍이 같은 동음자군에 수록되어 있고, 莊계 聲母 글자 鍾과 중고 시기 2등운자인 知계 聲母 글자 撐이 같은 동음자군에 수록되어 있다.

시기에는 여전히 무성음 /ʔ-/의 음가를 지니고 있었음을 나타낸다.³²⁾ 疑母의 글자들 역시 대부분 영성모가 되었으나,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고, 일부 글자에서 여전히 /ŋ-/음가를 지니고 있었다. 日母의 음가는 권설음 /r-/로 본다.

넷째, 이 시기 聲母 체계와 연관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음운 변화는, 바로 牙·喉音 聲母를 가진 중고 시기 2등운 글자들에 개음 /i-/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음운 변화는 『中原音韻』보다 조금 앞서 간행된 『古今韻會舉要』에도 반영되어 있다.

2) 『中原音韻』의 韻母

周德清의 『中原音韻』은 元曲 작가들의 희곡 작품에서 압운하고 있는 글자들끼리 묶어서 韻部를 나누어 편찬한 韻書이므로, 韻母를 한 개만 포함하고 있는 韻部도 있지만, 많게는 네 개의 韻母를 포함한 韻部도 있다. 곡에서의 압운은 시에서의 압운과 같이 주요모음과 운미만 같으면 압운할 수 있으므로, 개음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 한 韻部에 많게는 네 개까지 서로 다른 韻母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4> 『中原音韻』 韻母 재구음

NO.	운부	재구음			
1	東鍾	iŋ	iuŋ		
2	江陽	aŋ	iaŋ	uaŋ	
3	支思	i			
4	齊微	ei	i	ui	
5	魚模	u	iu		
6	皆來	ai	iai	uai	
7	眞文	ən	iən	uən	iuən
8	寒山	an	ian	uan	
9	桓歡	uən			
10	先天	iən	iuən		

32) 그러나 입성의 분열이 발생했을 때는 影母 /ʔ-/의 음가는 확실히 이미 소실된 후였다. 『中原音韻』에서 이 글자들은 一과 沃을 제외하고 ‘입성작상성(入聲作上聲)’이 아닌 ‘입성작거성(入聲作去聲)’에 수록되었는데, 『中原音韻』에서 무성음 聲母의 입성자들은 ‘입성작상성’에 수록되고, 영성모를 포함한 공명음 聲母의 글자들은 ‘입성작거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影母가 당시에 무성음 음가를 갖고 있었다면 ‘입성작상성’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影母가 /ʔ-/ 음가를 소실한 것은 ‘평분음양’보다는 나중에, ‘입과삼성’보다는 먼저 일어난 것이다. Hsueh, F. S., 『Phonology of Old Mandarin』, The Hague, 1975, 32-33쪽.

11	蕭豪	au	au	iau	(ieu) ³³⁾
12	歌戈	ɔ	iɔ	uɔ	
13	家麻	a	ia	ua	
14	車遮	iɛ	iuɛ		
15	庚青	əŋ	iəŋ	uəŋ	iuəŋ
16	尤侯	əu	iəu		
17	侵尋	əm	iəm		
18	監咸	am	iam		
19	廉纖	iem			

中古 시기의 韻母 체계와 비교해 볼 때, 『中原音韻』의 韻母 체계는 매우 간단해졌으며, 중기 운도에서 韻母를 분류한 16攝과 아주 가깝다. 두 시기의 韻母 체계 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성이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편자 周德清이 중고 시기의 입성자들을 음성운자들과 분리하여 ‘입성작평성(入聲作平聲)’, ‘입성작상성(入聲作上聲)’, ‘입성작거성(入聲作去聲)’이라 해서 따로 모아 놓은 것은 입성 운미가 소실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압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라고 보고 당시 북방음에 여전히 입성 운미 /-ʔ/로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입성 운미가 소실되기 시작한 흔적은 唐代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 입성운이 수록된 일부 운미의 韻母 체계가 이미 모음 운미를 갖고 있어 당시 중국어의 음절 구조상 또 다른 운미 /-ʔ/를 허용할 수 없다.

둘째, 양순 비음 운미 /-m/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지만, 聲母가 양순음이면서 운미도 양순음인 글자들, 예를 들면, 品, 凡, 帆, 貶, 範, 犯, 範, 泛은 모두 /-n/ 운미 운부에 수록되

33) 蕭豪운의 재구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蕭豪운에 속하는 2등운 글자인 交는 중고 시기 kau였으나 이 시기에는 -i-개음이 발생하여 kiau가 되었다. 압운의 원칙에 따르면 같은 운부에 속하는 글자들은 주요모음과 운미가 같아야 하는데, 蕭豪운에는 중고 시기 3등운 글자인 嬌, 驕가 交와는 다른 동음자군에 속해 있다. 交와 嬌의 聲母는 같으므로, 그렇다면 두 글자의 韻母는 달라야 한다. 즉 交가 kiau이면 嬌, 驕는 ieu나 유사한 다른 韻母이어야 한다. 문제는 交를 kiau로, 嬌를 kieu로 재구할 경우 주요모음이 달라지게 되어 동운(同韻)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리 신쿠이(李新魁)는 한 운부에 속하는 글자들은 주요모음과 운미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예외적으로 蕭豪운에 au, au, iau, ieu 네 개의 韻母를 재구하였다. 닝 지푸(寧繼福)는 交 동음자군과 嬌 동음자군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양자의 차이를 -i-개음의 차이로 보고 각각 au, iau로 재구했다. 닝 지푸와 리 신쿠이가 au 외에 au의 韻母를 재구한 것은 주고 시기 순음 聲母자들 가운데 1등운 글자인 褒와 2등운 包 동음자군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마다 이렇듯 蕭豪운의 재구 결과가 다른 것은 聲母가 같은데도 다른 동음자군에 속해 대립하고 있는 대립쌍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글자들이 聲母와 운미의 이화작용으로 인해 운미가 /-n/인 운에 먼저 합류하고, 이러한 운미 변화가 후에 다른 음절로까지 확산되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한자음의 변화에 있어서 漢語 中古音을 바탕으로 한 음에서 現音에 이르기까지 그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近代音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 중국 韻書 중 시기적으로 가까운 『中原音韻』의 한자음도 『四聲通解』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참고로 하였다. 『中原音韻』의 한자음을 통하여 『四聲通解』의 正音, 俗音, 今俗音의 세 가지 체계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세 가지 체계가 또 다른 한국 韻書와 현실 한자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3. 『東國正韻』·『訓蒙字會』·『全韻玉篇』

1) 東國正韻』

『東國正韻』은 1447년(세종29년)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韻書이다. 『東國正韻』의 편찬 목적에 대해서 학계의 의견은 대체로 하나로 모아진다. 그것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한자음을 정리하고 통일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시에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점을 간파한 『東國正韻』 편찬자들은 한국 한자음의 변화를 바로잡기 위한 기본 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東國正韻』이 기반하고 있는 음은 어떤 것인가? 혼란스럽게 변화된 한자음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한자음을 받아들인 당시의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을 것이다. 한자음을 받아들인 시기란 『東國正韻』을 편찬하던 시기보다 훨씬 이전이었을 것임은 당연하다. 따라서 『東國正韻』 편찬자들은 15세기 당시의 中國音(近代音)이 아니라 그 이전의 中古音을 참고하였다고³⁴⁾ 봐야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東國正韻』은 元朝인 1297년에 간행된 『古今韻會舉要』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東國正韻』은 당시의 한국 한자음을 무조건 中國音 體系에 일치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음운체계를 바탕으로 漢語 中古音의 四聲, 七音, 清濁 체계에 맞추어 정리한 韻書라고 할 수 있다. 『東國正韻』

34) 김지형, 「동국정운식(東國正韻式) 한자음(漢字音)에서의 ‘·’의 음가(音價) - 중국(中國) 한자음(漢字音)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87쪽.

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東國正韻』의 23字母

<표5> 『東國正韻』 23字母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	전청	전탁
아음	君 ㄱ	快 ㅋ	虬 ㄱ	業 ㅅ		
설음	斗 ㄷ	呑 ㅌ	覃 ㅌ	那 ㄴ		
순음	譬 ㅍ	漂 ㅍ	步 ㅍ	彌 ㅁ		
치음	卽 ㅈ	侵 ㅉ	慈 ㅉ		戍 ㅈ	邪 ㅉ
후음	挹 ㅎ	虛 ㅎ	洪 ㅎ	欲 ㅎ		
반설				閭 ㄹ		
반치				穰 ㄹ		

훈민정음 초성 17자에 各自並書 6자를 더하면 『東國正韻』 23字母와 일치한다. 『東國正韻』 23字母의 四聲七音 체계는 중고 한어 36字母와 동일하며, 다만 『東國正韻』에서 중순·경순, 설두·설상, 치두·정치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음에서 4개 자모, 설음에서 4개 자모, 치음에서 5개 자모, 총 13개의 자모를 제외시키면, 『東國正韻』 23字母가 된다. 『東國正韻』 23字母의 四聲七音은 중고 한어 36字母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東國正韻』 23字母에서 聲母의 한자를 중고 한어 36字母와 다르게 한 것은, 중순·경순, 설두·설상, 치두·정치의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東國正韻』 23字母의 聲母의 한자를 중고 한어 36字母와 같게 할 경우, 순음·설음·치음에서 중순·경순, 설두·설상, 치두·정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이다. 『東國正韻』에서 순음·설음·치음에서의 分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우리말에서 구분되지 않기 때문으로, 『東國正韻』 서문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且字母之作，諧於聲耳。如舌頭舌上、唇重唇輕、齒頭正齒之類，於我國字音，未可分辨，亦當因其自然，何必泥於三十六字乎？

자모(字母)를 만든 것이 소리에 맞출 따름이니, 설두(舌頭)·설상(舌上)과 순중(唇重)·순경(唇輕)과 치두(齒頭)·정치(正齒)와 같은 따위인데, 우리나라의 글자음에는 분별할 수 없으니 또한 마땅히 자연에 따라 할 것이지, 어찌 꼭 36자(三十六字)에 구애할 것이라.

『東國正韻』의 序에서 『東國正韻』 편찬자가 자모의 分韻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에, 청·탁에 관해서는 엄격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東國正韻』의 序에서 발췌한 것은 다음과 같다.

我國語音, 其清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字音獨無濁聲, 豈有此理

우리나라의 말소리에 청탁(淸濁)의 분별이 중국과 다름이 없는데, 글자음에는 오직 탁성(濁聲)이 없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을 것인가.

莫不受天地之氣, 而聲音, 生於氣者也。 淸濁者, 陰陽之類, 而天地之道也

사람이 날 때에 천지의 가운을 받지 않은 자가 없는데 성음(聲音)은 기운에서 나는 것이니, 청탁(淸濁)이란 것은 음양(陰陽)의 분류(分類)로서 천지의 도(道)이요,

自正音作而萬古一聲, 毫釐不差, 實傳音之樞紐也。 淸濁分而天地之道定

훈민정음이 제작됨으로부터 만고(萬古)의 한 소리로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니, 실로 음(音)을 전하는 중심줄[樞紐]인지라. 청탁(淸濁)이 분별되매 천지의 도(道)가 정하여진다.³⁵⁾

위의 『東國正韻』 序文에서 ‘우리나라의 말소리에 청탁(淸濁)의 분별이 중국과 다름이 없는데, 글자음에는 오직 탁성(濁聲)이 없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였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말소리에서 존재했다던 濁音이 현재 국제음성기호에서 규정하는 유성음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든다. 비록 현재 各自並書로 표기된 濁音을 유성음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주를 이루지만, 위와 같이 『東國正韻』 序文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淸音과 濁音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재논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東國正韻』 91韻(26韻類)

<표6> 『東國正韻』 91韻(26韻類)

	『東國正韻』韻目	『東國正韻』字音	漢語 中古音	중성·종성
1	捩 肯 亘 亟	궁 : 쿵 · 궁 · 극	登蒸庚(二)耕	ㅎ ㄱ ㄴ ㄹ ㄷ ㄱ
2	觥 礦 橫 貌	굉 : 굉 · 횡 · 곱	梗攝(合口)	ㄴ ㄷ
3	肱 國	굉 · 곱	曾攝(合口)	ㄴ ㄷ

35) 문성호, 「漢語 中古音과 訓民正音의 音韻 研究 - 粵語, 梵語, 『東國正韻』 漢字音의 音韻 比較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65-66쪽.

4	公 拱 貢 穀	공 :공 ·공 ·곡	東冬鐘	ᄃᄃ ᄃᄃ ᄃᄃ ᄃᄃ
5	江 講 絳 覺	강 :강 ·강 ·각	江攝 ·宕攝	ᄃᄃ ᄃᄃ ᄃᄃ ᄃᄃ ᄃᄃ
6	弓 重 諤 翊	궁 :똥 ·궁 ·국	東	ᄃᄃ ᄃᄃ ᄃᄃ ᄃᄃ
7	京 景 敬 隔	경 :경 ·경 ·격	庚(三)清靑	ᄃᄃ ᄃᄃ ᄃᄃ ᄃᄃ
8	根 懇 艮 訖	근 :근 ·근 ·꺠	痕臻眞欣	ᄃᄃ ᄃᄃ ᄃᄃ ᄃᄃ ᄃᄃ
9	昆 袞 論 骨	곤 :곤 ·곤 ·꺠	魂	ᄃᄃ ᄃᄃ
10	干 筭 盱 葛	간 :간 ·간 ·꺠	寒桓山刪	ᄃᄃ ᄃᄃ ᄃᄃ ᄃᄃ
11	君 攬 擻 屈	군 :군 ·군 ·꺠	臻攝	ᄃᄃ ᄃᄃ ᄃᄃ ᄃᄃ
12	韃 蹇 建 訐	견 :견 ·견 ·꺠	山攝(三四)	ᄃᄃ ᄃᄃ ᄃᄃ ᄃᄃ ᄃᄃ ᄃᄃ ᄃᄃ ᄃᄃ
13	簪 痒 譖 戢	즘 :슴 ·즘 ·즘	深攝	ᄃᄃ ᄃᄃ ᄃᄃ ᄃᄃ ᄃᄃ
14	甘 感 紺 閔	감 :감 ·감 ·꺠	咸攝(一二)	ᄃᄃ ᄃᄃ
15	箝 檢 劔 劫	검 :검 ·검 ·꺠	咸攝(三四)	ᄃᄃ ᄃᄃ ᄃᄃ ᄃᄃ
16	高 杲 誥	골 :골 ·골	效攝	ᄃᄃ ᄃᄃ
17	鳩 九 救	굴 :굴 ·굴	流攝	ᄃᄃ ᄃᄃ
18	賁 紫 恣	중 :중 ·중	止攝(開口) · 咍	ᄃᄃ ᄃᄃ ᄃᄃ ᄃᄃ
19	傀 隗 儻	굉 :웁 ·굉	蟹攝(合口)	ᄃᄃ

『東國正韻』의 체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운의 배열 순서이다. 운은 평·상·거·입의 ‘운류’로 묶여 종성의 아·설·순·(치)³⁶⁾·후의 순으로 배열되고 있으며, 각 운은 훈민정음으로 주음되고 있다. 같은 운미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攝(섭)’의 개념을 적극 도입한 것으로, 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임을 알게 해준다. 같은 섭 내에서 한자음의 배열은 중성·초성의 순서이다.³⁷⁾

제1운류에서 제7운류까지는 양성운 /-ŋ/이며, 입성운은 /-k/가 된다. 양성운 /-ŋ/과 입성운 /-k/의 음성적 관계에 대해, 청대의 학자 戈載는 양성운 /-ŋ/을 ‘穿鼻’라고 명명했는데, 穿鼻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k/로 끝을 맺는 운을 일컫는 것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고 했고, 근대의 唐鉞給은 /-k/를 별도로 ‘咽喉’라 했다. 반면, 세종은 일찌감치 양성운 /-ŋ/과 입성운 /-k/의 음성적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아음 ‘ㅇ(옛이응)’은 ‘ㄱ’과 짝이 되어 ‘ㅇ(옛이응)’을 급하게 내면 ‘ㄱ’으로 변하고, ‘ㄱ’을 느리게 발음하면 ‘ㅇ(옛이응)’으로 변한다.”³⁸⁾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ㅇ(옛이응)’과 ‘ㄱ’으로 문자화하여 조음 원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ŋ/과 /-k/의 조음 원리에 관한

36) 한자음 주음에서 齒音은 운미 혹은 終聲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37) 문성호, 「漢語 中古音과 訓民正音의 音韻 研究 -粵語, 梵語, 『東國正韻』 漢字音의 音韻 比較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62-63쪽.

38)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 : 如牙之ㅇ與ㄱ爲對, 而ㅇ促呼則變爲ㄱ而急, ㄱ舒出則變爲ㅇ而緩

세종의 설명은 음운의 영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음운을 음성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제8운류에서 제12운류까지는 양성운 /-n/이며, 입성운은 /-t/가 된다. 『東國正韻』에서는 우리말 한자음의 종성 ‘ㄹ’ 옆에 ‘ㅎ’을 사용하여, 漢語 中古音의 설내입성 /-t/를 ‘ㄹ’로 표기하고 있다.

제13운류에서 제15운류까지는 양성운 /-m/이며, 입성운은 /-p/가 된다.

제16운류에서 제17운류까지는 음성운 /-u(w)/이다. 『東國正韻』에서 漢語 中古音의 效攝과 流攝의 운미 /-u(w)/를 표기하기 위해, 순경음 ‘ㅁ’을 한국 한자음에 덧붙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18운류에서 제22운류까지는 음성운 /-i/이다. 止攝에는 음성 운미 /-i/가 일률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蟹攝에서는 음성 운미 /-i/를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漢語 中古音의 음성 운미 /-i/를 표기하기 위해, 중성자와 결합하는 ‘-ㅣ’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3운류에서 제26운류까지는 음성운 果攝·遇攝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 학계에서는 이를 특정 운미로 다루지 않는다. 漢語 中古音에서 운미라고 하는 것은 단운모가 아닌, 주요원음 뒤에 오는 輔音 혹은 元音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漢語 中古音의 운미는 8개이다.

세종대왕은 한국 한자음을 ‘訛(그릇되다)’로 보아 字母, 七音, 清濁, 四聲 등에 걸쳐 그 본말을 밝히지 않음이 없도록 해서 그 올바른 것을 회복하라고 명하면서³⁹⁾ 『東國正韻』을 편찬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東國正韻』은 당시 한국의 현실 한자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東國正韻』이 훈민정음으로 주음한 우리나라 최초의 韻書로서 한자음의 유래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韻書임은 분명하다. 본고에서는 『四聲通解』 한자음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東國正韻』의 한자음 특성을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한국 한자음과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訓蒙字會』

『訓蒙字會』는 1527년에 崔世珍이 『千字文』과 『類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實字

39)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대학교 출판부, 2014, 218쪽.

를 위주로 하여, ‘實字’, ‘半實半虛字’, ‘虛字’ 3가지로 분류해 수록했으며, 총 3,360字 중에서 上, 中에 실린 한자가 2,240字, 下는 雜語라 칭하여 1,120字를 수록해 놓았다. 또한, 한자마다 釋과 音을 달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을 덧붙인 어휘 해설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

崔世珍이 『訓蒙字會』를 편찬함에 있어서 諺文과 漢文 둘 다 가르치고자 하였는데, 이는 『訓蒙字會』의 凡例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註內稱俗者 指漢人之謂也 人或學漢語者 可使兼通 故多收漢俗稱呼之名也 又恐註繁亦不盡收 - 『訓蒙字會』 「凡例」7條

註에서 ‘俗’이라고稱하는 것은 중국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혹시 漢語를 배우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兼通할 수 있도록 漢語의 속어라稱하는 것을 많이 수록하였는데, 註가 너무 번잡할까 우려되어 모두 수록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가리키는 ‘俗’은 우리나라의 ‘俗’이 아닌 中國의 ‘俗’, 즉 中國의 口語를 말한다. 이는 그 당시의 중국어 연구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며, 3,000字가 넘는 漢字에 대해 우리나라의 실제 한자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국어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⁴⁰⁾왔다. 『訓蒙字會』의 자음과 모음체계는 다음과 같다.

< 『訓蒙字會』의 자음과 모음체계 >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ㅋ, ㆁ, ㅍ, ㅈ, ㅊ, ㅌ,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

『訓蒙字會』의 자음에서는 『訓民正音』 「解例本」에서의 ‘ㅎ’이 제외되었다. ‘ㅎ’자는 목구멍 막힘 및 터침 소리로 /ʔ-/의 음가를 지녔으며, 이 소리는 지금도 존재한다. 그러나 ‘ㅎ’은 소리마디의 첫소리로서는 ‘ㅇ’와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이것은 곧 ‘ㅎ’이 다른 자음과 같이 독자성이 강하지 못한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訓蒙字會』에서는 ‘ㅎ’을 제외한 것이다. 자음의 순서는 『廣韻』의 36字母와 같이 ‘牙·舌·脣·齒·喉’ 순으로 글자를 배열하였고, 모음의 순서는 『廣韻』의 開口韻과 合口韻처럼 발음할 때의 입술 벌림의 크기의 차이를 따르며, 벌린 입술 모음을 먼저 놓고, 둥근 입술 모음을 그 다음에 놓으며, 보통 입술 모음

40) 이정민, 「중세 이후 한국의 한자음 초성과 중국어 성모와의 대응관계 고찰 -『訓蒙字會』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5-16쪽.

을 끝에 놓았다.⁴¹⁾

『訓蒙字會』의 한자음을 『四聲通解』의 한자음과 비교해보았을 때는 몇 가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ㅇ’과 ‘빙’이 나타나지 않는다. 두 번째, 全濁字 표기인 各自並書 ‘ㄱ, ㄷ, ㅃ, ㅍ, ㅈ, ㅊ’이 나타나지 않는다. 세 번째, 초성에 ‘ㅇ’이 표기되지 않는다. 네 번째, ‘ㅅ’이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표기상의 차이점을 漢語中古音과 『中原音韻』 및 관련 韻書를 참고하여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며, 『四聲通解』와 『訓蒙字會』는 동일 저자가 동시기에 편찬한 韻書인 만큼 두 韻書는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의 특징을 밝히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四聲通解』와 『全韻玉篇』

『全韻玉篇』은 조선 후기 정조 때에 『奎章全韻』(1796)의 자매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옥편으로 10,840자의 한자를 214部首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옥편의 형식은 청나라 때 만들어진 『康熙字典』(1710)을 따르고 있는데, 한자를 표제자로 보인 뒤에 한글로 음을 표기하고 한문으로 註釋을 달았고, 마지막에 韻母를 표기하였다.⁴²⁾ 『全韻玉篇』은 한국 한자음을 한글로 표시한 최초의 書引字典이라는 점에 가치가 있을뿐더러, 후대에 간행된 옥편·자전류의 전거가 되었다.⁴³⁾ 더 주목할 만한 점은 『三韻聲彙』와 『奎章全韻』이 한국 한자음을 전적으로 정칙음만을 표시한 것과는 달리, 『全韻玉篇』에서는 620여 자의 한자음에 대하여 ‘X俗Y’ 또는 ‘X正Y’식으로 당시의 통용음을 표시했다는 점이다.⁴⁴⁾ 여기에서 ‘X’가 정칙음이고, ‘Y’가 이른바 속음인데, 후자를 중국·일본 한자음과 대조하여 보면 적으나마 한국 한자음의 특이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대 전승 한자음의 유래와 그 양상을 밝힐 수 있다.⁴⁵⁾

41) 『訓蒙字會』의 체계에 관해서는 안경상, 「어학교전 『訓蒙字會』의 몇가지 특징」, 『중국조선어문』,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2020, 38-51쪽을 주로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42) 정경일, 『규장전운·전운옥편』, 신구문화사, 2008, 249쪽.

43) 한 예로 池錫永(1855-1935)의 『字典釋要』(1906 완성, 1909 간행)의 正·俗音은 바로 『全韻玉篇』을 따른 것이다.

44) 여기 ‘俗’이나 ‘正’의 구별은 속음(통용음)으로서의 차이라기보다는 교정음으로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대체로 『華東正音通釋韻考』에서 정·속음을 동시에 표시한 자는 ‘俗’을 쓰고, 『三韻聲彙』와 『奎章全韻』에서 교정한 음이 『華東正音通釋韻考』 음과 다를 경우에는 ‘正’으로 나타냈다. 예를 들면 ‘呵·荷·訶’자에 대하여 『華東正音通釋韻考』은 정음을 ‘하’로 표시하고 상단에 ‘俗가’라는 두주를 달아 놓았다. 그러나 『三韻聲彙』와 『奎章全韻』 음은 ‘하’뿐이다. 그리하여 『全韻玉篇』에서는 ‘하俗가’로 정·속음을 표시하였다. 이와 달리 ‘枯’자의 『華東正音通釋韻考』 음은 ‘구’이지만 『三韻聲彙』와 『奎章全韻』에서는 정칙음인 ‘고’로 교정되었다. 이 경우에 『全韻玉篇』은 ‘고正구’식으로 나타낸 것임을 이해하면 된다.

『全韻玉篇』의 ‘정척음’과 ‘속음’에 관해서는 이돈주의 기존 연구에서 ‘『奎章全韻』은 규범 음만을 나타낸 반면에, 『全韻玉篇』에서는 아마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하여 온 듯한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추가 기록하고 중국 한자음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⁴⁶⁾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全韻玉篇』의 正音 및 俗音이 중국 한자음인 漢語 中古音과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駮’은 ‘층正승’으로, 반절은 ‘食陵’이며 『東國正韻』 음은 ‘쫘’으로 나타나지만, 『廣韻』에서 ‘神陵, 石證’ 반절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아 ‘駮’에서 正俗으로 반영된 ‘층’과 ‘승’은 正俗 관계라기보다 ‘食陵’의 又音으로 봐야 한다.

㉡ ‘泓’은 ‘횡俗홍’으로 반절은 ‘烏宏’이다. 『全韻玉篇』의 正音은 『東國正韻』의 ‘횡’을 반영하고, 俗音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 ‘嶸’은 ‘횡正영’으로, 반절은 ‘永兵’이며 『東國正韻』 음은 ‘횡’으로 나타나지만, 『廣韻』에서 ‘胡萌, 永兵’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아 ‘嶸’에서 正俗으로 반영된 ‘횡’과 ‘영’은 正俗 관계라기보다 ‘永兵’의 又音으로 봐야 한다.

㉣ ‘樞’은 ‘층正중’으로, 반절은 ‘卽容’이며 『東國正韻』 음은 ‘층/중’으로 나타나지만, 『廣韻』에서 ‘七恭, 卽容’ 반절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아 ‘樞’에서 正俗으로 반영된 ‘층’과 ‘중’은 正俗 관계라기보다 ‘卽容’의 又音으로 봐야 한다.

㉤ ‘缸’은 ‘항俗강’으로 반절이 ‘許江’으로 나타나는데, 송대 이후 『集韻』에는 반절음 ‘虛江, 枯江’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缸’에서 正俗으로 반영된 ‘항’과 ‘강’은 正俗 관계라기보다 ‘許江’의 又音으로 봐야 한다.

㉦ ‘抗’은 ‘강俗항’으로, 반절은 ‘胡郎’이며 『東國正韻』 음은 ‘·강’으로 나타나지만, 『廣韻』에서 ‘苦浪’ 반절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아 ‘抗’에서 正俗으로 반영된 ‘강’과 ‘항’은 正俗 관계라기보다 ‘胡郎’의 又音으로 봐야 한다.⁴⁷⁾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漢語 中古音과 『全韻玉篇』의 正音 및 俗音이 비록 시기적으로

45) 이돈주, 「『全韻玉篇』의 正·俗 漢字音에 대한 연구」, 『국어학』 30, 국어학회, 1997, 4쪽.

46) 이돈주,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정속음과 전운옥편 한자음의 비교 고찰」, 『한글』 249, 한글학회, 2000, 60쪽.

47) 김은희·김민경·김서영, 「『全韻玉篇』에 나타난 정·속음의 성격 고찰 上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언어연구』 86,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

김민경·김서영·문성호·김은희, 「『全韻玉篇』에 나타난 정·속음의 성격 고찰 下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동남어문논집』 86,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으나, 正音 및 俗音의 유래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全韻玉篇』이 한국 한자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유래와 전승 과정을 통해 중국 한자음과 관련이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全韻玉篇』은 『奎章全韻』의 한자음을 사전 형식으로 정리한 것인데,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奎章全韻』은 『四聲通解』를 근거로 두고 있어, 분명히 그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四聲通解』를 그대로 따른 한자음도 확인할 수 있는데, ‘又’의 경우 『四聲通解』에서는 ‘채’로 표기되었고, 『全韻玉篇』에서는 ‘채, 차’로 표기되었다. 『東國正韻』과 『訓蒙字會』의 한자음이 각각 ‘창’과 ‘차’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全韻玉篇』의 又音字인 ‘채’는 『四聲通解』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族’의 경우에도 『四聲通解』에서는 ‘쭈’로 표기되었고, 『全韻玉篇』에서는 ‘족, 주’로 표기되었다. 『東國正韻』과 『訓蒙字會』의 음도 각각 ‘쪽’과 ‘죽’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全韻玉篇』의 又音字인 ‘주’는 『四聲通解』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후, 韻書 諺譯 사업이 시행된 지 약 350여 년간 편찬된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및 『全韻玉篇』은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의 변천 과정 및 그 영향력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중국 한자음은 원활한 통교를 위한 목적으로 표기되었고, 또한 한국 한자음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한자음의 기준음으로도 활용되었다. 부록의 ‘東音과 華音을 잇는 韻書 통계 도표’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四聲通解』의 한자음을 고찰할 때 관련 韻書를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따라 漢語 中古音과 함께 『東國正韻』, 『中原音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의 한자음을 함께 제시하여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Ⅲ. 漢語 中古音과 『四聲通解』의 聲母

Ⅲ장과 Ⅳ장에서는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한자음을 표기하고 있는 여러 韻書들을 비교 연구하려고 한다.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韻書는 한국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는 『東國正韻』, 중국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는 『四聲通解』, 한국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 및 『全韻玉篇』이다. 또한, 『四聲通解』의 한자음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近代音을 기록한 韻書인 『中原音韻』도 참고하였다. Ⅲ장의 聲母 부분에서는 『四聲通解』의 聲母를 ‘牙·舌·脣·齒·喉’ 순으로 정렬하였고, 이를 漢語 中古音, 『東國正韻』, 『中原音韻』, 『訓蒙字會』, 『全韻玉篇』과 비교하여 기술하려고 한다.⁴⁸⁾

『四聲通解』 앞부분에서는 ‘廣韻三十六字母之圖’를 제시한 후, 『四聲通解』의 聲母 體系를 『廣韻』三十六字母와 비교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廣韻三十六字母之圖’와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7> 廣韻三十六字母之圖

五音	五行	七音	全清	次清	全濁	不清不濁	全清	全濁
角	木	牙音	見 ㄱ	溪 ㅋ	群 ㄲ	疑 ㅇ		
徵	火	舌頭音	端 ㄷ	透 ㅌ	定 ㄸ	泥 ㄴ		
		舌上音	知 ㄷ*	徹 ㅌ*	澄 ㄸ*	孃 ㄴ*		
羽	水	脣音重	幫 ㅍ	滂 ㅍ*	並 ㅍ*	明 ㅁ		
		脣音輕	非 ㅍ*	敷 ㅍ*	奉 ㅍ*	微 ㅁ*		
商	金	齒頭音	精 ㄷ*	清 ㅌ*	從 ㄸ*		心 ㅅ	邪 ㅅ*
		正齒音	照 ㄷ*	穿 ㅌ*	狀 ㄸ*		審 ㅅ*	禪 ㅅ*

48) 본고 Ⅲ·Ⅳ장에서 『東國正韻』과 『全韻玉篇』에 대한 논의는 소논문 김은희·김민경·김서영, 「『全韻玉篇』에 나타난 正·속음의 성격 고찰 上-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 『중국언어연구』 86,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과 김민경·김서영·문성호·김은희, 「『全韻玉篇』에 나타난 正·속음의 성격 고찰 下-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 『동남어문논집』 49, 동남어문학회, 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기술한 것이다.

宮	土	喉音	影 ㄱ	曉 ㄴ	匣 ㄹ	喻 ㅇ		
半徵 半商	半火 半金	半舌 半齒				來 ㄹ		
						日 ㄷ		

舌上音即同本國所呼似，與正齒音不同，而漢音自歸於正齒。非·敷，泥·孃，鄉漢難辨，集韻借用三十六母而稱影·曉·匣三母爲淺喉音，喻母爲深喉音。又以影母敘入匣母之下，古今沿襲不同，蓋亦必有所由也。而今不可究矣。

舌上音은 우리나라에서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고, 正齒音과는 다르다. 그러나 漢音에서는 정치음에 귀속시킨다. 非·敷 그리고 泥·孃은 우리말과 한어에서 구분하기 어렵다. 『集韻』에서 36字母를 빌려 쓰고 있는데, 影·曉·匣 세 聲母를 淺喉音이라고 하고, 喻母를 深喉音이라 칭한다. 또한, 影母를 匣母 밑에 넣었다. 고금의 沿襲이 다른 것은 무릇 마땅히 이유가 있으니 지금은 궁구할 수 없다.

‘廣韻三十六字母之圖’에서 知系와 照系는 구분하였지만, 한편으로 知·徹·澄과 照·穿·牀을 모두 ‘ㄱ.ㄴ.ㄷ’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최세진의 관념 속에 당시 중국어에서 知系와 照系는 合流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字母에 대한 설명에서 知系는 조선의 발음과 같지만, 照系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조선의 한자음에서 知系와 照系는 아직 合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非·敷의 발음, 그리고 泥·孃의 발음이 원래 달랐지만, 당시 조선 한자음과 중국어에서 이미 合流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⁹⁾

『四聲通解』에서 제시한 ‘廣韻三十六字母之圖’와 관련 설명을 정리하면, 『四聲通解』의 聲母體系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8> 四聲通解三十一字母之圖

五音	五行	七音	全清	次清	全濁	不清不濁	全清	全濁
角	木	牙音	見 ㄱ	溪 ㅋ	群 ㄱ	疑 ㅇ		
徵	火	舌頭音	端 ㄷ	透 ㅌ	定 ㄷ	泥 ㄴ		
		舌上音						

49) 한가준, 「최세진의 『四聲通解』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4쪽.

羽	水	脣音重	幫 ㄅ	滂 ㄆ	並 ㄇ	明 ㄇ		
		脣音輕	非 ㄆ		奉 ㄆ	微 ㄇ		
商	金	齒頭音	精 ㄆ	清 ㄆ	從 ㄆ		心 ㄆ	邪 ㄆ
		正齒音	照 ㄆ	穿 ㄆ	狀 ㄆ		審 ㄆ	禪 ㄆ
宮	土	喉音	影 ㄆ	曉 ㄆ	匣 ㄆ	喻 ㄆ		
半徵 半商	半火 半金	半舌 半齒				來 ㄆ		
						日 ㄆ		

『四聲通解』의 聲母는 漢語 中古音 36聲母에서 5개의 聲母가 적은 31聲母이다. <표7>과 <표8>을 비교하면 <표8>에는 漢語 中古音 36聲母에서 舌上音에 해당하는 ‘知’, ‘徹’, ‘澄’, ‘孃’과 脣音輕에 해당하는 ‘敷’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廣韻』,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의 聲母의 分合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9> 中古 漢語 41聲母와 관련 韻書의 聲母 대조표50)

七音	中古 漢語 41聲母		『中原音韻』		『東國正韻』 23字母		『四聲通解』 31聲母		『訓蒙字會』		『全韻玉篇』	
牙音	見 /k/	見 /k/	君 ㄱ	見 /k/	ㄱ	見 /k/	ㄱ	見 /k/	ㄱ	見 /k/	ㄱ	見 /k/
	溪 /kʰ/	溪 /kʰ/	快 ㅋ	溪 /kʰ/	ㅋ	溪 /kʰ/	ㅋ	溪 /kʰ/	ㅋ	溪 /kʰ/	ㅋ	溪 /kʰ/
	羣 /gʰ/	羣 /gʰ/	虬 ㆁ	羣 /gʰ/	ㆁ	羣 /gʰ/	ㆁ	羣 /gʰ/	ㆁ	羣 /gʰ/	ㆁ	羣 /gʰ/
	疑 /ŋ/	疑 /ø/	業 ㅇ	疑 /ŋ/	ㅇ	疑 /ŋ/	ㅇ	疑 /ŋ/	ㅇ	疑 /ŋ/	ㅇ	疑 /ŋ/
舌音	舌頭 端 /t/	舌頭 端 /t/	斗 ㄷ	舌頭 端 /t/	ㄷ	舌頭 端 /t/	ㄷ	舌頭 端 /t/	ㄷ	舌頭 端 /t/	ㄷ	舌頭 端 /t/
	舌上 知 /tʃ/	舌上 知 /ts/	吞 ㅈ	舌頭 透 /tʰ/	ㅈ	舌頭 知 /tʃ/	ㄷ	舌頭 知 /tʃ/	ㄷ	舌頭 知 /tʃ/	ㄷ	舌頭 知 /tʃ/
	舌頭 透 /tʰ/	舌頭 透 /tʰ/				舌頭 透 /tʰ/	ㅈ	舌頭 透 /tʰ/	ㅈ	舌頭 透 /tʰ/	ㅈ	舌頭 透 /tʰ/
	舌上 徹 /tʰʃ/	舌上 徹 /tsʰ/	覃 ㄸ	舌頭 定 /dʰ/	ㄸ	舌頭 徹 /tʰʃ/	ㅈ	舌頭 徹 /tʰʃ/	ㅈ	舌頭 徹 /tʰʃ/	ㅈ	舌頭 徹 /tʰʃ/
	舌頭 定 /dʰ/	舌頭 定 /t/				舌頭 定 /dʰ/	ㄸ	舌頭 定 /dʰ/	ㄸ	舌頭 定 /dʰ/	ㄸ	舌頭 定 /dʰ/
	舌上 澄 /dʰʃ/	舌上 澄 /tsʰʃ/	那 ㄴ	舌頭 泥 /n/	ㄴ	舌頭 澄 /dʰʃ/	ㄸ	舌頭 澄 /dʰʃ/	ㄸ	舌頭 澄 /dʰʃ/	ㄸ	舌頭 澄 /dʰʃ/
	舌頭 泥 /n/	舌頭 泥 /n/				舌頭 泥 /n/	ㄴ	舌頭 泥 /n/	ㄴ	舌頭 泥 /n/	ㄴ	舌頭 泥 /n/
	舌上 娘 /nʃ/	舌上 娘 /n/		舌頭 娘 /n/		舌頭 娘 /n/		舌頭 娘 /n/		舌頭 娘 /n/		舌頭 娘 /n/
半舌 來 /l/	來 /l/	間 ㄹ	來 /l/	ㄹ	來 /l/	ㄹ	來 /l/	ㄹ	來 /l/	ㄹ	來 /l/	
脣音	重脣 幫 /p/	重脣 幫 /p/	幫 ㄷ	重脣 幫 /p/	ㅍ	重脣 幫 /p/	ㅍ	重脣 幫 /p/	ㅍ	重脣 幫 /p/	ㅍ	重脣 幫 /p/
	輕脣 非 /p/	輕脣 非 /f/		輕脣 非 /p/	ㅍ	輕脣 非 /p/	ㅍ	輕脣 非 /p/	ㅍ	輕脣 非 /p/	ㅍ	輕脣 非 /p/
	重脣 滂 /pʰ/	重脣 滂 /pʰ/	漂 ㅍ	重脣 滂 /pʰ/	ㅍ	重脣 滂 /pʰ/	ㅍ	重脣 滂 /pʰ/	ㅍ	重脣 滂 /pʰ/	ㅍ	重脣 滂 /pʰ/

1. 牙音

1) ‘ㄱ(全清)’

<표10>51) 見母 * 『東國正韻』의 君母(ㄱ)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哥	見	歌	ka	果開一平歌見全清	ka	古俄	kɔ	강	거	가	가	ky ¹	
句 ⁺⁵²⁾	見	侯	kûg	流開一去候見全清	ku	古侯	kiu	꺠,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규	구	구	구	kou ⁴
狗	見	侯	kûg	流開一上厚見全清	ku	古厚	kəu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글	구	구	구	kou ³
句	見	侯	kûg	流開一平侯見全清	ku	古侯	kiu	꺠,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규	구	구	구	kou ¹
干	見	元	kan	山開一平寒見全清	kan	古寒	kan	간, 안, 한	건	간	간	kan ¹	
割	見	祭	kat	山開一入曷見全清	kat	古達	kɔ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거	할	갈(俗 53)할	ky ¹	
根	見	文	kân	臻開一平痕見全清	kən	古痕	kən	근	근	근	근	kən ¹	
閣	見	魚	kak	宕開一入鐸見全清	kak	古落	kau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갈	각	각	ky ²	
剛	見	陽	kaŋ	宕開一平唐見全清	kaŋ	古郎	kaŋ	강	강	강	강	kaŋ ¹	
甘	見	談	kam	咸開一平談見全清	kam	古三	kam	감, 함	감	감	감	kan ¹	
蓋 ⁺	見	祭/葉	kad/ kab	咸開一入盍見全清	kap	古盍	kai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개, 가, 하	개	감(俗)합	ky ³	
蓋	見			蟹開一去泰見全清	kai	古太	kai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개, 가, 하	개	감(俗)합	kai ⁴	
膏 ⁺	見	宵	kɔg	效開一去號見全清	kau	古到	kau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갈	고	고	kau ⁴	
膏	見	宵	kɔg	效開一平豪見全清	kau	古勞	kau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갈	고	고	kau ¹	
京	見	陽	kjāŋ	梗開三平庚見全清	kjeŋ	舉卿	kiəŋ	경	깅	경	경	tɕiŋ ¹	
訐	見	祭	kjat	山開三入月見全清	kjet	居竭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겨	알	갈(俗)알	tɕie ²	
給	見	緝	kjəp	深開三入緝見全清	kjep	居立	ki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기	급	급	tɕi ³	
今	見	侵	kjəm	深開三平侵見全清	kjem	居吟	kiəm	금	깅	금	금	tɕiŋ ¹	
棘	見	之	kjək	曾開三入職見全清	kjək	紀力	ki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기	극	극	tɕi ²	
机	見	脂	kjed	止開三平脂見全清	kjɛi	居夷	ki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계	괘	괘	tɕi ¹	
机 ⁺	見	脂	kjed	止開三上旨見全清	kjɛi	居履	ki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계	괘	괘	tɕi ¹	
巾	見	文	kjən	臻開三平真見全清	kjən	居銀	kiən	근	깅	건	근(俗)건	tɕiŋ ¹	
吃	見	微	kjət	臻開三入迄見全清	kjət	居乞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기	걸	글(俗)	tɕʰ ¹	

51) 본고에 사용된 이 표는 『四聲通解』와 『訓蒙字會』의 동일 수록자를 기준으로 中古 漢語 41聲類와 開合 및 等呼를 정렬하였다.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흠	
檢	見	談	kjem	咸開三上琰見全清	kjæm	居奄		·검	검	검	검	tɕian ³
計 ⁺	見			蟹開三去祭見全清	kjæi	居例		·경	겨	알	갈, 俗알	tɕie ²
繳	見	宵	kiog	效開四上篠見全清	kiɛu	古了	kiau	·작 ·골	결	작	교, 俗격	tɕiau ³
跣	見	元	kiæn	山開四上銑見全清	kiɛn	古典		·견	견	견		tɕian ³
莢	見	葉	kiep	咸開四入帖見全清	kiep	古協	kiɛ	·겹	겨	협	겹, 俗협	tɕia ²
古	見	魚	kag	遇合一上姥見全清	kuo	公戶	ku	·공	구	고	고	ku ³
公	見	東	kewŋ	通合一平東見全清	kuŋ	古紅	kuŋ	공	궁	공	공	kun ¹
穀	見	侯	kūk	通合一入屋見全清	kuk	古祿		·곡 ·굴 ·돌	구	곡	곡, 누	ku ³
蝸 ⁺	見	歌	kua	假合二平麻見全清	kua	古華		광 광 랑	과 와	과	과, 와	uo ¹
蝸	見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古蛙		광 광 랑	과 와	과	과, 왜	uo ¹
句 ⁺	見	侯	kjug	遇合三去遇見全清	kjuo	九遇	kiu	·공 ·궁 ·궁 ·궁	규	구	구	tɕy ⁴
閨	見	佳	kiueg	蟹合四平齊見全清	kiuɛi	古攜	kui	광	귀	규	규	kuei ¹

見母 즉, 『東國正韻』의 君母(ㄱ)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見母는 全清 ‘ㄱ’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⁵⁴⁾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⁵⁵⁾ 연구개 과열음⁵⁶⁾ /k/이다.

셋째, 『四聲通解』에서 見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蓋(개, 가)’의 又音 ‘하’를 제외하고 聲母가 모두 ‘ㄱ’으로 나타나며, ‘蝸(과)’의 俗音은 ‘오’으로 나타난다.

넷째, 『東國正韻』에서는 見母를 全清 ‘ㄱ(君母)’으로 표기한다. 見母는 『訓蒙字會』와 『全

52) 본고에서 又音은 ‘+ (위첨자)’로 표시한다.

53) 본고에서 『四聲通解』의 한자음은 正音을 수록했으며, 俗音이 있을 경우 ‘X俗Y’로 표기하여 좌측은 ‘正音’ 우측은 ‘俗音’을 나타냈으며, 今俗音이 있을 경우 ‘X今俗Y’로, 俗音과 今俗이 모두 있을 경우 ‘X俗Y今俗Z’로 제시했다.

54) 董同龢는 『東國正韻』의 韻母 ‘꺽’을 ‘/-æi/’로 추정하였다. ‘/-æ/’는 한국어 발성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모음인데, ‘꺽’을 ‘/-æi/’로 추정한 董同龢의 추정음에 주목하여, 여기서는 董同龢의 추정음을 제시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55)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小學堂의 추정음을 따르기로 한다.

(<https://xiaoxue.iis.sinica.edu.tw/>)

56) 본고에서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과 관련된 용어는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를 따르기로 한다.

韻玉篇』에서 대체로 ‘ㄱ’으로 나타나지만, 『全韻玉篇』의 ‘割(갈)’, ‘吃(글)’, ‘莢(겉)’에 해당하는 俗音에서는 ‘ㅎ’으로, ‘訐(갈)’, ‘蝸(과)’에 해당하는 俗音에서는 ‘ㅇ’으로 나타난다. 『訓蒙字會』에서는 ‘割(할)’, ‘訐(알)’, ‘莢(협)’을 제외하고, 『全韻玉篇』의 正音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10>에서 見母는 『東國正韻』의 君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ㄱ’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ㄱ’으로 나타난다. <표10>에서 ‘巾’은 『東國正韻』에서 ‘근’, 『四聲通解』에서는 ‘긴’, 『訓蒙字會』에서는 ‘견’, 『全韻玉篇』에서는 ‘근俗견’, 現音은 ‘견’이다. ‘蝸’는 『東國正韻』에서 ‘광, 광, 황’, 『四聲通解』에서는 ‘과俗와’, 『訓蒙字會』에서는 ‘과’, 『全韻玉篇』에서는 ‘과俗왜’, 現音은 ‘와’이다. 現音 ‘와’는 『四聲通解』의 俗音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ㄱ(次淸)’

<표11> 溪母 * 『東國正韻』의 快母(ㄱ)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珂	溪			果開一平歌溪次淸	k ^h a	苦何	k ^h ɔ	강	커	가	가	k ^h ɥ ¹
口	溪	侯	k ^h uŋ	流開一上厚溪次淸	k ^h u	苦后	k ^h əu	:쿨	클	구	구	k ^h ou ³
渴	溪	祭	k ^h at	山開一入曷溪次淸	k ^h at	苦曷	k ^h ɔ	강 :경 :강	커	갈	갈, 갈	k ^h ɥ ³
看 ⁺	溪	元	k ^h an	山開一平寒溪次淸	k ^h an	苦寒	k ^h an	칸 :칸	컨	간	간	k ^h an ¹
看	溪	元	k ^h an	山開一去翰溪次淸	k ^h an	苦汗	k ^h an	칸 :칸	컨	간	간	k ^h an ⁴
齷	溪	文	k ^h ən	臻開一上很溪次淸	k ^h ən	康很	k ^h ən	:근 :은 :곤	큰	근	근, 은	k ^h ən ³
齷 ⁺	溪			山開二上產溪次淸	k ^h æn	起限	k ^h ən	:근 :은 :곤	큰	근	근, 은	tɕ ^h ian ³
柑	溪			咸開一平談溪次淸	k ^h am	苦甘			감	감		kan ¹
榼	溪	葉	k ^h ap	咸開一入盍溪次淸	k ^h ap	苦盍		:갑	카	합	갑, 합	k ^h ɥ ¹
考	溪	幽	k ^h oŋ	效開一上皓溪次淸	k ^h au	苦浩	k ^h au	:쿨	갈	거	고	k ^h au ³
歎 ⁺	溪			咸開二上賺溪次淸	k ^h em	苦減	k ^h iem	:감 :경 :검	컴	:검	검, 감	tɕ ^h ian ⁴
歎	溪			咸開二平咸溪次淸	k ^h em	口咸	k ^h iem	:감 :경 :검	컴	:검	검, 감	tɕ ^h ian ⁴
歎 ⁺	溪	談	k ^h em	咸開二去陷溪次淸	k ^h em	口陷	k ^h iem	:감 :경 :검	컴	:검	검, 감	tɕ ^h ian ⁴
歎 ⁺	溪	談	k ^h iem	咸開四上忝溪次淸	k ^h iem	苦簞	k ^h iem	:감	컴	:검	검,	tɕ ^h ian ⁴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경 ·겸			감	
隙	溪	魚	k ^h jäk	梗開三入陌溪次清	k ^h jək	綺戟		·격	키	극	극	ci ⁴
泣	溪	緝	k ^h jəp	深開三入緝溪次清	k ^h jep	去急	k ^h i	·급	키	읍	급 ·俗 ·읍	tɕ ^h i ⁴
乞	溪	微	k ^h jət	臻開三入迄溪次清	k ^h jət	去訖	ki	·꺠 ·꺠꺠	키	걸	꺠, 꺠·俗 꺠·꺠	tɕ ^h i
篋	溪			咸開四入帖溪次清	k ^h iɛp	苦協	k ^h iɛ	·꺠	켜	협	꺠·꺠	tɕ ^h iɛ ⁴
溪	溪			蟹開四平齊溪次清	k ^h iɛi	苦奚	k ^h i	·꺠	꺠	꺠	꺠	ci ¹
胯	溪	魚	k ^h uäg	假合二去禡溪次清	k ^h ua	苦化	k ^h ua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k ^h ua ⁴
胯 ⁺	溪			假合二平麻溪次清	k ^h ua	苦瓜	k ^h ua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k ^h ua ¹
胯 ⁺	溪	魚	k ^h uag	遇合一去暮溪次清	k ^h uo	苦故	k ^h ua	·꺠, 꺠 ·꺠, 꺠	꺠	꺠	꺠, 꺠	k ^h u ⁴
枯	溪	魚	k ^h ag	遇合一平模溪次清	k ^h uo	苦胡	k ^h u	·꺠	꺠	꺠	꺠 꺠·꺠	k ^h u ¹
哭	溪	侯	k ^h ük	通合一入屋溪次清	k ^h uk	空谷	k ^h u	·꺠	꺠	꺠	꺠	k ^h u ¹
塊	溪	微	k ^h uäd	蟹合一去隊溪次清	k ^h uai	苦對	k ^h uai	·꺠 ·꺠	꺠	꺠	꺠	k ^h uai ⁴
傾	溪	耕	k ^h juɛŋ	梗合三平清溪次清	k ^h juɛŋ	去營	k ^h iuŋ	·꺠 ·꺠	꺠·꺠 꺠·꺠	꺠	꺠	tɕ ^h iŋ ¹
咳				*57) 蟹開一平咍見全清	kɔi	柯開		·꺠	꺠, 꺠	꺠	꺠·꺠 꺠	xai ²

溪母 즉, 『東國正韻』의 快母(ㄷ)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溪母는 次清 ‘ㄷ’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유기 연구개 파열음 /k^h/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溪母를 次清 ‘ㄷ(快母)’으로 표기한다. 溪母는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대체로 ‘ㄱ’으로 나타나지만, 『全韻玉篇』에서는 ‘𪛗(갑)’, ‘𪛘(꺠)’, ‘咳(꺠)’에 해당하는 俗音이 ‘ㅎ’으로, ‘泣(꺠)’에 해당하는 俗音이 ‘ㅇ’으로 나타난다.

넷째, ‘咳’는 見母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 ‘꺠’로 나타나며 漢語 中古音은 /k/로 연구개 파열음으로 추정된다. ‘咳’는 『集韻』에서 見母에 해당되는데, 隋·唐代 이후 見母의 발음이 추가되었고, 발음 부위가 같고 방법이 다른 ‘見母’와 ‘溪母’가 서로 섞이는 것을 알 수 있다.

57) 『廣韻』에서 中古音을 찾을 수 없는 경우, 『集韻』의 中古音으로 대신하여 ‘*’로 표기한다.

『全韻玉篇』에서 ‘咳’는 ‘기俗히’로 반절이 ‘柯開’이다. 그러나 『廣韻』에서 ‘戶來’ 반절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아, ‘咳’에서 正俗으로 반영된 ‘기’와 ‘히’는 正俗 관계라기보다 又音으로 봐야 한다.

<표11>에서 溪母는 『東國正韻』의 快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ㄱ’으로 나타나지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ㄱ’으로 나타난다. <표11>에서 ‘看’은 『東國正韻』에서 ‘칸’, 『四聲通解』에서는 ‘컨’, 『訓蒙字會』에서는 ‘간’, 『全韻玉篇』에서는 ‘간’, 現音은 ‘간’이다. 위의 ‘咳’와 같은 글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集韻』에서는 발음 부위가 같은 ‘見母’와 ‘溪母’가 서로 섞이고 있는데, ‘看’ 또한 全淸과 次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ㄱ’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3) ‘ㄱ(全濁)’

<표12> 羣母 * 『東國正韻』의 虬母(ㄱ)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鯨	羣	陽	g ^h jan	梗開三平庚羣全濁	g ^h jen	渠京	k ^h iən	경	깁	경	경	tɕin ¹
乾	羣	元	g ^h jan	山開三平仙羣全濁	g ^h æŋ	渠焉	k ^h iɛŋ	견.간	견	견	견.간	tɕian ²
傑	羣	祭	g ^h jat	山開三入薛羣全濁	g ^h jæt	渠列	kiɛ	꺄	껴	걸	걸	tɕie ²
琴	羣	侵	g ^h jəm	深開三平侵羣全濁	g ^h jəm	巨金	k ^h iəm	금	깁	금	금	tɕin ²
芹	羣	文	g ^h jən	臻開三平欣羣全濁	g ^h jən	巨斤	k ^h iən	끈	깁	근	근	tɕin ²
柑	羣			*咸開三平鹽羣全濁	giæm	其淹	kam	감.깁	깁	감	감.깁	kan ¹
衢	羣	魚	g ^h juag	遇合三平虞羣全濁	g ^h juo	其俱	kiu	공	깁	구		tɕy ²
葵	羣	脂	giwei	止合三平脂羣全濁	g ^h juei	渠追	k ^h ui	깁	깁	규	규	k ^h uei ²

羣母 즉, 『東國正韻』의 虬母(ㄱ)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羣母는 全濁 ‘ㄱ’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유성 연구개 파열음 /g^h/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유기 연구개 파열음 /k^h/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羣母를 全濁 ‘ㄱ(虬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모두 ‘ㄱ’으로 나타난다.

<표12>에서 羣母는 『東國正韻』의 虬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ㄱ’으로 나타나지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ㄱ’으로 나타난다. <표12>에서 ‘乾’은 『東國正韻』에서 ‘견, 간’,

『四聲通解』에서는 ‘견’, 『訓蒙字會』에서는 ‘견’, 『全韻玉篇』에서는 ‘견, 간’, 現音은 ‘간’이다. 『四聲通解』에서 ‘견’으로 표기되어 개음 /i-/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四聲通解』가 중국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ㅇ(不淸不濁)’⁵⁸⁾

<표13> 疑母 * 『東國正韻』의 業母(ㅇ)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我	疑	歌	ŋa	果開一上哿疑次濁	ŋa	五可	ŋɔ	·양 :양	어	아	아	uo ³
岸	疑	元	ŋan	山開一去翰疑次濁	ŋan	五旰	an	·안	언	안	안	an ⁴
艾	疑	祭	ŋad	蟹開一去泰疑次濁	ŋai	五蓋	ai	:앵 :앵	에	애	애 예	ai ⁴
熬	疑	宵	ŋɔg	效開一平豪疑次濁	ŋau	五勞		·홀	알	오	오	au ²
吾 ⁺	疑	魚	ŋäg	假開二平麻疑次濁	ŋa	五加	u	·웅	우	오	오	ia ²
魚	疑	魚	ŋjag	遇開三平魚疑次濁	ŋjo	語居	iu	·잉	유	어	어	y ²
銀	疑	文	ŋjən	臻開三平真疑次濁	ŋjən	語巾	iən	·은	인	은	은	in ²
仰	疑			宕開三去漾疑次濁	ŋjaŋ	魚向	ŋjaŋ	·양 :양 :양	양	양	양	ian ³
仰 ⁺	疑	陽	ŋjaŋ	宕開三上養疑次濁	ŋjaŋ	魚兩	ŋjaŋ	·양 :양 :양	양	양	양	ian ³
艾 ⁺	疑	祭	ŋjäd	蟹開三去廢疑次濁	ŋjei	魚肺	ai	:앵 :앵	에	애	애 예	i ⁴
外	疑	祭	ŋuad	蟹合一去泰疑次濁	ŋuai	五會	uai	·황	왜	외	외	uai ⁴
瓦	疑	歌	ŋua	假合二上馬疑次濁	ŋua	五寡	ua	:황 :황	와	와	와	ua ³
瓦 ⁺	疑			假合二去禡疑次濁	ŋua	五化	ua	:황 :황	와	와	와	ua ⁴
役	以	佳	gjuək	梗合三入昔以次濁	øjuək	營隻	i	·윅	윽	역	역	i ⁴

疑母 즉, 『東國正韻』의 業母(ㅇ)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疑母는 不淸不濁 ‘ㅇ’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연구개 비음 /ŋ/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ø/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疑母를 옛이음 ‘ㅇ(業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모두 ‘ㅇ’으로 나타난다.

넷째, ‘役’는 以母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 ‘윽’로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

58) 본고에서 漢語 中古音의 次濁을 漢語 中古音을 기준으로 논할 때는 ‘次濁’이라 하고,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논할 때는 훈민정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청불탁(不淸不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며, 漢語 中古音은 /ø/로 추정된다. 『四聲通解』에서는 ‘/ŋ/’과 ‘/ø/’의 발음 부위가 근접해 있어 소리가 섞이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3>에서 疑母는 『東國正韻』의 業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ㅇ(옛이응)’으로 나타나지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ㅇ(이응)’으로 나타난다. <표13>에서 ‘我’는 『東國正韻』에서 ‘양’, 『四聲通解』에서는 ‘영’, 『訓蒙字會』에서는 ‘양’, 『全韻玉篇』에서는 ‘양’, 現音은 ‘아’이다. ‘我’는 漢語 中古音과 『東國正韻』에서 聲母가 ‘ㅇ/ŋ/’이지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ㅇ/ø/’이다. 『中原音韻』에서 疑母의 음가는 ‘/ŋ/’과 ‘/ø/’이 섞여서 나타나지만,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疑母를 일률적으로 옛이응 ‘ㅇ/ŋ/’으로 표기했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이응 ‘ㅇ/ø/’으로 표기하여,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舌音

1) ‘ㄷ(全清)’

<표14> 端母 * 『東國正韻』의 斗母(ㄷ)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丹	端	元	tan	山開一平寒端全清	tan	都寒	tan	단	단	단	단	tan ¹
襠	端			宕開一平唐端全清	tan	都郎	tan	당	당	당	당	tan ¹
膽	端	談	tam	咸開一上敢端全清	tam	都敢	tam	:담	담	담	담	tan ³
帶	端	祭	tad	蟹開一去泰端全清	tai	當蓋	tai	:대	대	디	디	tai ⁴
刀	端	宵	tōg	效開一平豪端全清	tau	都牢	tau	돌, 돌	달	도	도	tau ¹
打 ⁺	端			梗開二上梗端全清	ten	德冷	ta	:당 :당 :당	다	타	명, 타	ta ³
丁	端	耕	tien	梗開四平青端全清	tien	當經	tiən	딩, 덩	딩	딩	명, 징	tin ¹
鈞	端			梗開四入錫端全清	tiek	都歷	ti	:덕	디	덕	덕	ti ²
打	端			梗開四上迥端全清	tien	都挺	ta	:딩 :딩 :당	다	타	명, 타	ta ³
典	端	文	tiən	山開四上銑端全清	tien	多珍	tiən	:던 :편	던	던	던	tian ³
店	端			咸開四去禡端全清	tiem	都念	tiem	:덤	덤	덤	덤	tian ⁴
堤 ⁺	端			蟹開四平齊端全清	tiei	都奚	ti	딩 :명 싱	데	데	데	ti 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堤	端			蟹開四上齋端全清	tiei	都禮	ti	뎡 :뎡 싱	테	테	테	ti ³
釣	端	宵	tiɔŋ	效開四去嘯端全清	tiɛu	多嘯	tiau	:둑	덜	·도	도	tiau ⁴
捶	端	歌	tjua	*果合一上果端全清	tua	都果	tʂ ^h ui	:당 :정	더	츼	타,츼	tʂ ^h uei ²
都	端	魚	tag	遇合一平模端全清	tuo	當孤	tu	둥	두	도	도	tu ¹
啄	端	侯	tūk	通合一入屋端全清	tuk	丁木		·닥 ·들	두	탁	착 俗탁	tʂuo ²
東	端	東	tūŋ	通合一平東端全清	tun	德紅	tun	둥	둥	둥	둥	tun ¹
碓	端	微	tuəd	蟹合一去隊端全清	tuAi	都隊	tui	·뎡	뒤	디	디	tuei ⁴

端母 즉, 『東國正韻』의 斗母(ㄷ)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端母는 全清 ‘ㄷ’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치조 파열음 /t/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端母를 全清 ‘ㄷ’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ㄷ’, ‘ㄷ’, ‘ㄷ’이 혼용되고 있다.

<표14>에서 端母는 『東國正韻』의 端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ㄷ(斗母)’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대체로 ‘ㄷ’으로 나타난다. <표14>에서 ‘丁’은 『東國正韻』에서 ‘뎡, 뎡’, 『四聲通解』에서는 ‘뎡’, 『訓蒙字會』에서는 ‘뎡’, 『全韻玉篇』에서는 ‘뎡, 징’, 現音은 ‘정’이다. 『中原音韻』이 /tiəŋ/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는 ‘뎡’으로 표기되어 /-ə-/ 음가가 탈락했으며, 普通話에서도 /tiŋ/으로 나타난다. 또, 『訓蒙字會』에서는 ‘뎡’, 『全韻玉篇』에서는 ‘뎡, 징’, 現音은 ‘정’으로 나타나는데, ‘丁’이 現音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聲母 ‘ㄷ’이 ‘ㄷ’으로 구개음화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2) ‘ㄷ(次清)’

<표15> 透母 * 『東國正韻』의 吞母(ㄷ)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他	透			果開一平歌透次清	t ^h a	託何	t ^h uo	당 ·당	터	타	타	t ^h a ¹
灘	透	元	t ^h an	山開一平寒透次清	t ^h an	他干	t ^h an	탄 ·탄	탄	탄	탄	t ^h an ¹
撻	透	祭	t ^h at	山開一入曷透次清	t ^h at	他達	ta	·탈	타	달	달	t ^h a ⁴
湯	透			宕開一平唐透次清	t ^h aŋ	吐郎	t ^h aŋ	탕 ·탕	탕,상	탕	탕,상	t ^h aŋ 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팡 상.양				
湯 ⁺	透			宕開一去宕透次清	tʰaŋ	他浪	tʰaŋ	탕 탕 탕 탕 상.양	탕.상	탕	탕 상	tʰaŋ ⁴
塔	透			咸開一入盍透次清	tʰap	吐盍	tʰa	·탑	타	탑	탑	tʰa ³
貪	透	侵	tʰəm	咸開一平覃透次清	tʰAm	他含	tʰam	담	담	담	담	tʰan ¹
態	透	之	tʰəŋ	蟹開一去代透次清	tʰAi	他代	tʰai	·팅	태	티	티	tʰai ⁴
聽	透			梗開四去徑透次清	tʰien	他定	tʰiəŋ	팅 팅 팅	팅	팅	팅	tʰin ¹
聽 ⁺	透			梗開四平青透次清	tʰien	他丁	tʰiəŋ	팅 팅	팅	팅	팅	tʰin ¹
天	透			山開四平先透次清	tʰiɛn	他前	tʰiɛn	턴	턴	턴	턴	tʰian ¹
鐵	透			山開四入屑透次清	tʰiɛt	他結	tʰiɛ	·텃	터	털	털	tʰie ³
帖	透			咸開四入帖透次清	tʰiɛp	他協	tʰiɛ	·텃	터	텃	텃	tʰie ⁴
添	透			咸開四平添透次清	tʰiɛm	他兼	tʰiɛm	텀	텀	텀	텀	tʰian ¹
體	透	脂	tʰied	蟹開四上薺透次清	tʰiei	他禮	tʰi	:텃	테	테	테	tʰi ³
痛	透	東	tʰūŋ	通合一去送透次清	tʰuŋ	他貢	tʰuŋ	·통	통	통	통	tʰuŋ ⁴
土	透	魚	tʰaŋ	遇合一上姥透次清	tʰuo	他魯	tʰu	:통 :동 :똥	투	토	토, 두	tʰu ³
禿	透	侯	tʰūk	通合一入屋透次清	tʰuk	他谷	tʰu	·톡	투	독		tʰu ¹
退	透	微	tʰuəd	蟹合一去隊透次清	tʰuAi	他內	tʰui	·팅	튀	퇴	퇴	tʰuei ⁴

透母 즉, 『東國正韻』의 吞母(ㄷ)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透母는 次清 ‘ㄷ’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유기 치조 파열음 /tʰ/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透母를 次清 ‘ㄷ(吞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대체로 ‘ㄷ’으로 나타나지만, 『訓蒙字會』에서 ‘撻(달)’, ‘禿(독)’이 ‘ㄷ’으로, 『全韻玉篇』에서 ‘撻(달)’, ‘土(두)’가 ‘ㄷ’으로 나타난다.

<표15>에서 透母는 『東國正韻』의 吞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ㄷ’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대체로 ‘ㄷ’으로 나타난다. <표15>에서 ‘體’은 『東國正韻』에서 ‘텃’,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테’, 現音은 ‘체’이다. 『中原音韻』은 /tʰi/로 普通話와 동일하다. 『中原音韻』에서 /tʰi/로 나타나지만,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漢語 中古音과 『東國正韻』을 따르고 있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透母가 ‘ㄷ’

으로 나타나지만, 現音은 ‘ㅈ’으로 구개음화됐다.

3) ‘ㄷ(全濁)’

<표16> 定母 * 『東國正韻』의 覃母(ㄷ)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陀	定			果開一平歌定全濁	d ^h ɑ	徒河	t ^h uɔ	땅	떠	타	타	t ^h uo ²
頭	定	侯	d ^h ŭg	流開一平侯定全濁	d ^h u	度侯	t ^h əu	똥	뜰	두	두	t ^h ou ²
蓬	定			山開一入曷定全濁	d ^h at	唐割			따	달	달	ta ²
彈 ⁺	定	元	d ^h an	山開一平寒定全濁	d ^h an	徒干	tan	판 판	판	탄	탄	t ^h an ²
彈	定	元	d ^h an	山開一去翰定全濁	d ^h an	徒案	tan	판 판	판	탄	탄	tan ⁴
度 ⁺	定	魚	d ^h ak	宕開一入鐸定全濁	d ^h ak	徒落	tu	막 똥	말	도	도 탁	tuo ²
堂	定	陽	d ^h aŋ	宕開一平唐定全濁	d ^h aŋ	徒郎	t ^h aŋ	땅	땅	당	당	t ^h aŋ ²
談	定	談	d ^h am	咸開一平談定全濁	d ^h am	徒甘	t ^h am	맘	맘	담	담	t ^h am ²
臺	定	之	d ^h əg	蟹開一平咍定全濁	d ^h ai	徒哀	t ^h ai	땡	떼	디	디	t ^h ai ²
陶	定	幽	d ^h ŏg	效開一平豪定全濁	d ^h au	徒刀	t ^h au	똥 똥 똥	말	도	도 요	t ^h au ²
狄	定	佳	d ^h iek	梗開四入錫定全濁	d ^h iek	徒歷	ti	떡 떡	띠	덕	덕	ti ²
亭	定	耕	d ^h ien	梗開四平青定全濁	d ^h ien	特丁	t ^h iəŋ	땡	땡	딩	딩	t ^h iŋ ²
田	定	真	d ^h ien	山開四平先定全濁	d ^h iɛn	徒年	t ^h iɛn	땡 땡	땡	뎐	뎐	t ^h ian ²
跌	定	脂	d ^h iet	山開四入屑定全濁	d ^h iet	徒結	tiɛ	땡	떠	딜	뎡 뎡	tie ¹
弟 ⁺	定	脂	d ^h ied	蟹開四去霽定全濁	ti ⁴	特計	ti	땡 땡	떼	데	데	ti ⁴ , t ^h i ⁴
弟	定	脂	d ^h ied	蟹開四上齋定全濁	d ^h iei	徒禮	ti	땡 땡	떼	데	데	ti ⁴ , t ^h i ⁴
跳	定			效開四平蕭定全濁	d ^h iɛu	徒聊	t ^h iau	땡 땡	땡, 땡	도	묘	t ^h iau ⁴
條	定	幽	d ^h iog	效開四平蕭定全濁	d ^h iɛu	徒聊	t ^h iau	떡 땡	땡, 땡	도		t ^h iau ²
童	定	東	d ^h ŭŋ	通合一平東定全濁	d ^h uŋ	徒紅	t ^h uŋ	똥	똥	둥	둥	t ^h uŋ ²
度	定	魚	d ^h ag	遇合一去暮定全濁	d ^h uo	徒故	tu	막 똥	말	도	도 탁	tu ⁴
徒	定	魚	d ^h ag	遇合一平模定全濁	d ^h uo	同都	t ^h u	똥	뚜	도	도	t ^h u ²
塊	定			臻合一入沒定全濁	d ^h uət	陀骨		똥	뚜	돌	돌	t ^h u ¹
豚	定	文	d ^h uən	臻合一平魂定全濁	d ^h uən	徒渾	t ^h uən	똥 똥	똥	돈	돈	t ^h uən ²
讀	定	侯	d ^h ŭk	通合一入屋定全濁	d ^h uk	徒谷	tu	똥 똥	뚜	독	두 독	tu ²

定母 즉, 『東國正韻』의 覃母(ㄷ)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定母는 全濁 ‘ㄷ’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유기 치조 파열음 /d^h/이고, 『中原音韻』의 추정

음은 치조 파열음 /t/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定母를 全濁 ‘ㄸ(覃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대체로 ‘ㄷ’과 ‘ㅌ’이 혼용된다.

<표16>에서 定母는 『東國正韻』의 覃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ㄸ’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대체로 ‘ㅌ’으로 나타난다. <표16>에서 ‘彈’은 『東國正韻』에서 ‘탄’, 『四聲通解』에서는 ‘탄’,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탄’, 現音은 ‘탄’이다. 『中原音韻』은 /tan/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彈’은 『四聲通解』 이후 濁音의 淸音化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단’이 아닌 ‘탄’으로 나타나는 데, 又音의 普通話가 /tʰan/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은 ‘彈’의 又音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ㄴ(不淸不濁)’

<표17> 泥母 * 『東國正韻』의 那母(ㄴ)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挪	泥			果開一平歌泥次濁	na	諾何	nuo		너	나	나	nuo ²
攤	泥			山開一上緩泥次濁	nuan	奴但		난 탄	난.탄	탄	난 탄	nan ⁴
攤 ⁺	泥			山開一去翰泥次濁	nan	奴案		난 탄	난.탄	탄	난 탄	nan ⁴
能 ⁺	泥	蒸	nāŋ	曾開一平登泥次濁	nəŋ	奴登	nəŋ	능 넝 넙 넑 넓 넕	내	능	니 티 능	nəŋ ²
能 ⁺	泥			曾開一上等泥次濁	nəŋ	奴等	nəŋ	능 넝 넙 넑 넓 넕	내	능	니 티 능	nəŋ ²
囊	泥	陽	naŋ	宕開一平唐泥次濁	naŋ	奴當	naŋ	낭 당	낭	낭	낭	naŋ ²
能 ⁺	泥			蟹開一去代泥次濁	nAi	奴代	nai	능 넝 넙 넑 넓 넕	내	능	니 티 능	nai ⁴
能	泥	之	nêg	蟹開一平哈泥次濁	nAi	奴來	nai	능 넝 넙 넑 넓 넕	내	능	니 티 능	nai ²
腦	泥	宵	nōg	效開一上皓泥次濁	nau	奴皓	nau	놀	날	노	노	nau ³
腦 ⁺	泥			效開一去號泥次濁	nau	那到	nau	놀	날	노	노	nau ⁴
溺	泥	宵	niok	梗開四入錫泥次濁	niek	奴歷	niau	녁 놀 삭	니	닉	뇨 닉	ni ⁴
年	泥	真	nien	山開四平先泥次濁	niɛn	奴顛	niɛn	년	년	년	년	nian ²
捻	泥			咸開四入帖泥次濁	niep	奴協		넙	녀	넙	넙	nie ¹
拈	泥	談	niem	咸開四平添泥次濁	niɛm	奴兼	niɛm	념	념	점	념 俗 념	nian ¹
尿	泥	宵	niog	效開四去嘯泥次濁	nieu	奴弔		놀	널	뇨	뇨	niau ⁴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暖	泥			山合一上緩泥次濁	nuan	乃管	nuon	·난 ·환	닐	난		nuan ³
奴	泥	魚	nag	遇合一平模泥次濁	nuo	乃都	nu	·농	누	노	노	nu ²
農	泥	中	nōŋ	通合一平冬泥次濁	nuoŋ	奴冬	nuŋ	·농	농	농	농	nuŋ ²
內	泥	緝 微	nuâb/ nuâd	蟹合一去隊泥次濁	nuAi	奴對	nui		·뉘	니	·니 ·납	nei ⁴
尼	娘	脂	njed	止開三平脂娘次濁	njei	女夷	ni	·니 ·녕 ·잉	·네	니	·니 ·닐	ni ²
女 ⁺	娘	魚	njag	遇開三去御娘次濁	ny ⁴	尼據	niu	·녕 ·녕 ·성	·뉴	녀	녀	ny ³
女	娘	魚	njag	遇開三上語娘次濁	njo	尼呂	niu	·녕 ·녕 ·성	·뉴	녀	녀	ny ³

泥母 즉, 『東國正韻』의 那母(ㄴ)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泥母는 不清不濁 ‘ㄴ’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치조 비음 /n/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泥母를 不清不濁 ‘ㄴ(那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대체로 ‘ㄴ’으로 나타나지만, 『訓蒙字會』에서 ‘拈(점)’에 해당하는 聲母가 ‘ㄸ’으로 나타나고, 해당 글자가 『全韻玉篇』에서 俗音이 ‘ㄷ’으로 나타난다. ‘攤(탄)’은 『訓蒙字會』에서 ‘ㅌ’으로 나타나며, 『東國正韻』, 『四聲通解』, 『全韻玉篇』에서는 又音이 ‘ㅌ’으로 나타난다.

넷째, 漢語 中古音의 娘母가 『四聲通解』에서 泥母로 합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7>에서 娘母는 『東國正韻』의 那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ㄴ’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대체로 ‘ㄴ’으로 나타난다. <표17>에서 ‘溺’은 『東國正韻』에서 ‘닉’, 『四聲通解』에서는 ‘니’,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닉’, 現音은 ‘닉’이다. 『中原音韻』에서 ‘/niau/’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東國正韻』 이후 唇音 /-k/가 소실되어 韻母가 /-u/로 변화하였고, 普通話에서는 韻母가 탈락하여 ‘/ni/’가 된 것으로 보인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닉’으로 나타나 唇音이 남아있는데, 이는 上古音과 中古音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한국 한자음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ㄷ(不清不濁)’

<표18> 來母 * 『東國正韻』의 閭母(ㄷ)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樓	來	侯	lûg	流開一平侯來次濁	lu	落侯	ləu	룽	룽	루	루	lou ²
欄	來			山開一平寒來次濁	lan	落干	lan		란	란	란	lan ²
酪	來			宕開一入鐸來次濁	lak	盧各	lau	·락	랄	락	락	lau ⁴
廊	來			宕開一平唐來次濁	lan	魯當	lan	랑	랑	랑	랑	lan ²
令 ⁺	來	耕	ljen	梗開三平清來次濁	ljen	呂貞	liən	·령 ·령	링	령	령	lin ²
令 ⁺	來	耕	ljen	梗開三去勁來次濁	ljen	力政	liən	·령 ·령	링	령	령	lin ⁴
柳	來	幽	ljög	流開三上有來次濁	lju	力久	liu	·류	릴	류	류	liou ³
蜎	來	祭	ljæt	山開三入薛來次濁	ljæt	良辭		·령	려	렬	렬	lie ⁴
令 ⁺	來	耕	ljen	山開三平仙來次濁	ljæn	力延	liən	·령 ·령	링	령	령	lian ²
蓮 ⁺	來			山開三上獮來次濁	ljæn	力展	liɛn	련	련	련	련	lian ³
旅	來	魚	ljag	遇開三上語來次濁	ljo	力舉	liu	·령	류	려	려	ly ³
璃	來			止開三平支來次濁	lje	呂支	li	링	례	리	리	li ²
麟	來	真	ljen	臻開三平真來次濁	ljen	力珍	liən	린	린	린	린	lin ²
栗	來	脂	ljet	臻開三入質來次濁	ljet	力質	li	·립 ·립	리	를	를	li ⁴
梁	來	陽	ljan	宕開三平陽來次濁	ljan	呂張	lian	랑	랑	랑	랑	lian ²
僚 ⁺	來	宵	ljög	效開三上小來次濁	ljæu	力小	liau	·류 ·류 ·류	렬	료	료	liau ²
令 ⁺	來			梗開四去徑來次濁	lien	郎定	liən	·령 ·령	링	령	령	lin ²
令	來	耕	lien	梗開四平青來次濁	lien	郎丁	liən	·령 ·령	링	령	령	lin ²
曆	來			梗開四入錫來次濁	liek	郎擊	li	·력	리	력	력	li ⁴
蓮	來	元	liæn	山開四平先來次濁	liɛn	落賢	liɛn	련	련	련	련	lian ²
僚	來	宵	liög	效開四平蕭來次濁	liɛu	落蕭	liau	·류 ·류 ·류	렬	료	료	liau ²
卵 ⁺	來			果合一上果來次濁	lua	郎果	luɔn	·란	ړ	란	란	luan ³
卵	來	元	luan	山合一上緩來次濁	luan	盧管	luɔn	·란	ړ	란	란	luan ³
路	來	魚	lag	遇合一去暮來次濁	luo	洛故	lu	·락 ·동	루	로	로	lu ⁴
雷	來	微	luäd	蟹合一平灰來次濁	luAi	魯回	lui	·링 ·링	뤼	뤼	뤼	lei ²
稈	來			臻合三入術來次濁	ljuet	呂郵			류	를		ly ⁴
淪	來	文	ljuən	臻合三平諄來次濁	ljuen	力連	liuən	룬	룬	룬	룬, 룬	luən ²
陸	來	幽	ljok	通合三入屋來次濁	ljuk	力竹	liu	·룩	루	룩	룩	lu ⁴
龍	來	東	liuŋ	通合三平鍾來次濁	liuŋ	力鍾	liuŋ	·룽 ·망 ·룽 ·룽	룽 俗 룽	룽	룽, 룬 룽	luŋ ²

來母 즉, 『東國正韻』의 閏母(ㄹ)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來母는 不清不濁 ‘ㄹ’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설측 접근음 /l/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來母를 不清不濁 ‘ㄹ(閏母)’로 표기한다. 『全韻玉篇』에서 ‘龍(룽,

룽)의 又音이 ‘츠’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모두 ‘ㄹ’로 나타난다.

<표18>에서 來母는 『東國正韻』의 閻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ㄹ’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ㄹ’로 나타난다. <표18>에서 ‘酪’은 『東國正韻』에서 ‘락’, 『四聲通解』에서는 ‘랄’,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락’, 現音은 ‘락’이다. 『四聲通解』에서 ‘藥’韻에 해당되는 글자는 終聲이 ‘빙’으로 표기되었는데, 終聲 ‘빙’은 /-u/로 추정된다. 『中原音韻』이 /lau/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四聲通解』는 『中原音韻』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락’으로 나타나 中古音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脣音

1) ‘ㅍ(全清)’

<표19> 幫母 * 『東國正韻』의 幫母(ㅍ)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博	幫	魚	puak	宕開一入鐸幫全清	pak	補各	pau	·박	발	박	박	po ²
笆	幫			假開二平麻幫全清	pa	伯加	pua	방	바	파	파	pa ¹
笆 ⁺				假開二上馬並全濁	b ^h a	傍下	pua	방	바	파	파	pa ¹
邦	幫	東	puŋ	江開二平江幫全清	pɔŋ	博江	puan	방	방	방	방	pan ¹
拜	幫	祭	puæd	蟹開二去怪幫全清	pei	博怪	pai	·뱅	배	비	비	pai ⁴
飽	幫	幽	pog	效開二上巧幫全清	pau	博巧	pau	·불	발	포	포	pau ³
柄	幫	陽	pjuāŋ	梗開三去映幫全清	pjɛŋ	陂病	piɛŋ	·빙 ·뵤	빙	병	병	pin ³
鼈	幫	祭	b ^h juæt	山開三入薛幫全清	pjæt	并列	pie	·별	벼	별	별	pie ¹
賓	幫	真	pjen	臻開三平真幫全清	pjen	必鄰	piɛn	빈	빈	빙	빈	pin ¹
筆	幫	微	pjuət	臻開三入質幫全清	pjət	鄙密	pui	·빙 ·뵤	비	필	필	pi ³
表	幫	宵	pjɔ̃g	效開三上小幫全清	pjæu	陂矯	piau	·불 ·뵤	벌	표	표	piau ³
壁	幫	佳	piek	梗開四入錫幫全清	piek	北激	pi	·벽	비	벽	벽	pi ⁴
編	幫	元	piuæŋ	山開四平先幫全清	piɛn	布玄		변	변	편	편	pian ¹
波	幫	歌	pua	果合一平戈幫全清	pua	博禾	puɔ	·빙 ·방	뷔	파	파	po ¹
布	幫	魚	puag	遇合一去暮幫全清	puo	博故	pu	·붕	부	포	포	pu ⁴
杯	幫			蟹合一平灰幫全清	puAi	布回	pui	빙	뷔	비	비	pei ¹
八	幫	脂	pet	山合二入點幫全清	pæɪt	博拔	pua	·밭	바	팔	팔	pa ¹
板	幫	元	puan	山合二上潛幫全清	pan	布縮	puan	·반	반	판	판	pan ³

幫母 즉, 『東國正韻』의 幫母(ㅂ)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幫母는 全淸 ‘ㅂ’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양순 파열음 /p/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양순 파열음 /p/, /pʰ/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幫母를 全淸 ‘ㅂ(幫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ㅂ’과 ‘ㅍ’이 혼용된다.

<표19>에서 幫母는 『東國正韻』의 幫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ㅂ’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ㅂ’과 ‘ㅍ’이 혼용된다. <표19>에서 ‘ㅂ’은 『東國正韻』에서 ‘ㅂ’, 『四聲通解』에서는 ‘ㅂ’,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ㅂ’, 現音은 ‘ㅂ’이다. 『東國正韻』에서 終聲이 以影補來 ‘ㄹ’⁵⁹⁾로 나타나는데, 이는 입성 /-t/를 표기한 것이다. 『四聲通解』는 ‘ㅂ’로 나타나 입성 소실을 반영하며, 이는 『中原音韻』과 같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는 입성 /-t/가 한국 한자음에서 /-l/로 변화된 현상을 반영하며, 입성이 보존되어 있다. 聲母는 ‘ㅂ’이 아닌 ‘ㅍ’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 한자음에서 全淸과 次淸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ㄹ(全淸)’

<표20> 非母 * 『東國正韻』의 幫母(ㅂ)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否	非	之	pjuǎŋ	流開三上有非全淸	pju	方久	fəu	·불 ·빙 ·뵤	·불	부	비,부	fou ³
父	非			遇合三上夔非全淸	pjuo	方矩	fu	·부 ·뵤	·부	부	부,보	fu ³
分	非	文	pjuǎn	臻合三平文非全淸	pjuən	府文	fuən	·판 ·뵤 ·분	·분,뵤	분	분	fən ¹
風 ⁺	非			通合三平東非全淸	pjuŋ	方戎	fuŋ	·부 ·뵤 ·뵤	·부	풍	풍	fəŋ ⁴ , fəŋ ³
風	非	侵	pjuəm	通合三平東非全淸	pjuŋ	方戎	fuŋ	·부 ·뵤 ·뵤	·부	풍	풍	fəŋ ¹
法	非	葉	pjuǎp	咸合三入乏非全淸	pjuəp	方乏	fua	·법	·법	법	법	fa ³

59) 『東國正韻』序文의 “以影補來 因俗歸正”은 ‘ㅎ’으로 ‘ㄹ’을 보충하여, 속습에 해당하는 한국 한자음의 운미 [-l]을 [-t]로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주목할 점은 속습의 발음인 [-l]을 버리지 않고, 속습을 바탕으로 [-t]를 표기한다는 점이다. ‘ㄹ’을 버리고 斗音 ‘ㄷ’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ㄹ’을 사용했다는 것은 속습의 발음과 정음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의도한 것일 수 있다. 문성호, 「漢語 中古音과 訓民正音의 音韻 研究 - 粵語, 梵語, 『東國正韻』 漢字音의 音韻 比較를 통하여 -」,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36쪽.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紡	敷	陽	p ^h uan	宕開三上養敷次清	p ^h uan	妃兩		·팡	방	방	방	fan ³

非母 즉, 『東國正韻』의 弊母(ㅂ)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非母는 全淸 ‘빙’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양순 파열음 /p/(非母)과 /p^h/(敷母)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순치 마찰음 /f/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幫母를 全淸 ‘ㅂ(弊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ㅂ’과 ‘ㅍ’이 혼용된다.

넷째, 董同龢는 漢語 中古音에서 非母 /p/로 추정된다.

다섯째, 漢語 中古音의 敷母가 『四聲通解』에서 非母로 합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0>에서 非母는 『東國正韻』의 弊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빙’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ㅂ’로 나타난다. <표20>에서 ‘父’은 『東國正韻』에서 ‘빙’, 『四聲通解』에서는 ‘부’,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부’, 現音은 ‘부’이다. 『中原音韻』과 『四聲通解』의 聲母가 각각 輕脣音 /f/와 ‘빙’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漢語 中古音의 /p/가 반모음 /j-/을 지닌 韻母와 결합하여 /f/로 변화한 현상을 보여준다. 非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輕脣音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 한자음에서 輕脣音 /f/를 ‘ㅂ’ 혹은 ‘ㅍ’으로 표기했다.

3) ‘ㅍ(次淸)’

<표21> 滂母 * 『東國正韻』의 漂母(ㅍ)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膊	滂	魚	p ^h uak	宕開一入鐸滂次清	p ^h ak	匹各		·박 ·팍	팍, 박	박	박	p ^h o ⁴
肺	滂	祭	p ^h juad	*蟹開一去空滂次清	p ^h ai	普蓋	fui	·팡 ·평	꺾	페	페, 패	p ^h i ²
葩	滂	魚	p ^h uäg	假開二平麻滂次清	p ^h a	普巴	p ^h ua	팡	파	파	파	p ^h a ¹
泡	滂	幽	p ^h og	效開二平肴滂次清	p ^h au	匹交	p ^h au	푼	팍	포	포	p ^h au ¹ p ^h au ⁴
品	滂	侵	p ^h jəm	深開三上寢滂次清	p ^h jəm	丕飲	p ^h iən	·픔	핀	픔	픔	p ^h in ³
匹	滂	脂	p ^h jet	臻開三入質滂次清	p ^h jet	譬吉	p ^h i	·핍	피	필	필	p ^h i ³
鋪 ⁺	滂	魚	p ^h uag	遇合一去暮滂次清	p ^h uo	普故	p ^h u	·푼 ·푼	푸	푸	포	p ^h u ⁴
坡	滂	歌	p ^h ua	果合一平戈滂次清	p ^h ua	滂禾	p ^h uɔ	팡	꺾	파	파	p ^h o ¹
潘	滂	元	p ^h uan	山合一平桓滂次清	p ^h uan	普官	p ^h uɔn	판 ·편	꺾 ·편	번	반 ·번	p ^h an 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醜	滂			山合一入末滂次清	p ^h uat	普活		·꺄	꺄	발	발	p ^h o ¹
鋪	滂	魚	p ^h uag	遇合一平模滂次清	p ^h uo	普胡	p ^h u	·꺄, 꺄	꺄	푸	포	p ^h u ¹
噴	滂	文	p ^h uəŋ	臻合一去恩滂次清	p ^h uəŋ	普悶	p ^h uəŋ	·꺄, 꺄	꺄	분	분	p ^h əŋ ¹
噴 ⁺	滂	文	p ^h uəŋ	臻合一平魂滂次清	p ^h uəŋ	普魂	p ^h uəŋ	·꺄, 꺄	꺄	분	분	p ^h əŋ ¹
醜	滂			通合一入屋滂次清	p ^h uk	普木		·꺄	꺄	복	복	pu ²
派	滂	佳	p ^h eg	蟹合二去卦滂次清	p ^h æi	匹卦	p ^h ai	·꺄	꺄	패	패	p ^h ai ⁴

滂母 즉, 『東國正韻』의 漂母(ㄹ)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滂母는 次清 ‘ㄹ’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유기 양순 과열음 /p^h/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滂母를 次清 ‘ㄹ(漂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ㄹ’, ‘ㄹ’이 혼용된다.

<표21>에서 非母는 『東國正韻』의 譬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ㄹ’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ㄹ’로 나타난다. <표21>에서 ‘ㅁ’은 『東國正韻』에서 ‘ㅁ’, 『四聲通解』에서는 ‘꺄’, 『訓蒙字會』에서는 ‘꺄’, 『全韻玉篇』에서는 ‘꺄’, 現音은 ‘꺄’이다. 『中原音韻』은 /p^hiən/로 나타나는데, 漢語 中古音의 운미 /-m/이 운미 /-n/으로 합류된 현상을 반영한다. 『中原音韻』에서는 양순 비음 운미 /-m/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지만, 聲母가 양순음 이면서 운미도 양순음인 글자들은 모두 운미가 /-n/인 韻部⁶⁰에 수록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聲母와 운미의 이화작용으로 인해 운미가 /-n/인 운에 먼저 합류하고, 이러한 운미 변화가 후에 다른 음절로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⁶¹ ‘ㅁ’이 『中原音韻』과 『四聲通解』에서 /p^hiən/과 ‘꺄’으로 나타난 것은, 中古 시기의 韻母 체계와 近代音으로 대표되는 『中原音韻』의 韻母 체계 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ㅁ(全濁)’

<표22> 並母 * 『東國正韻』의 步母(ㅁ)에 해당

60) 『中原音韻』은 元曲 작가들이 회곡 작품에서 압운하고 있는 글자들을 묶어서 ‘韻部’로 분류하였는데, 총 19개로 이루어져 있다.

61)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4, 189쪽.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培 ⁺	並	之	b ^h uəŋ	流開一上厚並全濁	b ^h u	蒲口	p ^h ui	·뽕 평, 뽕	뽕	비	비, 부	p ^h ou ³
杯	並			流開一平侯並全濁	b ^h u	薄侯	p ^h əu	뽕	뽕	부	부	p ^h ou ²
房	並			宕開一平唐並全濁	b ^h aŋ	步光	p ^h uaŋ	뽕	뽕, 뽕	방	방	p ^h aŋ ²
袍	並			效開一平豪並全濁	b ^h au	薄褒	p ^h au	뽕 뽕	뽕	포	포	p ^h au ²
琶	並			假開二平麻並全濁	b ^h a	蒲巴	p ^h ua	뽕	뽕	파	파	p ^h a ²
攤	並	元	b ^h uæŋ	山開二去禰並全濁	b ^h æŋ	蒲覓	puan	뽕 뽕	뽕	판	판	pan ⁴
排	並			蟹開二平皆並全濁	b ^h ei	步皆	p ^h ai	뽕 뽕	뽕	비	비	p ^h ai ²
闢	並	佳	b ^h jek	梗開三入昔並全濁	b ^h jek	房益	p ^h i	뽕	뽕	벽	벽	p ^h i ⁴
坪	並			梗開三平庚並全濁	b ^h jɛŋ	符兵			뽕	평	평	p ^h in ²
便	並	元	b ^h juæŋ	山開三去線並全濁	b ^h jæŋ	婢面	piɛŋ	뽕 뽕	뽕	편	편, 변	pian ⁴
便 ⁺	並	元	bjuæŋ	山開三平仙並全濁	b ^h jæŋ	房連	p ^h iɛŋ	뽕 뽕	뽕	편	편, 변	p ^h ian ²
貧	並	文	b ^h juən	臻開三平真並全濁	b ^h jɛn	符巾	p ^h iən	뽕	뽕	빈	빈	p ^h in ²
佛 ⁺	並	微	b ^h juət	* 臻開三入質並全濁	biet	薄苾	fu, fuɔ	뽕 뽕 뽕 뽕 뽕	뽕	불	불, 필	fu ² , fo ²
瓢	並	宵	b ^h jɔŋ	效開三平宵並全濁	b ^h jæu	符霄	p ^h iau	뽕	뽕	표	표	p ^h iau ²
僕	並	侯	b ^h ük	通合一入屋並全濁	b ^h uk	蒲木	p ^h u	뽕 뽕	뽕	복	복	p ^h u ²
盤	並	元	b ^h uan	山合一平桓並全濁	b ^h uan	薄官	p ^h uən	뽕	뽕	판	반	p ^h an ²
步	並	魚	b ^h uag	遇合一去暮並全濁	b ^h uo	薄故	pu		뽕	보	보	pu ⁴
鴉	並			臻合一入沒並全濁	b ^h uət	蒲沒			뽕	불	불	po ²
盆	並	文	b ^h uən	臻合一平魂並全濁	b ^h uən	蒲奔	p ^h uən	뽕	뽕	분	분	p ^h ən ²
僕 ⁺	並			通合一入沃並全濁	b ^h uok	蒲沃	p ^h u	뽕 뽕	뽕	복	복	pu ²
篷	並			通合一平東並全濁	b ^h uŋ	薄紅	p ^h uŋ	뽕	뽕	봉		p ^h əŋ ²
培	並	之	b ^h uəŋ	蟹合一平灰並全濁	b ^h uAi	薄回	p ^h ui	뽕 평, 뽕	뽕	비	비, 부	p ^h ei ²

並母 즉, 『東國正韻』의 步母(뽕)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並母는 全濁 ‘뽕’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유성 양순 파열음 /b^h/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양순 파열음 /p/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並母를 全濁 ‘뽕(步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ㅂ’, ‘ㅍ’이 혼용된다.

<표22>에서 並母는 『東國正韻』의 步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뽕’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ㅂ’과 ‘ㅍ’이 혼용된다. <표22>에서 ‘뽕’은 『東國正韻』에서 ‘뽕’, 『四聲通解』에서는 ‘뽕’,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ㅍ’, 現音은 ‘ㅍ’이다. 漢語 中古音과

『中原音韻』의 聲母는 각각 /b^h/와 /p^h/로 나타난다. 近代音으로 대표되는 『中原音韻』에서는 中古音의 濁音이 淸音化되었는데, ‘𪚩’는 이러한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四聲通解』에서는 聲母가 各自並書 ‘𪚩’로 나타나 여전히 全濁字로 표기되어 있지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은 ‘과’로 나타나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5) ‘뽕(全濁)’

<표23> 奉母 * 『東國正韻』의 步母(𪚩)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阜	奉	幽	b ^h jōg	流開三上有奉全濁	b ^h ju	房久	fu	뽕	뽕	부	부	fu ⁴
房	奉	陽	b ^h juaŋ	宕開三平陽奉全濁	b ^h juaŋ	符方	fuaŋ	뽕	뽕	방	방	fan ²
夫	奉	魚	b ^h juaŋ	遇合三平虞奉全濁	b ^h juo	防無	fu	뽕, 뽕	뽕	부	부	fu ²
墳	奉	文	b ^h juən	臻合三平文奉全濁	b ^h juən	符分	fuən	뽕, 뽕	뽕	분	분	fən ²
墳 ⁺	奉	文	b ^h juən	臻合三上吻奉全濁	b ^h juən	房吻	fuən	뽕, 뽕	뽕	분	분	fən ⁴
服	奉	之	b ^h juək	通合三入屋奉全濁	b ^h juək	房六	fu	뽕, 뽕, 뽕	뽕	복	복	fu ²
帆	奉			咸合三平凡奉全濁	b ^h juəm	符芝	fan	뽕, 뽕	뽕	범		fan ¹
帆 ⁺	奉			咸合三去梵奉全濁	b ^h juəm	扶泛	fan	뽕, 뽕	뽕	범		fan ⁴

奉母 즉, 『東國正韻』의 步母(𪚩)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奉母는 全濁 ‘뽕’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유성 양순 파열음 /b^h/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순치 마찰음 /f/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奉母를 全濁 ‘𪚩(步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모두 ‘ㅍ’으로 나타난다.

<표23>에서 奉母는 『東國正韻』의 步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뽕’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ㅍ’으로 나타난다. <표23>에서 ‘帆’은 『東國正韻』에서 ‘뽕’, 『四聲通解』에서는 ‘뽕’, 『訓蒙字會』에서는 ‘범’, 現音은 ‘범’이다. 『中原音韻』에서는 /fan/으로 나타나 운미 /-m/이 /-n/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뽕’으로 표기했으며, 『訓蒙字會』와 現音도 終聲이 ‘ㅍ’으로 남아있다.

6) ‘口(不清不濁)’

<표24> 明母 * 『東國正韻』의 彌母(口)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母	明	之	muəŋ	流開一上厚明次濁	mu	莫厚	mu	·물 ·몽 ·뭉	무·부	모	무	mu ³
幕	明	魚	muak	宕開一入鐸明次濁	mak	慕各	muɔ	·막 ·먹 ·만	말	막	막	mu
蟒	明			宕開一上蕩明次濁	maŋ	模朗	muaŋ	·망	망	망	망	maŋ ³
沫 ⁺	明	祭	muad	蟹開一去泰明次濁	muai	莫貝	muɔ	·말	뭍	말	말	mo ⁴
茅	明	宵	mjɔŋ	效開二平肴明次濁	mau	莫交	mau	·물	말	모	모	mau ²
明	明	陽	mjuǎŋ	梗開三平庚明次濁	mjeŋ	武兵	miəŋ	·밍 ·명	밍	명	명	min ²
矛	明	幽	mjɔŋ	流開三平尤明次濁	mju	莫浮	məu	·물	뭍	모	무·俗 모	mau ²
面	明	元	mjuæn	山開三去線明次濁	mjæn	彌箭	miæn	·면	면	면	면	mian ⁴
滅	明	祭	mjuæt	山開三入薛明次濁	mjæt	亡列	mie	·멸	며	멸	멸	mie ⁴
蜜	明	脂	mjet	臻開三入質明次濁	mjet	彌畢	mi	·밀	미	밀	밀	mi ⁴
民	明	真	mjen	臻開三平真明次濁	mjen	彌鄰	miən	·민	민	민	민	min ²
苗	明	宵	mjɔŋ	效開三平宵明次濁	mjæu	武漣		·물	뭍	묘	묘	miau ²
迷	明	脂	mied	蟹開四平齊明次濁	miei	莫兮	mi	·멩	메	미	미	mi ²
每 ⁺	明	之	muəŋ	蟹合一上賄明次濁	muAi	武罪			뭍	미	미	mei ³
磨 ⁺	明	歌	mua	果合一平戈明次濁	mua	莫婆	muɔ	·망 ·앙	뭍	마	마	mo ²
磨	明	歌	mua	果合一去過明次濁	mua	摸臥	muɔ	·망 ·앙	뭍	마	마	mo ⁴
饅	明			山合一平桓明次濁	muan	母官	muɔn	·만	뭍	만	만	man ²
沫	明	祭	muat	山合一入末明次濁	muat	莫撥	muɔ	·말	뭍	말	말	mo ⁴
門	明	文	muən	臻合一平魂明次濁	muən	莫奔	muən	·문	문	문	문	mən ²
木	明	侯	mūk	通合一入屋明次濁	muk	莫卜	mu	·목	무	목	목	mu ⁴
每	明	之	muəŋ	蟹合一去隊明次濁	muAi	莫佩			뭍	미	미	mei ³
蠻	明	元	muan	山合二平刪明次濁	man	莫還	muan	·만	만	만	만	man ²
賣	明	佳	meg	蟹合二去卦明次濁	mæi	莫懈	mai	·맹 ·육	매	매	매	mai ⁴
夢 ⁺	明	蒸	mjuəŋ	通合三去送明次濁	mjuŋ	莫鳳	muŋ	·몽 ·뭉 ·뭱	뭉	몽	몽	məŋ ⁴
夢	明	蒸	mjuəŋ	通合三平東明次濁	mjuŋ	莫中	muŋ	·몽 ·뭉 ·뭱	뭉	몽	몽	məŋ ²

明母 즉, 『東國正韻』의 彌母(口)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明母는 不清不濁 ‘口’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양순 비음 /m/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明母를 不清不濁 ‘口(彌母)’으로 표기하며,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모두 ‘口’으로 나타난다.

<표24>에서 明母는 『東國正韻』의 彌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ㄹ’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ㄹ’으로 나타난다. <표24>에서 ‘慕’은 『東國正韻』에서 ‘막’, 『四聲通解』에서는 ‘망’,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막’, 現音은 ‘막’이다. ‘慕’은 『四聲通解』에서 ‘藥韻’에 속하는 글자로, 終聲이 ‘ㄹ’으로 표기되었다. 『中原音韻』에서 /muo/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中原音韻』에서는 입성이 소실되었지만, 『四聲通解』에서는 ‘藥韻’에 해당하는 글자의 終聲을 ‘ㄹ’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中原音韻』 편찬 당시 口語에서는 아직 남아있던 입성을 어떻게든 표기하려 했던 의도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⁶²⁾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막’으로 漢語 中古音이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다.

7) ‘ㄹ(不清不濁)’

<표25> 微母 * 『東國正韻』의 彌母(ㄹ)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網	微			宕開三上養微次濁	mjuan	文兩	uan	·망	망	망	망	uan ³
武	微	魚	mjuag	遇合三上夔微次濁	mjuo	文甫	uo	·몽	무	무	무	u ³
問	微	文	mjuən	臻合三去問微次濁	mjuən	亡運	uən	·문	문	문	문	uən ⁴

微母 즉, 『東國正韻』의 彌母(ㄹ)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微母는 不清不濁 ‘ㄹ’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순치 비음 /m/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순치 마찰음 /v/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ㄹ를 不清不濁 ‘ㄹ(彌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모두 ‘ㄹ’으로 나타난다.

넷째, ‘武’는 『四聲通解』에서 ‘무’로 나타난다. 聲母 ‘ㄹ’이 음가를 가지고 있던 聲母였다면 적어도 ‘w/u’는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韻母 ‘ㄱ’에 해당하는 ‘武(무)’를 전사하면 /uu/가 되므로, 聲母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微母는 대체로 /m/→/v/→/u/→/ø/의 발전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中原音韻』의 聲母가 ‘/v/’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62) 『中原音韻』 「正語作詞起例」에서 ‘呼吸言語之間還有入聲之別.(말을 할 때에는 아직 입성의 구별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약간의 학자들은 당시 북방음에 여전히 입성이 있었으며, 다만 [p], [t], [k] 세 종류의 운미가 이미 합류하여 후색음인 [ʔ]으로 변화했을 따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이재동, 『중국어 음운학』, 학교방, 2019, 229쪽.

『四聲通解』의 ‘무’는 聲母 ‘/ʋ/’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普通話의 聲母는 ‘/ø/’이다.

<표25>에서 微母는 『東國正韻』의 彌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무’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口’으로 나타난다. <표25>에서 ‘網’은 『東國正韻』에서 ‘망’, 『四聲通解』에서는 ‘망’,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망’, 現音은 ‘망’이다. ‘網’의 聲母는 漢語 中古音, 『中原音韻』, 普通話에서 각각 ‘/m/’, ‘/ʋ/’, ‘/ø/’로 대응된다. 이는 漢語 中古音의 微母가 『中原音韻』에서 唇齒音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普通話에서 零聲모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四聲通解』에서도 ‘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中原音韻』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망’으로 漢語 中古音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다.

4. 齒音

1) ‘ㄷ(全清)’

<표26> 精母(齒頭) *『東國正韻』의 卽母(ㄷ)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左 ⁺	精	歌	tsa	果開一去箇精全清	tsa	則箇	tsuo	·장 ·장	저	좌	자	tsuo ³
左 ⁺	精	歌	tsa	果開一上箇精全清	tsa	臧可	tsuo	·장 ·장	저	좌	자	tsuo ³
奏	精	侯	tsûg	流開一去候精全清	tsu	則候	tsəu	·중 ·중	중	주	주	tsou ⁴
葬	精	陽	tsaŋ	宕開一去宕精全清	tsaŋ	則浪	tsaŋ	·장	장	장	장	tsaŋ ⁴
簪 ⁺	精			*咸開一平覃精全清	tsəm	祖舍	tʂəm	·잠 ·잠	잠	·잠	·잠	tsan ¹
簪 ⁺	精	侵	tsəm	咸開一平覃精全清	tsAm	作舍	tʂəm	·잠 ·잠	잠	·잠	·잠	tsan ¹
啞 ⁺	精			咸開一入合精全清	tsAp	子荅	tsa		·자	·잡		tsa ¹
栽 ⁺	精			蟹開一平哈精全清	tsAi	祖才	tsai	·징 ·징	재	지	지	tsai ¹
早	精	幽	tsôg	效開一上皓精全清	tsau	子皓	tsau	·졸	·잘	조	조	tsau ³
脊	精	佳	tsjek	梗開三入昔精全清	tsjek	資昔	tsi	·적	·지	·척	·척	tɕi ³
井	精	耕	tsjer	梗開三上靜精全清	tsjer	子郢	tsiər	·정	·징	·정	·정	tɕiər ³
煎 ⁺	精	元	tsjæŋ	山開三平仙精全清	tsjæŋ	子仙	tsien	·전 ·전 ·전	·전	·전	·전	tɕian ¹
煎 ⁺	精	元	tsjæŋ	山開三去線精全清	tɕian ⁴	子賤	tsien	·전 ·전 ·전	·전	·전	·전	tɕian ¹
資	精	脂	tsjed	止開三平脂精全清	tsjei	即夷	tsi	·중	·즈	·즈	·즈	tsi ¹
津	精	真	tsjen	臻開三平真精全清	tsjen	將鄰	tsiən	·진	·진	·진	·진	tɕiən 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祭 ⁺	精	祭	tsæd	*蟹開三去祭精全清	tsiæi	子例	tsi	·쟁 ·쟁	제	제	제 채	tɕai ⁴
祭 ⁺	精	祭	tsjæd	蟹開三去祭精全清	tsjæi	子例	tsi	·쟁 ·쟁	제	제	제 채	tɕi ⁴
焦	精	宵	tsjɔŋ	效開三平宵精全清	tsjæu	即消	tsiau	·졸 ·졸	절	초	초	tɕiau ¹
樵 ⁺	精	宵	dz ^h ɔŋ	*效開三平宵精全清	tsiæu	茲消	tsiau	·졸	절	초	초	tɕ ^h iau ²
鑽 ⁺	精			山合一平桓精全清		借官	tsuɔŋ	·잔	권	찬	찬	tsuan ¹
鑽 ⁺	精	元	tsuan	山合一去換精全清	tsuan	子筭	tsuɔŋ	·잔	권	찬	찬	tsuan ⁴
租	精	魚	tsaŋ	遇合一平模精全清	tsuo	則吾	tsu	·중 ·중	주	조	조	tsu ¹
尊	精	文	tsuən	臻合一平魂精全清	tsuən	祖昆	tsuən	·존	준	존	존	tsuən ¹
卒 ⁺	精	微	tsuət	臻合一入沒精全清	tsuət	臧沒	tsu	·중 ·중 ·중 ·중	주 주 주 주	졸	졸 졸	tsu ²
宗	精			通合一平冬精全清	tsuɔŋ	作冬	tsuŋ	·중	중	중	중	tsuŋ ¹
鐮 ⁺	精	侯	tsük	通合一入屋精全清	tsuk	作木	ts'u	·죽	추	죽	죽	tsu ²
疽 ⁺	精	魚	ts ^h jaŋ	*遇合三上語精全清	tsiɔ	子與	tsiu	·정 ·정	쥬	저	저	tɕy ¹
醉	精	微	tsjuəd	止合三去至精全清	tsjuei	將遂	tsui	·징	꺠	:취	취	tseui ⁴
卒 ⁺	精	微	tsjuət	臻合三入術精全清	tsjuet	子聿	tsu	·중 ·중 ·중 ·중	주 주 주 주	졸	졸 졸	tsu ²
啞 ⁺	精			通合三入屋精全清	tsjuk	子六	tsa		자	잡		ts ^h u ⁴

精母 즉, 『東國正韻』의 卽母(ㄷ)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精母는 全清 ‘ㄷ’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치조 파찰음 /ts/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精母를 全清 ‘ㄷ(卽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에서도 精母를 대체로 ‘ㄷ’으로 표기하지만, ‘ㅈ’으로 표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董同龢는 漢語 中古音에서 齒頭音을 치조 파찰음 /ts/(精母)로 추정하고, 正齒 二等은 치조후 파찰음 /tʃ/(莊母)로, 正齒 三等은 치조 구개 파찰음 /tɕ/(照母)로 추정했다. 최세진은 『四聲通解』 범례에서 齒頭音을 /ts/로 추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正齒音은 /tɕ/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⁶³⁾ 최세진은 齒頭音을 普通話의 舌尖前音으로, 正齒音은 舌尖後音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⁶⁴⁾ 이는 한국어의 齒音이 齒頭音과 正齒音 사이에 있다고 설명한 것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한국어와 普通話의 齒音 사이의 관계가 설명

63) 무릇 齒音의 齒頭音은 혀를 올려 치아에 닿는 것이므로 그의 소리가 얇다. 正齒音은 혀를 말아 경구개에 닿는 것이므로 그의 소리가 깊다.

64) 한어의 齒頭音은 치경음이며, 正齒音은 경구개음이므로 조음 위치에서 이 둘은 서로 변별된다. 김무림, 『홍무정훈역훈』, 신구문화사, 2006, 35쪽.

된다.⁶⁵⁾

반면, 중국 한자음의 齒頭音과 正齒音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고 있는 『訓民正音』 「諺解本」⁶⁶⁾의 설명은 최세진과 상반된다. 「諺解本」에서는 齒頭音을 경구개 혹은 치조음으로 보고, 正齒音을 혀끝이 아랫잇몸에 닿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어의 舌尖前音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⁷⁾ 陸志韋도 15세기 북방음의 正齒音을 /tʃ/·/tɕ/, /tʃʰ/·/tɕʰ/, /ʃ/·/ɕ/, /ʒ/로 추정하는 것으로 보아, 齒頭音과 正齒音의 추정음에 대한 학자 간의 견해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⁶⁸⁾

『訓民正音』 「諺解本」의 설명은 正齒 三等에 관한 설명과 부합되는 것으로 齒頭와 正齒에 대한 구분의 기준을 中古音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최세진은 近代音을 기준으로 齒頭와 正齒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正齒 三等の 韻母는 /i-/ 계열로 舌尖後音의 발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四聲通解』는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齒頭音을 ‘ㄗ’으로 표기했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精母에 해당하는 초성은 대체로 ‘ㄗ’이지만, ‘脊(척)’, ‘焦(초)’, ‘鑽(찬)’, ‘醉(취)’에서 ‘ㄗ’으로 표기됐다.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는 精母가 일률적으로 全清‘ㄗ(ㄗ)’으로 표기되지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부(조)’, ‘척(脊)’ 등에서 全清과 次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국 한자음 위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6>에서 精母는 『東國正韻』의 卽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ㄗ(齒頭)’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ㄗ’과 ‘ㄗ’이 혼용된다. <표26>에서 ‘井’은 『東國正韻』에서 ‘정’, 『四聲通解』에서는 ‘징’,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정’, 現音은 ‘정’이다. ‘井’은 『中原音韻』에서 /tɕiɛŋ/으로, 普通話에서 /tɕiɛŋ/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聲母 /tɕ/가 개음

65) 우리나라의 齒音 ‘ㄗ·ㄗ·ㄗ’은 齒頭音과 正齒音의 사이에 있는데, 訓民正音에도 齒頭音과 正齒音의 구별이 없다. 지금 齒頭音은 ‘ㄗ·ㄗ·ㄗ’로 표기하고, 正齒音은 ‘ㄗ·ㄗ·ㄗ’로 표기하여 구분한다.

66) 현전하는 기록으로 齒頭音 ‘ㄗ·ㄗ·ㄗ’과 正齒音 ‘ㄗ·ㄗ·ㄗ’의 사용은 『洪武正韻譯訓』(1455)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으며, 『訓民正音』 「諺解本」(1459)에서는 치두음과 정치음에 대한 조음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7) 『訓民正音』 「解例本」에서는 齒頭音을 경구개 혹은 치조음으로 보고, 正齒音을 혀끝이 아랫잇몸에 닿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漢語의 舌尖前音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ㄗ ㄗ ㄗ ㄗ ㄗ 는 用於齒頭하고, 【이 소리는 우리 나라의 소리에서 없으니 혀끝이 윗니의 머리에 닿느니라.】 ㄗ ㄗ ㄗ ㄗ ㄗ 는 用於正齒하나니, 【이 소리는 우리 나라의 소리에서 두터우니 혀끝이 아랫잇몸에 닿느니라.】 나찬연, 『月印釋譜 序』, 경진, 2018, 68쪽.

68) 陸氏는 15세기 북방음의 正齒音을 /tʃ·tɕ, tʃʰ·tɕʰ, ʃ·ɕ, ʒ/로 추정했는데, 董氏는 /tʃ(枝), tʃʰ(春), ʃ(上), ʒ(人)로만 보고 있다. 강신향, 『四聲通解 研究』, 신아사, 1980, 46쪽.

照母 즉, 『東國正韻』의 卽母(ㄷ)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照母는 全淸 ‘ㄷ’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 추정음은 正齒 二等에서 치조후 파찰음 /tʃ/(莊母)으로, 正齒 三等에서 치조 구개 파찰음 /tɕ/(章母)이다. 『中原音韻』에서 正齒 二等은 경구개 파찰음 /tʃ/(莊母)으로, 正齒 三等은 치조후 파찰음 /tʃ/(章母)로 추정된다.

셋째, 『四聲通解』에서는 舌上音이 正齒音으로 합류됐다.⁷¹⁾ 『東國正韻』에서는 齒音과 舌音의 표기가 명확하여 舌上音이 ‘ㄷ’으로 표기되지만, 『四聲通解』에서는 齒音 표기를 위한 ‘ㄷ’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어음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표기에서 舌音의 파열음과 舌音의 파찰음의 구분을 하고자 한 것인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訓蒙字會』에서도 齒音 照母는 ‘사(詐)’를 제외하고, ‘ㄷ’, ‘ㄷ’으로 표기되고 舌上音 知母는 『東國正韻』과 마찬가지로 ‘ㄷ’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訓蒙字會』까지는 七音이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四聲通解』의 舌上音 知母는 正齒音 照母’로 합류되었고, ‘ㄷ’으로 표기된다. 『全韻玉篇』에서도 舌上音은 ‘ㄷ’이 아닌 ‘ㄷ’으로 표기되고 있다. 『四聲通解』와 『全韻玉篇』에서 『中原音韻』에서 반영하고 있는 어음의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것이 실제 한자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표기에서 七音에 국한되지 않은 舌音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찰음을 齒音으로 표기한 것은 아닌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69) 『全韻玉篇』의 俗音字 수는 620여 字로, 『三韻聲彙』, 『奎章全韻』에서 한국 한자음을 전적으로 정칙음만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이 한자음에 대하여 ‘X正Y’ 또는 ‘X俗Y’로 당시의 통용음을 표시하였다. 여기에서 ‘俗’이나 ‘正’의 구별은 俗音으로서의 차이보다 교정음으로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 正·俗音을 동시에 표시한 字는 ‘俗’으로 사용하고, 『三韻聲彙』, 『奎章全韻』에서 교정한 음이 『華東正音通釋韻考』와 다를 때 ‘正’으로 나타났다. 이에 正音을 정칙음으로, 俗音을 통용음 또는 관용음으로 칭하기도 한다. 이돈주, 『『全韻玉篇』의 正·俗漢字音에 대한 연구』, 『국어학』 30, 국어학회, 1997, 4쪽.

70) ‘忠’에 대해서 ‘正音體系에서 忠(‘충’)·旨(‘지’)·鼠(‘슈’)와 같은 예에서는 중성에 모두 介音 /-i-/ 혹은 元音 /i/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四聲通解』에서 忠 ‘중’의 俗音은 ‘중’이고, 旨 ‘지’의 俗音은 ‘중’이며, 春 ‘충’의 今俗音은 ‘충’으로 표기하였다. 원래 존재하던 介音 /-i-/ 혹은 元音 /i/가 사라져서 洪音化 되었음을 나타낸다.’는 견해도 있다. 한가준, 『崔世珍의 『四聲通解』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4쪽.

71) 〈四聲通攷凡例〉 제3조는 知照合流에 대한 설명이다. 즉 中古 三十六字母에서 舌上音 知·徹·澄과 正齒音 照·穿·牀이 합류되었다. 그리고 孃母는 泥母와 합류되었다. 申叔舟는 舌上音의 발음방법이 어려워서 점차 正齒音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舌上音 知·徹·澄과 正齒音 照·穿·牀의 발음위치는 모두 舌面前(alveolo p.alatal)이다. 또한 발음방법에 있어서 知·徹·澄은 擦音(fricative)이고, 照·穿·牀은 塞擦音(affricate)이다. 발음위치가 같고 발음방법이 가까워서 합류된 것이다. 신숙주의 발음 분석내용에서 이미 발음방법의 차이가 언급되고 있다. 한가준, 『崔世珍의 『四聲通解』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41쪽.

넷째, 『四聲通解』에서는 舌上音이 正齒音으로 합류되었는데, 『東國正韻』, 『訓蒙字會』는 舌音과 齒音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四聲通解』에서 이미 舌上音이 正齒音으로 합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저자의 저서인 『訓蒙字會』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섯째, 『訓蒙字會』에서 구개음화가 발생하는 조건인 ‘ㄹ(珍:딘)’, ‘ㄷ(朝:도)’, ‘ㅈ(柱:듀)’에서는 舌音 ‘ㄷ’으로 표기하고⁷²⁾, 구개음화가 발생하는 조건이 아닌 ‘과(槌:좌)’에서는 齒音 ‘ㅈ’으로 표기된다. 舌上音은 청취 측면에서 齒音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漢語 中古音의 七音은 조음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만, 조음 방식과 관련해서는 全清·次清·全濁·次濁이 전해주는 음색을 제외하고,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舌音의 조음 방식을 破열음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破찰음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舌上音과 齒音의 청취 측면의 차이는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변별 자질은 아니다. 즉, 舌音의 ‘ㄷ’을 ‘ㅈ’으로 표기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는 漢語 中古音의 七音에서 벗어나 음소문자가 지닌 음운 자질로써 한자음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섯째, 『全韻玉篇』에서는 舌上音 ‘ㄷ’이 일률적으로 ‘ㅈ’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ㄷ’과 ‘ㅈ’의 표기의 통일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齶(잔)’, ‘皺(추)’ 등에서 全清 ‘ㅈ’과 次清 ‘ㅊ’⁷³⁾이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全清과 次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27>에서 照母는 『東國正韻』의 卽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ㄱ(正齒)’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에서는 ‘ㄷ’, ‘ㅈ’, ‘ㅊ’이, 『全韻玉篇』에서는 ‘ㅈ’, ‘ㅊ’이 혼용된다. <표27>에서 ‘中’은 『東國正韻』에서 ‘똥’, 『四聲通解』에서는 ‘중俗중’, 『訓蒙字會』에서는 ‘똥’, 『全韻玉篇』에서는 ‘중’, 現音은 ‘중’이다. 『四聲通解』에서는 舌上音 知母가 正齒音 照母에 합류되었는데, 『東國正韻』과 『訓蒙字會』에서는 舌上音 知母를 ‘ㄷ’으로 표기하여 齒音과 구분되어 있다. 『全韻

72)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이 발간되어 표기법을 규정하기 전에 우리 언어생활 및 한자음에서 ‘ㄷ’은 단일 음소가 아니었다. 1937년 발간된 『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2장 성음에 관한 것, 제3절 구개음화, 제5항에서 “한글의 자모는 다 제 음가대로 읽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다, 더, 도,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로나, ‘타, 터, 토,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 더, 도,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로 읽었고, ‘타, 터, 토,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었다는 뜻이다.

73)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는 淸音과 濁音을 구분하지 않아 全淸과 次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지만, 본고에서는 漢語 中古音 혹은 『東國正韻』의 淸濁과의 비교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다.

玉篇』에서는 ‘중’으로 나타나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四聲通解』의 正音은 ‘중’, 俗音은 ‘중’으로, 『中原音韻』의 /tʃiung/ 및 普通話의 /tʃuŋ/과 대응된다. 이는 近代音에서 개음 /i-/가 탈락되어 普通話에서 洪音化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次(次清)’

<표28> 淸母(齒頭) *『東國正韻』의 侵母(次)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搓	淸			果開一平歌淸次淸	ts ^h a	七何	ts ^h uo	창	처	차	차	ts ^h uo ¹
錯 ⁺	淸	魚	ts ^h ak	宕開一入鐸淸次淸	ts ^h ak	倉各	ts ^h u	·착 ·총	추	착	조, 착	ts ^h u ⁴
錯 ⁺	淸	魚	ts ^h ak	宕開一入鐸淸次淸	ts ^h ak	倉各	ts ^h u	·착 ·총	찰	착	조, 착	ts ^h u ⁴
倉	淸	陽	ts ^h an	宕開一平唐淸次淸	ts ^h an	七岡	ts ^h an	창 ·창	창	창	창	ts ^h an ¹
菜	淸	之	ts ^h əŋ	蟹開一去代淸次淸	ts ^h ai	倉代	ts ^h ai	·칭	채	치	치	ts ^h ai ⁴
草	淸	幽	s ^h ōŋ	效開一上皓淸次淸	ts ^h au	采老	ts ^h au	·출	찰	초	초	ts ^h au ³
腩	淸			流開一去候淸次淸	ts ^h u	倉奏		·출	출	주	주	ts ^h ou ⁴
寢	淸	侵	ts ^h jəm	深開三上寢淸次淸	ts ^h jəm	七稔	ts ^h iəm	침 ·침	침	침	침	tɕ ^h in ³
緝	淸	緝	ts ^h jəp	深開三入緝淸次淸	ts ^h jəp	七入		·침	치	즙	즙	tɕi ¹
疽 ⁺	淸	魚	ts ^h jag	遇開三平魚淸次淸	ts ^h jo	七余	tsiu	·정 ·청	쥬	저	저	tɕy ¹
雌	淸	佳	ts ^h jeg	止開三平支淸次淸	ts ^h je	此移	tsi	·총	츠	즈	즈	ts ^h ɿ ²
七	淸	脂	ts ^h jet	臻開三入質淸次淸	ts ^h jet	親吉	ts ^h i	·칭	치	칠	칠	tɕ ^h i ¹
親 ⁺	淸			臻開三去震淸次淸	ts ^h jən	七遴	ts ^h iən	·침 ·진	친	친	친	tɕ ^h in ⁴
親 ⁺	淸	真	ts ^h jən	臻開三平真淸次淸	ts ^h jən	七人	ts ^h iən	·침 ·진	친	친	친	tɕ ^h in ¹
籤	淸	談	ts ^h jəm	咸開三平鹽淸次淸	ts ^h jəm	七廉	ts ^h iəm	·침	침	침	침	tɕ ^h ian ¹
千	淸	真	ts ^h ien	山開四平先淸次淸	ts ^h ien	蒼先	ts ^h ien	·천	천	천	천	tɕ ^h ian ¹
妻 ⁺	淸			蟹開四去霽淸次淸	tɕ ^h i ⁴	七計	ts ^h i	·칭 ·칭	체	처	처	tɕ ^h i ¹
妻 ⁺	淸	脂	ts ^h ied	蟹開四平齊淸次淸	ts ^h iei	七稽	ts ^h i	·칭 ·칭	체	처	처	tɕ ^h i ¹
錯 ⁺	淸	魚	ts ^h ag	遇合一去暮淸次淸	ts ^h uo	倉故	ts ^h u	·착 ·총	추	착	조, 착	ts ^h u ⁴
錯 ⁺	淸	魚	ts ^h ag	遇合一去暮淸次淸	ts ^h uo	倉故	ts ^h u	·착 ·총	찰	착	조, 착	ts ^h u ⁴
卒 ⁺	淸	微	ts ^h uət	臻合一入沒淸次淸	ts ^h uət	倉沒	tsu	·중 ·중 ·중 ·중	주 주 쥬	졸	졸, 졸	ts ^h u ⁴
寸	淸	文	ts ^h uən	臻合一去恩淸次淸	ts ^h uən	倉困	ts ^h uən	·춘	춘	춘	춘	ts ^h uən ⁴
鐵 ⁺	淸			通合一入屋淸次淸	ts ^h uk	千木	ts ^h u	·죽	추	족	족	tsu ²
葱	淸	東	ts ^h ūŋ	通合一平東淸次淸	ts ^h uŋ	倉紅	ts ^h uŋ		충	충		ts ^h uŋ ¹
娶 ⁺	淸	侯	ts ^h jug	遇合三去遇淸次淸	ts ^h juo	七句	ts ^h iu	·중	쥬	취	취	tɕ ^h y ³
翠	淸	微	ts ^h juəd	止合三去至淸次淸	ts ^h juei	七醉	ts ^h ui	·형	취	취	취	ts ^h uei ⁴

淸母 즉, 『東國正韻』의 侵母(ㄷ)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淸母는 次淸 ‘ㄷ’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치조 파찰음 /tʂ/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次淸 ‘ㄷ(侵母)’으로 표기되고, 『四聲通解』에서는 齒頭와 正齒를 구분하기 위해, 齒頭音을 ‘ㄷ’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腴(주), ‘倉(창)’ 등에서 全淸 ‘ㄷ’과 次淸 ‘ㄷ’이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全淸과 次淸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표28>에서 淸母는 『東國正韻』의 侵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ㄷ(齒頭)’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ㄷ’, ‘ㄷ’이 혼용된다. <표28>에서 ‘錯’은 『東國正韻』에서 ‘착, 충’, 『四聲通解』에서는 ‘추’, 『訓蒙字會』에서는 ‘착’, 『全韻玉篇』에서는 ‘착, 조’, 現音은 ‘착, 조’이다. ‘錯’은 漢語 中古音에서 開口韻과 合口韻의 글자가 모두 존재하는데, 『東國正韻』에서 開口韻은 ‘착’으로, 合口韻은 ‘충’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訓蒙字會』는 『東國正韻』의 ‘착’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반영했고, 『全韻玉篇』에서는 ‘착’과 ‘조’를 모두 반영했다. 『中原音韻』에서는 合口韻에 해당하는 음을 반영하여 /tʂu/로 나타나고, 『四聲通解』와 普通話에서도 이를 따라서 ‘추’와 /tʂu/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29> 穿母(正齒) *『東國正韻』의 侵母(ㄷ)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又 ⁺	初	歌	ts ^h a	假開二平麻初次淸	tʃ ^h a	初牙	tʂ ^h a	창	채	차	채 차	tʂ ^h a ¹
杈 ⁺	初	歌	ts ^h a	假開二平麻初次淸	tʃ ^h a	初牙		창	차	차	차	tʂ ^h a ¹
杈 ⁺	初			蟹開二去卦初次淸	tʃ ^h æi	楚懈		창	차	차	차	tʂ ^h a ¹
又 ⁺	初			蟹開二平佳初次淸	tʃ ^h æi	楚佳	tʂ ^h a	창	채	차	채 차	tʂ ^h ai ¹
礎	初			遇開三上語初次淸	tʃ ^h jo	創舉	tʂ ^h u	:총	추	초	초	tʂ ^h u ³
輜 ⁺	初			止開三平之初次淸	tʃ ^h i	楚持			즈	칙	칙	ts ^h i ¹
襯	初	真	ts ^h en	臻開三去震初次淸	tʃ ^h jen	初覲		:촌	촌	친	촌	tʂ ^h ən ⁴
菟	初			*遇合三平虞初次淸	tʃ ^h io	兪俞			츄	추		tʂu ²
尺	昌			梗開三入昔昌次淸	tʂ ^h jek	昌石	tʂ ^h i	:척	치	척	척	tʂ ^h i ³
處 ⁺	昌	魚	ch ^h jag	遇開三去御昌次淸	tʂ ^h u ⁴	昌據	tʂ ^h iu	:청 :청	츄	처	처	tʂ ^h u ³
處 ⁺	昌	魚	ch ^h jag	遇開三上語昌次淸	tʂ ^h jo	昌與	tʂ ^h iu	:청 :청	츄	처	처	tʂ ^h u ³
齒	昌	之	tʃ ^h jæg	止開三上止昌次淸	tʂ ^h i	昌里	tʂ ^h i	:칭	치 今俗 츄	치	치	tʂ ^h i ³
眇	昌			效開三上小昌次淸	tʂ ^h jæu	尺沼		:츄	철	쇼	쇼	tʂ ^h au ³
吹 ⁺	昌	歌	tʃ ^h jua	止合三平支昌次淸	tʂ ^h jue	昌垂	tʂ ^h ui	칭	취	쥬	쥬	tʂ ^h uei 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吹 ⁴	昌	歌	tʰjua	止合三去寘昌次清	tcʰjue	尺偽	tʂʰui	칭 칭	취	츄	취	tʂʰuei ⁴
冲	昌	東	tʰjun	通合三平鍾昌次清	tʂʰjuon	尺容	tʂʰiun	똥	충	퉁	츄	tʂʰun ¹
攄	徹	耕	tʰjeŋ	梗開三平清徹次清	tʰjeŋ	丑貞	tʂʰiəŋ	텅	칭	뎡	정	tʂʰəŋ ¹

穿母 즉, 『東國正韻』의 侵母(ㄷ)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穿母는 次清 ‘ㄷ’으로 표기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正齒 二等에서 치조후 파찰음 /tʰ/ (初母)로, 正齒 三等에서 치조후 파찰음 /tcʰ/ (昌母)이다. 『中原音韻』에서 正齒音은 경구개 파찰음 /tʂʰ/ (初母, 昌母)이 된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穿母 ‘ㄷ(侵母)’으로 표기되고, 『四聲通解』에서는 齒頭와 正齒를 구분하기 위해, 正齒音을 ‘ㄷ’으로 표기한다. 『全韻玉篇』에서는 ‘攄(정)’, ‘冲(츄)’ 등에서 全清 ‘ㄷ’과 次清 ‘ㄷ’이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全清과 次清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四聲通解』에서는 舌上音이 正齒音으로 합류되었는데, 『東國正韻』, 『訓蒙字會』는 舌音과 齒音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표29>에서 徹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攄’으로, 舌上音 徹母가 正齒音으로 합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攄(徹母)’는 『東國正韻』에서 次清 ‘ㄷ(吞母)’으로 표기되지만, 『訓蒙字會』에서는 ‘ㄷ’으로 표기된다. 『全韻玉篇』에서는 ‘ㄷ’이 ‘ㄷ’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攄(徹母)’의 초성은 ‘ㄷ’으로 표기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ㄷ’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에서부터 全清과 次清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漢語 中古音의 全清과 次清은 한국 한자음에서 변별 자질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29>에서 穿母는 『東國正韻』의 侵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ㄷ(正齒)’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ㄷ’, ‘ㄷ’이 혼용된다. <표29>에서 ‘冲’은 『東國正韻』에서 ‘똥’, 『四聲通解』에서는 ‘충’, 『訓蒙字會』에서는 ‘퉁’, 『全韻玉篇』에서는 ‘츄’, 現音은 ‘츄’이다. ‘冲’은 漢語 中古音에서 昌母에 속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東國正韻』에서 舌上音 표기 방식인 ‘똥’으로 나타난다. 『中原音韻』에서 知系는 결합하는 韻母가 二等이나 三等이나에 따라 각각 照二系나 照三系와 같이 분류되었는데⁷⁴), 『東國正韻』에서부터 三等에 속하는 ‘冲’이 知

系の 음과 혼동되어 ‘ㄷ’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訓蒙字會』에서는 ‘똥’으로 나타나지만, 『全韻玉篇』에서는 구개음화 되어 ‘측’으로 나타난다. 『中原音韻』에서는 /tʂʰiun/으로 나타나는데, 『四聲通解』는 /tʂʰiun/에서 개음 /i-/이 탈락한 음을 반영한 ‘측’으로, 普通話 /tʂʰun/과 대응된다.

3) ‘ㄷ(全濁)’

<표30> 從母(齒頭) *『東國正韻』의 慈母(ㄷ, ㄷ)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昨	從	魚	dzʰak	宕開一入鐸從全濁	dzʰak	在各		·작	작	작	작	tsuo²
才	從	之	dzʰəŋ	蟹開一平哈從全濁	dzʰAi	昨哉	tsʰai	징	제	지	지	tsʰai²
裁 ⁺	從	之	dzʰəŋ	蟹開一平代從全濁	dzʰAi	昨代	tsai	징, 징	제	지	지	tsai⁴
曹	從	幽	dzʰoŋ	效開一平豪從全濁	dzʰau	昨勞	tsʰau	줄	작	조	조	tsʰau
情	從	耕	dzʰjeŋ	梗開三平清從全濁	dzʰjeŋ	疾盈	tsʰieŋ	정	정	정	정	tɕʰieŋ²
齏 ⁺	從			深開三平侵從全濁	dzʰjem	昨淫	siəm	쌈, 껌	쌈	심	심	cin²
集	從	緝	dzʰjəp	深開三入緝從全濁	dzʰjep	秦入	tsi	·집	찌	·집	집	tɕi²
自	從	脂	dzʰjed	止開三去至從全濁	dzʰjei	疾二	tsi	·중	즈	·집	·집	tsi⁴
臻	從			臻開三平真從全濁	dzʰjen	匠鄰		진	진	진	진	tɕʰieŋ²
疾	從	脂	dzʰjet	臻開三入質從全濁	dzʰjet	秦悉	tsi	·집	찌	질	질	tɕi²
潛 ⁺	從			咸開三去豔從全濁	dzʰjæm	慈豔	tsʰiɛm	뻬	뻬	즘	침, 正, 즘	tɕʰian²
齏 ⁺	從			咸開三平鹽從全濁	dzʰjæm	昨鹽	siəm	쌈, 껌	쌈	심	심	tɕʰieŋ²
潛 ⁺	從	侵	dzʰjəm	咸開三平鹽從全濁	dzʰjæm	昨鹽	tsʰiɛm	뻬	뻬	즘	침, 正, 즘	tɕʰian²
樵	從	宵	dzʰjoŋ	效開三平宵從全濁	dzʰjæu	昨焦	siəm	줄	절	쵸	쵸	tɕʰiau²
前	從	元	dzʰiæn	山開四平先從全濁	dzʰiɛn	昨先	tsʰiɛn	·전, 前	전	전	전	tɕʰian²
臍	從	脂	dzʰied	蟹開四平齊從全濁	dzʰiei	徂奚	tsʰi	뻬	제	제	제	tɕʰi³
坐 ⁺	從	歌	dzʰua	果合一上果從全濁	dzʰua	徂果	tsuo	·짱, 짱	쥬	좌	좌	tsuo⁴
坐 ⁺	從	歌	dzʰua	果合一去過從全濁	dzʰua	徂臥	tsuo	·짱, 짱	쥬	좌	좌	tsuo⁴
蹲	從	文	dzʰuən	臻合一平魂從全濁	dzʰuən	徂尊	tsʰuən	쥬, 尊, 춘	쥬, 尊	준	준	tuən¹
叢	從	東	dzʰuŋ	通合一平東從全濁	dzʰuŋ	徂紅	tsʰuŋ	중	중	총		tsʰuŋ²
族	從	侯	dzʰuk	通合一入屋從全濁	dzʰuk	昨木	tsu	·쪽, 출	쥬	족	족, 주	tsu²
罪	從	微	dzʰuəd	蟹合一上賄從全濁	dzʰuAi	徂賄	tsui		쥬	죄	죄	tsuei⁴

74) 예를 들면 章계 聲母 글자 眞과 中계 3등운자인 知계 聲母 글자 珍이 같은 동음자군에 수록되어 있고, 莊계 聲母 글자 鍾과 中계 2등운자인 知계 聲母 글자 撐이 같은 동음자군에 수록되어 있다.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4, 183쪽.

從母 즉, 『東國正韻』의 慈母(ㄷ, ㅈ)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從母는 全濁 ‘ㄷ’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齒頭音에서 치조 파찰음 /dzʰ/(從母), 『中原音韻』에서는 치조 파찰음 /tsʰ/(從母)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全濁 從母를 各自並書인 ‘ㄷ(慈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에서는 全淸과 全濁의 구분 없이 ‘ㄷ’으로 표기되고, 이는 『全韻玉篇』에서도 동일하다.

넷째,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의 글자 ‘樵(초)’에서 次淸 ‘ㄷ’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 全淸과 次淸의 혼용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昨(작)’, ‘樵(초)’ 등에서 全淸과 次淸의 혼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 ‘全淸·次淸·全濁·次濁’으로 구분되는 표기의 통일을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다.

<표30>에서 ‘潛’은 『東國正韻』에서 ‘潛’, 『四聲通解』에서는 ‘潛’, 『訓蒙字會』에서는 ‘잠’, 『全韻玉篇』에서는 ‘침正잠’, 現音은 ‘잠’이다. 『東國正韻』과 『四聲通解』는 漢語 中古音의 /dzɥəm/를 따르며,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의 俗音은 ‘잠’으로 나타나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全韻玉篇』의 正音은 ‘침’으로 나타나는데, 『中原音韻』이 /tsʰiem/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全韻玉篇』의 正音은 『中原音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普通話는 『中原音韻』의 聲母 /tsʰ/가 개음 /i-/의 영향으로 변화된 /tɕʰ/로 나타난다.

3) ‘ㄷ(全濁)’

<표31> 牀母(正齒) *『東國正韻』의 慈母(ㄷ, ㅈ)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寨 ⁺	崇			蟹開二去夬崇全濁	dʒ ^h ai	豺夬	tʂai	· 슴	제	채	치	tʂai ⁴
巢 ⁺	崇			效開二去效崇全濁	dʒ ^h au	七稍	tʂ ^h au	: 증 : 슴	잘	소	초正소	tʂ ^h au ⁴
巢 ⁺	崇	宵	dz ^h ɔŋ	效開二平肴崇全濁	dʒ ^h au	鉏交	tʂ ^h au	: 증 : 슴	잘	소	초正소	tʂ ^h au ²
鋤	崇			遇開三平魚崇全濁	dʒ ^h jo	士魚	tʂ ^h u	중	췌	서	조俗서	tʂ ^h u ²
榛 ⁺	崇			*臻開三平臻崇全濁	dʒien	鋤臻	tʂən	즌 : 슴	췌 : 슴	진	진	tʂən ¹
饌 ⁺	崇			山合二上淸崇全濁	dʒ ^h uan	雛皖	tʂuan	: 잔 : 슴	잔 : 슴	찬	찬 천	tʂuan ⁴
饌 ⁺	崇			山合三去線崇全濁	dʒ ^h uæn	七戀	tʂuan	: 잔	잔	찬	찬 천	tʂuan ⁴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 贊 · 禪	今俗 禪			
茶 ⁷⁵⁾	澄	魚	d ^h äg	假開二平麻澄全濁	d ^h a	宅加	tʂ ^h a	망	자	다	차 다	tʂ ^h a ²
塵	澄	元	d ^h jæn	山開三平仙澄全濁	d ^h jæn	直連	tʂ ^h iɛn	면	ㅈ	던	전	tʂ ^h an ²
直	澄	之	d ^h jək	曾開三入職澄全濁	d ^h jək	除力	tʂi	· 眞 · 眞	ㅈ	딕	직 치	tʂi ²
稚	澄			止開三去至澄全濁	d ^h jei	直利	tʂi	· 眞	ㅈ	티	치	tʂi ⁴
姪 ⁺	澄	脂	d ^h jet	臻開三入質澄全濁	d ^h jet	直一	tʂi	· 眞 · 眞	ㅈ	딜	질 덜	tʂi ²
朝 ⁺	澄	宵	d ^h jɔg	效開三平宵澄全濁	d ^h jæu	直遙	tʂiau	· 眞 · 眞	ㅈ	도	조	tʂ ^h au ²
柱 ⁺	澄	侯	d ^h jug	遇合三上麌澄全濁	d ^h juo	直主	tʂiu	· 眞 · 眞 · 眞	ㅈ	듀	쥬	tʂu ⁴
鍾 ⁺	澄	歌	d ^h jua	止合三平支澄全濁	d ^h jue	直垂		· 眞 · 眞 · 眞 · 眞	ㅈ	튜	쥬	tʂ ^h uei ²
鍾 ⁺	澄	歌	d ^h jua	止合三去真澄全濁	d ^h jue	馳偽		· 眞 · 眞 · 眞 · 眞	ㅈ	튜	쥬	tʂ ^h uei ²
蟲 ⁺	澄			通合三去送澄全濁	d ^h jun	直眾	tʂ ^h iun	· 眞 · 眞	중 중 중	툽	츄	tʂun ⁴
蟲 ⁺	澄	中	d ^h joŋ	通合三平東澄全濁	d ^h jun	直弓	tʂ ^h iun	· 眞 · 眞	중 중 중	툽	츄	tʂ ^h un ²
逐 ⁷⁶⁾	澄			通合三入屋澄全濁	d ^h juk	直六	tʂiu	· 眞 · 眞	중 중 중	툽	츄, 덕	tʂu ²

澄母 즉, 『東國正韻』의 慈母(ㅈ,ㅉ)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牀母는 全濁 ‘ㅉ’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치조후 파찰음 /dʒ^h/ (崇母)이고, 『中原音韻』에서는 경구개 파찰음 /tʂ^h/ (崇母)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 崇母는 일반적으로 ‘ㅉ’, ‘ㅉ’으로 표기되지만, ‘寒(승)’, ‘榛(쥬)’과 ‘饌(찬)’의 又音에서는 ‘ㅉ’, ‘ㅉ’으로 표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巢’는 『東國正韻』에서는 ‘쥬, 쥬’로, 『全韻玉篇』에서는 ‘초正소’로 발음된다. 『東國正韻』의 ‘쥬’는 『全韻玉篇』의 ‘초’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全韻玉篇』에서 全淸과 次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

75) ‘茶’에 대해서 ‘舌上音 澄母에 속하는데, 澄母가 正齒音 牀母에 합류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는 견해도 있다. 김무림, 『『四聲通解』 字母圖에 대한 考察』, 『어문논집』 70, 민족어문학회, 2014, 19쪽.

76) ‘逐’에 대해서 『四聲通解』에서 『廣韻』의 澄母는 牀母에 합류되었다. 『廣韻』 澄母字 ‘逐’은 『四聲通解』의 正音體系에서 牀母의 표기음 ‘ㅉ’으로 표기하였으나, 又音에서 照母 표기음 ‘ㅉ’으로 표기하였다. 『廣韻』 澄母字 ‘軸’, ‘妯’은 『四聲通解』의 正音體系에서 牀母의 표기음 ‘ㅉ’으로 표기하였으나 今俗音에서 照母의 표기음 ‘ㅉ’으로 표기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한가준, 『崔世珍의 『四聲通解』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1쪽.

은 점을 감안할 때, ‘:중, 쑹’와 ‘:초, 소’는 각각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넷째, 牀母, 神母는 漢語 中古音에서 枋찰음으로 추정되지만, 『東國正韻』에서 牀母는 ‘:짜, ㅍ’으로 나뉘어 읽히고, 神母는 ‘:ㅍ’으로 읽힌다.⁷⁷⁾ 『東國正韻』에서 漢語 中古音의 齒音(齒頭(從母), 正齒 二等(牀母), 正齒 三等(神母))의 대표 자모로 ‘:짜(慈母)’을 선택하면서도 해당 한자의 反切上字에서 ‘:짜’와 ‘:ㅍ’이 교차되어 표기되는 이유로 牀母는 二等字로 개구도가 크고, 神母는 三等字로 韻母가 /i-/에 가까워 枋찰음을 내기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漢語 中古音에서 普通話로의 한자음의 변화 양상⁷⁸⁾을 살펴봤을 때도 牀母에서 /tʂ/(鋤:쑹)와 /ʂ/(巢:쑹)이 모두 드러난다. 평성일 경우에는 /tʂ/(鋤:쑹)로 발음되고, 측성인 경우에는 /tʂ/(鋤:쑹)와 /ʂ/(巢:쑹)이 모두 드러난다. 따라서 牀母에서 두 자모가 모두 드러나 枋찰음과 枋찰음이 혼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東國正韻』에서 舌音의 全濁字는 일률적으로 ‘:ㄸ(覃母)’으로 표기되지만, 『四聲通解』에서 舌上音에 속하는 ‘澄母’가 正齒音 ‘牀母’로 합류되어 ‘:짜’으로 표기하고 있다. 『訓蒙字會』에서는 『東國正韻』과 마찬가지로 ‘澄母’를 舌音으로 표기하지만, 各自並書 ‘:ㄸ’이

77) 30페이지의 ‘中古 漢語 41聲母와 관련 韻書 聲母 대조표’ 참조.

78) 이 표는 董同龢 著, 宮澤武 譯, 『漢語音韻學』, 汎學圖書, 1975, 218-219쪽에서 발췌한 것으로, 中古音에서 普通話로의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全清	次清	全濁		次濁	全清(擦)	全濁(擦)	
				平	仄			平	仄
重唇		幫 p	滂 p'	並 p'	p	明 m			
輕唇		非 f	敷 f	奉 f		微 ø(u)			
舌頭(娘併入,來附)		端 t	透 t'	定 t'	t	泥(娘)n 來 l			
舌上	梗入二等讀音	知 ts	徹 ts'		ts				
	其他	知 tʂ	徹 tʂ'	澄 tʂ'	tʂ				
齒頭	洪音	精 ts	清 ts'	從 ts'	ts	心 s	邪 ts',s	s	
	細音	精 tɕ	清 tɕ'	從 tɕ'	tɕ	心 ɕ	邪 tɕ',ɕ	ɕ	
正齒附半齒	莊系	深及梗曾通入	莊 ts	初 ts'	崇 ts	生 s	俟		
		其他	莊 tʂ	初 tʂ'	崇 tʂ'	tʂ,s	生 ʂ	俟	s
	章系	止開	章 tʂ	昌 tʂ'	船 tʂ',s	s	日 ø	書 s	禪 tʂ',s
牙曉移此	開口	洪音	見 k	溪 k'		疑 ø	曉 x	匣 x	
		三等	見 tɕ	溪 tɕ'	羣 tɕ'	tɕ	疑 n,ø(i)	曉 ɕ	匣 ɕ
	其他	見 tɕ	溪 tɕ'			疑 ø(i)	曉 ɕ	匣 ɕ	
合口	洪音	見 k	溪 k'	羣 k'	k	疑 ø(u)	曉 x	匣 x	
	細音	見 tɕ	溪 tɕ'	羣 tɕ'	tɕ	疑 ø(y)	曉 ɕ	匣 ɕ	
喉	開口	洪音	影 ø						
		細音	影 ø(i)				云,以 ø()		
	合口	洪音	影 ø(u)				云,以 ø(u)		
		細音	影 ø(y)				云,以 ø(y)		

아닌 ‘ㄷ’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訓蒙字會』에서 全淸과 全濁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全韻玉篇』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된 한자음과 적용되지 않은 한자음의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구개음화가 적용된 한자음은 二·三等에 속하는 舌上音이고,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한자음은 一·四等に 속하는 舌頭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全韻玉篇』에서 이미 구개음화가 적용된 한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예시 글자들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全韻玉篇』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된 예:

池 지, 長 장, 忠 충, 中 중, 朝 조

『全韻玉篇』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예:

地 디, 點 덤, 電 던, 定 덩, 天 텃⁷⁹⁾

‘池(지), 長(장), 忠(충), 中(중), 朝(조)’는 漢語 中古音을 기준으로 舌上音에 해당하며, ‘地(디), 點(덤), 電(던), 定(덩), 天(텃)’은 舌頭音에 해당한다.

일곱째, 『訓蒙字會』에서는 ‘ㄷ’과 ‘ㅌ’이 혼용되고, 『全韻玉篇』에서는 ‘ㅈ’과 ‘ㅊ’이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全淸와 次淸의 뚜렷한 대립을 확인할 수 없다.

여덟째, 『全韻玉篇』에서 舌上音은 ‘ㅈ, ㅊ’으로 표기되지만, ‘茶(다)’, ‘姪(덜)’, ‘逐(덕)’에서 ‘ㄷ’과도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舌頭音의 ‘ㄷ’이 ‘ㅈ’으로 표기되는 과도기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31> ‘茶⁸⁰⁾’의 경우 구개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아닌 ‘ㄱ’에서도 ‘ㅊ’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 한자음에서도 ‘茶’를 ‘다’로 읽는 것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31>에서 從母는 『東國正韻』의 慈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ㄷ(齒頭)’으로 나타나고, 『訓

79) 주시경이 ‘忠信’은 ‘충신’으로 표기하고(忠의 원래음은 ‘똥’이었다) ‘天地’는 ‘텃디’로 표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주시경은 『全韻玉篇』에 제시되어 있는 한자음을 본음이라고 여기고서 그에 따라 한자음을 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訓蒙字會』를 한자음 표기의 전거로 삼았다면 ‘忠信, 朝鮮, 長短’이 ‘똥신, 도선, 당단’으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全韻玉篇』을 한자음 표기의 전거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은 ‘충신, 조선, 장단’으로 표기되었던 것이다. 송철의,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80) 차 앞의 {茶(차 차)}는 본래 “茶(씀바귀 도)”로 나타내었다. “茶(도)는 본래 씀바귀[苦菜]의 이름으로 차 앞도 역시 맛이 쓰므로 {茶(차)}는 대개 {茶(도)}에서 파생된 사일 것이다. 裴錫圭, 『文字學概要』, 商務印書館, 2009, 176쪽.

『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대체로 ‘ㅈ’으로 나타난다. <표31>에서 ‘集’은 『東國正韻』에서 ‘집’, 『四聲通解』에서는 ‘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집’, 現音은 ‘집’이다. 『中原音韻』은 ‘/tsi/’로, 『四聲通解』에서는 입성이 소실된 『中原音韻』을 반영하여 ‘찌’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中原音韻』의 聲母 ‘/ts/’는 개음 /i-/의 영향으로 普通話에서 ‘/tɕ/’로 변화되었다. 淸音과 濁音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는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는 聲母가 各自並書 ‘ㅈ, ㅉ’으로 표기되지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은 聲母가 ‘ㅈ’으로 표기되어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ㄸ(全淸)’

<표32> 心母(齒頭音 ‘ㄸ’) *『東國正韻』의 戌母(ㄸ)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叟	心	幽	sōg	流開一上厚心全淸	su	蘇后	səu	술 :술	슬	수	수	sou ³
傘	心			山開一上早心全淸	san	蘇早	san	:산	산	산	산	san ³
珊	心	元	san	山開一平寒心全淸	san	蘇干	san	산	산 산	산	산	san ¹
塞 ⁺	心			曾開一入德心全淸	sək	蘇則	tʂai	:속	제	채	치	sr ⁴
塞 ⁺	心	之	sək	曾開一入德心全淸	sək	蘇則	si	:속 :싱	새	시	시 식	sai ¹
索 ⁺	心	魚	sak	宕開一入鐸心全淸	sak	蘇各	sau	:식 :삭	살	삭	삭 식	suo ³
桑	心	陽	saŋ	宕開一平唐心全淸	saŋ	息郎	saŋ	상	상	상	상	saŋ ¹
糝	心	侵	səm	咸開一上感心全淸	sAm	桑感	sam	:삼	삼	참	삼	san ³
塞 ⁺	心	之	səg	蟹開一去代心全淸	sAi	先代	sai	:속 :싱	새	시	시 식	sai ⁴
搔	心	幽	sōg	效開一平豪心全淸	sau	蘇遭	sau	술	살	소	소	sau ¹
昔	心	魚	sʂək	梗開三入昔心全淸	sʂek	思積	si	:석 :착	시	석	착 석	ci ¹
司	心	之	sjəg	止開三平之心全淸	si	息茲	si	승 :승	스	사	스	sr ¹
蟋 ⁺	心			臻開三入質心全淸	sjet	息七		:실	시	실	실	ci ¹
辛	心	真	sjen	臻開三平真心全淸	sjen	息鄰	siən	신	신	신	신	ciən ¹
宵	心	宵	sjəu	效開三平宵心全淸	sjəu	相邀	siau	술 :술	설	쇼	쇼	ciəu ¹
星	心	耕	sieŋ	梗開四平青心全淸	sieŋ	桑經	siəŋ	성	싱	성	성	ciŋ ¹
洗 ⁺	心	文	siən	山開四上銑心全淸	siən	蘇典	si	:선 :생	선	세	세 선	ciən ³
西	心	脂	sied	蟹開四平齊心全淸	siei	先稽	si	선, 생	세	서	서	ci ¹
洗 ⁺	心			蟹開四上霽心全淸	siei	先禮	siən	:선 :생	선	세	세 선	ci ³
酸	心	元	suan	山合一平桓心全淸	suan	素官	suən	환	원	산	산	suan ¹
素	心	魚	sag	遇合一去暮心全淸	suo	桑故	su	:송	수	소	소	su ⁴
孫	心	文	suən	臻合一平魂心全淸	suən	思渾	suən	손 :손	순	손	손	suən 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鬚	心			遇合三平虞心全清	sjuo	相俞	siu		슈	슈	슈	cy ¹
髓	心	歌	sjua	止合三上紙心全清	sjue	息委	sui	:형	쉬	슈	슈	suei ³

心母 즉, 『東國正韻』의 戌母(入)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心母는 全清 ‘ㅅ’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무성 치조 마찰음 /s/(心母)이고, 『中原音韻』에서는 무성 경구개 마찰음 /ʃ/(心母)로 추정된다.

셋째, 『東國正韻』에서 ‘ㅍ(석)’의 又音 ‘착’을 제외하고, 全清 心母는 ‘ㅅ’으로 표기하고, 『訓蒙字會』에서도 ‘ㅅ’으로 표기한다.

넷째, 『四聲通解』에서도 ‘珊(산)’, ‘寨(재)’의 又音을 제외하고, 全清 心母는 ‘ㅅ’으로 표기된다.⁸¹⁾ 『訓蒙字會』에서 ‘糝(참)’을 제외하고 ‘ㅅ’으로 표기되며, 『全韻玉篇』에서는 역시 又音을 제외하고 ‘ㅅ’으로 표기된다.

다섯째, 漢語 中古音에서 무성 마찰음 齒頭, 正齒 二等, 正齒 三等을 /s/, /ʃ/, /ç/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東國正韻』에서는 일률적으로 ‘ㅅ’으로, 『四聲通解』에서는 /s/, /ʃ/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한국 한자음에서도 心母는 又音 ‘寨(재)’를 제외하고 모두 ‘ㅅ’으로 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한자음의 齒音에서 韻母에 따른 구분은 변별 자질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32>에서 心母는 『東國正韻』의 戌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ㅅ(齒頭)’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대체로 ‘ㅅ’으로 나타난다. <표32>에서 ‘ㅍ’은 『東國正韻』에서 ‘석, 착’, 『四聲通解』에서는 ‘시’, 『訓蒙字會』에서는 ‘집’, 『全韻玉篇』에서는 ‘석, 착’, 現音은 ‘석, 착’이다. 『東國正韻』의 ‘석’은 漢語 中古音의 /sjek/에 대응되며,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석’으로 나타난다. 『中原音韻』은 입성 /-k/이 소실되어 /si/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시’로 표기된 『四聲通解』는 『中原音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全韻玉篇』의 又音 ‘착’은 『東國正韻』의 又音 ‘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現音에서는 ‘석, 착’이 모두 남아있다.

81) 『東國正韻』에서 ‘ㅍ’은 ‘착, 석’으로 표기된다.

<표33> 審母(正齒) *『東國正韻』의 戌母(入)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沙 ⁺	生			假開二去禡生全清	fa	所嫁	ʃa	상 상	사	사	사	ʃa ¹
沙 ⁺	生	歌	jeai	假開二平麻生全清	fa	所加	ʃa	상 상	사	사	사	ʃa ¹
索 ⁺	生			梗開二入麥生全清	fæk	山賁	ʃai	·식 ·삭	살	삭	삭 식	suo ³
索 ⁺	生	魚	säk	梗開二入陌生全清	fək	山戟	sau	·식 ·삭	살	삭	삭 식	suo ³
殺 ⁺	生	祭	sæt	山開二入黠生全清	fæt	所八	ʃa	·상 ·설 ·싱 ·생 ·성	사	살	시 쇄 살	ʃa ¹
瑟	生	脂	set	臻開二入櫛生全清	f(j)et	所櫛	ʃi	·숨	스	슬	슬	sv ⁴
衫	生			咸開二平衡生全清	fam	所銜	ʃam	삼	삼	삼	삼	ʃan ¹
殺 ⁺	生	祭	sæd	蟹開二去怪生全清	fɛi	所拜	ʃa	·삼 ·설 ·싱 ·생 ·성	사	살	시 쇄 살	ʃai ⁴
筭	生	宵	soɔ	效開二平肴生全清	fau	所交	ʃau	술	살	쇼	쇼	ʃau ¹
搜	生	幽	sog	流開三平尤生全清	fju	所鳩	ʃəu	·술 ·술	슬	수	수	sou ¹
所	生	魚	sag	遇開三上語生全清	fjo	踈舉	ʃu	·송	수	쇼	소	suo ³
師	生	脂	sed	止開三平脂生全清	fjei	踈夷	ʃi	승	시	스	스	ʃi ¹
筭 ⁺	生	佳	seg	止開三上紙生全清	fje	所綺		·승 ·승 ·생	새	식	스	ʃai ¹
筭 ⁺	生			止開三平支生全清	fje	所宜		·승 ·승 ·생	새	식	스	ʃai ¹
扇 ⁺	書			山開三平仙書全清	ɕjæn	式連	ʃien	·선 ·선	선	선	선	ʃan ⁴
扇 ⁺	書	元	ɕjæn	山開三去線書全清	ɕjæn	式戰	ʃien	·선 ·선	선	선	선	ʃan ⁴
暑	書	魚	ɕjag	遇開三上語書全清	ɕjo	舒呂	ʃiu	·성	슈	셔	셔	ʃu ³
式	書	之	ɕjək	曾開三入職書全清	ɕjək	賞職		·식 ·싱	시	식	식	ʃi ⁴
升	書	蒸	ɕjəŋ	曾開三平蒸書全清	ɕjəŋ	識蒸	ʃiəŋ	싱	싱	승	승	ʃəŋ ¹
室	書	脂	ɕjet	臻開三入質書全清	ɕjet	式質	ʃi	·실	시	실	실	ʃi ⁴
身	書	真	ɕjen	臻開三平真書全清	ɕjen	失人	ʃien	신	신	신	신	ʃən ¹
攝 ⁺	書	葉	ɕjɛp	咸開三入葉書全清	ɕjɛp	書涉	ʃiɛ	·삽 ·넙 ·넙	서	섭	섭 넙	ʃv ⁴
燒 ⁺	書	宵	ɕjɔɔ	效開三去笑書全清	ɕjæu	失照	ʃiau		설	쇼	쇼	ʃau ⁴
燒 ⁺	書	宵	ɕjɔɔ	效開三平宵書全清	ɕjæu	式招	ʃiau		설	쇼	쇼	ʃau ¹
水	書	脂	ɕjued	止合三上旨書全清	ɕjuei	式軌	ʃui	·칭	쉬	슈	슈	ʃuei ³
春	書	東	ɕjun	通合三平鍾書全清	ɕjuoŋ	書容	tʃ ^h iun	·송	·송 ·俗 ·송 ·송 ·송 ·俗 ·송	송	송 俗 송	tʃ ^h un ¹

審母 즉, 『東國正韻』의 戌母(入)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審母는 全清 ‘스’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무성 치조후 마찰음 /ʃ/(生母), 무성 치조 구개 마찰음 /ç/(書母)이고, 『中原音韻』에서는 무성 경구개 마찰음 /ʃ/(生母, 書母)로 추정된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心母를 ‘스(戌母)’으로 표기하고, 『訓蒙字會』에서도 精母를 ‘스’으로 표기한다.

넷째, 董同龢는 漢語 中古音의 齒頭(心母), 正齒 二等(疏母), 正齒 三等(審母)을 무성 마찰음 ‘/s/, /ʃ/, /ç/’으로 추정한다. 『四聲通解』에서 齒頭 心母는 ‘스’으로, 正齒 三等 審母는 ‘스’으로 표기하고,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 ‘心母, 疏母, 審母’를 ‘스’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心母, 疏母, 審母’는 무성 마찰음이라 볼 수 있다.

<표33>에서 審母는 『東國正韻』의 戌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스(正齒)’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스’으로 나타난다. <표33>에서 ‘升’은 『東國正韻』에서는 ‘싱’, 『四聲通解』에서는 ‘싱’, 『訓蒙字會』, 『全韻玉篇』, 現音은 ‘승’이다. 『東國正韻』과 『四聲通解』는 漢語 中古音과 近代音에서 남아 있던 개음 /i-/의 영향으로 ‘싱’과 ‘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升’은 『中原音韻』에서 ‘/ʃiəŋ/’으로, 庚靑韻에 속한다. 庚靑韻에 속하는 韻母 ‘/iəŋ/’은 普通話에서 개음 /i-/가 탈락되어 ‘/-əŋ/’으로 변하는데,⁸²⁾ 『訓蒙字會』와 『全韻玉篇』도 ‘승’으로 표기되어, 한국 한자음도 개음 /i-/가 탈락된 형태로 나타난다.

5) ‘쓰(全濁)’

<표34> 邪母(齒頭) *『東國正韻』의 邪母(쓰)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錫	邪			梗開三平清邪全濁	zjeŋ	徐盈		썩.땅	썩	성	성.당	ciŋ ²
席	邪	魚	zjäk	梗開三入昔邪全濁	zjek	祥易	si	·썩	씨	석	석	ci ²
涎 ⁺	邪	元	zjæŋ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ŋ	夕連	siɛŋ	썩	션	연	선正연	ɕian ²
鬻 ⁺	邪			深開三平侵邪全濁	zjem	徐林	siəm	썩.썩	썩	심	심	cin ²
習	邪	緝	zjɛp	深開三入緝邪全濁	zjep	似入	si	·썩	씨	습	습	ci ²
序	邪			遇開三上語邪全濁	zjo	徐呂	siu	·썩	썩	셔	셔	ɕy ⁴
詞	邪	之	zjɛg	止開三平之邪全濁	zi	似茲	si	썩	쓰	스	스	ts ^h i ²
寺 ⁸³⁾	邪	之	zjɛg	止開三去志邪全濁	zi	祥吏	si	·썩	쓰		스시	si ⁴
燼	邪			臻開三去震邪全濁	zjen	徐刃	siən	·썩	썩	신	신	tɕin ⁴
燻	邪	微	zjuəd	止合三去至邪全濁	zjuei	徐醉	sui	·썩	썩	슈	슈	suei ⁴

82) 이재돈,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9, 250-251쪽.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松 ⁸⁴⁾	邪			通合三平鍾邪全濁	zjuoŋ	祥容	siuŋ	쑹	쑹	쑹	쑹	sun ¹

邪母 즉, 『東國正韻』의 邪母(ㄴ)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邪母는 全濁 ‘ㄴ’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에서 유성 치조 마찰음 /z/이고, 『中原音韻』에서는 무성 치조 마찰음 /s/로 추정된다.

셋째, 『東國正韻』에서 邪母를 各自並書 ‘ㄴ(邪母)’으로 표기하고, 『訓蒙字會』에서는 ‘ㄴ’으로 표기한다. 漢語 中古音 추정음에서 일반적으로 淸音은 국제음성기호(IPA)에서 규정하는 무성음, 濁音은 국제음성기호(IPA)에서 규정하는 유성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東國正韻』의 各自並書 ‘ㄴ’이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무성 마찰음인 ‘ㄴ’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東國正韻』의 ‘ㄴ’을 유성 마찰음인 /z/로 보는 것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

넷째, 『東國正韻』의 성격에 관해 異論이 있어, 본고에서 ‘ㄴ’의 조음 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訓蒙字會』, 『全韻玉篇』 및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고 있는 『四聲通解』에 반영된 ‘ㄴ, ㄴ’을 바탕으로 『東國正韻』에서 ‘ㄴ’의 조음 방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漢語 中古音을 기준으로 보면 ‘ㄴ’을 /z/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東國正韻』의 조음 위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에서 선택하고 있는 표기인 ‘ㄴ’이 설명되지 않는다. 『東國正韻』에서는 漢語 中古音의 全濁을 各自並書로 표기하지만, 『訓蒙字會』에서는 各自並書로 표기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조음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즉, 『東國正韻』의 ‘ㄴ’을 ‘ㄴ’으로 표기하고 있고, 『訓蒙字會』의 ‘ㄴ’은 異論의 여지없이 무성 마찰음이다.

본고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漢語 中古音의 淸音과 濁音을 국제음성기호에서 정하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만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따름을 알 수 있다. 만약 『東

83) ‘寺’에 대해서 『廣韻』에서 邪母로 분류하지만, 『洪武正韻』과 『四聲通解』에서는 邪母와 淸音 心母에 모두 넣었다. 『四聲通解』에서 邪母는 ‘ㄴ’으로 표기하고, 心母는 ‘ㄴ’으로 표기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한가준, 「崔世珍의 『四聲通解』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78쪽.

84) ‘松’에 대해서 『廣韻』에서 邪母字로 분류하지만, 『洪武正韻』에서는 淸音 心母에 넣었다. 그러므로 명나라 초기에 邪母가 이미 淸音化 되어 心母에 합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세진은 비록 『四聲通解』의 正音體系에서 중고음의 분류에 따라 心母의 초성 표기인 ‘ㄴ’으로 표기하였으나, 又音에서 다시 邪母의 초성 표기 ‘ㄴ’으로 표기하고 있어 당시 邪母와 心母의 합류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견해도 있다. 한가준, 「崔世珍의 『四聲通解』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78쪽.

『東國正韻』의 ‘ㅅ’이 유성음 /z/라면, 『訓蒙字會』나 『全韻玉篇』에서 ‘ㅅ’을 ‘ㅅ’으로 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東國正韻』의 ‘ㅅ’이 『中原音韻』을 따른 것이라면 『東國正韻』에서 漢語 中古音의 운미 8개를 모두 구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ㅅ’이 漢語 中古音의 全濁字 표기를 위한 것이라면,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ㅅ’을 ‘ㅅ’으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漢語 上古音과 中古音의 특징이 남아 있다고 평가받는 한국 한자음에서도 유성음의 무성음화 즉, 濁音의 淸音化가 진행됐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도 全淸 心母와 全濁 邪母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을 확인하기 어렵다. 甌方言 및 湘方言의 일부 지역에서는 心母와 邪母에서 뚜렷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지만, 甌方言 및 湘方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心母와 邪母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을 거의 확인할 수 없다. 만약 心母와 邪母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는 甌方言에서 漢語 中古音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한다면, 甌方言에서 舌根音이 舌面音화 되고, 입성이 소실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粵語에서는 漢語 中古音의 운미 8개가 현재까지 온전히 사용되고 있고, 舌根音이 舌面音化 되지 않았으며, 聲母에서 비음 운미 /-ŋ/가 여전히 사용된다. 또한, 漢語 中古音의 淸音과 濁音이 粵語에서 음조·양조와 일률적인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즉, 粵語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을 제외하고 漢語 中古音의 특징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粵語와 한국 한자음을 근거로 淸音과 濁音의 조음 방식을 국제음성 기호에서 규정하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표34>에서 邪母는 『東國正韻』의 邪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ㅅ(齒頭)’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ㅅ’으로 나타난다. <표34>에서 ‘涎’은 『東國正韻』에서는 ‘션’, 『四聲通解』에서는 ‘션’, 『訓蒙字會』에서는 ‘연’, 『全韻玉篇』에서는 ‘선正연’, 現音은 ‘연’이다. 濁音을 各自並書로 표기하고 있는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는 ‘션’과 ‘션’으로 나타난다. 『中原音韻』에서 ‘涎’의 聲母가 무성음 /s/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는 濁音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四聲通解』는 濁音이 淸音化되기 전의 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訓蒙字會』에서 ‘涎’이 ‘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集韻』에서 ‘涎’이 以母에 추가된 것으로 보아, 『集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은 『全韻玉篇』에서 俗音으로 나타나고, 現音은 ‘연’으로만 남아있다.

<표35> 禪母(正齒) *『東國正韻』의 邪母(ㄷ)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城	禪	耕	zjeŋ	梗開三平清禪全濁	zjeŋ	是征	tʂʰiəŋ	성	징	성	성	tʂʰəŋ ²
盛 ⁺	禪	耕	zjeŋ	梗開三平清禪全濁	zjeŋ	是征	tʂʰiəŋ	성 성	싱	성	성	tʂʰəŋ ²
盛 ⁺	禪	耕	zjeŋ	梗開三去勁禪全濁	zjeŋ	承正	ʃiəŋ	성 성	싱	성	성	ʃəŋ ⁴
石	禪			梗開三入昔禪全濁	zjek	常隻	ʃi	·씩	씨	석	석	ʃl ² , tan ⁴
善	禪	元	zjæŋ	山開三上彌禪全濁	zjæŋ	常演	ʃiɛŋ	·션 ·션	션	선		ʃan ⁴
時	禪	之	zjəg	止開三平之禪全濁	zi	市之	ʃi	싱	씨	시	시	ʃl ²
臣	禪	真	jjen	臻開三平真禪全濁	zjen	植鄰	tʂʰiəŋ	씬	진	신	신	tʂʰəŋ ²
辰	禪	文	zjəŋ	臻開三平真禪全濁	zjen	植鄰	tʂʰiəŋ	씬	진 진	신	신	tʂʰəŋ ²
瞻 ⁸⁵⁾	禪			咸開三去豔禪全濁	zjæm	視佳	ʃiɛm	·섬	섬 섬		섬	ʃan ⁴
樹 ⁺	禪	侯	zjuɡ	遇合三去遇禪全濁	zjuo	常句	ʃiu	·슌 ·슌	쑤	슈	슈	ʃu ⁴
樹 ⁺	禪	侯	zjuɡ	遇合三上夔禪全濁	zjuo	臣庾	ʃiu	·슌 ·슌	쑤	슈	슈	ʃu ⁴
誰	禪	微	zjuəd	止合三平脂禪全濁	zjuei	視佳	ʃui	·쑤	취	슈	슈	ʃuei ²
熟 ⁸⁶⁾	禪			通合三入屋禪全濁	zjuk	殊六	ʃiu	·숙	쑤	숙	숙	ʃu ²

禪母 즉, 『東國正韻』의 邪母(ㄷ)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禪母는 全濁 ‘ㄷ’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치조 구개 마찰음 /z/이고, 『中原音韻』에서는 경구개 마찰음 /ʃ/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禪母를 ‘ㄷ(邪母)’으로 표기하고 『訓蒙字會』에서는 禪母를 ‘ㅅ’으로 표기하고 있어, 全濁 ‘ㄷ’을 유성 마찰음 /z/로 보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

넷째, 『四聲通解』는 『中原音韻』 뿐만 아니라, 『蒙古韻略』의 한자음도 기록하고, 字釋은 『古今韻會舉要』에서 보충했다. 또한 『洪武正韻驛訓』과 달리 입성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⁸⁷⁾ 近代音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洪武正韻』의 저자 중

85) ‘瞻’에 대해서 『廣韻』 禪母字 ‘瞻’ 등은 『洪武正韻』과 『四聲通解』에서 審母에 넣어졌다. 그리고 『四聲通解』의 正音體系에서 審母의 표기음 ‘ㅅ’으로 표기하였으나, 又音에서는 禪母의 표기음 ‘ㄷ’이 나타났다. 당시 禪母와 審母가 합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가준, 「崔世珍의 『四聲通解』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3쪽.

86) ‘熟’에 대해서 『廣韻』 禪母字 ‘熟’은 『四聲通解』 正音體系에서 禪母의 표기음 ‘ㄷ’으로 표기하였으나, 今俗音에서 審母의 표기음 ‘ㅅ’이 나타난다. 『廣韻』 禪母字 ‘孰’과 ‘洙’ 등은 『四聲通解』 正音體系에서 禪母의 표기음 ‘ㄷ’으로 표기하였으나 又音에서 審母의 표기음 ‘ㅅ’이 나타나고 있다. 全濁音 『廣韻』 禪母가 당시 실제 발음에서 清音化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가준, 「崔世珍의 『四聲通解』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2-83쪽.

에는 뭇방언 지역 출신이 있는데88), 『洪武正韻驛訓』에서 全濁字를 ‘ㅍ’으로 표기하고 『四聲通解』에서도 ‘ㅍ’을 ‘ㅍ’와 ‘ㅍ’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한국에서는 뭇방언의 유성음 /z/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淸音과 濁音을 현재 국제음성기호(IPA)에서 분석하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구분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 반영된 한자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5세기 음운학자가 받아들인 淸音과 濁音은 말 그대로 한자음이 전해주는 음색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한다.

<표35>에서 禪母는 『東國正韻』의 邪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ㅍ(正齒)’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ㅍ’으로 나타난다. <표35>에서 ‘ㅍ’은 『東國正韻』에서 ‘ㅍ’, 『四聲通解』에서는 ‘ㅍ’,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ㅍ’, 現音은 ‘ㅍ’이다. ‘ㅍ’은 『東國正韻』에서 ‘ㅍ’인데,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여 ‘ㅍ’으로 표기했다. 『中原音韻』은 ‘/ʃi/’로 나타나며, 『四聲通解』는 『中原音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中原音韻』의 聲母 ‘/ʃ/’는 당시 경구개 마찰음 ‘/ʃ/’가 韻母 ‘/i/’와 결합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며, 普通話에서는 韻母 ‘/i/’가 韻母 ‘/ʌ/’로 변화되었다.

6) ‘△(不清不濁)’

<표36> 日母 *『東國正韻』의 穰母(△)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耳	日	之	n ₁ jəŋ	止開三上止日次濁	n ₁ i	而止	r ₁ i	싱 :싱	시	시	이	ɚ ³
日	日	脂	n ₁ jet	臻開三入質日次濁	n ₁ jet	人質	r ₁ i	(·)싱	시	실	일	z ₁ l ⁴
人	日	真	n ₁ jen	臻開三平真日次濁	n ₁ jen	如鄰	r ₁ iən	신	신	신	인	z ₁ ən ²
弱	日	宵	n ₁ jok	宕開三入藥日次濁	n ₁ jak	而灼	r ₁ io	·약	샬	약	약	z ₁ uo ⁴
穰	日	陽	n ₁ jan	宕開三去漾日次濁	n ₁ jan	人穰		상 :상 녕	상	상	양 녕	z ₁ an ⁴
穰 ⁺	日			宕開三上養日次濁	n ₁ jan	如兩		상 :상 녕	상	상	양 녕	z ₁ an ³
穰 ⁺	日	陽	n ₁ jan	宕開三平陽日次濁	n ₁ jan	汝陽		상 :상	상	상	양 녕	z ₁ an ³

87) 『四聲通解』의 正音에서 ‘藥’韻은 中古音의 ‘覺·鐸·藥’韻에 해당하며 ‘병’으로 終聲을 표기했다.

88) 『洪武正韻』은 1375년(洪武 7년)에 명나라 때의 악소봉(樂韶鳳)·송염(宋濂) 등이 지은 관찬(官撰) 운서이다. 편찬에 참여한 자들의 출신지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안휘성과 절강성으로 대부분 남방인이다. 안기섭, 「조선시대 대 한어 역음서의 정음, 속음 성격의 재고(서, 범례상의 기술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10, 1988, 81쪽.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曉	日			效開三平宵日次濁	n ₁ jæu	如招		닝 ·솔 ·플 ·플	설	쇼	요, 뇨	z.au ²
乳	日	侯	n ₁ jug	遇合三上夬日次濁	n ₁ juo	而主	riu	·슌 ·슌	슈	슈	유	z.u ³
閏	日			臻合三去稊日次濁	n ₁ juen	如順	riuən	·슌	슌	슌	눈	z.uən ⁴
戎	日	中	n ₁ jon	通合三平東日次濁	n ₁ jun	如融	riuŋ	싱·슌 ·슌·싱	슌·俗 ·슌	슌	응	z.un ²
禡	日			通合三入燭日次濁	n ₁ juok	而蜀	riu	·속	수	속	욕	z.u ⁴
肉	日	幽	n ₁ jok	通合三入屋日次濁	n ₁ juk	如六	riuəu	·속 ·슌 ·슌	실	속	육, 유	z.ou ⁴

日母 즉, 『東國正韻』의 穰母(△)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日母는 不清不濁 ‘△’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과 『訓蒙字會』의 추정음은 치조 구개 비음 /n₁/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권설 탄음 /t/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日母를 不清不濁 ‘△(穰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에서도 ‘△’으로 나타나지만, 『全韻玉篇』에서는 ‘閏(눈)’과 ‘攘(양)’, ‘曉(요)’의 又音에서 초성이 ‘ㄴ’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ㅇ’으로 나타난다.

<표36>에서 日母는 『東國正韻』의 穰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에서는 ‘△’으로, 『全韻玉篇』에서는 ‘ㅇ’과 ‘ㄴ’으로 나타난다. <표36>에서 ‘日’은 『東國正韻』에서 ‘싱’, 『四聲通解』에서는 ‘△’, 『訓蒙字會』에서는 ‘△’, 『全韻玉篇』에서는 ‘이’, 現音은 ‘이’다. 日母에 대응되는 漢語 中古音의 /n₁/은 半齒音을 표기한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에서는 ‘△’로 나타나지만, 『全韻玉篇』에서는 ‘ㅇ’으로 나타난다. 『中原音韻』은 /t₁/로 추정되는데, 『中原音韻』 이후 照三系의 聲母가 /i-/ 혹은 /y-/와 결합할 수 없고 照二系에 합류하여 모두 권설음으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日母 /n₁/도 普通話에서 /n₁/와 같이 /i-/ 혹은 /y-/와 결합하지 못하고 완전한 권설음인 /z₁/로 변하였다.⁸⁹⁾ 이렇듯 『中原音韻』 시기에 /t₁/로 읽히던 글자는 대부분 普通話에서 兒化되었는데, ‘耳’도 普通話가 /ə/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中原音韻』의 /t₁/가 兒化된 것으로 보인다.

89) 이재돈, 『중국어음운학』, 학고방, 2019, 250쪽.

5. 喉音

1) ‘ㄱ(全清)’

<표37> 影母 *『東國正韻』의 搥母(ㄱ)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鷗	影	侯	?uŋ	流開一平侯影全清	?u	烏侯	əu	후	후	구	구	ou ¹
案	影	元	?an	山開一去翰影全清	?an	烏汗	an	안	안	안	안	an ⁴
盎	影	陽	?aŋ	宕開一上蕩影全清	?aŋ	烏朗	aŋ	앙	앙	앙	앙	aŋ ⁴
惡	影	魚	?ak	宕開一入鐸影全清	?ak	烏各	ɔ	악	악	악	악	ɾ ⁴
鴛 ⁺	影			宕開一平唐影全清	?aŋ	烏郎	iaŋ	양	양	양	양	iaŋ ¹
盎 ⁺	影	陽	?aŋ	宕開一去宕影全清	?aŋ	烏浪	aŋ	앙	앙	앙	앙	aŋ ⁴
惡 ⁺	影	魚	?ak	宕開一入鐸影全清	?ak	烏各	ɔ	후	후	후	후	ɾ ⁴
愛	影	微	?əd	蟹開一去代影全清	?ai	烏代	ai	애	애	이	이	ai ⁴
煥 ⁺	影	幽	?ɔg	效開一上皓影全清	?au	烏皓		후	후	후	후	y ⁴
煥 ⁺	影	幽	?ɔg	效開一去號影全清	?au	烏到		후	후	후	후	y ⁴
夭 ⁺	影	宵	?ɔg	效開一上皓影全清	?au	烏皓	iau	후	후	후	후	tsou ³
隘	影	佳	?eg	蟹開二去卦影全清	?æi	烏懈	iai	애	애	익	이	ai ⁴
膺	影	蒸	?jəŋ	曾開三平蒸影全清	?jəŋ	於陵	iəŋ	잉	잉	응	응	in ¹
億	影	之	?jək	曾開三入職影全清	?jək	於力		이	이	역	역	i ⁴
衣	影	微	?jəd	止開三平微影全清	?jəi	於希	i	이	이	의	의	i ¹
衣 ⁺	影	微	?jəd	止開三去未影全清	i ⁴	於既	i	이	이	의	의	i ¹
壹	影	脂	?jet	臻開三入質影全清	?jet	於悉		이	이	일	일	i ¹
烟	影	真	?jen	臻開三平真影全清	?jen	於真		현	현	연	연	in ¹
鳶	影	陽	?jaŋ	宕開三平陽影全清	?jaŋ	於良	iaŋ	양	양	앙	앙	iaŋ ¹
印	影	真	?jen	臻開三去震影全清	?jen	於刃	iən	인	인	인	인	in ⁴
夭	影	宵	?jɔg	效開三上小影全清	?jæu	於兆	iau	후	후	후	후	iau ¹
烟	影			山開四平先影全清	?ien	烏前		현	현	연	연	ian ¹
琬	影			山合一平桓影全清	?uan	一丸	uɔn	환	환	완	완	uan ¹
幹	影	祭	?uat	山合一入末影全清	?uat	烏括		관	관	알	알	uo ⁴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惡	影	魚	?ag	遇合一平模影全清	?uo	哀都	u	·악 ㅍ ㅑ ·양	후	악	오, 악	u¹
惡⁺	影	魚	?ag	遇合一去暮影全清	?uo	烏路	u	·악 ㅍ ㅑ ·양	합수 俗령	악	오, 악	u⁴
縕	影	文	?uən	臻合一平魂影全清	?uən	烏渾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온	온	uən¹
縕⁺	影	文	?uən	臻合一平魂影全清	?uən	烏渾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온	온	uən¹
屋	影	侯	?ük	通合一入屋影全清	?uk	烏谷	u	·악 ㅍ ㅑ	후	옥	옥	u¹
翁	影	東	?uŋ	通合一平東影全清	?uŋ	烏紅	uŋ	·웅, 웅 ·웅, 웅	홍		웅	uŋ¹
嫗⁺	影			* 遇合三上嘆影全清	?io	委羽	iu	·윙, 윙 ·윙, 윙	류	구	우, 구 구	y⁴
嫗	影	侯	?jug	遇合三去遇影全清	?juo	衣遇	iu	·윙, 윙 ·윙, 윙	류	구	우, 구 구	y⁴
威	影	微	?juəd	止合三平微影全清	?juəi	於非	ui	·윙, 윙 ·윙, 윙	위	위	위	uei¹
縕	影	文	?juən	臻合三平文影全清	?juən	於云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온	온	yn⁴
搵	影	文	?juən	臻合三上吻影全清	?juən	於粉	uən		후	온		uən⁴
壘	影			通合三平鍾影全清	?juoŋ	於容	uŋ	·웅, 웅 ·웅, 웅 ·웅, 웅	홍, 웅		웅	yuŋ¹
燠	影	幽	?jok	通合三入屋影全清	?juk	於六		·윙, 윙 ·윙, 윙 ·윙, 윙	류	옥	오, 옥 옥	y⁴
淵	影	真	?iuən	山合四平先影全清	?iuən	烏玄	iuən	·원 ·원	원	연	연	yan¹

影母 즉, 『東國正韻』의 挹母(ㄷ)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影母는 全清 ‘ㄷ’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성문 파열음 /ʔ/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ø/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影母를 全清 ‘ㄷ(挹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에서는 ‘鷗(구)’, ‘嫗(구)’에서 초성이 ‘ㄱ’으로, 『全韻玉篇』에서는 ‘鷗(구)’와 ‘幹(알)’, ‘嫗(우)’의 俗音이 초성 ‘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ㅇ’으로 표기된다.

넷째, 『訓民正音解例·用字解』에서는 ‘ㄷ’이 빠져있으며, 순수 諺文에서는 ‘ㄷ’이 초성이거나 종성에서 단독으로 쓰인 기록이 없고, 다만 世宗 世祖代의 문헌에서도 動名詞 語尾 ‘ㄷ’의 형태로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어음변천과정을 통해 볼 때, 당시 『四聲通解』에서 影母(ㄷ)를 喻母(ㅇ)에 분류시킨 예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겠지만, 오히려 喻母(ㅇ)를 影母(ㅇ)로 표기하고 있는 예도 적지 않다.

賄韻: 蔞, 蕞, 蔞, 洵, 鮪, 痲, 躄, 葦, 偉, 韡, 暉, 燁, 瑋, 壘

篠韻: 漾, 鷺, 畱

尤韻: 攸, 悠, 滸

북방음계를 기록하고 있는 『四聲通解』에서 影母에 中古 시기의 喻母를 소속시키고 있다는 것은 普通話 비교해보아도 발음 발전에 있어 역행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당시 影母가 喻母와의 구분이 모호해졌음을 방증하는 일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四聲通解』의 편자는 이미 影母가 喻母에 귀속되었음을 인지하면서도, 『洪武正韻』의 어음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어음의 역사적 근원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影母를 형식적으로 독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⁰⁾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북방음을 반영하고 있는 『中原音韻』에서 聲母가 이미 영성모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影母를 모두 ‘ㅇ’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7>에서 影母는 『東國正韻』의 搥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ㅇ’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ㅇ’으로 나타난다. <표37>에서 ‘案’은 『東國正韻』에서 ‘한’, 『四聲通解』에서는 ‘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안’, 現音은 ‘안’이다. 『中原音韻』은 /an/으로 나타나 漢語 中古音의 影母가 喻母에 합류되어 영성모가 된 현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는 ‘평분음양⁹¹⁾’의 음운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影母의 평성자가 『中原音韻』에서 양평이 아닌 음평에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影母가 음양조로 나뉘던 시기에는 여전히 /ʔ/의 음가를 지니고 있었음을 나타낸다.⁹²⁾ 『東國正韻』과 『四聲通解』는 影母가 喻母에 합류되어 영성모가 되기 전의 음을 반영하지만, 『訓蒙字會』와 『全韻玉篇』는 影母가 喻母에 합류되어 영성모가 된 후의 음을 반영하고 있다. 『中原音韻』과 普通話 역시 /ø/로 나타난다.

90) 주성일,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 『중국문학연구』 42, 한국중문학회, 2011, 312쪽.
91) 원래 평성의 전청, 차청인 성모는 음평으로, 전탁, 차탁인 성모는 양평으로 변화하였는데, 이것을 ‘평분음양’이라고 한다. 이재돈, 『중국어음운학』, 학고방, 2019, 233쪽.
92)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4, 184쪽.

2) ‘ㅎ(次淸)’

<표38> 曉母 *『東國正韻』의 虛母(ㅎ)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黑	曉	之	ɱuək	會開一入德曉次清	xək	呼北	xei	·흑	히	흑	흑	xei ¹
海	曉	之	xəg/ xuəg	蟹開一上海曉次清	xɬi	呼改	xai	·힝	해	히	히	xai ³
好	曉	幽	xōg	效開一上皓曉次清	xau	呼皓	xau	·흫 ·흫	할	·호	호	xau ³
好 ⁺	曉	幽	xōg	效開一去號曉次清	xau	呼到	xau	·흫 ·흫	할	·호	호	xau ⁴
軒	曉	元	xjān	山開三平元曉次清	xjɛn	虛言	xiɛn	·헌 ·헌	헌	헌	헌	ɕyan ¹
昕	曉	文	xjən	臻開三平欣曉次清	xjɛn	許斤	xiɛn	·흔	힌	흔	흔	ɕin ¹
香	曉	陽	xjaŋ	宕開三平陽曉次清	xjaŋ	許良	xiaŋ	·흫 ·흫	향	향	향	ɕiaŋ ¹
曉	曉	宵	xiɔg	效開四上篠曉次清	xiɛu	響鼻	xiau	·흫	혈	효	효	ɕiau ³
濊 ⁺	曉			山合一入末曉次清	xuat	呼括		·활 ·활 ·활	휘	예	외 회, 예,활	xuo ⁴
虎	曉	魚	xag	遇合一上姥曉次清	xuo	呼古	xu	·흫	후	호	호	xu ³
昏	曉	文	ɱuən	臻合一平魂曉次清	xuən	呼昆	xuən	·흔	훈	흔	흔	xuən ¹
笏	曉			臻合一入沒曉次清	xuət	呼骨	xu	·흫	후	흫	흫	xu ⁴
烘 ⁺	曉			通合一去送曉次清	xuŋ	呼貢	xuŋ	·흫 ·흫 ·흫	훈	훈	훈	xuŋ ¹
烘 ⁺	曉	東	xūŋ	通合一平東曉次清	xuŋ	呼東	xuŋ	·흫 ·흫 ·흫	훈	훈	훈	xuŋ ¹
賄	曉	之	xuəg	蟹合一上賄曉次清	xuɬi	呼罪	xui	·힝	휘	회	회	xuei ⁴
濊	曉	祭	xuad	蟹合一去泰曉次清	xuai	呼會		·활 ·활 ·활	휘	예	외 회, 예,활	xuei ⁴
化	曉	歌	xua	假合二去禡曉次清	xua	呼霸	xua	·황	화	화	화	xua ⁴
兄	曉			梗合三平庚曉次清	xjuɛŋ	許榮	xiuɛŋ	·황 ·황	훈	형	형, 황	ɕyŋ ¹
訓	曉			臻合三去問曉次清	xjuən	許運	xiuən	·흔	훈	흔	흔	ɕyn ⁴
旭	曉			通合三入燭曉次清	xjuok	許玉		·흑	휴	옥	옥	ɕy ⁴
濊 ⁺	曉	祭	ʔjuād	蟹合三去廢影全清	ʔjuei	於廢		·활 ·활 ·활	휘	예	외 회, 예,활	uei ⁴

曉母 즉, 『東國正韻』의 虛母(ㅎ)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曉母는 次淸 ‘ㅎ’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연구개 마찰음 /x/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曉母를 次淸 ‘ㅎ(虛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濊(예), ’旭(옥)’에서 聲母가 ‘ㅇ’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ㅎ’으로 표기된다.

<표38>에서 曉母는 『東國正韻』의 虛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ㅎ’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대체로 ‘ㅎ’으로 나타난다. <표38>에서 ‘濊’는 『東國正韻』에서 ‘황,

황, 쨥’, 『四聲通解』에서는 ‘휘’, 『訓蒙字會』에서는 ‘예’, 『全韻玉篇』에서는 ‘외正회, 예, 활’, 現音은 ‘예, 외, 회, 활’이다. 『東國正韻』에서 聲母가 ‘ㅎ’와 ‘ㅎ’로 나타나는데, 이는 ‘濊’가 漢語 中古音에서 影母에 해당하는 又音까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ㅇ’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影母에 해당하는 又音이 喻母에 합류되어 영성모로 되기까지의 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호(全濁)’

<표39> 匣母 *『東國正韻』의 洪母(호)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魂	匣	文	yuən	臻合一平魂匣全濁	yuən	戶昆	xuən	훈	ㄱ	훈	훈	xuən ²
鶻 ⁺	匣	微	yuət	山合二入黠匣全濁	yuət	戶八	xu	훈	후	골	홀,골	ku ²
鶻 ⁺	匣	微	kuət	臻合一入沒匣全濁	yuət	戶骨	xu	훈	후	골	홀,골	xu ²
汗	匣	元	yan	山開一去翰匣全濁	yan	侯汗	xan	한,한	현	한	한	xan ⁴
慧	匣	祭	yiuaed	蟹合四去霽匣全濁	yiuei	胡桂	xui	뿡	휘	혜	혜	xuei ⁴
骸	匣	之	ræg	蟹開二平皆匣全濁	rei	戶皆	xiai	뿡	혜	히	히	xai ²
湖	匣	魚	rag	遇合一平模匣全濁	ruo	戶吳	xu	훈	후	호	호	xu ²
汗 ⁺	匣	元	yan	山開一平寒匣全濁	yan	胡安	xan	한,한	현	한	한	xan ²
玄	匣	真	yiuen	山合四平先匣全濁	yiuen	胡涓	xiuen	현,현	현	현	현	cyan ²
孩	匣	之	ræg	蟹開一平咍匣全濁	rai	戶來	xai	뿡	혜	히	히	xai ²
號	匣	號	rɔg	效開一平豪匣全濁	rau	胡刀	xau	훈,훈	할	호	호	xau ²
紅	匣	東	riuŋ	通合一平東匣全濁	riuŋ	戶公	xuŋ	훈,공,강	훈,공	홍	홍,공	xuŋ ²
烘	匣	東	riuŋ	通合一平東匣全濁	riuŋ	戶公	xuŋ	훈,홍,홍	훈	홍	홍	xuŋ ¹
蹊	匣			蟹開四平齊匣全濁	iei	胡雞	xi	뿡,뿡	혜	계	혜	ci ¹
下	匣	魚	ræg	假開二上馬匣全濁	ra	胡雅	xia	훈,강,강,함,함	하	하	하	cia ⁴
芄	匣	元	ruan	山合一平桓匣全濁	ruan	胡官		현	현	환	환	uan ²
括	匣			山合一入木匣全濁	ruat	戶括		뿡,관,관	휘	괄	활괄	k ^h uo ⁴
華 ⁺	匣	魚	ruäg	假合二平麻匣全濁	rua	戶花	xua	뿡,뿡,광,광,공,공	화	화	화	xua ²
華 ⁺	匣	魚	ruäg	假合二去禡匣全濁	rua	胡化	xua	뿡,뿡,광,광,공,공	화	화	화	xua ⁴
賢	匣	真	rien	山開四平先匣全濁	rien	胡田	xiɛn	현	현	현	현	cian ²
行	匣	陽	ran	宕開一平唐匣全濁	ran	胡郎	xan	현,강,강	향	hing	향hing	xan ²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行 ⁺	匣	陽	rǎŋ	梗開二平庚匣全濁	rɛŋ	戶庚	xiəŋ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ɕiŋ ²
鶴	匣	宵	rɔk ²	宕開一入鐸匣全濁	rak	下各	xɔ	학 학	학	학	학	xɥ ⁴
巷	匣	東	ruŋ	江開二去絳匣全濁	rɔŋ	胡絳	xiəŋ	향 향	향	향	향	ɕiəŋ ⁴
學	匣	幽	rɔk	江開二入覺匣全濁	rɔk	胡覺	xiɔ	학 학 학	학	학	학	ɕye ²
穴	匣	脂	riuet	山合四入屑匣全濁	riuet	胡決	xiɛ	혈 혈 혈	혈	혈	혈	ɕye ²
形	匣	耕	riɛŋ	梗開四平青匣全濁	riɛŋ	戶經	xiəŋ	형 형	형	형	형	ɕiŋ ²
橫 ⁺	匣	陽	ruǎŋ	梗合二平庚匣全濁	ruɛŋ	戶盲	xuŋ	행 행 행 행 행	행 俗 행	행	행	xəŋ ²
橫 ⁺	匣			梗合二去映匣全濁	ruɛŋ	戶孟	xuŋ	행 행 행 행 행	행 俗 행	행	행	xəŋ ⁴
號 ⁺	匣	宵	rɔg	效開一去號匣全濁	xau ⁴	胡到	xau	학 학 학 학	학	호	호	xau ²
后	匣	侯	rɔg	流開一上厚匣全濁	ru	胡口	xəu	후 후	후	후	후	xou ⁴
后 ⁺	匣	侯	rɔg	流開一去候匣全濁	ru	胡邁	xəu	후 후	후	후	후	xou ⁴
熊	云	蒸	rjuǎŋ	通合三平東云次濁	rjuŋ	羽弓	xiuŋ	흥 흥	흥	웅	웅	ɕyũŋ ²
華	曉	魚	xuǎg	假合二平麻曉次清	xua	呼瓜	xua	행 행 행 행 행	학	화	화	xua ¹
灰	曉	之	xuǎg	蟹合一平灰曉次清	xuAi	呼恢	xui	회 회	회	회	회	xuei ¹
孝	曉			效開二去效曉次清	xau	呼教	xau	효 효	효	효	효	ɕiau ⁴
橫	見			宕合一平唐見全清	kuəŋ	古黃	xuəŋ	행 행 행 행 행	행 俗 행	행	행	kuaŋ ¹
鶴	見	微	kuət	臻合一入沒見全清	kuət	古忽	xu	후 후	후	골	후,골	ku ²

匣母 즉, 『東國正韻』의 洪母(ᄃᄂ)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匣母는 全濁 ‘ᄃᄂ’에 대응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연구개 마찰음 /ɣ/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연구개 마찰음 /x/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匣母를 全濁 ‘ᄃᄂ(洪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에서 ‘鶻(골)’, ‘蹊(계)’, ‘括(괄)’에서는 聲母가 ‘ㄱ’으로, 『全韻玉篇』에서 ‘鶻(홀)’, ‘紅(홍)’, ‘括(활)’의 又音이 ‘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ㅎ’으로 표기된다.

넷째, 申叔舟와 崔世珍이 사용한 各自並書의 표기가 성조의 변화에 따른 표기였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를 『四聲通解』에 기록된 『中原音韻』의 한글 표음기록을 통해 설명하고 있

다. 中古 시기 全濁音들 중 『四聲通解』에 기록된 『中原音韻』의 표기 어음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例字	中古音		『中原音韻』		『四聲通解』 속 『中原音韻』 음		
	자모	성조	자모	성조	韻	자모	성조
芃	並	平	p ^h	陽平	東	ㅃ	平
奉	奉	上	f	去		‘鳳’ ㅃ	去
市	禪	上	ʃ	去	支	ㅆ	去
聚	從	上	ts	去	魚	ㅆ	去
鷹	澄	上	tʃ	去	皆	ㅆ	去
峴	匣	上	x	去	先	ㅎ	去
篆	澄	上	tʃ	去		ㅆ	去
大	定	去	t	去	歌	ㄷ	去
碭	定	去	t	去	陽	ㄷ	去
駘	定	平	t ^h	陰平	皆	‘透母’ ㅌ	平
繪	從	平	ts	陰平	庚	‘審’ ㅆ	平
熟	禪	入	ʃ	入作陽	屋	ㄴ	平

全濁音 글자들에 대한 『四聲通解』의 ‘中原音韻’의 자모 표기를 통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中原音韻』에서 無聲·有氣·陽平으로 발현되는 글자는 『四聲通解』에서 各自並書(‘芃’)로 전사하고 있으며, 無聲·有氣·陰平和 無聲·無氣·陰平으로 발현되는 글자는 홀자모(‘駘, 繪’)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中古 시기 全濁 上聲 및 去聲 글자들은 『中原音韻』에서 無氣·無聲·去聲으로 발현되며,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모두 各自並書(‘奉, 市, 聚, 鷹, 峴, 篆, 大, 碭’)로 전사하고 있다. 中古 시기 全濁 入聲 글자들은 『中原音韻』에서 대부분 無氣·無聲·入聲作平聲陽으로 발현되며,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홀자모(‘熟’)를 사용하여 전사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 관계를 통해 볼 때, 平聲에서의 各自並書는 全濁 平聲에서 발전한 陽平의 표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全濁 上聲과 全濁 去聲에서 발전한 清音 去聲을 원래의 清音 去聲과 구별하기 위해 各自並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全濁 入聲에서 발전한 陽平聲의 경우에는 원래의 清音 平聲과 다름없는 홀자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⁹³⁾

위의 기술을 살펴보면, 全濁 入聲에서 발전한 陽平聲의 경우에는 各自並書로 표기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各自並書는 漢語 中古音의 全濁字를 일률적으로 표기하기

93) 주성일,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 『중국문학연구』 42, 한국중문학회, 2011, 310쪽.

위한 수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各自並書의 성격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39>에서 匣母는 『東國正韻』의 洪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ㅎ’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대체로 ‘ㅎ’으로 나타난다. <표39>에서 ‘下’는 『東國正韻』에서 ‘⁵⁵ㅎ’, 『四聲通解』에서는 ‘⁵⁵하’,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하’, 現音은 ‘하’이다. ‘下’의 漢語中古音은 ‘/xa/’이고, 『中原音韻』은 ‘/xia/’로 나타나는데, 이는 中古 시기 牙·喉音 聲母를 가진 二等韻 글자들에 개음 /i-/가 생겨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四聲通解』에서도 개음 /i-/가 반영된 ‘⁵⁵하’로 나타난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漢語 中古音의 ‘/xa/’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不清不濁)’

<표40> 喻母 *『東國正韻』의 欲母(○)에 해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爺	以			假開三平麻以次濁	øja	以遮	iɛ	양	여	야	야	ie ²
羸	以			梗開三平清以次濁	øjeŋ	以成	iəŋ	영	잉	영	영	iŋ ²
筵	以	元	djæŋ	山開三平仙以次濁	øjæŋ	以然	iɛŋ	연	연	연	연	ian ²
夷	以	脂	djed	止開三平脂以次濁	øjei	以脂	i	잉	이	이	이	i ²
引	以	真	djen	臻開三上軫以次濁	øjen	余忍	iəŋ	인 :인 .인	인	인	인	iŋ ³
溢	以			臻開三入質以次濁	øjet	夷質	i	일 :일	이	일	일	i ⁴
縞	以	脂	gjuet	臻合三入術以次濁	øjuet	餘律		을 :을	유	홀	을	y ⁴
雲	以	文	ɾjuəŋ	臻合三平文云次濁	ɾjuəŋ	王分	iuəŋ	운	운	운	운	yn ²
引 ⁺	以	真	djen	臻開三去震以次濁	øjen	羊晉	iəŋ	인 :인 .인	인	인	인	iŋ ³
陽	以	陽	djaŋ	宕開三平陽以次濁	øjaŋ	與章	iaŋ	양	양	양	양	iar ²
藥	以			宕開三入藥以次濁	øjak	以灼	iau	약 :약 .약	알	약	약	iau ⁴
容	以	東	gjuŋ	通合三平鍾以次濁	øjuŋ	餘封	iuŋ	용 :용 :용	웅	웅	웅	z.ɯŋ ²
曜	以			效開三去笑以次濁	øjæu	弋照	iau	을 :을	열	요	요	iau ⁴
原	疑	元	njuān	山合三平元疑次濁	njuen	愚袁	iuɛŋ	원 :원 원	원	원	원	yan ²
涯	疑			止開三平支疑次濁	njɛ	魚羈	ia	잉, 영 :잉, 영 잉	애 :애 애	애	의, 애 아	ia ²
鐸	疑			宕開一入鐸疑次濁	nɬak	五各		약	알	약	약	ɾ ⁴
涯 ⁺	疑			蟹開二平佳疑次濁	njæi	五佳	ia	잉, 영 :잉, 영 잉	애 :애 애	애	의, 애 아	ia ²
兒	疑			蟹開四平齊疑次濁	njei	五稽	i	영 :영 영	예	스	으, 예	ni ²
友	云	之	ɾjuəŋ	流開三上有云次濁	ɾju	云久	iəu	을 :을	일	우	우	iou ³
位	云	緝 微	ɾjuəb/ ɾjuəd	止合三去至云次濁	ɾjei	于愧	ui	윙 :윙 윙	위	위	위	uei ⁴

喻母 즉, 『東國正韻』의 欲母(○)에 해당되는 聲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四聲通解』에서 喻母는 不清不濁 ‘ㅇ’으로 표기된다.

둘째,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은 양순 마찰음 /θ/(以母), 연구개 비음 /ŋ/(疑母), 연구개 마찰음 /ɣ/(云母)이고, 『中原音韻』의 추정음은 /θ-/이다.

셋째, 『東國正韻』에서는 喻母를 不清不濁 ‘ㅇ(欲母)’으로 표기한다. 『訓蒙字會』에서 ‘緇(홀)’, ‘兒(스)’을 제외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ㅇ’으로 표기한다.

<표40>에서 喻母는 『東國正韻』의 欲母와 대응되어 聲母가 ‘ㅇ’으로 나타나고,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대체로 ‘ㅇ’으로 나타난다. <표40>에서 ‘兒’는 『東國正韻』에서 ‘영, 싱’, 『四聲通解』에서는 ‘예’, 『訓蒙字會』에서는 ‘스’, 『全韻玉篇』에서는 ‘으, 예’, 現音은 ‘아’다. 漢語 中古音에서 疑母에 해당하는 ‘兒’가 『中原音韻』에서 ‘/i/’로 나타나는데, 이는 漢語 中古音의 疑母 ‘/ŋ/’이 『中原音韻』에서 소실되어 당시 疑母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부 개음 /i-/를 지닌 제치호 疑母자가 普通話에서 /n/로 읽히는데, 이 현상은 喉音 ‘/ŋ/’이 개음 /i-/의 영향으로 혀의 위치가 앞으로 이동하여 일종의 동화 현상의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6세기 초 조선 시대에 한어 학습할 때 교재로 사용하였던 崔世珍의 『老乞大朴通事』에서 ‘牛’를 ‘누’로 주음한 것으로 보아 15세기에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⁴⁾ ‘兒’도 普通話에서 ‘/ni/’로, 聲母가 /n/로 나타난다. 『四聲通解』는 普通話 이전 疑母가 소실된 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東國正韻』은 聲母가 ‘ㅇ’과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疑母의 변화 전후의 음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訓蒙字會』는 ‘△’으로 변화 전, 『全韻玉篇』은 ‘ㅇ’으로 변화 후의 음을 반영한다.

94) 이재돈,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9, 246쪽.

IV. 漢語 中古音과 『四聲通解』의 韻母

『四聲通解』는 23개의 韻目으로 이루어져 있어, 『洪武正韻』의 23韻目 76韻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四聲通解』는 『洪武正韻』의 ‘眞, 軫, 震, 質’韻에서 ‘文, 吻, 問, 物’韻을 분리시켜 80韻으로 구성했다. 『四聲通解』의 23韻目 80韻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⁹⁵⁾

韻目	『洪武正韻』				『四聲通解』 正音			
	開	齊	合	撮	開	齊	合	撮
1. 東			uŋ	iuŋ	-	-	응	융
2. 支	i				으	이	-	-
3. 齊		i			-	예	-	-
4. 魚				iu	-	-	-	유
5. 模			u		-	-	우	-
6. 皆	ai		uai		애	애	왜	-
7. 灰			uəi		-	-	위	-
8. 眞	ən	Iən	uən	iuən		인		
9. 文					은		운	윤
10. 寒	ɔn		uɔn		언	-	원	-
11. 刪	an		uan		안	안	완	-
12. 先		iɛn		iuɛn	-	연	-	
13. 蕭		iɛu			-	영	-	
14. 爻	au				양	양	-	-
15. 歌	ɔ		uɔ		어	-	워	-
16. 麻	a		ua		아	야	와	-
17. 遮		iɛ	iuɛ		-	여	-	
18. 陽	ŋŋ	iŋŋ	uŋŋ		양	양	왕	-
19. 庚	əŋ	iəŋ	uəŋ	iuəŋ	왕	왕	왕	
20. 尤	əu	iəu			응	영	-	-
21. 侵		im			음	임	-	-
22. 覃	am				암	얌	-	-
23. 鹽		iɛm			-	염	-	-

본 장에서 中古音의 기준이 되는 『廣韻』은 206韻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四聲等子』에서는 이를 16攝으로 나누었다. IV장에서는 韻母를 분석하기 위해, 『四聲等子』의 16攝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각 韻書와의 비교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95) 이영일, 「試論 『四聲通解』 音系特徵」, 『중국언어연구』 21, 한국중국언어학회, 2005, 340쪽.

1. 通攝

<丑41>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葱	通	東	ts ^h uŋ	通合一平東清次清	ts ^h uŋ	倉紅	ts ^h uŋ		총	총		ts ^h uŋ ¹
篷	通			通合一平東並全濁	b ^h uŋ	薄紅	p ^h uŋ	뽕	뽕	봉		p ^h əŋ ²
叢	通	東	dz ^h uŋ	通合一平東從全濁	dz ^h uŋ	徂紅	ts ^h uŋ	중	중	총		ts ^h uŋ ²
烘	通	東	ɣuŋ	通合一平東匣全濁	ɣuŋ	戶公	xuŋ	홍, 흥, 홍	홍	홍	흥	xuŋ ¹
紅	通	東	ɣuŋ	通合一平東匣全濁	ɣuŋ	戶公	xuŋ	홍, 흥, 홍, 강	홍, 궁	홍	흥, 궁	xuŋ ²
公	通	東	kewŋ	通合一平東見全清	kuŋ	古紅	kuŋ	궁	궁	궁	궁	kuŋ ¹
烘 ⁺	通	東	xuŋ	通合一平東曉次清	xuŋ	呼東	xuŋ	홍, 흥, 홍	홍	홍	흥	xuŋ ¹
董	通	東	d ^h uŋ	通合一平東定全濁	d ^h uŋ	徒紅	d ^h uŋ	똥	똥	똥	똥	t ^h uŋ ²
翁	通	東	ʔuŋ	通合一平東影全清	ʔuŋ	烏紅	ʔuŋ	웅, 영	웅		웅	uŋ ¹
農	通	中	nôŋ	通合一平冬泥次濁	nuoŋ	奴冬	nuoŋ	농	농	농	농	nuŋ ²
宗	通			通合一平冬精全清	tsuoŋ	作冬	tsuoŋ	중	중	중	중	tsuŋ ¹
烘 ⁺	通			通合一去送曉次清	xuŋ	呼貢	xuŋ	홍, 흥, 홍	홍	홍	흥	xuŋ ¹
痛	通	東	t ^h uŋ	通合一去送透次清	t ^h uŋ	他貢	t ^h uŋ	통	통	통	통	t ^h uŋ ⁴
鏃 ⁺	通	侯	tsûk	通合一入屋精全清	tsuk	作木	tsûk	·족	추	족	족	tsu ²
族	通	侯	dz ^h ûk	通合一入屋從全濁	dz ^h uk	昨木	dz ^h ûk	·족, 출	쭈	족	족 주	tsu ²
僕	通	侯	b ^h ûk	通合一入屋並全濁	b ^h uk	蒲木	p ^h u	·뽕, 북	뿌	복	복	p ^h u ²
讀	通	侯	d ^h ûk	通合一入屋定全濁	d ^h uk	徒谷	d ^h ûk	·똥, 똥	뚜	독	두, 독	tu ²
醜	通			通合一入屋滂次清	p ^h uk	普木		·푼	푸	복	복	pu ²
屋	通	侯	ʔûk	通合一入屋影全清	ʔuk	烏谷	ʔûk	·꺠, 학	후	옥	옥	u ¹
鏃 ⁺	通			通合一入屋清次清	ts ^h uk	千木	ts ^h u	·족	추	족	족	tsu ²
穀	通	侯	kûk	通合一入屋見全清	kuk	古祿	kûk	·곡, 굴, 똥	구	곡	곡, 누	ku ³
木	通	侯	mûk	通合一入屋明次濁	muk	莫卜	mûk	·목	무	목	목	mu ⁴
禿	通	侯	t ^h ûk	通合一入屋透次清	t ^h uk	他谷	t ^h u	·푼	투	독		t ^h u ¹
僕 ⁺	通			通合一入沃並全濁	b ^h uok	蒲沃	p ^h u	·뽕, 북	뿌	복	복	pu ²
風	通	侵	pjuəm	通合三平東非全清	pjuŋ	方戎		·분, 분	붕	풍	풍	fəŋ ¹
戎	通	中	njuŋ	通合三平東日次濁	njuŋ	如融		·싱, 흥, 흥	승, 승	승	응	zuŋ ²
熊	通	蒸	ɣjuəŋ	通合三平東云次濁	ɣjuŋ	羽弓	ɣjuəŋ	·흥	흥	응	응	ɕyŋ ²
忠	通			通合三平東知全清	tjuŋ	陟弓	tɕiuŋ	·똥	·꺠	똥	츄	tɕuŋ ¹
風 ⁺	通			通合三平東非全清	pjuŋ	方戎		·분	붕	풍	풍	fəŋ ⁴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분				fən ³
中 ⁺	通	中	tjoŋ	通合三平東知全清	tjuŋ	陟弓	tjoŋ	·중 ·중 ·중 ·중	ᄃ 俗 중	둥	중	tʂuŋ ¹
夢	通	蒸	mjuəŋ	通合三平東明次濁	mjuŋ	莫中	mjuŋ		몽	몽	몽	məŋ ²
容	通	東	gjuŋ	通合三平鍾以次濁	ɔjuŋ	餘封	øjuŋ	·용 ·용 ·용 ·용	용	용	용	z.uŋ ²
壘	通			通合三平鍾影全清	ʔjuŋ	於容		·용 ·용 ·용 ·용	룡, 용		용	y.uŋ ¹
龍	通	東	ljuŋ	通合三平鍾來次濁	ljuŋ	力鍾	ljuŋ	·룡 ·룡 ·룡 ·룡	룡 俗 룡	룡	룡, 총 룡	luŋ ²
冲	通	東	tʰjuŋ	通合三平鍾昌次清	tʰjuŋ	尺容	tʰjuŋ	·똥	총	통	총	tʂʰuŋ ¹
春	通	東	ɕjuŋ	通合三平鍾書全清	ɕjuŋ	書容	ɕjuŋ	·송	송 俗 송 송 송	송	송 俗 송	tʂʰuŋ ¹
松	通			通合三平鍾邪全濁	zjuŋ	祥容		·송	송	송	송	suŋ ¹
中 ⁺	通	中	tjoŋ	通合三去送知全清		陟仲	tjoŋ	·중 ·중 ·중 ·중	ᄃ 俗 중	둥	중	tʂuŋ ⁴
夢 ⁺	通	蒸	mjuəŋ	通合三去送明次濁	mjuŋ	莫鳳	mjuŋ	·몽 ·몽	몽	몽	몽	məŋ ⁴
啞 ⁺	通			通合三入屋精全清	tsjuk	子六			자	잡		tsʰu ⁴
肉	通	幽	njok	通合三入屋日次濁	njuk	如六	njok	·육 ·육 ·육 ·육	실	육	육, 유	z.ou ⁴
服	通	之	bʰjuək	通合三入屋奉全濁	bʰjuk	房六	bʰjuk	·복 ·복 ·복 ·복	뽕	복	복	fu ²
熟	通			通合三入屋禪全濁	zjuk	殊六	zjuk	·숙	쑤	숙	숙	ʂu ²
燠	通	幽	ʔjok	通合三入屋影全清	ʔjuk	於六		·육 ·육 ·육 ·육	휴	육	오, 육	y ⁴
陸	通	幽	ljok	通合三入屋來次濁	ljuk	力竹	liu	·륙	루	륙	륙	lu ⁴
禡	通			通合三入燭日次濁	njuok	而蜀	riu	·육	수	육	육	z.u ⁴
旭	通			通合三入燭曉次清	xjuok	許玉		·육	휴	육	육	ɕy ⁴

<표41>을 통하여 通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通攝은 『廣韻』의 ‘東·冬·鍾·送·屋·燭’韻을 포함하며, 牙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通攝 合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洪音으로,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는 韻母 ‘ɥ/ɨŋ/’과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ɥ/ɨŋ/’과 대응된다.

셋째, 通攝 合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細音으로,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는 韻母 ‘ɥ/iuŋ/’과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ɥ/ɨŋ/’과 대

응된다.

넷째, ‘風(봉), 夢(몽), 冲(충), 服(붕), 熟(쑤), 陸(루), 褥(수)’는 『四聲通解』 正音에서부터 개음 /i-/가 소실되었고, 普通話에서는 /uŋ/, /u/로 나타나 일률적으로 개음 /i-/가 완전히 소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屋·燭’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는 운미 /-k/가 일부 존재하지만, 『四聲通解』와 普通話에서는 소실되었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운미 /-k/가 보존되어 있다.

여섯째, 合口 三等 ‘屋·燭’韻에서 韻母 ‘ㄲ/iu/’에 해당하는 ‘燠(휴), 旭(휴)’는 普通話에서 韻母가 /y/로 나타난다.

일곱째, 『東國正韻』의 ‘ㄱ/iok/’에 해당하는 글자가 중국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四聲通解』에서는 合口 ‘ㄲ/u/’로 나타난다.

여덟째, 『廣韻』의 通攝 입성자는 근대 이후 입성 운미가 탈락되면서 遇攝에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通攝 一等字와 知系, 照系 三等字는 /-u/로, 나머지 三等字는 /y/로 독음되는데, ‘肉’은 流攝에 통합되어 /ou/로 독음된다. 이로써 추측하면 ‘肉’은 기타의 知系, 照系와는 다른 변화 과정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음의 탈락이나 韻母의 변화가 계열의 변화와 병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인데, 특히 개음의 탈락에서는 개별적인 선행이 있었다고 생각된다.⁹⁶⁾

<표41>에서 通攝에 해당하는 ‘春’은 『中原音韻』에서 /ɕjuŋ/으로, 『四聲通解』에서 ‘승俗/승/今俗/충’으로, 普通話는 /tʃhuŋ/으로 나타나 齒音 三等的 개음 /i-/가 탈락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송, 용’으로 개음 /i-/가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한자음은 개음 /i-/가 탈락하기 전의 음을 반영하였고, 이후 음변 현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96)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97쪽.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팅				
曆	梗			梗開四入錫來次濁	liek	郎擊	li	·력	리	력	력	li ⁴
鞞	梗			梗開四入錫端全清	tiek	都歷	ti	·덕	디	덕	덕	ti ²
壁	梗	佳	piek	梗開四入錫幫全清	piek	北激	pi	·벽	비	벽	벽	pi ⁴
狄	梗	佳	d ^h iek	梗開四入錫定全濁	d ^h iek	徒歷	ti	·떡 ·덕	띠	덕	덕	ti ²
溺	梗	宵	niok	梗開四入錫泥次濁	niek	奴歷	niau	·녁 ·늑 ·늑	니	늑	늑	ni ⁴
橫 ⁺	梗	陽	yuāŋ	梗合二平庚匣全濁	yuɛŋ	戶盲	xuŋ	·행·광 ·행·광 ·행·광	·행 ·행	·행	·행	xəŋ ²
橫 ⁺	梗			梗合二去映匣全濁	yuɛŋ	戶孟	xuŋ	·행·광 ·행·광 ·행·광	·행 ·행	·행	·행	xəŋ ⁴
兄	梗			梗合三平庚曉次清	xjuɛŋ	許榮		·형·황	·형	·형	·형	ɕyʉŋ ¹
傾	梗	耕	k ^h juɛŋ	梗合三平清溪次清	k ^h juɛŋ	去營	k ^h iʉŋ	·경·경 ·경·경	·경 ·경	·경	·경	tɕ ^h iŋ ¹

<표42>를 통하여 梗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梗攝은 『廣韻』의 ‘庚·靜·徑·青·清·迥·映·勁·陌·昔·錫’韻을 포함하며, 牙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梗攝 開口 三·四等に 속하는 글자는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ǰ/iŋ/’과 대응되며, 『中原音韻』,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ǰ/iəŋ/’과 대응된다.

셋째, 梗攝 合口 二等に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는 韻母 ‘uŋ/, ɳ/uŋ/, /əŋ/’과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ɳ/oŋ/’과 대응된다.

넷째, 梗攝 合口 三等に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는 韻母 ‘/iʉŋ/, ɳ/iʉŋ/, /iŋ/’과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ɳ/iʉiəŋ/, ǰ/iəŋ/’과 대응된다.

다섯째, ‘陌·昔·錫’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는 운미 /-k/가 일부 존재하지만, 『四聲通解』와 普通話에서는 소실되었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운미 /-k/가 보존되어 있다.

여섯째, ‘橫(·행)’은 梗攝 合口 二等に 속한다. 合口 三等の 경우, 음운 현상이 중국 한자 음에서는 ‘/i-/’ 모음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데, ‘橫(·행)’은 二等임에도 불구하고 개음 /i-/가 개입되었다.

<표42>에서 梗攝에 해당하는 ‘京’은 『中原音韻』에서 ‘/kjǎŋ/’으로, 『四聲通解』에서 ‘깁’으로, 普通話는 ‘/teĩŋ/’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韻母 변화는 梗攝 開口 三·四等에서 일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ǰ/iǎŋ/’으로 음변 이전의 음을 보존하고 있다.

3. 曾攝

<표43>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黑	曾	之	ɱuǎk	會開一入德曉次清	xək	呼北	xei	·흑	희	흑	흑	xei ¹
蒸 ⁺	曾	蒸	ɕjǎŋ	會開三平蒸章全清	tɕjǎŋ	煮仍	tɕjǎŋ	징 ·징	징	증	증	tɕjǎŋ ¹
升	曾	蒸	ɕjǎŋ	會開三平蒸書全清	ɕjǎŋ	識蒸	ɕjǎŋ	싱	싱	승	승	ɕjǎŋ ¹
膺	曾	蒸	ʔjǎŋ	會開三平蒸影全清	ʔjǎŋ	於陵	iǎŋ	흥	힝	응	응	iŋ ¹
蒸 ⁺	曾			會開三去證章全清	tɕjǎŋ	諸應	tɕjǎŋ	징 ·징	징	증	증	tɕjǎŋ ¹
棘	曾	之	kjək	會開三入職見全清	kjək	紀力	ki	극 ·백 ·격	기	극	극	tɕi ²
億	曾	之	ʔjək	會開三入職影全清	ʔjək	於力		·흑 ·힝	히	억	억	i ⁴
式	曾	之	ɕjək	會開三入職書全清	ɕjək	賞職		·식 ·싱	시	식	식	ɕi ⁴
職	曾	之	tjək	會開三入職章全清	tɕjək	之翼		·직	지	직	직	tɕi ²

<표43>을 통하여 曾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曾攝은 『廣韻』의 ‘證·蒸·德’韻을 포함하며, 牙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曾攝 開口 一等에 속하는 ‘黑(희)’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는 韻母 ‘/ei/, -/iɪ/’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ㄷ/ik/’과 대응된다.

셋째, 曾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는 韻母 ‘/iǎŋ/, ǰ/iŋ/, /ǎŋ/’과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ǰ/iŋ/, ㄷ/iŋ/, ㄷ/iŋ/’과 대응된다.

넷째, ‘德·職’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 운미 /-k/가 탈락하여 『四聲通解』와 普通話에서도 운미 /-k/가 소실되었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

는 운미 /-k/가 보존되어 있다.

다섯째, 梗攝, 曾攝은 『廣韻』에서 통합되었지만, 梗攝의 경우 대부분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가 ‘/iəŋ/, /iŋ/, /iŋ/’으로 대응되는 반면, 曾攝의 경우 대부분 ‘/iəŋ/, ɔ̃/iŋ/, /əŋ/’으로 대응된다. 한국 한자음의 경우도 梗攝, 曾攝이 각각 ‘ɔ̃/iəŋ/, ɔ̃/iŋ/’으로, 曾攝의 경우 개음 /i-/가 탈락된 형태로 정착되었다.

<표43>에서 曾攝에 해당하는 ‘黑(회)’는 『中原音韻』, 普通話에서 ‘/xei/’로 일치하지만, 『四聲通解』는 ‘회’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崔世珍이 음을 기록할 당시 ‘黑’의 韻母를 ‘-i/’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ㄱ/ik/’으로 中古音의 韻母 /ək/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4. 宕攝

<표44>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廊	宕			宕開一平唐來次濁	lan	魯當		랑	랑	랑	랑	lan ²
湯	宕			宕開一平唐透次清	t ^h an	吐郎	t ^h an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상	탕	탕,상	t ^h an ¹
倉	宕	陽	ts ^h an	宕開一平唐清次清	ts ^h an	七岡	ts ^h an	창 창 창 창	창	창	창	ts ^h an ¹
行	宕	陽	ɾan	宕開一平唐匣全濁	ɾan	胡郎	xan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xan ²
房	宕			宕開一平唐並全濁	b ^h an	步光	p ^h uan	방	방,방	방	방	p ^h an ²
剛	宕	陽	kan	宕開一平唐見全清	kan	古郎	kan	강	강	강	강	kan ¹
堂	宕	陽	d ^h an	宕開一平唐定全濁	d ^h an	徒郎	t ^h an	탕	탕	당	당	t ^h an ²
鳶 ⁺	宕			宕開一平唐影全清	ʔan	烏郎	ian	향	향	양	양	ian ¹
禡	宕			宕開一平唐端全清	tan	都郎	tan	당	당	당	당	tan ¹
囊	宕	陽	nan	宕開一平唐泥次濁	nan	奴當	nan	낭 낭 낭 낭	낭	낭	낭	nan ²
桑	宕	陽	san	宕開一平唐心全清	san	息郎	san	상	상	상	상	san ¹
蟒	宕			宕開一上蕩明次濁	man	模朗		망 망 망 망	망	망	망	man ³
葬	宕	陽	tsan	宕開一去宕精全清	tsan	則浪	tsan	장 장 장 장	장	장	장	tsan ⁴
盎 ⁺	宕	陽	ʔan	宕開一去宕影全清	ʔan	烏浪	an	항 항 항 항	항	양	양	an ⁴
湯	宕			宕開一去宕透次清	t ^h an	他浪	t ^h an	탕	탕,상	탕	탕	t ^h an ⁴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탕 .팡 상, 양			상	
盎	宕	陽	?aŋ	宕開一上蕩影全清	?aŋ	烏朗	aŋ	.항 .팡 .항	항	양	양	aŋ ⁴
幕	宕	魚	muak	宕開一入鐸明次濁	mak	慕各	muak	.막 .며 .만	말	막	막	mu
鏹	宕			宕開一入鐸疑次濁	ŋak	五各		.악	알	악	악	ɥ ⁴
惡 ⁺	宕	魚	?ak	宕開一入鐸影全清	?ak	烏各	?ak	.학 ㅍ ㅍ .항	후	악	오, 악	ɥ ⁴
索 ⁺	宕	魚	sak	宕開一入鐸心全清	sak	蘇各	sau	.식 .삭	살	삭	삭 식	suo ³
博	宕	魚	puak	宕開一入鐸幫全清	pak	補各	pau	.박	발	박	박	po ²
膊	宕	魚	p ^h uak	宕開一入鐸滂次清	p ^h ak	匹各		.박 .팍	팔, 발	박	박	p ^h o ⁴
鶴	宕	宵	ɥɔk2	宕開一入鐸匣全濁	ɥak	下各	xɔ	.학	할	학	학	xɥ ⁴
閣	宕	魚	kak	宕開一入鐸見全清	kak	古落	kau	.각	갈	각	각	kɥ ²
惡	宕	魚	?ak	宕開一入鐸影全清	?ak	烏各	?ak	.학 ㅍ ㅍ .항	합수 俗령	악	오, 악	ɥ ⁴
錯 ⁺	宕	魚	ts ^h ak	宕開一入鐸清次清	ts ^h ak	倉各	ts ^h u	.작 .총	찰	작	조, 작	ts ^h u ⁴
昨	宕	魚	dz ^h ak	宕開一入鐸從全濁	dz ^h ak	在各		.작	잘	작	작	tsuo ²
度 ⁺	宕	魚	d ^h ak	宕開一入鐸定全濁	d ^h ak	徒落	tu	.막 .동	달	도	도, 탁	tuo ²
酪	宕			宕開一入鐸來次濁	lak	盧各	lau	.락	랄	락	락	lau ⁴
香	宕	陽	xjaŋ	宕開三平陽曉次清	xjaŋ	許良	xjaŋ	.흙 .흙	향	향	향	ɕjaŋ ¹
房	宕	陽	b ^h juan	宕開三平陽奉全濁	b ^h juan	符方	p ^h uan	팡	팡	방	방	fan ²
鳶	宕	陽	?jaŋ	宕開三平陽影全清	?jaŋ	於良	iaŋ	향	향	양	양	iaŋ ¹
梁	宕	陽	ljaŋ	宕開三平陽來次濁	ljaŋ	呂張	liaŋ	량	량	량	량	lian ²
攘 ⁺	宕	陽	ŋjaŋ	宕開三平陽日次濁	ŋjaŋ	汝陽		.상 :상 녕	상	상	양, 녕	zan ³
陽	宕	陽	djaŋ	宕開三平陽以次濁	ɔjaŋ	與章	iaŋ	양	양	양	양	iaŋ ²
仰 ⁺	宕	陽	njaŋ	宕開三上養疑次濁	njaŋ	魚兩	njaŋ	.양 :양 양	양	양	양	iaŋ ³
網	宕			宕開三上養微次濁	mjuan	文兩	uan		망	망	망	uan ³
攘 ⁺	宕			宕開三上養日次濁	ŋjaŋ	如兩		.상 :상 녕	상	상	양, 녕	zan ³
紡	宕	陽	p ^h juan	宕開三上養敷次清	p ^h juan	妃兩		.팡	방	방	방	fan ³
仰	宕			宕開三去漾疑次濁	njaŋ	魚向	njaŋ	.양 :양 양	양	양	양	iaŋ ³
攘	宕	陽	ŋjaŋ	宕開三去漾日次濁	ŋjaŋ	人攘		.상 :상 녕	상	상	양, 녕	zan ⁴
藥	宕			宕開三入藥以次濁	ɔjak	以灼	iau	.약 .삭	알	약	약	iau ⁴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弱	宕	宵	njɔk	宕開三入藥日次濁	njak	而灼	riɔ	·약	샬	약	약	zuo ⁴

<표44>를 통하여 宕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宕攝은 『廣韻』의 ‘唐·蕩·宕·陽·養·漾·鐸·藥’韻을 포함하며, 牙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宕攝 開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韻母 ‘ɔ/aŋ’과 대응된다.

셋째, 宕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韻母 ‘ɔ̃/iaŋ’과 대응된다.

넷째, ‘鐸·藥’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는 운미 /-k/가 ‘빙’로 표기되었으며, 普通話에서는 소실되었다.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운미 /-k/가 보존되어 있다.

다섯째, 開口 三等에 속하는 ‘房(뺨), 仰(향), 網(망), 紡(방)’은 細音인데도 불구하고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洪音인 ‘ɔ/aŋ’으로 나타난다.

여섯째, ‘惡(할)’은 『四聲通解』의 正音이 ‘할’으로, 俗音이 ‘형’으로 나타난다. 『四聲通解』의 正音에서 ‘藥’韻(中古 ‘藥, 鐸, 覺’)에 해당하는 글자는 終聲이 ‘빙’⁹⁷⁾으로 표기되었는데, ‘惡’은 漢語 中古音에서 ‘鐸’韻에 속해 있어 正音이 ‘할’으로 나타난다. 俗音은 終聲이 ‘ㅎ’로 나타나 俗音에서도 입성의 흔적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普通話에서는 입성이 완전히 소실된 ‘ɣ’로 나타난다.

『四聲通解』의 正音에서는 약운(藥韻)에 해당하는 글자만 終聲을 ‘빙’으로 표기했고, 俗音에서는 일부 입성자의 글자만 終聲을 ‘ㅎ’으로 표기했는데, 終聲 ‘ㅎ’이 『四聲通解』보다 먼

97) 입성 운미는 일반적으로 중화적 약화에 이어 영(zero)으로 탈락하는 것이지만, 약운(藥韻)에 있어서는 대개의 입성 운미가 近代音 이후 운미 /-u/로 변화하였다. 『四聲通解』의 저본인 『洪武正韻譯訓』의 終聲 표기를 살펴보면, 운미 /-u/의 正音 표음에는 제12 소운(蕭韻), 제13 효운(爻韻), 제19 우운(尤韻)에서와 같이 ‘몽’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음가를 지정한 약운(藥韻)의 俗音 終聲의 표음에 ‘몽’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빙’을 사용한 것은 원래의 正音이 입성운으로서 전청음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俗音 終聲의 표음에 있어서도 전청음으로 분류되는 ‘빙’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ㄱ, ㄷ, ㅂ’ 및 ‘ㅎ’과 함께 終聲에 있어서 전청음 계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洪武正韻譯訓』에서 終聲 표기에 쓰인 ‘몽’과 ‘빙’은 그 음성적 가치에 있어서 다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61쪽.

저 쓰인 동일저자의 『翻譯老乞大朴通事』에서 이미 소실되어 있으므로, 『四聲通解』의 俗音에서 일부 입성자의 終聲을 ‘ㅇ’로 표시한 것은 『洪武正韻』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⁹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표44>에서 宕攝에 해당하는 ‘酪’은 『中原音韻』에서 ‘/lau/’로, 『四聲通解』에서 ‘랴’으로, 普通話는 ‘/lau/’로 나타난다. 『七音略』(11세기)에서 宕攝의 ‘藥, 鐸’韻을 效攝에 대응시켰는데,⁹⁹⁾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七音略』 이후 ‘酪’의 입성이 소실된 한자음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中古音 ‘/lak/’을 그대로 반영하여 ‘락’으로 나타난다.

5. 江攝

<표45>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邦	江	東	puŋ	江開二平江幫全清	poŋ	博江	poŋ	방	방	방	방	paŋ ¹
巷	江	東	ɣuŋ	江開二去絳匣全濁	ɣoŋ	胡絳	xiaŋ	향	향	향	향	ciaŋ ⁴
學	江	幽	ɣok	江開二入覺匣全濁	ɣok	胡覺	xio	학	학	학	학	ɣye ²

<표45>를 통하여 江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江攝은 『廣韻』의 ‘江·絳·覺’韻을 포함하며, 牙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江攝 開口 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oŋ/, ɣ/aŋ/, ɣ/aŋ/’과 대응된다.

98) 이재돈, 「『四聲通解』에 반영된 16세기 중국어 음계 연구」, 『중국어문화지』 1, 중국어문화회, 1994, 300쪽.

99) 宕攝의 입성자들은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입말 어음인 구어음과 글말 어음인 독서음의 두 가지 독음을 갖는데, 『절운지장도』에 이 입성자들이 수록된 상황에서 이 글자들이 두 가지 독음을 갖게 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宕攝의 입성자들은 현대 구어음으로는 모두 韻母가 -au이고 독서음으로는 -ɔ 또는 -ə 계통의 韻母를 갖는다. 落, 惡, 腳, 角, 覺 등의 글자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절운지장도』에서 效攝의 韻母는 au, au, iau이므로 宕攝 입성자가 效攝에 수록된 것은 구어음에서는 입성 운미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au, au, iau에 입성 운미가 있었다면 auk, auk, iauk(또는 au?, au?, iau?)인데, 이 경우 운미가 둘이 되므로 당시 중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지 않는다. 『칠음략』에서 宕攝의 글자인 藥, 鐸을 效攝에 대응시킨 것은 구어음에서 입성 운미의 소실이 『칠음략』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교방, 2014, 171쪽.

셋째, ‘覺’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는 운미 /-k/가 ‘병’로 표기되었으며, 普通話에서는 소실되었다.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운미 /-k/가 보존되어 있다.

넷째, ‘巷(響), 學(響)’은 開口 二等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음 /i-/가 나타난다. 開口 二等的 聲母가 牙·喉音에 해당하는 글자들에서 개음 /i-/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四聲通解』가 중국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45>에서 江攝에 해당하는 ‘學’은 中古音에서 ‘/ɾɔk/’으로, 『中原音韻』에서 ‘/xiɔ/’로, 『四聲通解』에서 ‘響’으로, 普通話는 ‘/eye/’로 나타난다. 漢語 中古音의 ‘/ɔk/’은 『中原音韻』에서 입성이 소실되고 개음 /i-/가 추가되어 ‘/iɔ/’가 되었다. 『四聲通解』는 ‘ㄹ’로 나타나는데, 현재 학자들 대부분이 終聲 표기로 사용된 ‘병’의 음가를 ‘/u/’로 추정하고 있어, ‘ㄹ’는 /iau/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⁰⁰⁾ 宕攝의 入聲 開口 三等은 普通話에서 ‘/uo/, /au/, /ye/, /iau/’로 발음되는데,¹⁰¹⁾ 『四聲等子』에서부터 宕攝과 江攝이 병합된 것으로 보아, ‘學(響)’ 또한 普通話에서 韻母가 ‘/ye/’로 발음되는 것으로 보인다.

6. 山攝

<표46>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干	山	元	kan	山開一平寒見全清	kan	古寒	kan	간 안 한	건	간	간	kan ¹
珊	山	元	san	山開一平寒心全清	san	蘇干	san	산	산 산	산	산	san ¹
看 ⁺	山	元	k ^h an	山開一平寒溪次清	k ^h an	苦寒	k ^h an	칸 칸	컨	간	간	k ^h an ¹

100) 『四聲通解』 凡例에서 “藥韻 중성에서만은 그 소리가 效韻과 흡사해서 『蒙韻』에서는 -몽을 사용하였고, 『四聲通考』에서는 -병을 사용하였으니, 지금 『四聲通考』를 따라 -병을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한 대목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운미 중성에 사용된 -병의 실제 음가가 -몽오 상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翻譯老乞大·朴通事』 凡例 “몽병爲終聲”條에 따르면 “몽은 본래 ‘ㄷ·ㄱ’와 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蕭·爻韻의 (중성) -몽은 마치 ‘ㄱ’와 같이 발음되고, 尤韻의 (중성) -몽은 마치 爻(效)韻의 ‘ㄷ’와 같이 발음된다.”고 하였으며, 『諺文志』에서도 “藥韻에서는 마치 ‘ㄱ’와 ‘ㄱ’로 각각 발음된다.”라고 한 것을 보면, 藥韻의 운미에 사용된 -병의 음가는 “ㄱ/-o/”에 가까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성일, 『四聲通解』 入聲韻의 今俗音 考察, 『중국어학연구』 37, 한국중문학회, 2008, 398-399쪽.

101) 陳新雄, 『『廣韻』研究』, 學生書局, 2004, 584쪽.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澗	山	元	tʰan	山開一平寒透次清	tʰan	他干	tʰan	탄 탄	탄	탄	탄	tʰan¹
欄	山			山開一平寒來次濁	lan	落干	lan		란	란	란	lan²
彈 ⁺	山	元	dʰan	山開一平寒定全濁	dʰan	徒干	tan	판 판	판	탄	탄	tʰan²
汗 ⁺	山	元	van	山開一平寒匣全濁	van	胡安	xan	한 한	한	한	한	xan²
丹	山	元	tan	山開一平寒端全清	tan	都寒	tan	단	단	단	단	tan¹
傘	山			山開一上旱心全清	san	蘇旱	san	산	산	산	산	san³
攤	山			山開一平寒透次清	nuan	奴但		난 탄	난 탄	탄	난 탄	nan⁴
看	山	元	kʰan	山開一去翰溪次清	kʰan	苦汗	kʰan	칸 칸	컨	간	간	kʰan⁴
案	山	元	ʔan	山開一去翰影全清	ʔan	烏汗	an	안	헌	안	안	an⁴
岸	山	元	ɲan	山開一去翰疑次濁	ɲan	五汗	an	안	연	안	안	an⁴
彈	山	元	dʰan	山開一去翰定全濁	dʰan	徒案	tan	판 판	판	탄	탄	tan⁴
攤 ⁺	山			山開一去翰泥次濁	nan	奴案		난 탄	난 탄	탄	난 탄	nan⁴
汗	山	元	van	山開一去翰匣全濁	van	侯汗	xan	한 한	한	한	한	xan⁴
割	山	祭	kat	山開一入曷見全清	kat	古達	kɔ	갈	거	할	갈 갈	kr¹
蓬	山			山開一入曷定全濁	dʰat	唐割			따	달	달	ta²
撻	山	祭	tʰat	山開一入曷透次清	tʰat	他達	ta	탈	타	달	달	tʰa⁴
渴	山	祭	kʰat	山開一入曷溪次清	kʰat	苦曷	kʰɔ	갈 경 경	커	갈	갈 결	kʰɔ³
蓋	山			山開二上產莊全清	tʃæn	阻限	tʃæn	잔	잔	잔	잔	tʃæn³
瓣	山	元	bʰuæ̃n	山開二去禩並全濁	bʰæ̃n	蒲萇	puan	반 반	반	판	판	pan⁴
涎 ⁺	山	元	zjæ̃n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n	夕連	siɛ̃n	션	션	연	션 연	ɕian²
便 ⁺	山	元	bjuæ̃n	山開三平仙並全濁	bʰjæ̃n	房連	piɛ̃n	편 편	편	편	편, 변	pʰian²
煎 ⁺	山	元	tsjæ̃n	山開三平仙精全清	tsjæ̃n	子仙	tsien	전 전 전	전	전	전	tcian¹
扇 ⁺	山			山開三平仙書全清	ɕjæ̃n	式連	ʃien	션 션	션	션	션	ʃan⁴
筵	山	元	djæ̃n	山開三平仙以次濁	ɔjæ̃n	以然	iɛ̃n	연	연	연	연	ian²
乾	山	元	gʰjan	山開三平仙羣全濁	gʰjæ̃n	渠焉	kʰiɛ̃n	견 간	견	견	견, 간	tcʰian²
蓮 ⁺	山			山開三上獮來次濁	ljæ̃n	力展	liɛ̃n	련	련	련	련	lian³
善	山	元	zjæ̃n	山開三上獮禪全濁	zjæ̃n	常演	ʃien	션 션	션	션		ʃan⁴
戰	山	元	tjæ̃n	山開三去線章全清	tcjæ̃n	之膳	tʃien	전	전	전	전	tʃæn⁴
扇 ⁺	山	元	ɕjæ̃n	山開三去線書全清	ɕjæ̃n	式戰	ʃien	션 션	션	션	션	ʃan⁴
煎 ⁺	山	元	tsjæ̃n	山開三去線精全清	tcian⁴	子賤	tsien	전 전 전	전	전	전	tcian¹
便	山	元	bʰjuæ̃n	山開三去線並全濁	bʰjæ̃n	婢面	piɛ̃n	편 편	편	편	편, 변	pian⁴
面	山	元	mjuæ̃n	山開三去線明次濁	mjæ̃n	彌箭	mien	면	면	면	면	mian⁴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鼈	山	祭	b ^h juæt	山開三入薛幫全清	piæt	并列	pie	·병	벼	별	별	pie ¹
蜎	山	祭	ljæt	山開三入薛來次濁	ljæt	良辭		·령	려	렬	렬	lie ⁴
滅	山	祭	mjuæt	山開三入薛明次濁	mjæt	亡列	miε	·명	며	멸	멸	mie ⁴
傑	山	祭	g ^h jat	山開三入薛羣全濁	g ^h jæt	渠列	kie	·꿍	껴	걸	걸	tɕie ²
天	山			山開四平先透次清	t ^h ien	他前	t ^h ien	·턴	턴	턴	턴	t ^h ian ¹
田	山	真	d ^h ien	山開四平先定全濁	d ^h ien	徒年	t ^h ien	·면	면	던	던	t ^h ian ²
編	山	元	piuæn	山開四平先幫全清	pien	布玄		·변	변	편	편	pian ¹
烟	山			山開四平先影全清	ɣien	烏前		·인	연	연	연	ian ¹
賢	山	真	ɣien	山開四平先匣全濁	ɣien	胡田	xiɛn	·현	현	현	현	ɕian ²
年	山	真	nien	山開四平先泥次濁	nien	奴顛	nien	·년	년	년	년	nian ²
前	山	元	dz ^h iæn	山開四平先從全濁	dz ^h ien	昨先	t ^h ien	·전	전	전	전	tɕ ^h ian ²
千	山	真	t ^h ien	山開四平先清次清	t ^h ien	蒼先	t ^h ien	·천	천	천	천	tɕ ^h ian ¹
蓮	山	元	liæn	山開四平先來次濁	lien	落賢	liɛn	·런	런	런	런	lian ²
趺	山	元	kiæn	山開四上銑見全清	kiɛn	古典		·건	건	건		tɕian ³
典	山	文	tiæn	山開四上銑端全清	tien	多珍	tien	·면	면	면	면	tian ³
洗 ⁺	山	文	siæn	山開四上銑心全清	siɛn	蘇典	si	·선	선	세	세 선	ɕian ³
鐵	山			山開四入屑透次清	t ^h iɛt	他結	t ^h iɛ	·텡	터	털	털	t ^h ie ³
跌	山	脂	d ^h iɛt	山開四入屑定全濁	d ^h iɛt	徒結	tiɛ	·뎡	떠	딜	뎡 뎡	tie ¹
潘	山	元	p ^h uan	山合一平桓滂次清	p ^h uan	普官	p ^h uən	·판	판	번	번, 반	p ^h an ¹
芄	山	元	ɣuan	山合一平桓匣全濁	ɣuan	胡官		·환	환	환	환	uan ²
盤	山	元	b ^h uan	山合一平桓並全濁	b ^h uan	薄官	p ^h uən	·반	반	반	반	p ^h an ²
酸	山	元	suan	山合一平桓心全清	suan	素官	suən	·산	산	산	산	suan ¹
碗	山			山合一平桓影全清	ʔuan	一丸	uən	·환	환	완	완	uan ¹
饅	山			山合一平桓明次濁	muən	母官	muən	·만	만	만	만	man ²
鑽 ⁺	山			山合一平桓精全清		借官	tsuən	·찬	찬	찬	찬	tsuan ¹
卵	山	元	luan	山合一上緩來次濁	luan	盧管	luən	·란	란	란	란	luan ³
暖	山			山合一上緩泥次濁	nuan	乃管	nuən	·난	난	난		nuan ³
鑽 ⁺	山	元	tsuan	山合一去換精全清	tsuan	子筭	tsuən	·잔	잔	잔	잔	tsuan ⁴
滅 ⁺	山			山合一入末曉次清	xuat	呼括		·활	획	예	외 외, 활	xuo ⁴
幹	山	祭	ʔuat	山合一入末影全清	ʔuat	烏括		·관	관	알	관 관, 알	uo ⁴
沫	山	祭	muat	山合一入末明次濁	muat	莫撥	muo	·말	말	말	말	mo ⁴
醃	山			山合一入末滂次清	p ^h uat	普活		·팡	팡	발	발	p ^h o ¹
蠻	山	元	muən	山合二平刪明次濁	man	莫還	muən	·만	만	만	만	man ²
板	山	元	puən	山合二上潛幫全清	pan	布縮	puən	·반	반	판	판	pan ³
八	山	脂	pet	山合二入黠幫全清	pæt	博拔	pua	·밭	바	팔	팔	pa ¹
原	山	元	njuæn	山合三平元疑次濁	njuen	愚袁	iuɛn	·원	원	원	원	yan ²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玄	山	真	ɣiuen	山合四平先匣全濁	ɣiuɛn	胡涓	xiuɛn	현	현	현	현	ɕyan ²
淵	山	真	ʔiuen	山合四平先影全清	ʔiuɛn	烏玄	iuɛn	원	원	원	원	yan ¹
穴	山	脂	ɣiuɛt	山合四入屑匣全濁	ɣiuɛt	胡決	xiɛ	혈	혈	혈	혈	ɕye ²

<표46>을 통하여 山攝에 해당하는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山攝은 『廣韻』의 ‘産·仙·刪·漕·寒·旱·翰·線·禰·屑·元·緩·換·末·月·曷·桓·黠·薛’韻을 포함하며, 舌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山攝 開口 一·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는韻母 ‘ㄴ/an/’과 대응되며, 『四聲通解』에서는韻母 ‘ㄴ/an/’과 ‘ㄴ/ən/’이 혼용된다.

셋째, 山攝 開口 三·四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韻母 ‘ㄴ/ian/’과 대응된다.

넷째, 山攝 合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는韻母 ‘ㄴ/uan/’, ‘ㄴ/an/’과 대응되며, 『四聲通解』에서는韻母 ‘ㄴ/uən/’과 대응된다.

다섯째, 山攝 合口 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韻母 ‘ㄴ/an/’과 대응되고, 山攝 合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는韻母 ‘ㄴ/uən/’과 대응되며, 『四聲通解』에서는韻母 ‘ㄴ/iuən/’과 대응된다.

여섯째, 山攝 合口 四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의韻母 ‘ㄴ/iuən/’과 대응되고,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는韻母 ‘ㄴ/ian/’과 대응된다.

일곱째, ‘曷·月·薛·屑·末·黠·屑’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 입성 운미 /-t/가 탈락하여 『四聲通解』와 普通話에서도 운미 /-t/가 소실된 음이 반영되었다. 반면, 『東國正韻』에서는 입성 운미 /-t/를 以影補來 ‘ㄹ’로 終聲을 표기했고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ㄹ’로 終聲을 표기했다.

여덟째, 山攝 開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들은 입성자를 제외하고 『四聲通解』에서韻母가 ‘ㄴ’과 ‘ㄴ’이 혼용된다. 이는 漢語 中古音의 주요원음 ‘/a/’가 普通話의 주요원음 ‘/a/’로 합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中原音韻』에서는 이미 寒韻이 刪韻에 합류되어

모두 ‘/a/’로 나타난다.

아홉째, 山攝 合口 四等에 해당하는 韻母는 ‘**ㄹ**’으로 나타난다. 기존 연구에서 唐作藩이 韻母 ‘**ㄹ**’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四聲通解』에서 合口 四等에 속하는 글자는 韻母가 ‘**ㄹ**’로 나타나는데, 역대로 이 음을 재구한 학자들은 한결같이 표기를 그대로 적용하여 ‘/iuɪən/’으로 轉寫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중국 한자음을 재구한 중국인 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음을 재구한 적이 없으며, 현재 중국어 방언에도 이런 음은 없다. 韻母가 ‘**ㄹ**’의 표기는 崔世珍이 『四聲通解』를 편찬할 당시 참고한 『蒙古字韻』 음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蒙古字韻』에는 ‘**ㄹ**’에 대응하는 것으로 ‘uèn’과 ‘èon’이 있다. ‘uèn’에서 ‘u’는 遮韻의 ‘겨’의 대응음에도 쓰인 것으로, 이 두 韻에서 ‘u’는 분명 ‘ju’를 나타내는 것이고, ‘è’은 ‘jə’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四聲通解』에서 보이는 韻母 ‘**ㄹ**’은 『蒙古字韻』에 수록된 또 다른 표음문자로 쓰인 병음을 그대로 전사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¹⁰²⁾

<표46>에서 董同龢의 漢語 中古音의 추정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을 살펴보면 韻母가 ‘/iuɛn/’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唐作藩은 당시 董同龢의 추정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唐作藩이 『四聲通解』의 ‘**ㄹ**’에 대해서 『蒙古字韻』의 ‘u(ju)’와 ‘è(jə)’를 轉寫한 것이라고 짐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열째, 中古音, 『中原音韻』, 普通話의 入聲 변화를 살펴보면 山攝 開口 一等的 入聲은 ‘/at/, /ɔ/, /ɤ/’로, 開口 三·四等的 入聲은 ‘/jæt/, /iɛ/, /ie/’로, 合口 一等的 入聲은 ‘/uat/, /uo/, /o/’로, 合口 四等的 入聲은 ‘/iuɛt/, /Iɛ/, /ye/’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46>에서 山攝에 해당하는 ‘沫(뫼)’은 中古音에서 ‘/muat/’으로, 『中原音韻』에서 ‘/muɔ/’로, 『四聲通解』에서 ‘뫼’로, 普通話는 ‘/mo/’로 나타나 漢語 中古音의 合口의 성격이 잘 반영되어 있다. 반면, 『東國正韻』에서는 ‘뫼’로,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말’로 나타나 合口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102) 이종구, 『『四聲通解』의 中國音正音 표기음의 재구』, 『중국언어연구』 26, 한국중국언어학회, 2008, 480쪽.

7. 臻攝

<丑47>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根	臻	文	kân	臻開一平痕見全清	kən	古痕	kən	근	근	근	근	kən ¹
齷	臻	文	k ^h ân	臻開一上很溪次清	k ^h ən	康很	k ^h ən	근 :근 :은 :은 :은	근	근	은 :근	k ^h ən ³
榛 ⁺	臻	真	tsen	臻開二平臻莊全清	tʃ(j)en	側誦	tʃən	즌 :즌 :즌	진	진	진	tʃən ¹
瑟	臻	脂	set	臻開二入櫛生全清	ʃ(j)et	所櫛	ʃi	스	슬	슬	슬	sr ⁴
民	臻	真	mjen	臻開三平真明次濁	mjen	彌鄰	miən	민	민	민	민	min ²
螻	臻			臻開三平真從全濁	dz ^h jen	匠鄰		진	진	진	진	tʃ ^h in ²
貧	臻	文	b ^h juən	臻開三平真並全濁	b ^h jən	符巾	p ^h iən	빈	빈	빈	빈	p ^h in ²
辛	臻	真	sjen	臻開三平真心全清	sjen	息鄰	siən	신	신	신	신	ɕin ¹
辰	臻	文	zjen	臻開三平真禪全濁	zjen	植鄰	tʃ ^h iən	췌	췌	신	신	tʃ ^h ən ²
臣	臻	真	jjen	臻開三平真禪全濁	zjen	植鄰	tʃ ^h iən	췌	췌	신	신	tʃ ^h ən ²
人	臻	真	njen	臻開三平真日次濁	njen	如鄰	riən	신	신	신	인	zən ²
身	臻	真	ɕjen	臻開三平真書全清	ɕjen	失人	ʃiən	신	신	신	신	ʃən ¹
芹	臻	文	g ^h jən	臻開三平欣羣全濁	g ^h jən	巨斤	k ^h iən	근	근	근	근	tʃ ^h in ²
珍	臻	真	tjen	臻開三平真知全清	tjen	陟鄰	tʃiən	딘	췌	딘	진	tʃən ¹
親 ⁺	臻	真	ts ^h jen	臻開三平真清次清	ts ^h jen	七人	tʃ ^h iən	친 :친	친	친	친	tʃ ^h in ¹
銀	臻	文	njen	臻開三平真疑次濁	njən	語巾	tʃ ^h iən	은	인	은	은	in ²
烟	臻	真	ʔjen	臻開三平真影全清	ʔjen	於真		인 현	현	연	연	in ¹
麟	臻	真	ljen	臻開三平真來次濁	ljen	力珍	liən	린	린	린	린	lin ²
巾	臻	文	kjən	臻開三平真見全清	kjən	居銀	kiən	근	긴	건	근 俗 건	tɕin ¹
津	臻	真	tsjen	臻開三平真精全清	tsjen	將鄰	tsiən	진	진	진	진	tɕin ¹
听	臻	文	xjən	臻開三平欣曉次清	xjən	許斤	xiən	흔	힌	흔	흔	ɕin ¹
寘	臻	真	pjen	臻開三平真幫全清	pjen	必鄰	piən	빈	빈	빙	빈	pin ¹
引	臻	真	djen	臻開三上軫以次濁	0jen	余忍	iən	인 :인 :인	인	인	인	in ³
燼	臻			臻開三去震邪全濁	zjen	徐刃	siən	췌	췌	신	신	tɕin ⁴
櫬	臻	真	ts ^h en	臻開三去震初次清	tʃ ^h jen	初覲		췌 :췌	췌	친	췌	tʃ ^h ən ⁴
親 ⁺	臻			臻開三去震清次清	ts ^h jen	七遶	tʃ ^h iən	친 :친	친	친	친	tʃ ^h in ⁴
引 ⁺	臻	真	djen	臻開三去震以次濁	0jen	羊晉	iən	인 :인 :인	인	인	인	in ³
疾	臻	脂	dz ^h jet	臻開三入質從全濁	dz ^h jet	秦悉	tsi	췌	췌	질	질	tɕi ²
壹	臻	脂	ʔjet	臻開三入質影全清	ʔjet	於悉		췌 :췌	히	일	일	i ¹
蟋 ⁺	臻			臻開三入質心全清	sjet	息七		췌 :췌	시	실	실	ɕi ¹
吃	臻	微	kjöt	臻開三入迄見全清	kjöt	居乞		긔	기	결	긔 俗 홀	tʃ ^h ɿ ¹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七	臻	脂	ts ^h jet	臻開三入質清次清	ts ^h jet	親吉	ts ^h i	·칭	치	칠	칠	tɕ ^h i ¹
乞	臻	微	k ^h jət	臻開三入迄溪次清	k ^h jət	去訖	ki	·크 ·깁 ·깁깁	키	걸	기, 글 ·俗 ·걸	tɕ ^h i
匹	臻	脂	p ^h jet	臻開三入質滂次清	p ^h jet	譬吉	p ^h i	·뽕	피	필	필	p ^h i ³
蜜	臻	脂	mjet	臻開三入質明次濁	mjet	彌畢	mi	·땡	미	밀	밀	mi ⁴
檟	臻			臻開三入質章全清	tɕjet	之日		·짙	지	질	질	tɕ ^l 4
栗	臻	脂	ljjet	臻開三入質來次濁	ljjet	力質	li	·림 ·림림	리	를	를	li ⁴
日	臻	脂	n ^h jet	臻開三入質日次濁	n ^h jet	人質	ri	(·)씰	시	실	일	z ^l 4
佛 ⁺	臻	微	b ^h juət	* 臻開三入質並全濁	biet	薄宓	fu fuɔ	·뵤 ·뵤뵤 ·뵤뵤뵤 ·뵤뵤뵤	뵤	불	불, 필	fu ² , fo ²
室	臻	脂	ɕjet	臻開三入質書全清	ɕjet	式質	ɕi	·심	시	실	실	ɕ ^l 4
筆	臻	微	pjuət	臻開三入質幫全清	pjət	鄙密	pui	·뵤 ·뵤뵤	비	필	필	pi ³
溢	臻			臻開三入質以次濁	ɔjet	夷質	i	·잉	이	일	일	i ⁴
尊	臻	文	tsuən	臻合一平魂精全清	tsuən	祖昆	tsuən	·존	존	존	존	tsuən ¹
昏	臻	文	ɱuən	臻合一平魂曉次清	xuən	呼昆	xuən	·훈	훈	훈	훈	xuən ¹
魂	臻	文	ɣuən	臻合一平魂匣全濁	ɣuən	戶昆	xuən	·훈	훈	훈	훈	xuən ²
縕	臻	文	ʔuən	臻合一平魂影全清	ʔuən	烏渾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운	운	uən ¹
縕 ⁺	臻	文	ʔuən	臻合一平魂影全清	ʔuən	烏渾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운	운	uən ¹
盆	臻	文	b ^h uən	臻合一平魂並全濁	b ^h uən	蒲奔	p ^h uən	·뵤	뵤	분	분	p ^h ən ²
豚	臻	文	d ^h uən	臻合一平魂定全濁	d ^h uən	徒渾	t ^h uən	·뵤 ·뵤	뵤	둔	둔	t ^h uən ²
門	臻	文	muən	臻合一平魂明次濁	muən	莫奔	muən	·뵤	뵤	문	문	mən ²
蹲	臻	文	dz ^h uən	臻合一平魂從全濁	dz ^h uən	徂尊	ts ^h uən	·뵤 ·뵤 ·뵤	뵤	준	준	tuən ¹
孫	臻	文	suən	臻合一平魂心全清	suən	思渾	suən	·뵤 ·뵤	순	손	손	suən ¹
噴 ⁺	臻	文	p ^h uən	臻合一平魂滂次清	p ^h uən	普魂	p ^h uən	·뵤 ·뵤	뵤	분	분	p ^h ən ¹
噴	臻	文	p ^h uən	臻合一去隱滂次清	p ^h uən	普悶	p ^h uən	·뵤 ·뵤	뵤	분	분	p ^h ən ¹
寸	臻	文	ts ^h uən	臻合一去隱清次清	ts ^h uən	倉困	ts ^h uən	·촌	촌	촌	촌	ts ^h uən ⁴
卒 ⁺	臻	微	tsuət	臻合一入沒精全清	tsuət	臧沒	tsu	·쥬 ·쥬 ·쥬 ·쥬	쥬	졸	졸	tsu ²
鵠 ⁺	臻	微	kuət	臻合一入沒匣全濁	ɣuət	戶骨	xu	·뵤	뵤	골	홀, 골	xu ²
突	臻			臻合一入沒定全濁	d ^h uət	陀骨		·뵤	뵤	돌	돌	t ^h u ¹
笏	臻			臻合一入沒曉次清	xuət	呼骨	xu	·훙	후	홀	홀	xu ⁴
鵠	臻	微	kuət	臻合一入沒見全清	kuət	古忽	xu	·뵤	뵤	골	홀, 골	ku ²
卒 ⁺	臻	微	ts ^h uət	臻合一入沒清次清	ts ^h uət	倉沒	tsu	·쥬 ·쥬 ·쥬	쥬	졸	졸	ts ^h u ⁴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쑤				
鵠	臻			臻合一入沒並全濁	b ^h uət	蒲沒			뿌	닐	닐	po ²
縕	臻	文	ʔjuən	臻合三平文影全清	ʔjuən	於云		·훈, 훈 ·훈, 훈	훈, 훈	:은	은	yn ⁴
分	臻	文	pjuən	臻合三平文非全清	pjuən	府文	fuən	·뵤, 뵤 ·뵤, 뵤 ·뵤, 뵤	분, 뵤	분	분	fən ¹
墳	臻	文	b ^h juən	臻合三平文奉全濁	b ^h juən	符分	fuən	·뵤, 뵤 ·뵤, 뵤	뵤	분	분	fən ²
淪	臻	文	ljuən	臻合三平諄來次濁	ljuən	力連	liuən	룬	룬	룬	룬, 룬	luən ²
雲	臻	文	ɣjuən	臻合三平文云次濁	ɣjuən	王分	iuən	운	운	운	운	yn ²
搵	臻	文	ʔjuən	臻合三上吻影全清	ʔjuən	於粉	uən		후	온		uən ⁴
墳 ⁺	臻	文	b ^h juən	臻合三上吻奉全濁	b ^h juən	房吻	fuən	·뵤, 뵤 ·뵤, 뵤	뵤	분	분	fən ⁴
問	臻	文	mjuən	臻合三去問微次濁	mjuən	亡運	vuən		문	문	문	uən ⁴
訓	臻			臻合三去問曉次清	xjuən	許運	xiuən	·훈	훈	훈	훈	ɣyn ⁴
閏	臻			臻合三去稊日次濁	njuən	如順	riuən	·순	순	순	눈	z.uən ⁴
卒 ⁺	臻	微	tsjuət	臻合三入術精全清	tsjuət	子聿	tsu	·쑤, 쑤 ·쑤, 쑤 ·쑤, 쑤 ·쑤, 쑤	주, 주 쑤, 쑤 쑤, 쑤	졸	졸, 쑤	tsu ²
稭	臻			臻合三入術來次濁	ljuət	呂郵			류	를		ly ⁴
緇	臻	脂	gjuət	臻合三入術以次濁	0juət	餘律		·음	유	흠	을	y ⁴

<표47>을 통하여 臻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臻攝은 『廣韻』의 ‘痕·很·欣·恩·魂·諄·臻·眞·軫·震·稊·文·吻·問·質·迄·沒·櫛·術’韻을 포함하며, 舌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臻攝 開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韻母 ‘ㄴ/ən/’과 대응된다.

셋째, 臻攝 開口 二等에 속하는 글자가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는 韻母 ‘ㄴ/ən/’과 대응되고,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ㄴ/in/’과 대응된다.

넷째, 臻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韻母 ‘ㄴ/in/’과 대응된다.

다섯째, 臻攝 合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가 『四聲通解』에서 韻母 ‘ㄴ/un/’과 대응되며, 『中原音韻』,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ㄴ/un/’과 ‘ㄴ/on/’이 혼용된다.

여섯째, 臻攝 合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가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 韻母 ‘ㄴ/un/’과 ‘ㄴ/iun/’이 섞여서 나타나는데, 『四聲通解』의 韻母는 대부분 ‘ㄴ/iun/’에 속해 있다. 中古音의 韻母는 ‘/juən/’으로, 『中原音韻』의 韻母는 ‘/juən/’

와 /uən/으로 나타나는데, 『中原音韻』은 개음 /i-/의 소실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中原音韻』의韻母가 /juən/인 글자는 普通話에서 /yn/으로 나타나고, 『中原音韻』에서 개음 /i-/가 소실된韻母는 普通話에서 /uən/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質·迄·沒·櫛·術’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 입성 운미 /-t/가 탈락하여 『四聲通解』와 普通話에서도 운미 /-t/가 소실된 음이 반영되었다. 반면, 『東國正韻』에서는 입성 운미 /-t/를 以影補來 ‘ㄷ’로 표기했고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ㄷ’로 표기했다.

여덟째, ‘分(분, 분), 墳(분), 問(문)’은 合口 三等임에도 불구하고 聲母가 唇音이기 때문에韻母가 ‘ㄴ/un/’으로 나타난다.

아홉째, ‘淪’은 『東國正韻』에서 ‘문’으로 나타나고, 중국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四聲通解』에서는 合口에 해당하는 ‘문’으로 나타난다.

열째, 『東國正韻』의 ‘ㄴ/on/’에 해당되는 글자 중 『四聲通解』에서 운미 /-n/이 탈락된 글자는 中古音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열한째, 開口 三等에 해당하는 글자가 『東國正韻』에서 ‘-i/’로 읽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舌面音이 開口 三等에 속하고 舌尖音은 開口 一等에 속하지만, 한국에서는 주요모음이 ‘-i/’인데 開口 三等과 開口 一等이 섞여 있다. 이로 보아, 한국어 ‘-i/’음의 성격은 舌尖音과 舌面音 사이의 舌尖面元音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¹⁰³⁾

<표47>에서 臻攝에 해당하는 ‘訓(훈)’은 中古音이 /xjuən/으로, 『中原音韻』은 /xiuən/으로, 『四聲通解』는 ‘훈’으로, 普通話는 /eyn/으로 나타나韻母가 /juən/, /iuən/, /iun/, /yn/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韻母가 /un/으로 개음 /i-/가 탈락된 형태가 반영되었다.

103) 국어의 현대 음운학에서 모음의 변별적 자질로서 ① 開口度, ② 舌의 位置, ③ 公明의 與否를 규칙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 중 ‘-’ 모음에 대해서는 개구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즉 ‘-’ 음은 중설모음으로서 舌의 상태가 ‘小縮’으로 조금 오물어진 단계적인 표현(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근수, 「중기국어의 “오/ㅛ/ / 우/ㅜ/”에 대하여」, 『어문논집』 13, 민족어문학회, 1971. 35-36쪽.

8. 咸攝

<丑48>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談	咸	談	d ^h am	咸開一平談定全濁	d ^h am	徒甘	t ^h am	ㅃ	담	담	담	t ^h an ²
甘	咸	談	kam	咸開一平談見全清	kam	古三	kam	감 함	감	감	감	kan ¹
貪	咸	侵	t ^h əm	咸開一平覃透次清	t ^h Am	他含	t ^h am	담	담	담	담	t ^h an ¹
柑	咸			咸開一平談溪次清	k ^h am	苦甘			감	감		kan ¹
簪 ⁺	咸	侵	tsəm	咸開一平覃精全清	tsAm	作含	t ^ʃ əm	즈 잡	잠	즈	즈	tsan ¹
簪 ⁺	咸			*咸開一平覃精全清	tsəm	祖含	t ^ʃ əm	즈 잡	잠	즈	즈	tsan ¹
膽	咸	談	tam	咸開一上敢端全清	tam	都敢	tam	:담	담	담	담	tan ³
糝	咸	侵	səm	咸開一上感心全清	sAm	桑感	sam	:삼	삼	삼	삼	san ³
蓋 ⁺	咸	祭/葉	kad/ kab	咸開一入盍見全清	kap	古盍	kai	개 갭	개	버, 합 갭	버, 합 갭	ky ³
榼	咸	葉	k ^h ap	咸開一入盍溪次清	k ^h ap	苦盍		:갭	카	합	갭 俗합	k ^h ɥ ¹
啞 ⁺	咸			咸開一入合精全清	tsAp	子荅	t ^ʃ a		자	잡		t ^ʃ a ¹
塔	咸			咸開一入盍透次清	t ^h ap	吐盍	t ^h a	:탑	타	탑	탑	t ^h a ³
衫	咸			咸開二平銜生全清	ʃam	所銜	ʃam	삼	삼	삼	삼	ʃan ¹
歎	咸			咸開二平咸溪次清	k ^h əm	口咸	k ^h iəm	:감 :겸 :검	겸	:겸	겸 감	t ^ʃ hian ⁴
歎 ⁺	咸			咸開二上賺溪次清	k ^h əm	苦減	k ^h iəm	:감 :겸 :검	겸	:겸	겸 감	t ^ʃ hian ⁴
歎 ⁺	咸	談	k ^h əm	咸開二去陷溪次清	k ^h əm	口陷	k ^h iəm	:감 :겸 :검	겸	:겸	겸 감	t ^ʃ hian ⁴
潛 ⁺	咸	侵	dz ^h jəm	咸開三平鹽從全濁	dz ^h jəm	昨鹽	t ^ʃ iəm	점	점	즈	점 正즈	t ^ʃ hian ²
占 ⁺	咸	談	tjem	咸開三平鹽章全清	t ^ʃ jəm	職廉	t ^ʃ iəm	점 점	점	점	점	t ^ʃ an ¹
籤	咸	談	ts ^h jəm	咸開三平鹽清次清	ts ^h jəm	七廉	t ^ʃ iəm	점	점	점	점	t ^ʃ hian ¹
齧 ⁺	咸			咸開三平鹽從全濁	dz ^h jəm	昨鹽	siəm	심 점	심	심	심	t ^ʃ hian ²
柑	咸			*咸開三平鹽群全濁	giəm	其淹	kam	감 점	감	감 점	감 점	kan ¹
檢	咸	談	kjəm	咸開三上琰見全清	kjəm	居奄		:검	검	검	검	t ^ʃ hian ³
潛 ⁺	咸			咸開三去豔從全濁	dz ^h jəm	慈豔	t ^ʃ iəm	점	점	즈	점 正즈	t ^ʃ hian ²
占 ⁺	咸			咸開三去豔章全清	t ^ʃ jəm	章豔	t ^ʃ iəm	점 점	점	점	점	t ^ʃ an ⁴
瞻	咸			咸開三去豔禪全濁	zjəm	視佳	ʃiəm	:섬	섬		섬	ʃan ⁴
攝 ⁺	咸	葉	ɕjɛp	咸開三入葉書全清	ɕjɛp	書涉	ʃiɛ	:삽 :념 :섭	셔	섭	섭 념	ʃɥ ⁴
添	咸			咸開四平添透次清	t ^h iəm	他兼	t ^ʃ iəm	팀	팀	팀	팀	t ^h ian ¹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拈	咸	談	niem	咸開四平添泥次濁	niem	奴兼	niem	념	념	점	념(俗) 덤	nian ¹
店	咸			咸開四去栳端全清	tiem	都念	tiem	·덤	덤	덤	덤	tian ⁴
帖	咸			咸開四入帖透次清	tʰiɛp	他協	tʰiɛ	·텃	텃	텃	텃	tʰie ⁴
莢	咸	葉	kiep	咸開四入帖見全清	kiep	古協	kie	·겁	겨	협	겁(俗) 협	tɕia ²
篋	咸			咸開四入帖溪次清	kʰiɛp	苦協	kʰiɛ	·겁	켜	협	겁(俗) 협	tɕʰie ⁴
揜	咸			咸開四入帖泥次濁	niɛp	奴協		·넙	녀	넙	넙	nie ¹
帆	咸			咸合三平凡奉全濁	bʰjuem	符芝	fan	뵼뵼 뵼뵼	뵼	뵼		fan ¹
帆 ⁺	咸			咸合三去梵奉全濁	bʰjuem	扶泛	fan	뵼뵼 뵼뵼	뵼	뵼		fan ⁴
印	咸	眞	ʔjen	咸合三入乏非全清	pjuɛp	方乏	iən	·인	인	인	인	in ⁴
法	咸	葉	pjuāp	咸合三入乏非全清	pjuɛp	方乏	fua	·법	법	법	법	fa ³

<표48>을 통하여 咸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咸攝은 『廣韻』의 ‘談·覃·琰·敢·感·合·賺·咸·陷·鹽·豔·帖·忝·凡·梵·盍·葉·乏’韻을 포함하며, 唇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咸攝 開口 一·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韻母 ‘ɔm/am’과 대응되며, 普通話에서는 韻母 ‘/an/’과 대응된다.

셋째, 咸攝 開口 三·四等到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 韻母 ‘ɔm/iəm’과 대응되며, 普通話에서는 韻母 ‘/ian/’과 대응된다.

넷째, 入聲韻을 제외하고 咸攝의 운미 /-m/이 普通話에서 /-n/으로 변화된다.

다섯째, ‘盍·葉·乏’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 입성 운미 /-p/가 탈락하여 『四聲通解』와 普通話에서도 운미 /-p/가 소실된 음이 반영되었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입성 운미 /-p/를 ‘ㅍ’으로 표기했다.

여섯째, ‘法(ㅍ)’는 開口 一·二等이 아닌 合口 三等到 속하는데, 이는 『韻略匯通』에서 合口 三等的 글자가 이미 합구성을 상실하고 ‘/an/’으로 실현되는 것¹⁰⁴⁾으로 보아, 法(ㅍ)도 『東國正韻』 편찬 당시에 합구성이 상실되어 ‘ㅌ/u’ 발음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48>에서 咸攝에 해당하는 ‘欸(킴)’은 中古音은 ‘/kʰɛm/’으로, 『中原音韻』에서 ‘/kʰ

104) 안재철, 「韻略匯通의 音價推定 - 韻略易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404쪽.

iəm/’으로, 『四聲通解』에서 ‘겸’으로, 普通話는 ‘/tɕhian/’으로 나타난다. 운미 /-m/은 普通話에서 /-n/으로 변화했으며, ‘見母, 匣母, 溪母(牙·喉音 聲母)’인 글자가 中古시기 이후에는 개음 /i-/가 개입되었는데, 開口 二等的 ‘歛(겸)’이 개음 /i-/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四聲通解』가 중국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深攝

<표49>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驚 ⁺	深			深開三平侵邪全濁	zjem	徐林	siəm	썸.썸	썸	심	심	ɕin ²
今	深	侵	kjəm	深開三平侵見全清	kjem	居吟	kiəm	금	김	금	금	tɕin ¹
驚 ⁺	深			深開三平侵從全濁	dzjem	昨淫	siəm	썸.썸	썸	심	심	ɕin ²
琴	深	侵	g ^h jəm	深開三平侵羣全濁	g ^h jem	巨金	k ^h iəm	끔	김	금	금	tɕ ^h in ²
品	深	侵	p ^h jəm	深開三上寢滂次清	p ^h jem	丕飲	p ^h iən	·품	핀	품	품	p ^h in ³
寢	深	侵	ts ^h jəm	深開三上寢清次清	ts ^h jem	七稔	ts ^h iəm	침 :침	침	침	침	tɕ ^h in ³
緝	深	緝	ts ^h jəp	深開三入緝清次清	ts ^h jep	七入		·칩	치	즘	즘	tɕi ¹
泣	深	緝	k ^h jəp	深開三入緝溪次清	k ^h jep	去急	k ^h i	·킵	키	읍	급 俗 읍	tɕ ^h i ⁴
習	深	緝	zjəp	深開三入緝邪全濁	zjep	似入	si	·씹	씨	습	습	ɕi ²
集	深	緝	dz ^h jəp	深開三入緝從全濁	dz ^h jep	秦入	tsi	·찹	찌	·집	집	tɕi ²
給	深	緝	kjəp	深開三入緝見全清	kjep	居立	ki	·급	기	급	급	tɕi ³

<표49>을 통하여 深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深攝은 『廣韻』의 ‘侵·寢·緝’韻을 포함하며, 唇音系 운미를 취하는 陽聲韻이다.

둘째, 深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iəm/, ɕ, /in/’과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대부분 韻母 ‘/im/’과 대응된다.

다섯째, ‘緝’韻은 入聲韻에 속하며, 『中原音韻』에서 입성 운미 /-p/가 탈락하여 韻母가 ‘/i/’로 변했으며, 『四聲通解』와 普通話에서도 운미 /-p/가 소실된 음이 반영되었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개음 /-i/가 소실되어 韻母가 ‘·급/ip/’으로 나타난다.

여섯째, 深攝에서 舌尖音의 성격이 강한 聲母는 ‘ㄴ/im/’으로 분류되고, 舌尖面元音의 성격이 강한 聲母는 ‘ㄹ/im/’으로 분류된다.

<표49>에서 深攝에 해당하는 ‘品(핀)’은 中古音은 ‘/p^hjem/’으로, 『中原音韻』에서 ‘/p^hian/’으로, 『四聲通解』에서 ‘핀’으로, 普通話는 ‘/p^hin/’으로 나타난다.

『廣韻』의 深攝은 운미가 /-m/이지만 寢韻의 순음자는 『洪武正韻』에서 軫韻에 소속되어 운미의 변화(m>n)를 보여주고 있다.¹⁰⁵⁾ 普通話에서 운미 /-m/은 /-n/에 합류되어 변별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운미 중화의 통시적 과정에서 聲母에 따른 선후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中原音韻』에서도 /-m/ 운미와 /-n/ 운미의 구별은 존재하고 있으나, 순음자만은 운미가 /-n/로 변화하여 『洪武正韻』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古今韻會舉要』에서는 『廣韻』의 寢韻에 소속되었던 ‘稟, 品’ 등의 자가 字母韻으로 錦韻에 소속되어 아직 /-m/ 운미를 보존하고 있는데,¹⁰⁶⁾ 이러한 제반 상황은 『洪武正韻』의 分韻이 近代音을 반영한 증거가 되며 통시적 과정은 다음처럼 배열될 것이다.

* 운미 /-m/의 변화 107)

『廣韻』	『古今韻會舉要』	『洪武正韻』·『中原音韻』	普通話
-m	-m	순음 : n 기타韻母 : m	n

10. 效攝

<표50>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搔	效	幽	sôg	效開一平豪心全清	sau	蘇遭	sau	솔	살	소	소	sau ¹
陶	效	幽	d ^h ôg	效開一平豪定全濁	d ^h au	徒刀	t ^h au	똥 똥 똥	딸	도	도, 요	t ^h au ²
曹	效	幽	dz ^h ôg	效開一平豪從全濁	dz ^h au	昨勞	ts ^h au	쫘	짚	조	조	ts ^h au
袍	效			效開一平豪並全濁	b ^h au	薄褒	p ^h au	뽕 뽕 뽕	뽕	포	포	p ^h au ²
號	效	號	γôg	效開一平豪匣全濁	γau	胡刀	xau	흙	향	호	호	xau ²

105) 기타 성조(平, 去, 入)에는 순음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106) 『切韻指掌圖』에서도 ‘稟, 品’은 6獨에 배열되어 운미에 있어서는 『古今韻會舉要』와 마찬가지로이다.

107)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132쪽.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膏	效	宵	kôg	效開一平豪見全清	kau	古勞	kau	<small>고</small>	갈	고	고	kau ¹
刀	效	宵	tôg	效開一平豪端全清	tau	都牢	tau	<small>도</small>	달	도	도	tau ¹
熬	效	宵	ŋôg	效開一平豪疑次濁	ŋau	五勞		<small>오</small>	알	오	오	au ²
煥 ⁺	效	幽	ʔôg	效開一上皓影全清	ʔau	烏皓		<small>우</small>	유	옥	우, 옥	y ⁴
考	效	幽	k ^h ôg	效開一上皓溪次清	k ^h au	苦浩	k ^h au	<small>고</small>	갈	거	고	k ^h au ³
早	效	幽	tsôg	效開一上皓精全清	tsau	子皓	tsau	<small>조</small>	잘	조	조	tsau ³
夭 ⁺	效	宵	ʔôg	效開一上皓影全清	ʔau	烏皓	iau	<small>요</small>	열	요	요, 오	tsou ³
好	效	幽	xôg	效開一上皓曉次清	xau	呼皓	xau	<small>호</small>	할	호	호	xau ³
腦	效	宵	nôg	效開一上皓泥次濁	nau	奴皓	nau	<small>노</small>	날	노	노	nau ³
草	效	幽	s ^h ôg	效開一上皓清次清	ts ^h au	采老	ts ^h au	<small>초</small>	찰	초	초	ts ^h au ³
膏 ⁺	效	宵	kôg	效開一去號見全清	kau	古到	kau	<small>고</small>	갈	고	고	kau ⁴
腦 ⁺	效			效開一去號泥次濁	nau	那到	nau	<small>노</small>	날	노	노	nau ⁴
煥 ⁺	效	幽	ʔôg	效開一去號影全清	ʔau	烏到		<small>우</small>	유	옥	우, 옥	y ⁴
號 ⁺	效	宵	ɾôg	效開一去號匣全濁	xau ⁴	胡到	xau	<small>호</small>	향	호	호	xau ²
好 ⁺	效	幽	xôg	效開一去號曉次清	xau	呼到	xau	<small>호</small>	할	호	호	xau ⁴
筲	效	宵	sôg	效開二平肴生全清	ʃau	所交	ʃau	<small>소</small>	살	쇼	쇼	ʃau ¹
泡	效	幽	p ^h ôg	效開二平肴滂次清	p ^h au	匹交	p ^h au	<small>포</small>	팔	포	포	p ^h au ¹ p ^h au ⁴
茅	效	宵	mjôg	效開二平肴明次濁	mau	莫交	mau	<small>모</small>	말	모	모	mau ²
爪	效	宵	tsôg	效開二上巧莊全清	tʃau	側絞	tʃau	<small>조</small>	잘			tʃau ³
飽	效	幽	pog	效開二上巧幫全清	pau	博巧	pau	<small>포</small>	발	포	포	pau ³
孝	效			效開二去效曉次清	xau	呼教	xau	<small>효</small>	할	효	효	ɕiau ⁴
朝 ⁺	效	宵	tjôg	效開三平宵知全清	tjæu	陟遙	tʃiau	<small>조</small>	질	도	조	tʃau ¹
樵 ⁺	效	宵	dz ^h jôg	* 效開三平宵精全清	tsiæu	茲消	siəm	<small>조</small>	질	초	초	tɕ ^h iau ²
瓢	效	宵	b ^h jôg	效開三平宵並全濁	b ^h jæu	符霄	p ^h iau	<small>포</small>	뽕	표	표	p ^h iau ²
燒 ⁺	效	宵	ɕjôg	效開三平宵書全清	ɕjæu	式招	ʃiau		실	쇼	쇼	ʃau ¹
樵 ⁺	效	宵	dz ^h jôg	效開三平宵從全濁	dz ^h jæu	昨焦	siəm	<small>조</small>	질	초	초	tɕ ^h iau ²
燒	效			效開三平宵日次濁	ɲjæu	如招	ʃiau	<small>쇼</small>	실	쇼	요, 노	zau ²
苗	效	宵	mjôg	效開三平宵明次濁	mjæu	武漣		<small>모</small>	뎡	묘	묘	miau ²
宵	效	宵	sjôg	效開三平宵心全清	sjæu	相邀	siau	<small>소</small>	실	쇼	쇼	ɕiau ¹
焦	效	宵	tsjôg	效開三平宵精全清	tsjæu	即消	tsiau	<small>조</small>	질	초	초	tɕiau ¹
僚 ⁺	效	宵	ljôg	效開三上小來次濁	ljæu	力小	liau	<small>료</small>	령	료	료	liau ²
夭	效	宵	ʔjôg	效開三上小影全清	ʔjæu	於兆	iau	<small>요</small>	열	요	요, 오	iau ¹

에서 살펴봤을 때, 『東國正韻』에서 效攝·流攝의 운미 주음에 사용된 脣輕音 ‘ㄹ’을 근거로, 中古音 效攝·流攝의 추정음 ‘-u/-w’는 脣音과 喉音이 같이 진동하는 ‘/-w/’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上古音 幽部에 대해 董同龢의 추정음은 ‘/-g/’이고, 鄭張尙芳의 추정음은 ‘/-w/’로 脣音과 喉音(牙音)이 관여함을 알 수 있지만, 漢語 中古音의 效攝·流攝의 운미에 대해서는 학자 간의 추정음이 갈리는데, 脣輕音 ‘ㄹ’이 한국 한자음을 주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는 곧 漢語 中古音에 대한 음운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脣音 ‘ㄹ’과 喉音 ‘ㅇ’이 같이 사용된 이유를 ‘/-w/’에서 찾을 수 있다. 운미를 묘사하는 ‘/-w/’는 입이 벌어질 때의 마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입이 닫힐 때의 입술에서의 약한 마찰을 가리키며, 이 경우 자연스레 喉音이 진동하게 되는데, 『東國正韻』의 편찬자는 이를 음성적으로 인지하고 분석했다고 볼 수 있다.

국어학계에서는 ‘한국 한자음의 終聲에 사용된 ‘ㄹ’과 ‘ㄹ’에 대해서 중세국어의 ‘새(新), 어제(昨)’ 등의 ‘ㄹ, ㄹ’은 각각 ‘aj, aj’로 발음되어 반모음 ‘-j’가 단모음에 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이었는데, 훈민정음 표기 체계에 있어서는 반모음 ‘w(오/우)’가 단모음에 후행하는 ‘안, 언’ 등과 같은 표기 방법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에 따라 『洪武正韻譯訓』에서 ‘ㄹ, ㄹ’이 終聲의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었으며, ‘ㄹ’과 ‘ㄹ’은 모음에 후행하는 반모음 ‘w(오/우)’를 타나낸 것으로서, 그 음가에 차이가 없다¹⁰⁹⁾는 견해도 있다.¹¹⁰⁾

<표50>에서 效攝에 해당하는 ‘腦’은 『中原音韻』에서 ‘/nau/’로, 『四聲通解』에서 ‘ㄹ’로, 普通話는 ‘/nau/’로 나타난다. 『四聲通解』에서 사용된 終聲 ‘ㄹ’은 『東國正韻』에서도 동일하게 표기되었고,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노’로 ‘ㄹ’이 終聲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109)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33쪽.

110) 음성운(-ø, -i, -u) 중 운미 /-i/는 ‘애, 예’와 같이 중성으로 처리하여도 국어의 음절 구조에서 문제가 없지만, 운미 /-u/는 국어의 음절내 중성의 결합에서 ‘ㄹ’이 운미로 올 수 없기 때문에(즉 ‘ㄹ+ㄹ’나 ‘ㄹ+ㄹ’가 한 음절이 될 수 없음) 대안을 모색해야 할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순음[+labial]이면서 [+지속성/continuant, +공명성/sonarant] 자질을 갖는 ‘ㄹ’이 운미 /-u/의 대역에 선택된 것이다. 특히 미모(微母, ㄹ)는 근대 이후 반모음 [w]로 약화된 점을 감안하면, ‘-ㄹ’을 운미로 선택하여 부음 ‘-u’에 대응시킨 것은 음성적으로 최선의 모색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154쪽.

11. 流攝

<표51>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樓	流	侯	lûg	流開一平侯來次濁	lu	落侯	ləu	룽	룽	루	루	lou ²	
頭	流	侯	d ^h ûg	流開一平侯定全濁	d ^h u	度侯	t ^h əu	똥	똥	두	두	t ^h ou ²	
句	流	侯	kûg	流開一平侯見全清	ku	古侯	kiu	꺠,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꺠	꺠	꺠	꺠	kou ¹
杯	流			流開一平侯並全濁	b ^h u	薄侯	p ^h əu	뽕	뽕	부	부	p ^h ou ²	
鷓	流	侯	ʔûg	流開一平侯影全清	ʔu	烏侯	əu	훙	훙	꺠	꺠	ou ¹	
狗	流	侯	kûg	流開一上厚見全清	ku	古厚	kəu	꺠	꺠	꺠	꺠	kou ³	
口	流	侯	k ^h ûg	流開一上厚溪次清	k ^h u	苦后	k ^h əu	꺠	꺠	꺠	꺠	k ^h ou ³	
叟	流	幽	sôg	流開一上厚心全清	su	蘇后	səu	꺠,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꺠	꺠	꺠	sou ³	
后	流	侯	rûg	流開一上厚匣全濁	ɣu	胡口	xəu	꺠	꺠	후	후	xou ⁴	
母	流	之	muөг	流開一上厚明次濁	mu	莫厚	mu	꺠,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꺠, 꺡	꺠	꺠	mu ³	
后 ⁺	流	侯	rûg	流開一去候匣全濁	ɣu	胡邁	xəu	꺠	꺠	후	후	xou ⁴	
膝	流			流開一去候清次清	ts ^h u	倉奏		꺠	꺠	꺠	꺠	ts ^h ou ⁴	
奏	流	侯	tsûg	流開一去候精全清	tsu	則候	tsəu	꺠,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꺠	꺠	꺠	tsou ⁴	
搜	流	幽	sog	流開三平尤生全清	ʃju	所鳩	ʃəu	꺠,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꺠	꺠	꺠	sou ¹	
矛	流	幽	mjög	流開三平尤明次濁	mju	莫浮	məu	꺠	꺠	꺠	꺠	무 ^俗 모	mau ²
友	流	之	rjuөг	流開三上有云次濁	ɣju	云久	iəu	꺠	꺠	우	우	iou ³	
否	流	之	pjuөг	流開三上有非全清	pju	方久	fəu	꺠, 꺡, 꺢, 꺣, 꺤, 꺥, 꺦, 꺧, 꺨, 꺩, 꺪, 꺫, 꺬, 꺭, 꺮, 꺯, 꺰, 꺱, 꺲, 꺳, 꺴, 꺵, 꺶, 꺷, 꺸, 꺹, 꺺, 꺻, 꺼, 꺽, 꺾, 꺿, 꺾, 꺿	꺠	꺠	꺠, 꺡	fou ³	
阜	流	幽	b ^h jög	流開三上有奉全濁	b ^h ju	房久	fu	꺠	꺠	꺠	꺠	fu ⁴	
柳	流	幽	ljög	流開三上有來次濁	lju	力久	liu	꺠	꺠	꺠	꺠	liou ³	
敝	流			流開三去宥莊全清	tʃju	側救	tʃəu	꺠	꺠	꺠	꺠	tʃou ⁴	
臭	流	幽	chjög	流開三去宥昌次清	tʃ ^h ju	尺救		꺠	꺠	꺠	꺠	tʃ ^h ou ⁴	

<표51>을 통하여 流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流攝은 『廣韻』의 ‘侯·厚·尤·有·宥’韻을 포함하며, 唇音系 운미를 취한다.

둘째, 流攝 開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əu/, ㄨ, /ou/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ㄹ, ㄷ, ㄸ와 대응된다.

셋째, 流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iəu/’, ‘/iou/’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ㄹ, ㅍ, ㅍ’와 대응된다.

넷째,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 效攝과 마찬가지로 流攝은 唇音 ‘ㄹ’과 喉音 不淸不濁 ‘ㅇ’을 연서법으로 이어서 쓴 唇輕音 ‘ㄹ’을 終聲으로 취한다.

다섯째, 流攝 開口 三等에 해당하는 글자가 『中原音韻』에서 대부분 介音 /i-/가 탈락되었다. 『中原音韻』에서 介音 /i-/가 남아있는 글자는 『四聲通解』에서 韻母가 ‘ㄹ’으로 나타나고 普通話에서도 介音 /i-/가 남아있다. 『中原音韻』에서 介音 /i-/가 탈락된 글자는 『四聲通解』에서 ‘ㄹ’으로 나타나고, 普通話에서도 介音 /i-/가 탈락되어 있다.

여섯째, 流攝의 경우 Karlgren은 /əu/로 재구하고 있지만, 董同龢는 主要元音을 /u/로 재구하고 있다. 流攝은 中古때의 발음이 /-ə/인지 /-u/인지 확정하기 어려운데, 『東國正韻』에서는 董同龢가 추정한 /-u/를 따르고 있고, 『四聲通解』는 Karlgren이 추정한 /-ə/를 따르고 있다.

<표51>에서 流攝에 해당하는 ‘柳’은 『中原音韻』에서 ‘/liu/’로, 『四聲通解』에서 ‘ㄹ’으로, 普通話는 ‘/liou/’로 나타나고, 『東國正韻』에서 ‘ㄹ’으로, 『訓蒙字會』에서 ‘류’로, 『全韻玉篇』은 ‘류’로 나타난다. 각 문헌에서 표기된 한자음은 모두 中古音 三等的 細音을 잘 반영하고 있다. 『四聲通解』에서 사용된 終聲 ‘ㄹ’은 『東國正韻』에서도 동일하게 표기되었고,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노’로 終聲에 ‘ㄹ’이 표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東國正韻』에서 唇輕音 ‘ㄹ’은 終聲으로만 사용되고 추정음은 /-u(w)/이다. 『訓民正音』 「解例本」 例義에서 “唇輕音을 ㅇ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 -‘ㅇ’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는 “ㅇ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者,以輕音唇乍合而喉聲多也”라 하여 ‘ㅇ’자를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글자가 되는데, 唇輕音은 가벼운 소리로서 입술을 잠깐 다물었다가 바로 열어서 목구멍소리가 많게 조음하는 것이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다. 유효홍은 唇輕音 ‘ㄹ’은 주로 『東國正韻』식 漢字音이나 한어 음역 등 漢字音과 관련된 표기에만 쓰였을 뿐 한국어 표기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고 했고,¹¹¹⁾ 佛經諺解에서 조사 ‘-는, 를’과 같이 쓰인 점을 들어 唇輕音 ‘ㄹ’의 음가는 자음이 아닌 모음일 것이라고 했다. 唇輕音

111) 유효홍, 「순경음 ‘ㄹ’의 중성 표기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2010, 235쪽.

‘뫑’은 『東國正韻』의 23자모에 포함되지 않았고, 『全韻玉篇』에서 脣輕音 ‘뫑’이 일률적으로 탈락한 것으로 보아, 한국 한자음 표기와는 관계없는 漢語 中古音의 效攝과 流攝의 운미 /-u(w)/를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한자음의 기초에서 脣輕音 ‘뫑’을 붙이면 漢語 中古音의 效攝과 流攝이 되고, 脣輕音 ‘뫑’을 제외하면 『全韻玉篇』의 正音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止攝

<표52>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涯	止			止開三平支疑次濁	njə	魚羈	ia	형, 영 앙	애 속 애	애	의, 애 아	ia ²
筵 ⁺	止			止開三平支生全清	fje	所宜		승 :승 생	새	식	스	ʃai ¹
師	止	脂	sed	止開三平脂生全清	fjei	踈夷	ʃi	승	시	스	스	ʃl ¹
輜 ⁺	止	之	tsəg	止開三平之莊全清	tʃi	側持			즈	칙	칙	tsɿ ¹
時	止	之	zjəg	止開三平之禪全濁	zi	市之	ʃi	쌍	씩	시	시	ʃl ²
璃	止			止開三平支來次濁	lje	呂支	li	링	레	리	리	li ²
夷	止	脂	djed	止開三平脂以次濁	0jei	以脂	i	잉	이	이	이	i ²
尼	止	脂	njed	止開三平脂娘次濁	njei	女夷	ni	닐 닝 잉	네	니	니, 닐	ni ²
机	止	脂	kjed	止開三平脂見全清	kjei	居夷	ki	:강	계	괘	괘	tci ¹
司	止	之	sjəg	止開三平之心全清	si	息茲	sī	승 :승	스	사	스	sɿ ¹
資	止	脂	tsjed	止開三平脂精全清	tsjei	即夷	tsi	중	즈	즈	즈	tsɿ ¹
衣	止	微	ʔjəd	止開三平微影全清	ʔjəi	於希	i	형 :형	히	의	의	i ¹
詞	止	之	zjəg	止開三平之邪全濁	zi	似茲	sī	쌍	쓰	스	스	tsʰɿ ²
枝 ⁺	止	佳	cjeg	止開三平支章全清	tɕje	章移	tsjī	깁 징	지	지		tʃl ¹
兒	止	佳	njeg	止開三平支日次濁	nje	汝移	i	영 :싱	예	스	예 ㅇ	ɶ ²
輜 ⁺	止			止開三平之初次清	tʃʰi	楚持			즈	칙	칙	tsɿ ¹
雌	止	佳	tsʰjeg	止開三平支清次清	tsʰje	此移	tsi	중	츠	즈	즈	tsʰɿ ²
机 ⁺	止	脂	kjed	止開三上旨見全清	kjei	居履	ki	:강	계	괘	괘	tci ¹
齒	止	之	tʰjəg	止開三上止昌次清	tɕʰi	昌里	tʃʰi	:칭	치 속 :속 츠	치	치	tʃʰɿ ³
耳	止	之	njəg	止開三上止日次濁	n.i	而止	rī	싱 :싱	시	시	이	ɶ ³
筵 ⁺	止	佳	seg	止開三上紙生全清	fje	所綺		승 :승	새	식	스	ʃai ¹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생				
衣 ⁺	止	微	ʔjäd	止開三去未影全清	i ⁴	於既	i	·경 ·경	히	의	의	i ¹
自	止	脂	dz ^h jed	止開三去至從全濁	dz ^h jei	疾二	tsi	·중	즈	즈	즈	tsɿ ⁴
寺	止	之	zjæg	止開三去志邪全濁	zi	祥吏	sī	·상 ·성	스		스 시	sɿ ⁴
誰	止	微	zjuəd	止合三平脂禪全濁	zjuei	視佳	ʃui	·성	쉬	슈	슈	ʃuei ²
誰	止	微	tjuəd	止合三平脂章全清	tjuei	職追	tʃui	·정	쨌	쨌	쨌	tʃuei ¹
吹 ⁺	止	歌	t ^h jua	止合三平支昌次清	t ^h jue	昌垂	tʃ ^h ui	·청 ·청	취	츄	취	tʃ ^h uei ¹
葵	止	脂	gīwei	止合三平脂羣全濁	g ^h juei	渠追	k ^h ui	·깡	뀌	규	규	k ^h uei ²
水	止	脂	çjuəd	止合三上旨書全清	çjuei	式軌	ʃui	·형	쉬	슈	슈	ʃuei ³
髓	止	歌	sjua	止合三上紙心全清	sjue	息委	sui	·형	쉬	슈	슈	suei ³
吹 ⁺	止	歌	t ^h jua	止合三去寘昌次清	t ^h jue	尺偽	tʃ ^h ui	·청 ·청	취	츄	취	tʃ ^h uei ⁴
位	止	緝 微	ɣjuəb/ɣ juəd	止合三去至云次濁	ɣjei	于愧	ui	·잉 ·링	위	위	위	uei ⁴
醉	止	微	tsjuəd	止合三去至精全清	tsjuei	將遂	tsui	·정	쨌	쨌	쨌	tsuei ⁴
翠	止	微	ts ^h juəd	止合三去至清次清	ts ^h juei	七醉	ts ^h ui	·청	취	취	취	ts ^h uei ⁴
燧	止	微	zjuəd	止合三去至邪全濁	zjuei	徐醉	sui	·성	쉬	슈	슈	suei ⁴

<표52>을 통하여 止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止攝은 『廣韻』의 ‘支·脂·之·旨·止·紙·至·寘·志·紙·微’韻을 포함하며, 喉音系 운미를 취한다.

둘째, 止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에서 『中原音韻』의 韻母가 ‘/i/’로 나타나는 글자는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에서 韻母가 ‘/i/’로 나타나고, 『中原音韻』의 韻母가 ‘/i/’로 나타나는 글자 중 聲母가 齒音에 해당하는 글자는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 韻母가 ‘-’로 나타나며, 普通話에서는 ‘/ɿ/’로 나타난다.

셋째, 止攝 合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ui/’, ‘/uei/’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ㄱ, ㅠ, ㅠ’와 대응된다.

넷째, 『東國正韻』의 終聲은 喉音 不清不濁 ‘o/ø/’으로 終聲을 취한다.

다섯째, 止攝 開口 三等에 해당하는 글자 중,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 韻母가 ‘ㄱ’로 나타나는 글자는 中古音과 『東國正韻』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ㅠ’로 나타나는 글자는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止攝의 齒音에 해당하는 普通話의 韻母가 ‘/ɿ/’와 ‘/ʅ/’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기

존 연구에서 김무림이 설명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普通話의 韻母 ‘/ɿ/, /ʌ/’는 韻母 ‘/i/’의 변이음으로 ‘/ɿ/’는 치조음과 결합하며, ‘/ʌ/’는 경구개음과 결합한다. 普通話에서 韻母가 ‘/ɿ/, /ʌ/’로 나타나는 글자들이 漢語 中古音에서는 모두 ‘/i/’로 나타나지만, 『四聲通解』에서 ‘寺’와 ‘輜’처럼 聲母가 치두음이나 正齒音 照二系에 해당되는 글자들의 韻母는 ‘-’로 나타난다. 그러나 ‘齒’와 같이 正齒音 照三系에 해당하는 글자의 韻母는 ‘-’로 나타나, 韻母 ‘/i/’의 설첨모음화에 있어 照二系가 照三系보다 먼저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齒’의 正音은 ‘치’이나, 今俗音은 ‘츄’으로 나타나 시간적으로 聲母가 照三系에 해당하는 글자가 照二系에 해당하는 글자보다 늦게 주요모음이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中原音韻』에서는 聲母가 齒頭音, 正齒音(照二系, 照三系)에 해당하는 韻母는 모두 ‘/i/’로 나타나, 照三系에 해당하는 글자도 照二系와 동일하게 음변현상이 적용되었다.

‘齒’는 『四聲通解』에서 今俗音이 ‘츄’으로 나타난다. 韻母 ‘ㄷ’에 대한 음가는 『四聲通解』의 동일 저자가 편찬한 『翻譯老乞大朴通事』¹¹²⁾(16세기) 凡例 9條의 내용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通攷賁字音즈註云俗音중韻內齒音諸字口舌不變故以△爲終聲然後可盡其妙

『四聲通考』의 ‘賁’자는 음이 ‘즈’이지만 주석에는 속음이 ‘중’이다. 운 내의 모든 치음자는 입과 혀가 불변인 까닭에 ‘△’으로써 종성을 삼은 연후에 가히 정확을 기할 수 있다.

俗音 終聲 ‘△’에 대한 이해는 밑줄 친 ‘口舌不變故以△爲終聲’의 파악과 관련이 있다. 支韻의 齒音은 특히 今俗音까지를 고려하면 거의 ‘으’ 모음과 연결되어 현실적으로 舌尖化의 완성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에 연결되는 모음도 舌尖化되어 실현되는데, 漢語의 설첨모음은 국어의 舌面音인 ‘으/i/’와는 당연한 차이가 있다. 捲舌 齒音은 성절적 마찰음이나 파찰음처럼 발음되어 후속하는 고모음은 마찰적 모음으로 조음된다. 이때 혀는 齒音 聲母를 조음할 때의 위치에서 큰 변동이 없다. 이러한 상태를 ‘口舌不變’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四聲通解』에서는 舌尖 齒音의 구설불변적(口舌不變的) 조음

112) 한문본 『老乞大』의 원문에 중국어의 음을 한글로 달고 언해한 것이며, 『四聲通解』(1517)보다 앞서 출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을 묘사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의 齒音 중 ‘△’을 선택하여 운미에 덧붙였다고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俗音 운미 ‘△’은 실질적으로 운미가 될 수 없고 中聲에 자질을 덧붙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¹¹³⁾

위의 표에서 ‘齒’는 『中原音韻』과 普通話의 韻母가 각각 ‘/i/’와 ‘/ɿ/’로 나타난다. 반치음 ‘△’은 終聲에서 마찰음으로 실현되었다고 추정되는데, 『四聲通解』 今俗音의 齒音 韻母 ‘△’는 普通話의 韻母 ‘/ɿ/’와 잘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표52>에서 止攝에 해당하는 ‘自’는 『中原音韻』에서 ‘/tsi/’로, 『四聲通解』에서 ‘/쯔/’로, 普通話는 ‘/tsɿ/’로 나타난다. ‘自’는 中古音이 ‘/jei/’로 나타나는데, 『中原音韻』에서 韻母가 ‘/i/’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正齒音이 普通話에서 ‘/ɿ/’로 변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自’가 『東國正韻』에서는 ‘쯩’으로, 『訓蒙字會』와 『全韻玉篇』는 ‘즈’로 나타난다. 『四聲通解』와 『訓蒙字會』는 동일 저자가 편찬한 것인데, 『四聲通解』에서는 ‘-’로 『訓蒙字會』에서는 ‘·’로 표기했다. ‘·’는 현재 음가를 ‘/ɿ/’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3. 蟹攝

<표53>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臺	蟹	之	d ^h əŋ	蟹開一平哈定全濁	d ^h Ai	徒哀	t ^h ai	핑	때	디	디	t ^h ai ²
栽 ⁺	蟹			蟹開一平哈精全清	tsAi	祖才	tsai	징 징	제	지	지	tsai ¹
能	蟹	之	nəŋ	蟹開一平哈泥次濁	nAi	奴來	nəŋ	능, 흥 팅, 냉 ·냉	내	능	니 팅 능	nai ²
才	蟹	之	dz ^h əŋ	蟹開一平哈從全濁	dz ^h Ai	昨哉	ts ^h ai	징	제	지	지	ts ^h ai ²
咳	蟹	之	ɾəŋ	* 蟹開一平哈見全清	kɔi	柯開		·갱	개, 해	히	기 俗 히	xai ²
孩	蟹	之	ɾəŋ	蟹開一平哈匣全濁	ɾAi	戶來	xai	형	해	히	히	xai ²
蓋	蟹			蟹開一去泰見全清	kai	古太	kai	·갱 ·합	개, 가	개	버, 합 갑	kai ⁴
帶	蟹	祭	taɔ	蟹開一去泰端全清	tai	當蓋	tai	·댕	대	디	디	tai ⁴
塞 ⁺	蟹	之	səŋ	蟹開一去代心全清	sAi	先代	sī	·싱 ·스	새	시	시 식	sai ⁴
態	蟹	之	t ^h əŋ	蟹開一去代透次清	t ^h Ai	他代	nəŋ	·팅	태	티	티	t ^h ai ⁴

113)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104쪽.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菜	蟹	之	ts ^h əŋ	蟹開一去代清次清	ts ^h ʌi	倉代	ts ^h ai	..**	채	치	치	ts ^h ai ⁴
艾	蟹	祭	ŋad	蟹開一去泰疑次濁	ŋai	五蓋	ai	..앵 ..앵	애	애	애 예	ai ⁴
愛	蟹	微	?əd	蟹開一去代影全清	?Ai	烏代	ai	..링	애	이	이	ai ⁴
栽 ⁺	蟹	之	dz ^h əŋ	蟹開一去代從全濁	dz ^h ʌi	昨代	tsai	..징 ..징	재	지	지	tsai ⁴
肺	蟹	祭	p ^h juäd	* 蟹開一去沓滂次清	p ^h ʌi	普蓋	fui	..평 ..평	뽀	페	페, 패	p ^h i ²
能 ⁺	蟹			蟹開一去代泥次濁	nʌi	奴代	nəŋ	..능 ..능 ..냉 ..냉	내	능	니, 타, 능	nai ⁴
涯 ⁺	蟹			蟹開二平佳疑次濁	ŋæi	五佳	ia	..잉 ..앵 ..앙	애 俗애	애	의, 애 아	ia ²
排	蟹			蟹開二平皆並全濁	b ^h ei	步皆	p ^h ai	..뽀 ..뽀	뽀	비	비	p ^h ai ²
骸	蟹	之	rəŋ	蟹開二平皆匣全濁	rɛi	戶皆	xiai	..행	해	히	히	xai ²
又 ⁺	蟹			蟹開二平佳初次清	tʃ ^h æi	楚佳	tʃ ^h a	..창	채	차	채 차	tʃ ^h ai ¹
隘	蟹	佳	?eg	蟹開二去卦影全清	?æi	烏懈	iai	..행	해	익	이	ai ⁴
拜	蟹	祭	puäd	蟹開二去怪幫全清	pɛi	博怪	pai	..뱅	배	비	비	pai ⁴
債 ⁺	蟹			蟹開二去卦莊全清	tʃæi	側賣	tʃæk	..직 ..쟁	재	채	채	tʃai ⁴
艾 ⁺	蟹	祭	ŋjäd	蟹開三去廢疑次濁	ŋjei	魚肺	ai	..앵 ..앵	애	애	애, 예	i ⁴
計 ⁺	蟹			蟹開三去祭見全清	kjæi	居例		..깁	겨	알	갈 俗알	tɕie ²
祭 ⁺	蟹	祭	tsjæd	蟹開三去祭精全清	tsjæi	子例	tsi	..쟁 ..쟁	제	제	제 채	tɕi ⁴
祭 ⁺	蟹	祭	tsæd	* 蟹開三去祭精全清	tsiæi	子例	tsi	..쟁 ..쟁	제	제	제 채	tʃai ⁴
蹊	蟹			蟹開四平齊匣全濁	rɛi	胡雞	xi	..뽀 ..뽀	해	계	혜	ɕi ¹
臍	蟹	脂	dz ^h ied	蟹開四平齊從全濁	dz ^h iei	徂奚	ts ^h i	..쟁	제	제	제	tɕ ^h i ³
溪	蟹			蟹開四平齊溪次清	k ^h iei	苦奚	k ^h i	..켁	계	계	계	ɕi ¹
西	蟹	脂	sied	蟹開四平齊心全清	siei	先稽	si	..션 ..쟁	세	셔	셔	ɕi ¹
妻 ⁺	蟹	脂	ts ^h ied	蟹開四平齊清次清	ts ^h iei	七稽	ts ^h i	..칭 ..쟁	체	처	처	tɕ ^h i ¹
兒 ⁺	蟹			蟹開四平齊疑次濁	ŋiei	五稽	i	..앵 ..싱	예	스	으, 예	ni ²
堤 ⁺	蟹			蟹開四平齊端全清	tiɛi	都奚	ti	..뎡 ..뎡 ..싱	테	테	테	ti ¹
迷	蟹	脂	mied	蟹開四平齊明次濁	miɛi	莫兮	mi	..뎡	메	미	미	mi ²
體	蟹	脂	t ^h ied	蟹開四上齊透次清	t ^h iei	他禮	t ^h i	..뎡	테	테	테	t ^h i ³
弟	蟹	脂	d ^h ied	蟹開四上齊定全濁	d ^h iei	徒禮	ti	..뎡 ..뎡	뎡	테	테	ti ⁴ , t ^h i ⁴
洗 ⁺	蟹			蟹開四上齊心全清	siei	先禮	si	..션 ..쟁	션	세	세 션	ɕi ³
堤	蟹			蟹開四上齊端全清	tiɛi	都禮	ti	..뎡 ..뎡 ..싱	테	테	테	ti ³
慧	蟹	祭	riuäd	蟹合四去霽匣全濁	riuɛi	胡桂	xui	..뽀	휘	혜	혜	xuei ⁴
妻 ⁺	蟹			蟹開四去霽清次清	tɕ ^h i ⁴	七計	ts ^h i	..칭 ..쟁	체	처	처	tɕ ^h i ¹
弟 ⁺	蟹	脂	d ^h ied	蟹開四去霽定全濁	ti ⁴	特計	ti	..뎡 ..뎡	뎡	테	테	ti ⁴ , t ^h i ⁴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培	蟹	之	b ^h uêg	蟹合一平灰並全濁	b ^h uAi	薄回	p ^h ui	·뽕· ·평· ·땡·	뽕	비	비부	p ^h ei ²
灰	蟹	之	xuêg	蟹合一平灰曉次清	xuAi	呼恢	xui	·횡·	횡	회	회	xuei ¹
杯	蟹			蟹合一平灰幫全清	puAi	布回	pui	·빙·	빙	비	비	pei ¹
雷	蟹	微	luêd	蟹合一平灰來次濁	luAi	魯回	lui	·링· ·링·	링	뢰	뢰	lei ²
賄	蟹	之	xuêg	蟹合一上賄曉次清	xuAi	呼罪	xui	·횡·	횡	회	회	xuei ⁴
罪	蟹	微	dz ^h uêd	蟹合一上賄從全濁	dz ^h uAi	徂賄	tsui		·쥬·	죄	죄	tsuei ⁴
每 ⁺	蟹	之	muêg	蟹合一上賄明次濁	muAi	武罪			·뮈·	미	미	mei ³
塊	蟹	微	k ^h uêd	蟹合一去隊溪次清	k ^h uAi	苦對	k ^h uai	·굉· ·굉·	굉	괴	괴	k ^h uai ⁴
碓	蟹	微	tuêd	蟹合一去隊端全清	tuAi	都隊	tui	·딩·	딩	디	디	tuei ⁴
外	蟹	祭	ŋuad	蟹合一去泰疑次濁	ŋuai	五會	uai	·왕·	왕	외	외	uai ⁴
每	蟹	之	muêg	蟹合一去隊明次濁	muAi	莫佩			·뮈·	미	미	mei ³
退	蟹	微	t ^h uêd	蟹合一去隊透次清	t ^h uAi	他內	t ^h ui	·팅·	팅	퇴	퇴	t ^h uei ⁴
內	蟹	緝/微	nuêb/ nuêd	蟹合一去隊泥次濁	nuAi	奴對	nui		·뉘·	니	니남	nei ⁴
蝸	蟹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古蛙		·괭· ·광· ·랑·	괭 과 와	과	과 왜	uo ¹
賣	蟹	佳	meg	蟹合二去卦明次濁	mæi	莫懈	mai	·맹· ·육·	맹	매	매	mai ⁴
派	蟹	佳	p ^h eg	蟹合二去卦滂次清	p ^h æi	匹卦		·팽·	팽	패	패	p ^h ai ⁴
閨	蟹	佳	kiueg	蟹合四平齊見全清	kiuei	古攜	kui	·괭·	괭	규	규	kuei ¹

<표53>을 통하여 蟹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蟹攝은 『廣韻』의 ‘哈·泰·代·츠·佳·卦·皆·廢·祭·齊·薺·灰·賄·隊’韻을 포함하며, 喉音系 운미를 취한다.

둘째, 蟹攝 開口 一·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ai/, ㄹ, /ai/’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ᄃ, ㄹ, ㄹ’와 대응된다.

셋째, 蟹攝 開口 三·四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普通話에서 韻母 ‘/i/’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ᄃ’와 대응된다. 蟹攝 開口 三·四等에 속하는 글자의 韻母는 中古音 ‘/iei/’가 『中原音韻』에서 韻母가 ‘/i/’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 대부분 漢語 中古音을 따르고 있다.

넷째, 蟹攝 合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uai/, ㅞ, /uai/’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ᄃ, ㅞ, ㅞ’와 대응된다.

다섯째, 蟹攝 合口 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ai/, ㄹ, /ai/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빙, ㄹ, ㄹ’와 대응된다.

여섯째, 蟹攝 合口 四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ui/, ㄱ, /ai/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빙, ㅍ, ㅍ’와 대응된다.

일곱째, 『東國正韻』의 終聲은 喉音 不清不濁 ‘ㅇ/∅’으로 終聲을 취한다.

여덟째, 『東國正韻』의 ‘빙’와 ‘빙’의 中聲의 음가를 현재로서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빙’이 한글의 ‘왜’와 비슷한 음이라면 ‘왜’ 밑에 終聲 ‘ㅇ’이 있게 되므로 현재 한글의 ‘왜’에서 중국어의 복운모 자질의 느낌이 더해지게 된다. 이유는 성대에서 공명음의 자질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내’에 終聲 ‘ㅇ’이 결합될 경우 /æi/로 발음되어 한국어 발성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모음 /æ/로 추정된 董同龢의 추정음에 주목할 만하다.

아홉째, 蟹攝의 灰韻은 漢語 中古音에서 /uAi/로, 『中原音韻』에서 /ui/로, 普通話에서 /uei/로 나타나며, 『四聲通解』에서는 ‘기’로 확인된다. 漢語 中古音에서 灰韻의 /-A-/음가가 일률적으로 탈락하여 『中原音韻』에서 韻母가 /ui/로 나타나 『四聲通解』에서 ‘기’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나, ‘灰’만 ‘뻬’로 표기되어 漢語 中古音을 따르고 있다.

열째, 二等에 속하며 聲母가 牙·喉音인 글자가 『中原音韻』에서 개음 /i-/가 생겨나고 있는데, 『四聲通解』에서는 개음 /i-/를 韻母에서 ‘ㄹ’로 반영하였다.

열한째, ‘閨’는 韻母가 ‘빙/iuiæi/’으로 분류되는데, 韻母 ‘빙/iuiæi/’은 『東國正韻』에서만 사용된 표기이다. 이는 『東國正韻』의 한자음에서 開口 四等韻 ‘i-/’에 대응되는 合口 四等韻은 /iu-/인데 당시 한자음에서는 우리말의 음절 제약으로 開口와 合口字들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東國正韻』에서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 우리말에 사용되지 않는 中聲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¹¹⁴⁾ ‘閨’가 『四聲通解』에서 ‘귀’로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규’로 나타나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표53>에서 蟹攝에 해당하는 ‘洗’는 『中原音韻』에서 /si/로, 『四聲通解』에서 ‘선’으로,

114) 박경송, 「『東國正韻』에 나타난 조선음운학자들의 중고한어 음운 연구」, 『중국언어연구』 15, 2002, 338 쪽.

	개구음	합구음
一·二等	·/ʌ/ · /ʌi/ ㅏ/a/ ㅑ/ai/	ㅓ/o/ ㅕ/oi/ ㅗ/oa/ ㅛ/oai/
三等韻	-/i/ - /ii/ ㅓ/ə/	ㅓ/u/ ㅕ/ui/ ㅓ/ua/
四等韻	/i/ /i/ ㅕ/iə/ ㅕ/iæi/	ㅍ/iu/ ㅍ/iui/ ㅍ/iuiə/ ㅍ/iuiæi/

普通話는 /ei/로 나타난다. <표53>의 ‘洗’는 又音이 山攝에 속해 있는데, 『四聲通解』에서는 山攝의 음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洗’는 『東國正韻』에서 ‘션, 쟁’으로, 『訓蒙字會』에서 ‘세’로, 『全韻玉篇』은 ‘션, 세’로 나타난다. 『訓蒙字會』에서는 蟹攝에 해당하는 음만 반영하고 있으며, 『東國正韻』과 『全韻玉篇』에서는 山攝과 蟹攝의 음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14. 果攝

<표54>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搓	果			果開一平歌清次清	ts ^h a	七何	ts ^h uɔ	창	처	차	차	ts ^h uo ¹
珂	果			果開一平歌溪次清	k ^h a	苦何	k ^h ɔ	강	커	가	가	k ^h ɾ ¹
他	果			果開一平歌透次清	t ^h a	託何	t ^h uɔ	탕 팡	터	타	타	t ^h a ¹
陀	果			果開一平歌定全濁	d ^h a	徒河	t ^h uɔ	땅	떠	타	타	t ^h uo ²
挪	果			果開一平歌泥次濁	na	諾何	nuɔ		너	나	나	nuo ²
哥	果	歌	ka	果開一平歌見全清	ka	古俄	kɔ	강	거	가	가	kr ¹
我	果	歌	ŋa	果開一上哿疑次濁	ŋa	五可	ŋɔ	양 :양	어	아	아	uo ³
左 ⁺	果	歌	tsa	果開一上哿精全清	tsa	臧可	tsuɔ	:장 :장	저	좌	자	tsuo ³
左 ⁺	果	歌	tsa	果開一上箇精全清	tsa	則箇	tsuɔ	:장 :장	저	좌	자	tsuo ³
坐 ⁺	果	歌	dz ^h ua	果合一去過從全濁	dz ^h ua	徂臥	tsuɔ	:짙 :짙	쥐	좌	좌	tsuo ⁴
磨 ⁺	果	歌	mua	果合一平戈明次濁	mua	莫婆	muɔ	망 :망	뮌	마	마	mo ²
坡	果	歌	p ^h ua	果合一平戈滂次清	p ^h ua	滂禾	p ^h uɔ	팡	뮌	파	파	p ^h o ¹
波	果	歌	pua	果合一平戈幫全清	pua	博禾	puɔ	빙 :빙, 방	뮌	파	파	po ¹
捶	果	歌	tjua	* 果合一上果端全清	tua	都果	ts ^h ui	:닿 :정	더	츄	츄, 타	ts ^h uei ²
磨	果	歌	mua	果合一去過明次濁	mua	摸臥	muɔ	망 :망	뮌	마	마	mo ⁴

<표54>을 통하여 果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果攝은 『廣韻』의 ‘歌·哿·箇·過·戈·果’韻을 포함하며, 喉音系 운미를 취한다.

둘째, 果攝 開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uɔ/, ɿ, /uo/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상, ㅏ, ㅑ’와 대응된다.

셋째, 果攝 合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uo/, /o/’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양, ㅏ, ㅑ’와 대응된다.

넷째, 『東國正韻』의 終聲은 喉音 不淸不濁 ‘o/ø/’으로 終聲을 취한다.

다섯째, 果攝 開口 一等에서 『中原音韻』의 韻母가 ‘/ɔ/’로 나타나는 글자는 普通話에서 韻母가 ‘/ɿ/’로 나타난다.

다섯째, 果攝 開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漢語 中古音의 韻母가 ‘/a/’로 나타나는데, 聲母가 牙·喉音에 속하는 글자를 제외하고, 『中原音韻』에서 韻母가 ‘/uo/’로 合口化되었고, 『四聲通解』는 韻母가 ‘거’로 나타난다. 牙·喉音 聲母는 『中原音韻』에서 韻母가 ‘/ɔ/’로 나타나고, 『四聲通解』에서도 韻母가 ‘거’로 合口化되지 않았지만, 普通話에서 韻母가 ‘/uo/’로 合口化되었다.

<표54>에서 果攝에 해당하는 ‘坡’는 中古音에서 ‘/p^hua/’로 『中原音韻』에서 ‘/p^huo/’로, 『四聲通解』에서 ‘튀’로, 普通話는 ‘/p^ho/’로 나타난다. ‘坡’는 『東國正韻』에서 ‘팡’으로,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은 ‘파’로 나타나 『四聲通解』가 合口의 성질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5. 假攝

<표55>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詐	假	魚	tsäg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側駕	tʃa	장	자	사	자正사	tʃa ⁴
杈 ⁺	假	歌	ts ^h a	假開二平麻初次清	tʃ ^h a	初牙		창	차	차	차	tʃ ^h a ¹
葩	假	魚	p ^h uäg	假開二平麻滂次清	p ^h a	普巴	p ^h ua	팡	파	파	파	p ^h a ¹
葩	假			假開二平麻幫全清	pa	伯加	pua	방	바	파	파	pa ¹
叉 ⁺	假	歌	ts ^h a	假開二平麻初次清	tʃ ^h a	初牙	tʃ ^h a	창	체	차	체 차	tʃ ^h a ¹
琶	假			假開二平麻並全濁	b ^h a	蒲巴	p ^h ua	팡	빠	파	파	p ^h a ²
沙 ⁺	假	歌	ʃeai	假開二平麻生全清	ʃa	所加	ʃa	상상	사	사	사	ʃa ¹
下	假	魚	räg	假開二上馬匣全濁	ra	胡雅	xia	홍강향	하	하	하	ɕia ⁴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笆 ⁺	假			假開二上馬並全濁	b ^h a	傍下	pua	방	바	파	파	pa ¹
沙 ⁺	假			假開二去禡生全清	ʃa	所嫁	ʃa	상 상	사	사	사	ʃa ¹
爺	假			假開三平麻以次濁	0ja	以遮	ie	양	여	야	야	ie ²
勝 ⁺	假			假合二平麻溪次清	k ^h ua	苦瓜	k ^h ua	·콩 ·광 ·광	과	과	고, 과	k ^h ua ¹
華 ⁺	假	魚	yuǎg	假合二平麻匣全濁	ɣua	戶花	xua	·향 ·광 ·광 ·풍	화	화	화	xua ²
蝸	假	歌	kua	假合二平麻見全清	kua	古華		·광 ·광 ·랑	과 와	과	과 와	uo ¹
華	假	魚	xuǎg	假合二平麻曉次清	xua	呼瓜	xua	·광 ·광 ·광 ·풍	화	화	화	xua ¹
謁	假			假合二平麻知全清	ʈua	陟瓜		당	좌	좌	좌 과	ʈsua ¹
瓦	假	歌	ɲua	假合二上馬疑次濁	ɲua	五寡	ua	·잉 ·왕	와	와	와	ua ³
化	假	歌	xua	假合二去禡曉次清	xua	呼霸	xua	·황	화	화	화	xua ⁴
勝 ⁺	假	魚	k ^h uǎg	假合二去禡溪次清	k ^h ua	苦化	k ^h ua	·콩 ·광 ·광	과	과	고, 과	k ^h ua ⁴
瓦 ⁺	假			假合二去禡疑次濁	ɲua	五化	ua	·잉 ·왕	와	와	와	ua ⁴
華 ⁺	假	魚	yuǎg	假合二去禡匣全濁	ɣua	胡化	xua	·향 ·광 ·광 ·풍	화	화	화	xua ⁴

<표55>을 통하여 假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假攝은 『廣韻』의 ‘禡·麻·馬’韻을 포함하며, 喉音系 운미를 취한다.

둘째, 假攝 開口 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ua/, ɿ, /a/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ang, ɿ, ɿ’와 대응된다.

셋째, 假攝 合口 二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ua/, ɿ, /ua/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ang, ɿ, ɿ’와 대응된다.

넷째, 『東國正韻』의 終聲은 喉音 不清不濁 ‘o/ø’으로 終聲을 취한다.

다섯째, 假攝 開口 二等에서 聲母가 唇音계열인 글자는 『中原音韻』에서 개음 /u-/가 개입되었지만, 普通話에서는 개음 /u-/가 반영되지 않았다.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ang, ɿ, ɿ’로 나타나 中古音을 더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開口 三等에 해당하는 글자가 『中原音韻』 이후 주요원음의 고모음화 현상(a>ɛ)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55>에서 假攝에 해당하는 ‘叉’는 中古音에서 /tʃʰa/로 『中原音韻』에서 /tʂʰa/로, 『四聲通解』에서 ‘채’로, 普通話는 /tʂʰa/로 나타난다. <표55>의 ‘叉’는 叉音이 蟹攝에 속해 있는데, 『四聲通解』에서는 蟹攝의 음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叉’는 『東國正韻』에서 ‘창’으로, 『訓蒙字會』에서 ‘차’로, 『全韻玉篇』는 ‘차, 채’로 나타난다. 『東國正韻』과 『訓蒙字會』에서는 假攝에 해당하는 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全韻玉篇』에서는 假攝과 蟹攝의 음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16. 遇攝

<표56>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痘 ⁺	遇	魚	tʂʰjag	遇開三平魚清次清	tʂʰjo	七余	tsiu	:정 청	쥬	저	저	tɕy ¹
魚	遇	魚	njag	遇開三平魚疑次濁	njo	語居	iu	영	유	어	어	y ²
暑	遇	魚	ɕjag	遇開三上語書全清	ɕjo	舒呂	ɕiu	:성	슈	셔	셔	ɕu ³
序	遇			遇開三上語邪全濁	zjo	徐呂	siu	:생	쑤	셔	셔	ɕy ⁴
礎	遇			遇開三上語初次清	tʃʰjo	創舉	tʂʰu	:총 청	추	초	초	tʂʰu ³
處 ⁺	遇	魚	chʰjag	遇開三上語昌次清	tɕʰjo	昌與	tʂʰiu	:청 청	츄	처	처	tʂʰu ³
女	遇	魚	njag	遇開三上語娘次濁	njo	尼呂	niu	:녕 녕 :성	뉴	녀	녀	ny ³
所	遇	魚	sag	遇開三上語生全清	ʃjo	踈舉	su	:송	수	쇼	소	suo ³
旅	遇	魚	ljag	遇開三上語來次濁	ljo	力舉	liu	:령	류	려	려	ly ³
女 ⁺	遇	魚	njag	遇開三去御娘次濁	ny ⁴	尼據	liu	:녕 녕 :성	뉴	녀	녀	ny ³
處 ⁺	遇	魚	chʰjag	遇開三去御昌次清	tʂʰu ⁴	昌據	tʂʰiu	:청 청	츄	처	처	tʂʰu ³
枯	遇	魚	kʰag	遇合一平模溪次清	kʰuo	苦胡	kʰu	공	쿠	고	고 正 구	kʰu ¹
惡	遇	魚	?ag	遇合一平模影全清	?uo	哀都	ɔ	.학 학 :향	후	악	오. 악	u ¹
吾	遇	魚	ŋag	遇合一平模疑次濁	ŋuo	五乎	u	응	우	오	오	u ²
湖	遇	魚	ɾag	遇合一平模匣全濁	ɾuo	戶吳	xu	흥	후	호	호	xu ²
鋪	遇	魚	pʰuag	遇合一平模滂次清	pʰuo	普胡	pʰu	풍. 풍 :풍	푸	푸	포	pʰu ¹
奴	遇	魚	nag	遇合一平模泥次濁	nuo	乃都	nu	농	누	노	노	nu ²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都	遇	魚	tag	遇合一平模端全清	tuo	當孤	tu	동	두	도	도	tu ¹
徒	遇	魚	d ^h ag	遇合一平模定全濁	d ^h uo	同都	t ^h u	똥	뚜	도	도	t ^h u ²
租	遇	魚	tsag	遇合一平模精全清	tsuo	則吾	tsu	중 중	주	조	조	tsu ¹
虎	遇	魚	xag	遇合一上姥曉次清	xuo	呼古	xu	:홍	후	호	호	xu ³
土	遇	魚	t ^h ag	遇合一上姥透次清	t ^h uo	他魯	t ^h u	:동 :동 :동	투	토	토, 두	t ^h u ³
古	遇	魚	kag	遇合一上姥見全清	kuo	公戶	ku	:공	구	고	고	ku ³
惡 ⁺	遇	魚	?ag	遇合一去暮影全清	?uo	烏路	o	학 학 학	할 수 俗 영	악	오, 악	u ⁴
步	遇	魚	b ^h uag	遇合一去暮並全濁	b ^h uo	薄故	pu		뿌	보	보	pu ⁴
錯 ⁺	遇	魚	ts ^h ag	遇合一去暮清次清	ts ^h uo	倉故	ts ^h u	착 총	추	작	조 작	ts ^h u ⁴
素	遇	魚	sag	遇合一去暮心全清	suo	桑故	su	:송	수	소	소	su ⁴
錯 ⁺	遇	魚	ts ^h ag	遇合一去暮清次清	ts ^h uo	倉故	ts ^h u	총 착	찰	작	조 작	ts ^h u ⁴
布	遇	魚	puag	遇合一去暮幫全清	puo	博故	pu	:봉	부	포	포	pu ⁴
度	遇	魚	d ^h ag	遇合一去暮定全濁	d ^h uo	徒故	tu	:막 :똥	달	도	도, 락	tu ⁴
胯 ⁺	遇	魚	k ^h uag	遇合一去暮溪次清	k ^h uo	苦故	k ^h ua	:공, 광 :광 :광	과	과	고, 과	k ^h u ⁴
路	遇	魚	lag	遇合一去暮來次濁	luo	洛故	lu	:락 :릉	루	로	로	lu ⁴
鋪 ⁺	遇	魚	p ^h uag	遇合一去暮滂次清	p ^h uo	普故	p ^h u	풍, 풍 :풍	푸	푸	포	p ^h u ⁴
鬚	遇			遇合三平虞心全清	sjuo	相俞	siu		슈	슈	슈	cy ¹
菊	遇			遇合三平虞初次清	ʃ ^h io	窻俞			츄	추		tsu ²
娶 ⁺	遇	侯	sjug	遇合三平虞心全清	sjuo	相俞	ts ^h iu	:츄	츄	취	츄	tɕ ^h y ³
衢	遇	魚	g ^h juag	遇合三平虞羣全濁	g ^h juo	其俱	kiu	궁	규	구		tɕ ^h y ²
夫	遇	魚	b ^h juag	遇合三平虞奉全濁	b ^h juo	防無	fu	봉 똥	부	부	부	fu ²
柱 ⁺	遇	侯	tjug	遇合三上麌知全清	tjuo	知庾	tʃiu	:등 :똥 :똥	쥬	듀	쥬	tʃu ³
乳	遇	侯	n _l jug	遇合三上麌日次濁	n _l juo	而主	riu	:음 :음 :음	슈	슈	유	zu ³
嫗 ⁺	遇			遇合三上曉影全清	?io	委羽	iu	:홍 :홍 :홍	유	구	우, 俗 구	y ⁴
主	遇	侯	tjug	遇合三上麌章全清	tɕjuo	之庾	tʃiu	:중 :중	쥬	쥬	쥬	tʃu ³
武	遇	魚	mjuag	遇合三上麌微次濁	mjuo	文甫	vu		부	무	무	u ³
父	遇			遇合三上麌非全清	pjuo	方矩	fu	:봉 :똥	부	부	부, 보	fu ³
樹 ⁺	遇	侯	zjug	遇合三上麌禪全濁	zjuo	臣庾	ʃiu	:쌈 :쌈	쥬	슈	슈	ʃu ⁴
痘 ⁺	遇	魚	ts ^h jag	遇合三上語精全清	tsio	子與	tsiu	:정 :정	쥬	저	저	tɕy ¹
句 ⁺	遇	侯	kjug	遇合三去遇見全清	kjuo	九遇	kiu	궁, 궁 :궁, 궁 :궁, 궁	규	구	구	tɕy ⁴
樹 ⁺	遇	侯	zjug	遇合三去遇禪全濁	zjuo	常句	ʃiu	:쌈 :쌈	쥬	슈	슈	ʃu ⁴

字例	攝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嫗	遇	侯	?jug	遇合三去遇影全清	?juo	衣遇	iu	중 중	류	구	우 구	y ¹

<표56>을 통하여 遇攝에 해당하는 韻母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遇攝은 『廣韻』의 ‘魚·語·御·模·姥·暮·虞·嘯·屋’韻을 포함하며, 喉音系 운미를 취한다.

둘째, 遇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四聲通解』, 普通話에서 韻母 ‘/iu/, ɲ, /y/’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ᄃ, ㄱ, ㅋ’와 대응된다.

셋째, 遇攝 合口 一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普通話에서 韻母 ‘/u/, ɳ, /u/’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ᄃ, ㄱ, ㄱ’와 대응된다.

넷째, 遇攝 合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는 『中原音韻』, 普通話에서 韻母 ‘/iu/, ɲ, /y/’와 대응되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韻母 ‘ᄃ, ɲ, ɲ’와 대응된다.

다섯째, 『東國正韻』의 終聲은 喉音 不清不濁 ‘o/ø/’으로 終聲을 취한다.

여섯째, 合口韻이 『四聲通解』에서 ‘ɳ/u/’로 나타나는데, 중국 한자음에서 /u/로 나타나는 글자가 한국 한자음에서는 ‘ㄱ/o/’로 나타난다.

일곱째, 合口 三等에 해당하는 글자가 한국 한자음을 기록한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韻母가 ‘ɳ’와 ‘ɲ’가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

여덟째, 『廣韻』 魚韻 開口 三等 글자들이 『中原音韻』 이후 주요원음의 변화(o>u)로 인하여 모두 合口化되었다. 『四聲通解』에서도 開口 三等 글자들 중 照二系 글자들은 模韻(中聲 /ɳ/)에 합류되었으며, 照二系를 제외한 나머지 開口 三等 글자들은 魚韻(中聲 /ɲ/)에 합류되었다.¹¹⁵⁾

아홉째, 개음의 탈락 과정을 통해 齒音에서 진행되는 舌尖後音化의 과정에 일정한 단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中古 시기 魚韻 開口 三等과 虞韻 合口 三等的 글자들 중 위에서 언급한 照二系 글자들을 제외한 ‘知, 徹, 澄’ 등의 舌上音과 照三系의 글자들은 『四聲通解』에서 魚韻(中聲 /ɲ/)에 분류하여 여전히 개음 /i/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齒音

115) 『四聲通解』에서는 聲母를 舌上音과 正齒音(照二系, 照三系)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正齒音 표기 방식으로 통합시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韻의 소속 글자들의 계통을 살펴보면, 中古 시기 舌上音과 照二系, 照三系에 따라 소속 韻을 구별하여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에서 照二系の 舌尖後音化가 舌上音 및 照三系보다 빨랐음을 알 수 있다.¹¹⁶⁾

<표56>에서 遇攝에 해당하는 ‘主’는 中古音에서 ‘/tejuo/’로 『中原音韻』에서 ‘/tʃiu/’로, 『四聲通解』에서 ‘쥬’로, 普通話는 ‘/tʃu/’로 나타나 普通話에서는 개음 /i-/가 탈락되었다. 또 ‘主’는 『東國正韻』에서 ‘중’으로,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 ‘쥬’로 나타나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中古音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16) 주성일,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陰聲韻의 변화』, 『중국문학연구』 45, 한국중문학회, 2011, 364쪽.

V. 결론

『四聲通解』의 聲母를 漢語 中古音의 ‘牙·舌·脣·齒·喉’ 순으로 정렬하여 『東國正韻』, 『中原音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과 비교 연구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牙音은 漢語 中古音의 ‘見/k/, 溪/kʰ/, 羣/gʰ/, 疑/ŋ/’母에 해당하며, 이는 『四聲通解』의 ‘ㄱ(全淸), ㅋ(次淸), ㆁ(全濁), ㅇ(次濁)’에 대응된다. 『東國正韻』의 聲母는 ‘ㄱ, ㅋ, ㆁ, ㅇ’으로, 『四聲通解』와 동일하다. 한국 한자음을 반영한 『訓蒙字會』 및 『全韻玉篇』은 見母와 溪母가 ‘ㄱ’으로 나타나, 全淸과 次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全濁 聲母인 羣母가 중국 近代音을 반영한 『中原音韻』에서 ‘kʰ’로 나타나 濁音의 淸音化가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四聲通解』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訓蒙字會』 및 『全韻玉篇』은 羣母를 ‘ㄱ’으로 표기하여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疑母는 연구개 비음이지만, 『中原音韻』에서 해당 聲母가 ‘/ø/’로 나타나 疑母가 영성모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訓蒙字會』 및 『全韻玉篇』은 ‘ㅇ’으로 표기하여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舌音은 漢語 中古音의 ‘端/t/, 知/tʰ/, 透/tʰ/, 徹/tʰ/, 定/dʰ/, 澄/dʰ/, 泥/n/, 娘/n/’母에 해당한다. 『四聲通解』에서는 舌上音 ‘知/tʰ/, 徹/tʰ/, 澄/dʰ/’母가 正齒音에 합류되었고, 舌上音 ‘娘/n/’母는 舌頭音 ‘泥/n/’母에 합류되어, ‘ㄷ(全淸), ㅌ(次淸), ㄸ(全濁), ㄹ(次濁)’으로 나타난다. 『東國正韻』의 聲母는 ‘ㄷ, ㅌ, ㄸ, ㄹ’으로, 『四聲通解』와 동일하다. 『訓蒙字會』는 舌上音과 舌頭音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ㄷ’과 ‘ㅌ’이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全淸과 次淸, 淸音과 濁音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全韻玉篇』에서는 『訓蒙字會』와 마찬가지로 全淸과 次淸, 淸音과 濁音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舌頭音은 ‘ㄷ, ㅌ’으로, 舌上音은 ‘ㄸ, ㄹ’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漢語 中古音의 七音을 명확히 따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脣音은 漢語 中古音의 ‘幫·非/p/, 滂·敷/pʰ/, 並·奉/bʰ/, 明·微/m/’母에 해당하며, 이는 『四聲通解』의 ‘ㅂ·빙(全淸), ㅍ(次淸), ㅃ·뽕(全濁), ㅍ·몽(次濁)’에 대응된다. 『四聲通解』에서는 輕脣音을 연서법(‘빙, 뽕, 몽’)의 형태로 표기했지만, 『東國正韻』의 聲母는 ‘ㅂ·

ㄱ·ㅃ·ㄴ·ㄷ·ㄹ'으로 重唇音과 輕唇音이 구별되지 않았다. 『訓蒙字會』 및 『全韻玉篇』 또한 輕唇音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ㄷ·ㄱ'이 혼용되는 것으로 보아, 全淸과 次淸, 淸音과 濁音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次濁에 해당하는 微母는 대체로 /m/→/v/→/u/→/ø/의 발전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中原音韻』의 聲母가 'v'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四聲通解』의 聲母 'ㄹ'은 'v'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은 'ㄴ'으로 나타나 輕唇音과 重唇音이 구분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보여주고 있다.

齒音은 漢語 中古音의 '精/ts/(齒頭音), 莊·章·照/tsʰ/(正齒音), 淸/tsʰ/(齒頭音), 初·昌·穿/tsʰ/(正齒音), 從/tsʰ/(齒頭音), 崇·牀·船·神 /tsʰ/(正齒音), 心/s/(齒頭音), 生·疏·書·審/sʰ/(正齒音), 邪/z/(齒頭音), 禪/z/(正齒音)'母에 해당하며, 이는 『四聲通解』의 '스·스·스·스(全淸), 스·스(次淸), 썩·썩·쓰·쓰(全濁)'에 대응되며, 齒頭音은 왼쪽이 긴 형태로(스·스·스·스), 正齒音은 오른쪽이 긴 형태로(스·스·스·쓰)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한국 한자음을 반영한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齒頭音과 正齒音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全淸과 次淸의 구분이 분명하지가 않다. 齒音의 全濁 聲母에 해당하는 邪母와 禪母를 『東國正韻』에서는 '쓰'으로 표기하고, 『訓蒙字會』에서는 '스', 『四聲通解』에서는 '쓰·쓰'으로 표기한다. 기존 연구에서 漢語 中古音을 기준으로 '쓰'을 /z/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東國正韻』의 조음 위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에서 선택하고 있는 표기인 '스'이 설명되지 않는다. 『東國正韻』에서는 漢語 中古音의 全濁을 各自並書로 표기하지만, 『訓蒙字會』에서는 各自並書로 표기하지 않는 것만 제외하고, 조음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즉, 『東國正韻』의 '쓰'을 '스'으로 표기하고 있고, 『訓蒙字會』의 '스'은 異論의 여지없이 무성 마찰음이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漢語 中古音의 淸音과 濁音의 조음 방식을 현재 국제음성기호에서의 무성과 유성의 대립이라 규정하는 기존 연구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喉音은 漢語 中古音의 '影/?/, 曉/x/, 匣/ɣ/, 喻/ø/, 爲/ɣ/'母에 해당하며, 이는 『四聲通解』의 'ㅎ(全淸), ㅎ(次淸), ㅎ(全濁), ㅎ(次濁)'에 대응된다. 影母는 『中原音韻』에서 聲母가 이미 영성모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影母를 모두 'ㅎ'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음의 역사적 근원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影母를 형식적으로 독립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은 한국 한자음에서 변별이 되지 않는 聲母 'ㅎ(여린히읇 全淸)', 'ㅎ(옛이읇 次濁)'을

사용하지 않고, 濁音 표기를 위한 各自並書 역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세진에 의한 표기 정리가 다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四聲通解』의 舌上音이 正齒音으로 합류되었는데 『訓蒙字會』의 舌音을 ‘ㄷ’으로만 표기했듯이, 한자음을 연구할 때에는 그것이 한국의 현실 한자음인지 아니면 표기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四聲通解』의 韻母를 漢語 中古音의 16攝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東國正韻』, 『中原音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과 비교 연구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四聲通解』의 正音에서 ‘藥(中古 ‘藥, 鐸, 覺’)韻에 해당하는 글자는 終聲이 ‘ங’으로 표기되었다. 이는 『四聲通解』 凡例에서 ‘藥韻 終聲에서만은 그 소리가 效韻과 흡사해서 『蒙韻』에서는 ㄹ을 사용하였고, 『四聲通考』에서는 ㄱ을 사용하였으니, 지금 『四聲通考』를 따라 ㄱ을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한 점에서 終聲 ‘ங’의 음가가 ‘ㄱ/-o/’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반면, 한국 한자음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입성이 ‘ㄱ’으로 남아 있어, 漢語 中古音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입성자의 俗音에서는 終聲이 ‘ㅇ’로 나타나 俗音에서도 입성의 흔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四聲通解』 보다 먼저 쓰인 동일 저자의 『翻譯老乞大朴通事』에서 이미 입성이 완전히 소실되어 있으므로, 『四聲通解』의 俗音에서 終聲을 ‘ㅇ’로 표시한 것은 『洪武正韻』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四聲通解』에서는 漢語 中古音의 韻母 /-t/가 소실된 음이 반영되었다. 반면, 『東國正韻』에서는 입성 韻母 /-t/를 以影補來 ‘ㄷ’로 終聲을 표기했고,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ㄷ’로 終聲을 표기했다. 以影補來 ‘ㄷ’에 대해서 『東國正韻』 序文에서는 ‘以影補來 因俗歸正’이라 하여 ‘ㅇ’으로 ‘ㄷ’을 보충하여 속습에 해당하는 한국 한자음의 韻母 /-l/을 /-t/로 바로잡겠다고 한 바가 있다. 漢語 中古音을 그대로 따른다면 終聲이 ‘ㄷ’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東國正韻』 序文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한국의 현실 한자음에서는 終聲이 ‘ㄷ’이었으며,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그대로 반영하여 終聲을 ‘ㄷ’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四聲通解』에서는 漢語 中古音의 韻母 /-p/가 소실된 음이 반영되었다. 『四聲通解』는 『中原音韻』을 참고하여 편찬하였는데, 『中原音韻』에서 입성 韻母가 소실되었으므로, 『四聲

通解』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終聲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東國正韻』, 『訓蒙字會』, 『全韻玉篇』에서는 입성 운미 /-p/를 終聲 ‘ㅂ’으로 표기했다.

漢語 中古音의 운미 /-m/에 해당하는 글자는 『四聲通解』에서 대체로 終聲이 ‘ㄹ’으로 나타나는데, 聲母가 양순음인 글자만 終聲이 ‘ㄹ’으로 표기되었다. 漢語 中古音의 운미 /-m/에 해당하는 글자가 『中原音韻』에서 聲母가 양순음이면서 운미도 양순음인 글자들은 모두 운미가 /-n/인 韻部로 합류되었는데, 『四聲通解』에서도 이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終聲이 모두 ‘ㄹ’으로 표기되어 漢語 中古音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效攝과 流攝의 운미는 『東國正韻』과 『四聲通解』에서 終聲이 ‘ㅁ’으로 표기되었다. 훈민정음 표기 체계에서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을 따라 운미 /-u/를 ‘ㅁ’나 ‘ㅇ’처럼 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訓民正音』 「解例本」 例義에서 脣輕音을 ‘ㅇ連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는 것)’이라 한 것에서 양순 마찰 비음으로 추정되는 終聲 ‘ㅁ’은 운미 /-u/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한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는 일률적으로 終聲 ‘ㅁ’이 나타나지 않는다.

漢語 中古音 開口 三等에 해당하는 글자가 『東國正韻』에서 ‘-i/’로 읽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舌面音이 開口 三等에 속하고 舌尖音은 開口 一等에 속하지만, 한국에서는 주요모음이 ‘-i/’인데 開口 三等과 開口 一等이 섞여 있다. 이로 보아, 한국어 ‘-i/’음의 성격은 舌尖音과 舌面音 사이의 舌尖面元音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개음 /i-/의 탈락 과정을 통해, 齒音에서 진행되는 舌尖後音化의 과정에 일정한 단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漢語 中古音 魚韻 開口 三等과 虞韻 合口 三等的 글자들 중 照二系 글자들을 제외한 ‘知, 徹, 澄’ 등의 舌上音과 照三系의 글자들은 『四聲通解』에서 魚韻 韻母 ‘ㄲ’에 분류하여 여전히 개음 /i-/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齒音 중에서 照二系의 舌尖後音化가 舌上音 및 照三系보다 빨랐음을 알 수 있다. 『訓蒙字會』와 『全韻玉篇』에서도 聲母가 舌上音 및 照三系에 해당하는 글자의 韻母가 ‘ㄲ’로 개음 /i-/를 반영하고 있다.

『東國正韻』의 ‘ㅽ’와 ‘ㅿ’의 中聲의 음가를 현재로서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ㅽ’이 한글의 ‘왜’와 비슷한 음이라면 ‘왜’ 밑에 終聲 ‘ㅇ’이 있게 되므로 현재 한글의 ‘왜’에서 중국어의 복운모 자질의 느낌이 더해지게 된다. 이유는 성대에서 공명음의 자질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내’에 終聲 ‘ㅇ’이 결합될 경우 /æi/로 발음되어 한국어 발성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모음 /æ/로 추정된 董同龢의 추정음이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四聲通解』의 聲母와 韻母에서 한국 한자음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ㄱ·ㅋ·
ㅈ·ㅊ·ㅅ·ㅆ(齒頭音), ㄱ·ㅋ·ㅈ·ㅊ·ㅅ·ㅆ(正齒音), ㅍ, ㅁ, ㅇ 등의 표기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를 관련 韻書에 표기된 글자와 대응시켜 그 음가를 추정해보았다.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의 추후 지속적인 비교 연구는 각 한자음의 특성과 영향 관계를 명확히 밝히
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가나다순, 알파벳 순 및 연대순

【단행본】

- 강신항, 『四聲通解 研究』, 신아사, 1980.
-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 김무림, 『홍무정훈역훈』, 신구문화사, 2006.
- 김태경,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4.
- 나찬연, 『月印釋譜 序』, 경진출판, 2018.
- 송철의,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이강로, 『사성통해의 연구 上』, 박이정, 2000.
- 이강로, 『사성통해의 음운학적 연구』, 박이정, 2004.
- 이재돈,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19.
- 정경일, 『규장전운·전운옥편』, 신구문화사, 2008.
-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 裘錫圭, 『文字學概要』, 商務印書館, 2009.
- 董同龢 著, 공재석 譯, 『漢語音韻學』, 汎學圖書, 1975.
- 寧繼福, 『古今韻會學要及相關韻書』, 中華書局, 1997.
- 李新魁, 『漢語音韻學』, 中華書局, 1983.
- 章炳麟, 『國故論衡』, 臺灣 廣文書局, 1967.
- 陳新雄, 『『廣韻』研究』, 學生書局, 2004.
- 趙蔭棠, 『等韻源流』, 商務印書館, 1957, 208쪽.
- Hsueh, F. S., 『Phonology of Old Mandarin』, The Hague, 1975.

【논문】

- 곡효운, 「『四聲通解』‘東董送屋’韻所引『蒙古韻略』考」, 『중국언어연구』 68, 한국중국어학회,

2017.

- 김무림, 「『四聲通解』字母圖에 대한 考察」, 『어문논집』 70, 민족어문학회, 2014.
- 김민수, 「四聲通解」, 『한글』 122, 한글학회, 1957.
- 김민경·김서영·문성호·김은희, 「『全韻玉篇』에 나타난 정·속음의 성격 고찰 下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동남어문논집』 86,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
- 김서영·안영실·김민경, 「漢語 中古音의 齒音 小考 -『東國正韻』·『訓蒙字會』 齒音과의 비교를 통해-」, 『中國學』 72, 대한중국학회, 2020.
- 김은희·김민경·김서영, 「『全韻玉篇』에 나타난 정·속음의 성격 고찰 上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언어연구』 86,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
- 김혜, 「『滿文原檔』의 차용 표기에 나타난 만주어와 한어의 음운 현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류재원, 「全韻玉篇의 俗音字」에 대한 研究」, 『중국학연구』 11, 중국학연구회, 1996.
- 문성호, 「漢語 中古音과 訓民正音의 音韻 研究-粵語, 梵語, 『東國正韻』 漢字音의 音韻 比較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박경송, 「『東國正韻』에 나타난 조선음운학자들의 중고한어 음운 연구」, 『중국언어연구』 15, 한국중국언어학회, 2002.
- 박태권, 「최세진의 학문 세계와 『사성통해(四聲通解)』」, 『국어사연구』 6, 국어사학회, 2006.
- 방종현, 「사성통해 연구」, 『一蓑國語學論叢』, 民衆書館, 1963.
- 배운덕, 「『四聲通解』에 나타난 『韻會』 연구」, 『돈암어문학』 16, 돈암어문학회, 2003.
- 안경상, 「어학교전 『訓蒙字會』의 몇 가지 특징」, 『중국조선어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20.
- 안기섭, 「조선시대 대 한어 역음서의 정음, 속음 성격의 재고(서, 범례상의 기술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10, 1988.
- 안재철, 「韻略匯通의 音價推定 -韻略易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유효홍, 「순경음 ‘뫑’의 중성 표기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2010.
- 이근수, 「중기국어의 “오/ㅛ/ / 우/ㅠ/ ”에 대하여」, 『어문논집』 13, 민족어문학회, 1971.
- 이돈주, 「『全韻玉篇』의 正·俗 漢字音에 대한 연구」, 『국어학』 30, 국어학회, 1997.
- 이돈주, 「화동정음통석운고의 정속음과 전운옥편 한자음의 비교 고찰」, 『한글』 249, 한글

- 학회, 2000.
- 이돈주, 「韓國漢字音 中 俗音의 正音性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8, 한국언어문학회, 2002.
- 이동립,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의 比較: 『四聲通攷』의 再構」, 『東國大學校論文集』 5, 동국대학교, 1968.
- 이순미, 「『四聲通解』속의 근대한어 어휘 초탐」, 『中國語文論叢』 57, 중국어문연구회, 2013.
- 이영월, 「『四聲通解』를 통한 早期官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영월, 「試論 『四聲通解』 音系特徵」, 『중국언어연구』 21, 한국중국언어학회, 2005.
- 이재돈, 「『四聲通解』에 반영된 16세기 중국어 음계 연구」, 『中國文學』 21, 한국중국언어학회, 1993.
- 이재돈, 「崔世珍의 中國語 音韻學 연구」, 『국제중국학연구』 40, 한국중국학회, 1999.
- 이정민, 「중세 이후 한국의 한자음 초성과 중국어 성모와의 대응관계 고찰 -『訓蒙字會』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종구, 「『四聲通解』의 中國音正音 표기音의 재구」, 『중국언어연구』 26, 한국중국언어학회, 2008.
- 주성일, 「『四聲通解』入聲韻의 今俗音 考察」, 『중국문학연구』 37, 한국중문학회, 2008.
- 주성일, 「『四聲通解』범례고(Ⅰ)」, 『중국문학연구』 38, 한국중문학회, 2009.
- 주성일, 「『四聲通解』凡例考(Ⅱ)」, 『중국문학연구』 39, 한국중문학회, 2009.
- 주성일,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 『중국문학연구』 42, 한국중문학회, 2011.
- 주성일,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陰聲韻의 변화」, 『중국문학연구』 45, 한국중문학회, 2011.
- 주성일, 「『四聲通解』動靜字音을 통한 현대한어 동형이음의 정착과정 관찰」, 『中國文學研究』 49, 한국중문학회, 2012.
- 차익중, 「東國正韻의 중성 배열 원리에 대하여」, 『국어학』 70, 국어학회, 2014.
- 최미현, 「『全韻玉篇』에 반영된 지섭(止攝)의 양상에 대하여」, 『새얼어문논집』 18, 새얼어문학회, 2006.
- 한가준, 「최세진의 『四聲通解』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기타】

大提閣, 『東國正韻』影印本, 1973.

大提閣, 『四聲通解』影印本, 1973.

<http://www.tougokudb.jp/> (동국정운 데이터베이스)

<https://xiaoxue.iis.sinica.edu.tw/> (小學堂)

<https://ko.wikipedia.org/> (위키백과)

【ABSTRACT】

A Research on the Chinese Character Sounds of the Saseongtonghae(四聲通解)

- Through a Comparison with Related Rhyme Texts -

This paper has the purpose of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haracter sounds found in the “Saseongtonghae(四聲通解)” by comparing them with related rhyme texts. Up until now, the researches regarding Saseongtonghae have been executed mainly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Chinese middle ancient tones(漢語 中古音) and Chinese rhyme texts. However, the focus was shifted to look further into the relative influence with the Korean Chinese characters’ sounds by comparing the two groups within the scope of this paper.

As such, the initial phonemes(聲母) of the Chinese middle ancient tones were arranged in the order of ‘yá yīn(牙音), shé yīn(舌音), chún yīn(唇音), chǐ yīn(齒音), and hóu yīn(喉音) sounds’ for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the vowels were arranged into the 16 shè(攝) of the hóu yīn(喉音) and Saseongdeungja(四聲等子) to carry out the comparative research with the related rhyme texts. In the study of the initial phonemes(聲母), it was possible to study how the cheongeum(淸音) and the takeum(濁音) were reflected in the Korean sounds applied to the Chinese characters and also how the palatalization occurred through which conditions and process. As for the vowels, it was possible to speculate as to how the phonetic value of such sounds as ‘ㅃ’ and ‘ㅍ’ which were used in the final consonant came to be focusing on how the loss of the rù shēng(入聲) sound appears in the respective rhyme tex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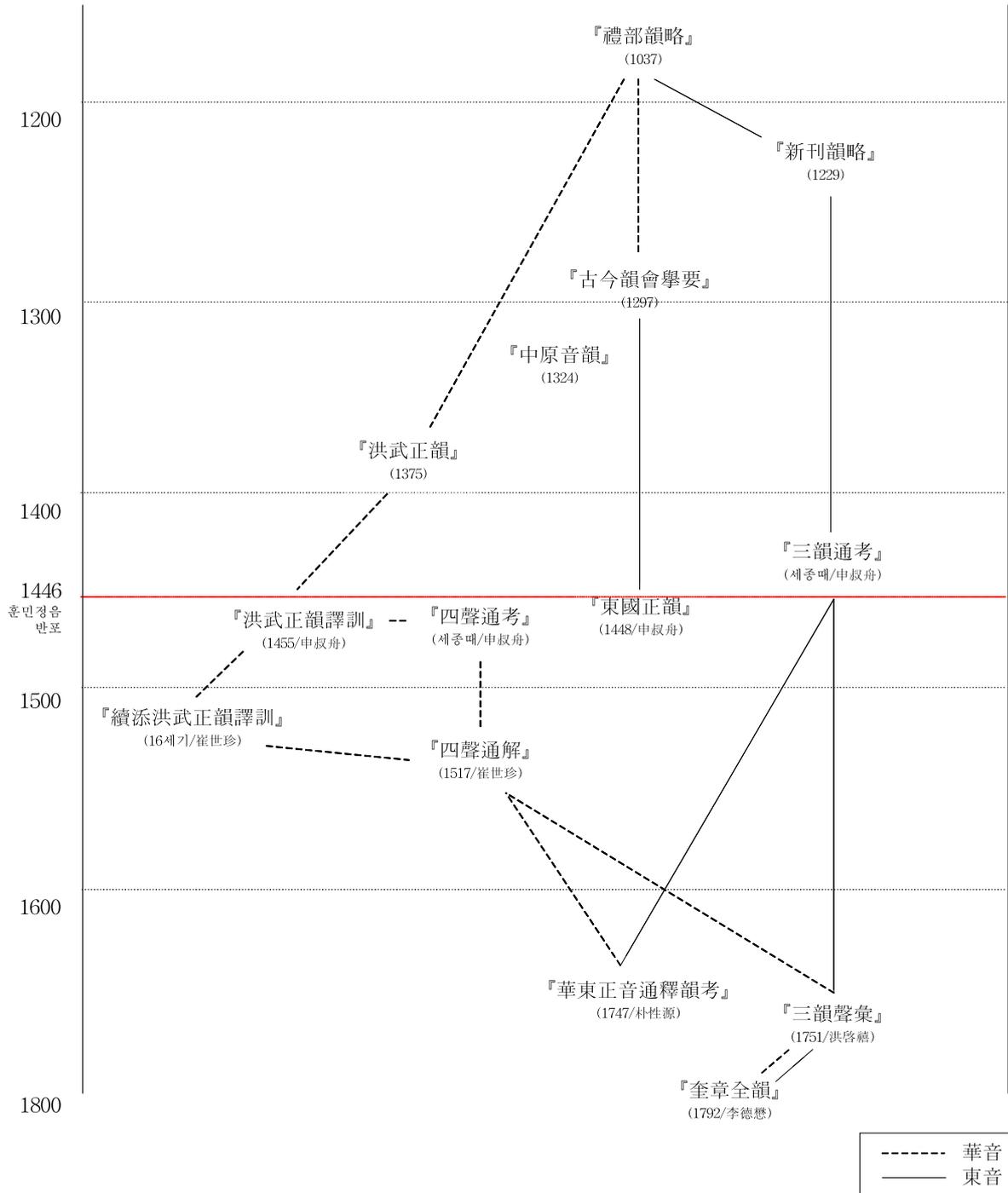
For the research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Saseongtonghae, the comparison subjects included the Chinese middle ancient tones, Donggukjeongun(東國正韻), Zhōngyúányīnyùn(中原音韻), Hunmongjahwae(訓蒙字會) and Jeonun Okpyeon(全韻玉篇). The Chinese middle ancient tones were able to be set up as a standard for the Chinese character tones/sounds because its traditional Chinese phonology structure was already esta

blished during the ancient Chinese period called the sìshēngqīyīn(四聲七音/four sounds seven tones) system. As for the Zhōngyuányīnyùn, since it is already reflecting the modern Chinese character sounds, it was a good reference in analyzing the 3 structures of 'jeong-eum', 'sok-eum' and 'keumsokeum' of the Saseongtonghae. The Donggukjeongun, Hunmongjahwae and the Jeonun Okpyeon all reflect the Korean sounds for the Chinese characters which enabled the in-depth investigative process of seeing how the Saseongtonghae influenced the Korean Chinese character sounds as well as the sound changes it evoked. It should especially be noted that the Hunmongjahwae is a record where the Korean Chinese character sounds were written down by the same lexicographer so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even more cognizability in confirm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haracter sounds and the Korean Chinese character sounds.

Keywords: Chinese Middle Ancient Tone(漢語 中古音), Donggukjeongun(東國正韻), Saseongtonghae(四聲通解), Zhōngyuányīnyùn(中原音韻), Hunmongjahwae(訓蒙字會), Jeonun Okpyeon(全韻玉篇)

【부록】

1. 東音과 華音¹¹⁷⁾의 韻書 통계 도표



117) 여기서 東音은 한국 한자음, 華音은 중국 한자음을 가리킨다.

2. 漢語 中古音의 41聲類와 관련 韻書 大조표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哥	見	歌	ka	果開一平歌見全清	ka	古俄	kɔ	강	거	가	가	ky ¹
勾 ⁺	見	侯	kûg	流開一去候見全清	ku	古侯	kiu	굴·굴공 :·궁·궁, 공	규	구	구	kou ⁴
狗	見	侯	kûg	流開一上厚見全清	ku	古厚	kəu	:굴	글	구	구	kou ³
句	見	侯	kûg	流開一平侯見全清	ku	古侯	kiu	굴·굴공 :·궁·궁, 공	규	구	구	kou ¹
干	見	元	kan	山開一平寒見全清	kan	古寒	kan	간 안 환	건	간	간	kan ¹
割	見	祭	kat	山開一入曷見全清	kat	古達	kɔ	·강	거	할	갈 俗할	ky ¹
根	見	文	kən	臻開一平痕見全清	kən	古痕	kən	근	근	근	근	kən ¹
閣	見	魚	kak	宕開一入鐸見全清	kak	古落	kau	·각	갈	각	각	ky ²
剛	見	陽	kaŋ	宕開一平唐見全清	kaŋ	古郎	kaŋ	강	강	강	강	kan ¹
甘	見	談	kam	咸開一平談見全清	kam	古三	kam	감, 함	감	감	감	kan ¹
蓋 ⁺	見	祭/葉	kad/ kab	咸開一入盍見全清	kap	古盍	kai	·강 ·합	개, 가	개	갑 버, 합	ky ³
蓋	見			蟹開一去泰見全清	kai	古太	kai	·강 ·합	개, 가	개	갑 버, 합	kai ⁴
膏 ⁺	見	宵	kɔg	效開一去號見全清	kau	古到	kau	굴 ·굴	갈	고	고	kau ⁴
膏	見	宵	kɔg	效開一平豪見全清	kau	古勞	kau	굴 ·굴	갈	고	고	kau ¹
京	見	陽	kjāŋ	梗開三平庚見全清	kjəŋ	舉卿	kiəŋ	경	깅	경	경	tɕiŋ ¹
訐	見	祭	kjat	山開三入月見全清	kjet	居竭		·깅	겨	알	갈 俗알	tɕie ²
給	見	緝	kjəp	深開三入緝見全清	kjep	居立	ki	·깅	기	급	급	tɕi ³
今	見	侵	kjəm	深開三平侵見全清	kjem	居吟	kiəm	금	깅	금	금	tɕiŋ ¹
棘	見	之	kjək	曾開三入職見全清	kjək	紀力	ki	·깅 ·백	기	극	극	tɕi ²
机	見	脂	kjed	止開三平脂見全清	kjɛi	居夷	ki	:깅	계	궤	궤	tɕi ¹
机 ⁺	見	脂	kjed	止開三上旨見全清	kjɛi	居履	ki	:깅	계	궤	궤	tɕi ¹
巾	見	文	kjən	臻開三平真見全清	kjɛn	居銀	kiən	근	깅	건	근 俗건	tɕiŋ ¹
吃	見	微	kjət	臻開三入迄見全清	kjət	居乞		·깅	기	걸	갈 俗홀	tɕh ¹
檢	見	談	kjəm	咸開三上琰見全清	kjæm	居奄		:깅	깅	깅	깅	tɕian ³
訐 ⁺	見			蟹開三去祭見全清	kjæi	居例		·깅	겨	알	갈 俗알	tɕie ²
繳	見	宵	kiɔg	效開四上篠見全清	kiɛu	古了	kiau	·작 ·공	깅	작	고, 작 俗격	tɕiau ³
跣	見	元	kiæn	山開四上銑見全清	kiɛn	古典		:깅	깅	깅		tɕian ³
莢	見	葉	kiɛp	咸開四入帖見全清	kiɛp	古協	kiɛ	·깅	겨	협	깅 俗협	tɕia ²
古	見	魚	kag	遇合一上姥見全清	kuo	公戶	ku	:공	구	고	고	ku ³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公	見	東	kewŋ	通合一平東見全清	kuŋ	古紅	kuŋ	공	궁	궁	궁	kuŋ ¹
穀	見	侯	kūk	通合一入屋見全清	kuk	古祿		·곡 ·굴 ·놀	구	곡	곡, 누	ku ³
蝸 ⁺	見	歌	kua	假合二平麻見全清	kua	古華		괩 광 황	과 와	과	과 와	uo ¹
蝸	見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古蛙		괩 광 황	과 와	과	괩 와	uo ¹
句 ⁺	見	侯	kjug	遇合三去遇見全清	kjuo	九遇	kiu	·굴 ·궁 ·공	규	구	구	tɕy ⁴
閨	見	佳	kiueg	蟹合四平齊見全清	kiuei	古攜	kui	괩	귀	규	규	kuie ¹
珂	溪			果開一平歌溪次清	k ^h a	苦何	k ^h ɔ	강	커	가	가	k ^h ɥ ¹
口	溪	侯	k ^h ūg	流開一上厚溪次清	k ^h u	苦后	k ^h əu	·쿨	클	구	구	k ^h ou ³
渴	溪	祭	k ^h at	山開一入曷溪次清	k ^h at	苦曷	k ^h ɔ	·캉 ·깁 ·깁	커	갈	갈, 결	k ^h ɥ ³
看 ⁺	溪	元	k ^h an	山開一平寒溪次清	k ^h an	苦寒	k ^h an	칸 ·간	컨	간	간	k ^h an ¹
看	溪	元	k ^h an	山開一去翰溪次清	k ^h an	苦汗	k ^h an	칸 ·간	컨	간	간	k ^h an ⁴
齷	溪	文	k ^h ən	臻開一上很溪次清	k ^h ən	康很	k ^h ən	·큰 ·은 ·은	큰	근	근, 은	k ^h ən ³
齷 ⁺	溪			山開二上產溪次清	k ^h æn	起限	k ^h ən	·큰 ·은 ·은	큰	근	근, 은	tɕ ^h ian ³
柑	溪			咸開一平談溪次清	k ^h am	苦甘			감	감		kan ¹
榼	溪	葉	k ^h ap	咸開一入盍溪次清	k ^h ap	苦盍		·갑	카	합	갑 합	k ^h ɥ ¹
考	溪	幽	k ^h ōg	效開一上皓溪次清	k ^h au	苦浩	k ^h au	·쿨	칼	거	고	k ^h au ³
歉 ⁺	溪			咸開二上賺溪次清	k ^h em	苦減	k ^h iem	·감 ·검 ·검	검	·검	검, 감	tɕ ^h ian ⁴
歉	溪			咸開二平咸溪次清	k ^h em	口咸	k ^h iem	·감 ·검 ·검	검	·검	검, 감	tɕ ^h ian ⁴
歉 ⁺	溪	談	k ^h em	咸開二去陷溪次清	k ^h em	口陷	k ^h iem	·감 ·검 ·검	검	·검	검, 감	tɕ ^h ian ⁴
歉 ⁺	溪	談	k ^h iem	咸開四上忝溪次清	k ^h iem	苦簞	k ^h iem	·감 ·검 ·검	검	·검	검, 감	tɕ ^h ian ⁴
隙	溪	魚	k ^h jäk	梗開三入陌溪次清	k ^h jek	綺戟		·격	키	극	극	ci ⁴
泣	溪	緝	k ^h jəp	深開三入緝溪次清	k ^h jep	去急	k ^h i	·급	키	읍	급 읍	tɕ ^h i ⁴
乞	溪	微	k ^h jət	臻開三入迄溪次清	k ^h jət	去訖	ki	·클 ·퀵	키	걸	기, 글 걸	tɕ ^h i
篋	溪			咸開四入帖溪次清	k ^h iɛp	苦協	k ^h iɛ	·첩	켜	협	첩 협	tɕ ^h ie ⁴
溪	溪			蟹開四平齊溪次清	k ^h iei	苦奚	k ^h i	·경	계	계	계	ci ¹
脍	溪	魚	k ^h uäg	假合二去禡溪次清	k ^h ua	苦化	k ^h ua	·콩 ·광 ·황	과	과	고, 과	k ^h ua ⁴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胯 ⁺	溪			假合二平麻溪次清	k ^h ua	苦瓜	k ^h ua	·광 ·공, 광 ·광 ·광	과	과	고, 과	k ^h ua ¹
胯 ⁺	溪	魚	k ^h uag	遇合一去暮溪次清	k ^h uo	苦故	k ^h ua	·공, 광 ·광 ·광	과	과	고, 과	k ^h u ⁴
枯	溪	魚	k ^h ag	遇合一平模溪次清	k ^h uo	苦胡	k ^h u	공	쿠	고	고正 구	k ^h u ¹
哭	溪	侯	k ^h ük	通合一入屋溪次清	k ^h uk	空谷	k ^h u	·곡	쿠	곡	곡	k ^h u ¹
塊	溪	微	k ^h uäd	蟹合一去隊溪次清	k ^h uai	苦對	k ^h uai	·굉 ·굉	귀	괴	괴	k ^h uai ⁴
傾	溪	耕	k ^h juen	梗合三平清溪次清	k ^h juen	去營	k ^h iun	·굉 ·굉	굉俗 굉	경	경	tɕ ^h in ¹
咳				*蟹開一平哈見全清	kɔi	柯開		·갱	개, 깨	히	기俗 히	xai ²
鯨	羣	陽	g ^h jan	梗開三平庚羣全濁	g ^h ien	渠京	k ^h ien	경	깁	경	경	tɕin ¹
乾	羣	元	g ^h jan	山開三平仙羣全濁	g ^h jäen	渠焉	k ^h ien	견, 간	견	견	견, 간	tɕ ^h ian ²
傑	羣	祭	g ^h jat	山開三入薛羣全濁	g ^h jæ̃t	渠列	kiẽ	·겹	겨	걸	걸	tɕie ²
琴	羣	侵	g ^h jəm	深開三平侵羣全濁	g ^h jem	巨金	k ^h iam	끔	깁	금	금	tɕ ^h in ²
芹	羣	文	g ^h jən	臻開三平欣羣全濁	g ^h jən	巨斤	k ^h ien	끈	깁	근	근	tɕ ^h in ²
柑	羣			*咸開三平鹽群全濁	giæm	其淹	kam	감, 껌	깁	감	감, 껌	kan ¹
衢	羣	魚	g ^h juag	遇合三平虞羣全濁	g ^h juo	其俱	kiu	공	규	구		tɕ ^h y ²
葵	羣	脂	giwei	止合三平脂羣全濁	g ^h juei	渠追	k ^h ui	굉	귀	규	규	k ^h uei ²
我	疑	歌	ŋa	果開一上哿疑次濁	ŋa	五可	ŋɔ	·양 ·양	어	아	아	uo ³
岸	疑	元	ŋan	山開一去翰疑次濁	ŋan	五盱	an	·안	언	안	안	an ⁴
艾	疑	祭	ŋad	蟹開一去泰疑次濁	ŋai	五蓋	ai	·영 ·영	애	애	애 예	ai ⁴
熬	疑	宵	ŋɔg	效開一平豪疑次濁	ŋau	五勞		을	알	오	오	au ²
吾 ⁺	疑	魚	ŋäg	假開二平麻疑次濁	ŋa	五加	u	웅	우	오	오	ia ²
魚	疑	魚	ŋjag	遇開三平魚疑次濁	ŋjo	語居	iu	영	유	어	어	y ²
銀	疑	文	ŋjən	臻開三平真疑次濁	ŋjən	語巾	iən	은	인	은	은	in ²
仰	疑			宕開三去漾疑次濁	ŋjan	魚向	ŋjan	·양 ·양 ·양	양	양	양	ian ³
仰 ⁺	疑	陽	ŋjan	宕開三上養疑次濁	ŋjan	魚兩	ŋjan	·양 ·양 ·양	양	양	양	ian ³
艾 ⁺	疑	祭	ŋjäd	蟹開三去廢疑次濁	ŋjei	魚肺	ai	·영 ·영	애	애	애 예	i ⁴
外	疑	祭	ŋuad	蟹合一去泰疑次濁	ŋuai	五會	uai	·윙	왜	외	외	uai ⁴
瓦	疑	歌	ŋua	假合二上馬疑次濁	ŋua	五寡	ua	·윙 ·윙	와	와	와	ua ³
瓦 ⁺	疑			假合二去禡疑次濁	ŋua	五化	ua	·윙 ·윙	와	와	와	ua ⁴
役	以	佳	gjuæk	梗合三入昔以次濁	øjuæk	營隻	i	·윝	윝	역	역	i ⁴
丹	端	元	tan	山開一平寒端全清	tan	都寒	tan	단	단	단	단	tan ¹
檔	端			宕開一平唐端全清	taŋ	都郎	taŋ	당	당	당	당	taŋ 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膽	端	談	tam	咸開一上敢端全清	tam	都敢	tam	:담	담	담	담	tan ³
帶	端	祭	tad	蟹開一去泰端全清	tai	當蓋	tai	·댕	대	디	디	tai ⁴
刀	端	宵	tōg	效開一平豪端全清	tau	都牢	tau	·돌, 돌	달	도	도	tau ¹
打 ⁺	端			梗開二上梗端全清	teŋ	德冷	ta	:딩 :당 :당	다	타	딩, 타	ta ³
丁	端	耕	tien	梗開四平青端全清	tien	當經	tiən	딩, 덩	딩	딩	딩, 징	tin ¹
鈞	端			梗開四入錫端全清	tiek	都歷	ti	·덕	디	덕	덕	ti ²
打	端			梗開四上迥端全清	tien	都挺	ta	:딩 :당 :당	다	타	딩, 타	ta ³
典	端	文	tiən	山開四上銑端全清	tiən	多殄	tiən	:년 :면	년	년	년	tian ³
店	端			咸開四去禡端全清	tiəm	都念	tiəm	·념	념	념	념	tian ⁴
堤 ⁺	端			蟹開四平齊端全清	tiɛi	都奚	ti	·뎡 :뎡 :뎡	데	데	데	ti ¹
堤	端			蟹開四上薺端全清	tiɛi	都禮	ti	·뎡 :뎡 :뎡	데	데	데	ti ³
釣	端	宵	tiōg	效開四去嘯端全清	tiəu	多嘯	tiau	:똥	똥	·도	도	tiau ⁴
捶	端	歌	tjua	*果合一上果端全清	tua	都果	tʂhui	:똥 :똥	더	츼	타, 츼	tʂuei ²
都	端	魚	tag	遇合一平模端全清	tuo	當孤	tu	·똥	두	도	도	tu ¹
啄	端	侯	tūk	通合一入屋端全清	tuk	丁木		·똥 :똥	두	탁	착 俗탁	tʂuo ²
東	端	東	tūŋ	通合一平東端全清	tun	德紅	tun	·똥	둥	둥	둥	tun ¹
碓	端	微	tuâd	蟹合一去隊端全清	tuAi	都隊	tui	·똥	뒤	디	디	tuei ⁴
他	透			果開一平歌透次清	tʰa	託何	tʰuɔ	·똥 :똥	터	타	타	tʰa ¹
灘	透	元	tʰan	山開一平寒透次清	tʰan	他干	tʰan	·똥 :똥	탄	탄	탄	tʰan ¹
撻	透	祭	tʰat	山開一入曷透次清	tʰat	他達	ta	·똥	타	달	달	tʰa ⁴
湯	透			宕開一平唐透次清	tʰan	吐郎	tʰan	·똥 :똥 :똥 :똥	탕, 상	탕	탕, 상	tʰan ¹
湯 ⁺	透			宕開一去宕透次清	tʰan	他浪	tʰan	·똥 :똥 :똥 :똥	탕, 상	탕	탕, 상	tʰan ⁴
塔	透			咸開一入盍透次清	tʰap	吐盍	tʰa	·똥	타	탑	탑	tʰa ³
貪	透	侵	tʰəm	咸開一平覃透次清	tʰAm	他含	tʰam	·똥	탐	탐	탐	tʰan ¹
態	透	之	tʰōg	蟹開一去代透次清	tʰAi	他代	tʰai	·똥	태	티	티	tʰai ⁴
聽	透			梗開四去徑透次清	tʰien	他定	tʰien	·똥 :똥	팅	팅	팅	tʰin ¹
聽 ⁺	透			梗開四平青透次清	tʰien	他丁	tʰien	·똥 :똥	팅	팅	팅	tʰin ¹
天	透			山開四平先透次清	tʰien	他前	tʰien	·똥	턴	턴	턴	tʰian ¹
鐵	透			山開四入屑透次清	tʰiet	他結	tʰie	·똥	터	털	털	tʰie ³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帖	透			咸開四入帖透次清	tʰiɛp	他協	tʰiɛ	·텨	터	텨	텨	tʰie⁴
添	透			咸開四平添透次清	tʰiɛm	他兼	tʰiɛm	텨	텨	텨	텨	tʰian¹
體	透	脂	tʰied	蟹開四上薺透次清	tʰiei	他禮	tʰi	:텨	테	테	테	tʰi³
痛	透	東	tʰuŋ	通合一去送透次清	tʰuŋ	他貢	tʰuŋ	·통	통	통	통	tʰuŋ⁴
土	透	魚	tʰag	遇合一上姥透次清	tʰuo	他魯	tʰu	:통 :동 :똥	투	토	토, 두	tʰu³
禿	透	侯	tʰûk	通合一入屋透次清	tʰuk	他谷	tʰu	·톡	투	독		tʰu¹
退	透	微	tʰuêd	蟹合一去隊透次清	tʰuAi	他內	tʰui	·팅	튀	퇴	퇴	tʰuei⁴
陀	定			果開一平歌定全濁	dʰa	徒河	tʰuɔ	땅	떠	타	타	tʰuo²
頭	定	侯	dʰûg	流開一平侯定全濁	dʰu	度侯	tʰəu	똥	뜰	두	두	tʰou²
蓬	定			山開一入曷定全濁	dʰat	唐割			따	달	달	ta²
彈⁺	定	元	dʰan	山開一平寒定全濁	dʰan	徒干	tan	만 .만	만	탄	탄	tʰan²
彈	定	元	dʰan	山開一去翰定全濁	dʰan	徒案	tan	만 .만	만	탄	탄	tan⁴
度⁺	定	魚	dʰak	宕開一入鐸定全濁	dʰak	徒落	tu	·딱 .똥	딸	도	도 탁	tu²
堂	定	陽	dʰaŋ	宕開一平唐定全濁	dʰaŋ	徒郎	tʰaŋ	땅	땅	당	당	tʰaŋ²
談	定	談	dʰam	咸開一平談定全濁	dʰam	徒甘	tʰam	맘	맘	담	담	tʰam²
臺	定	之	dʰêg	蟹開一平咍定全濁	dʰAi	徒哀	tʰai	똥	매	디	디	tʰai²
陶	定	幽	dʰôg	效開一平豪定全濁	dʰau	徒刀	tʰau	똥 .똥 .똥	딸	도	도 요	tʰau²
狄	定	佳	dʰiek	梗開四入錫定全濁	dʰiek	徒歷	ti	·떡 .떡	띠	덕	덕	ti²
亭	定	耕	dʰiɛŋ	梗開四平青定全濁	dʰiɛŋ	特丁	tʰiɛŋ	똥	똥	딩	딩	tʰiŋ²
田	定	真	dʰien	山開四平先定全濁	dʰien	徒年	tʰien	똥 .똥	똥	똥	똥	tʰian²
跌	定	脂	dʰiet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et	徒結	tie	·똥	떠	딜	딜 俗 딜	tie¹
弟⁺	定	脂	dʰied	蟹開四去霽定全濁	ti⁴	特計	ti	:똥 .똥	떼	떼	떼	ti⁴, tʰi⁴
弟	定	脂	dʰied	蟹開四上薺定全濁	dʰiei	徒禮	ti	:똥 .똥	떼	떼	떼	ti⁴, tʰi⁴
跳	定			效開四平蕭定全濁	dʰieɯ	徒聊	tʰiau	똥 .똥 .똥	똥, 똥	도	묘	tʰiau⁴
條	定	幽	dʰiog	效開四平蕭定全濁	dʰieɯ	徒聊	tʰiau	·떡 .똥 .똥	똥, 똥	도		tʰiau²
童	定	東	dʰuŋ	通合一平東定全濁	dʰuŋ	徒紅	tʰuŋ	똥	똥	동	동	tʰuŋ²
度	定	魚	dʰag	遇合一去暮定全濁	dʰuo	徒故	tu	·딱 .똥	딸	도	도 탁	tu⁴
徒	定	魚	dʰag	遇合一平模定全濁	dʰuo	同都	tʰu	똥	투	도	도	tʰu²
埃	定			臻合一入沒定全濁	dʰuət	陀骨		·똥	투	돌	돌	tʰu¹
豚	定	文	dʰuən	臻合一平魂定全濁	dʰuən	徒渾	tʰuən	똥 :똥	똥	돈	돈	tʰuən²
讀	定	侯	dʰûk	通合一入屋定全濁	dʰuk	徒谷	tu	·똥 .똥	투	독	두 독	tu²
挪	泥			果開一平歌泥次濁	na	諾何	nuɔ		너	나	나	nuo²
攤	泥			山開一上緩泥次濁	nuan	奴但		·난 .탄	난, 탄	탄	난 탄	nan⁴
攤⁺	泥			山開一去翰泥次濁	nan	奴案		·난	난, 탄	탄	난	nan⁴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能 ⁺	泥	蒸	nêŋ	曾開一平登泥次濁	nəŋ	奴登	nəŋ	· 능. 흥 · 렁. 녕 · 녕	내	능	탄 니 타 능	nəŋ ²
能 ⁺	泥			曾開一上等泥次濁	nəŋ	奴等	nəŋ	· 능. 흥 · 렁. 녕 · 녕	내	능	니 타 능	nəŋ ²
囊	泥	陽	naŋ	宕開一平唐泥次濁	naŋ	奴當	naŋ	· 녕. 낭	낭	낭	낭	naŋ ²
能 ⁺	泥			蟹開一去代泥次濁	nAi	奴代	nai	· 능. 흥 · 렁. 녕 · 녕	내	능	니 타 능	nai ⁴
能	泥	之	nêg	蟹開一平哈泥次濁	nAi	奴來	nai	· 능. 흥 · 렁. 녕 · 녕	내	능	니 타 능	nai ²
腦	泥	宵	nôg	效開一上皓泥次濁	nau	奴皓	nau	· 놀	날	노	노	nau ³
腦 ⁺	泥			效開一去號泥次濁	nau	那到	nau	· 놀	날	노	노	nau ⁴
溺	泥	宵	niok	梗開四入錫泥次濁	niek	奴歷	niau	· 녍 · 놀 · 삭	니	닉	노 닉	ni ⁴
年	泥	真	nien	山開四平先泥次濁	niɛn	奴顛	niɛn	· 년	년	년	년	nian ²
捻	泥			咸開四入帖泥次濁	niep	奴協		· 녍	녀	녍	녍	nie ¹
拈	泥	談	niem	咸開四平添泥次濁	niɛm	奴兼	niɛm	· 념	념	점	념 · 염	nian ¹
尿	泥	宵	niog	效開四去嘯泥次濁	nieu	奴弔		· 놀	날	노	노	niau ⁴
暖	泥			山合一上緩泥次濁	nuan	乃管	nuoŋ	· 난 · 훤	닐	난		nuan ³
奴	泥	魚	nag	遇合一平模泥次濁	nuo	乃都	nu	· 농	누	노	노	nu ²
農	泥	中	nôŋ	通合一平冬泥次濁	nuoŋ	奴冬	nuŋ	· 농	농	농	농	nuŋ ²
內	泥	緇 微	nuêb/ nuêd	蟹合一去隊泥次濁	nuAi	奴對	nui		누	니	니 납	nei ⁴
尼	娘	脂	njed	止開三平脂娘次濁	njei	女夷	ni	· 닐 · 잉	네	니	니 닐	ni ²
女 ⁺	娘	魚	njag	遇開三去御娘次濁	ny ⁴	尼據	niu	· 녕 · 성	뉴	녀	녀	ny ³
女	娘	魚	njag	遇開三上語娘次濁	njo	尼呂	niu	· 녕 · 성	뉴	녀	녀	ny ³
樓	來	侯	lûg	流開一平侯來次濁	lu	落侯	ləu	· 룽	룽	루	루	lou ²
欄	來			山開一平寒來次濁	lan	落干	lan		란	란	란	lan ²
酪	來			宕開一入鐸來次濁	lak	盧各	lau	· 락	랄	락	락	lau ⁴
廊	來			宕開一平唐來次濁	laŋ	魯當	laŋ	· 랑	랑	랑	랑	laŋ ²
令 ⁺	來	耕	ljen	梗開三平清來次濁	ljen	呂貞	liəŋ	· 령 · 령	링	령	령	lin ²
令 ⁺	來	耕	ljen	梗開三去勁來次濁	ljen	力政	liəŋ	· 령 · 령	링	령	령	lin ⁴
柳	來	幽	liôg	流開三上有來次濁	lju	力久	liu	· 룽	릴	류	류	liou ³
剝	來	祭	ljæet	山開三入薛來次濁	ljæet	良辭		· 령	려	렬	렬	lie ⁴
令 ⁺	來	耕	ljen	山開三平仙來次濁	ljæen	力延	liəŋ	· 령 · 령	링	령	령	lian ²
蓮 ⁺	來			山開三上獮來次濁	ljæen	力展	liɛn	· 련	련	련	련	lian ³
旅	來	魚	ljag	遇開三上語來次濁	ljo	力舉	liu	· 령	류	려	려	ly ³
璃	來			止開三平支來次濁	lje	呂支	li	· 링	례	리	리	li ²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麟	來	真	ljen	臻開三平真來次濁	ljen	力珍	liən	린	린	린	린	lin ²
栗	來	脂	ljɛt	臻開三入質來次濁	ljɛt	力質	li	·림 ·령	리	를	를	li ⁴
梁	來	陽	ljan	宕開三平陽來次濁	ljan	呂張	lian	량	량	량	량	lian ²
僚 ⁺	來	宵	ljɔŋ	效開三上小來次濁	ljæu	力小	liau	:룡 룡 :룡	렬	료	료	liau ²
令 ⁺	來			梗開四去徑來次濁	lien	郎定	liən	령 ·령	링	령	령	lin ²
令	來	耕	lien	梗開四平青來次濁	lien	郎丁	liən	령 ·령	링	령	령	lin ²
曆	來			梗開四入錫來次濁	liek	郎擊	li	·력	리	력	력	li ⁴
蓮	來	元	liæn	山開四平先來次濁	liæn	落賢	liæn	련	련	련	련	lian ²
僚	來	宵	liɔŋ	效開四平蕭來次濁	lieu	落蕭	liau	:룡 룡 :룡	렬	료	료	liau ²
卵 ⁺	來			果合一上果來次濁	lua	郎果	luɔn	:란	린	란	란	luan ³
卵	來	元	luan	山合一上緩來次濁	luan	盧管	luɔn	:란	린	란	란	luan ³
路	來	魚	lag	遇合一去暮來次濁	luo	洛故	lu	:랄 룽	루	로	로	lu ⁴
雷	來	微	luəd	蟹合一平灰來次濁	luAi	魯回	lui	링 룽	뤼	뢰	뢰	lei ²
稜	來			臻合三入術來次濁	ljuet	呂郵			류	룰		ly ⁴
淪	來	文	ljuæn	臻合三平諄來次濁	ljuen	力迤	liuæn	룬	룬	룬	룬, 룬	luæn ²
陸	來	幽	ljok	通合三入屋來次濁	ljuk	力竹	liu	룩	루	룩	룩	lu ⁴
龍	來	東	ljuŋ	通合三平鍾來次濁	ljuoŋ	力鍾	liuŋ	룽, 망 :룡 :룡	룽(俗) 룽	룽	룽, 총 룽	luŋ ²
博	幫	魚	puak	宕開一入鐸幫全清	pak	補各	pau	·박	밭	박	박	po ²
芭	幫			假開二平麻幫全清	pa	伯加	pua	방	바	파	파	pa ¹
芭 ⁺				假開二上馬並全濁	b ^h a	傍下	pua	방	바	파	파	pa ¹
邦	幫	東	puŋ	江開二平江幫全清	pɔŋ	博江	puan	방	방	방	방	pan ¹
拜	幫	祭	puæd	蟹開二去怪幫全清	pei	博怪	pai	·뱅	배	비	비	pai ⁴
飽	幫	幽	pog	效開二上巧幫全清	pau	博巧	pau	:불	밭	포	포	pau ³
柄	幫	陽	pjuāŋ	梗開三去映幫全清	pjɛŋ	陂病	piɛŋ	·병 ·뎡	빙	병	병	pin ³
鼈	幫	祭	b ^h juæt	山開三入薛幫全清	pjæt	并列	pie	·뵤	벼	별	별	pie ¹
賓	幫	真	pjen	臻開三平真幫全清	pjen	必鄰	piən	빈	빈	빙	빈	pin ¹
筆	幫	微	pjuət	臻開三入質幫全清	pjɛt	鄙密	pui	·뵤 ·뵤	비	필	필	pi ³
表	幫	宵	pjɔŋ	效開三上小幫全清	pjæu	陂矯	piau	불, :불	별	표	표	piau ³
壁	幫	佳	piek	梗開四入錫幫全清	piek	北激	pi	·벽	비	벽	벽	pi ⁴
編	幫	元	piuæn	山開四平先幫全清	piæn	布玄		변	변	편	편	pian ¹
波	幫	歌	pua	果合一平戈幫全清	pua	博禾	puɔ	·빙 빙, 방	뷔	파	파	po ¹
布	幫	魚	puag	遇合一去暮幫全清	puo	博故	pu	·봉	부	포	포	pu ⁴
杯	幫			蟹合一平灰幫全清	puAi	布回	pui	빙	뷔	비	비	pei ¹
八	幫	脂	pet	山合二入黠幫全清	pæt	博拔	pua	·밭	바	팔	팔	pa ¹
板	幫	元	puan	山合二上潛幫全清	pan	布縮	puan	:반	반	판	판	pan ³
否	非	之	pjuǒŋ	流開三上有非全清	pju	方久	fəu	:불 :빙	불	부	비, 부	fou ³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父	非			遇合三上夔非全清	pjuo	方矩	fu	:뵘 :부 :뵘	부	부	부,보	fu ³
分	非	文	pjuən	臻合三平文非全清	pjuən	府文	fuən	·뵘 ·뵘 ·뵘 ·뵘	분,뵘	분	분	fən ¹
風 ⁺	非			通合三平東非全清	pjuŋ	方戎	fuŋ	·뵘 ·뵘 ·뵘	풍	풍	풍	fəŋ ¹ , fəŋ ³
風	非	侵	pjuəm	通合三平東非全清	pjuŋ	方戎	fuŋ	·뵘 ·뵘	풍	풍	풍	fəŋ ¹
法	非	葉	pjuāp	咸合三入乏非全清	pjuəp	方乏	fua	·뵘	박	법	법	fa ³
紡	敷	陽	p ^h juaŋ	宕開三上養敷次清	p ^h juaŋ	妃兩		:광	방	방	방	fan ³
膊	滂	魚	p ^h uak	宕開一入鐸滂次清	p ^h ak	匹各		·박 ·광	팔,밭	박	박	p ^h o ⁴
肺	滂	祭	p ^h juād	*蟹開一去空滂次清	p ^h ai	普蓋	fui	·광 ·광	귀	폐	폐, 폐	p ^h i ²
葩	滂	魚	p ^h uāg	假開二平麻滂次清	p ^h a	普巴	p ^h ua	광	파	파	파	p ^h a ¹
泡	滂	幽	p ^h og	效開二平肴滂次清	p ^h au	匹交	p ^h au	광	팔	포	포	p ^h au ¹ p ^h au ⁴
品	滂	侵	p ^h jəm	深開三上寢滂次清	p ^h jəm	丕飲	p ^h iən	:광	핀	품	품	p ^h in ³
匹	滂	脂	p ^h jet	臻開三入質滂次清	p ^h jet	譬吉	p ^h i	·광	피	필	필	p ^h i ³
鋪 ⁺	滂	魚	p ^h uag	遇合一去暮滂次清	p ^h uo	普故	p ^h u	광,광 ·광	푸	푸	포	p ^h u ⁴
坡	滂	歌	p ^h ua	果合一平戈滂次清	p ^h ua	滂禾	p ^h uɔ	광	꿔	파	파	p ^h o ¹
潘	滂	元	p ^h uan	山合一平桓滂次清	p ^h uan	普官	p ^h uɔn	광 광	뵘 뵘	번	반 번	p ^h an ¹
醅	滂			山合一入末滂次清	p ^h uat	普活		·광	꿔	밭	밭	p ^h o ¹
鋪	滂	魚	p ^h uag	遇合一平模滂次清	p ^h uo	普胡	p ^h u	광,광 ·광	푸	푸	포	p ^h u ¹
噴	滂	文	p ^h uən	臻合一去恩滂次清	p ^h uən	普悶	p ^h uən	폰 ·광	푼	분	분	p ^h ən ¹
噴 ⁺	滂	文	p ^h uən	臻合一平魂滂次清	p ^h uən	普魂	p ^h uən	폰 ·광	푼	분	분	p ^h ən ¹
醜	滂			通合一入屋滂次清	p ^h uk	普木		·광	푸	복	복	pu ²
派	滂	佳	p ^h eg	蟹合二去卦滂次清	p ^h æi	匹卦	p ^h ai	:광	패	패	패	p ^h ai ⁴
培 ⁺	並	之	b ^h uəg	流開一上厚並全濁	b ^h u	蒲口	p ^h ui	:광,광 ·광	뵘	비	비,부	p ^h ou ³
杯	並			流開一平侯並全濁	b ^h u	薄侯	p ^h əu	광	뵘	부	부	p ^h ou ²
房	並			宕開一平唐並全濁	b ^h aŋ	步光	p ^h uaŋ	광	광,광	방	방	p ^h aŋ ²
袍	並			效開一平豪並全濁	b ^h au	薄褒	p ^h au	광,광 ·광	광	포	포	p ^h au ²
琶	並			假開二平麻並全濁	b ^h a	蒲巴	p ^h ua	광	빠	파	파	p ^h a ²
瓣	並	元	b ^h uæn	山開二去禰並全濁	b ^h æn	蒲芎	puan	·광 ·광	뵘	판	판	pan ⁴
排	並			蟹開二平皆並全濁	b ^h ei	步皆	p ^h ai	광 ·광	뵘	비	비	p ^h ai ²
闢	並	佳	b ^h jek	梗開三入昔並全濁	b ^h jek	房益	p ^h i	·광	뵘	벽	벽	p ^h i ⁴
坪	並			梗開三平庚並全濁	b ^h jeŋ	符兵			광	평	평	p ^h iŋ ²
便	並	元	b ^h juæn	山開三去線並全濁	b ^h jæn	婢面	pien	뵘 ·광	뵘	편	편, 변	pian ⁴
便 ⁺	並	元	bjuæn	山開三平仙並全濁	b ^h jæn	房連	p ^h iæn	뵘 ·광	뵘	편	편, 변	p ^h ian ²
貧	並	文	b ^h juən	臻開三平真並全濁	b ^h jən	符巾	p ^h iən	뵘	뵘	빈	빈	p ^h in ²
佛 ⁺	並	微	b ^h juət	*臻開三入質並全濁	biet	薄苾	fu,fuɔ	·광 ·광	뵘	불	불,필	fu ² ,fo ²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沫	明	祭	muat	山合一入末明次濁	muat	莫撥	muo	·말	뉘	말	말	mo ⁴
門	明	文	muən	臻合一平魂明次濁	muən	莫奔	muən	문	문	문	문	mən ²
木	明	侯	mük	通合一入屋明次濁	muk	莫卜	mu	·목	무	목	목	mu ⁴
每	明	之	muəg	蟹合一去隊明次濁	muAi	莫佩			뉘	미	미	mei ³
蠻	明	元	muan	山合二平刪明次濁	man	莫還	muan	만	만	만	만	man ²
賣	明	佳	meg	蟹合二去卦明次濁	mæi	莫懈	mai	·맹 ·육	매	매	매	mai ⁴
夢 ¹	明	蒸	mjuəŋ	通合三去送明次濁	mjuŋ	莫鳳	muŋ	몽·몽	몽	몽	몽	məŋ ⁴
夢 ²	明	蒸	mjuəŋ	通合三平東明次濁	mjuŋ	莫中	muŋ	몽·몽	몽	몽	몽	məŋ ²
網	微			宕開三上養微次濁	mjuəŋ	文兩	vuəŋ	:망	망	망	망	uaŋ ³
武	微	魚	mjuag	遇合三上麤微次濁	mjuo	文甫	vu	:몽	부	무	무	u ³
問	微	文	mjuən	臻合三去問微次濁	mjuən	亡運	vuən	·문	분	문	문	uən ⁴
左 ⁺	精	歌	tsa	果開一去箇精全清	tsa	則箇	tsuo	:장 ·장	저	좌	자	tsuo ³
左 ⁺	精	歌	tsa	果開一上哿精全清	tsa	臧可	tsuo	:장 ·장	저	좌	자	tsuo ³
奏	精	侯	tsüg	流開一去候精全清	tsu	則候	tsəu	·줄·출	줄	주	주	tsou ⁴
葬	精	陽	tsaŋ	宕開一去宕精全清	tsaŋ	則浪	tsaŋ	·장	장	장	장	tsaŋ ⁴
簪 ⁺	精			*咸開一平覃精全清	tsəm	祖含	tšəm	즘·잠	잠	즘	즘	tsan ¹
簪 ⁺	精	侵	tsəm	咸開一平覃精全清	tsəm	作含	tšəm	즘·잠	잠	즘	즘	tsan ¹
啞 ⁺	精			咸開一入合精全清	tsAp	子荅	tsa		자	잡		tsa ¹
栽 ⁺	精			蟹開一平咍精全清	tsAi	祖才	tsai	징 ·정	재	지	지	tsai ¹
早	精	幽	tsög	效開一上皓精全清	tsau	子皓	tsau	:줄	잘	조	조	tsau ³
脊	精	佳	tsjek	梗開三入昔精全清	tsjek	資昔	tsi	·적	지	척	척	tci ³
井	精	耕	tsjer	梗開三上靜精全清	tsjer	子郢	tsiər	정	징	정	정	tciŋ ³
煎 ⁺	精	元	tsjæn	山開三平仙精全清	tsjæn	子仙	tsien	전 ·전 ·전	전	전	전	tciæn ¹
煎 ⁺	精	元	tsjæn	山開三去線精全清	tciæn ⁴	子賤	tsien	전 ·전 ·전	전	전	전	tciæn ¹
資	精	脂	tsjed	止開三平脂精全清	tsjei	即夷	tsi	증	즈	즈	즈	tsi ¹
津	精	真	tsjen	臻開三平真精全清	tsjen	將鄰	tsiən	진	진	진	진	tciən ¹
祭 ⁺	精	祭	tsæd	*蟹開三去祭精全清	tsiæi	子例	tsi	·쟁 ·쟁	제	제	제 체	tšai ⁴
祭 ⁺	精	祭	tsjæd	蟹開三去祭精全清	tsjæi	子例	tsi	·쟁 ·쟁	제	제	제 체	tci ⁴
焦	精	宵	tsjog	效開三平宵精全清	tsjæu	即消	tsiau	줄·줄	질	쵸	쵸	tciæu ¹
樵 ⁺	精	宵	dz ^h jog	*效開三平宵精全清	tsiæu	茲消	ts'iau	줄	질	쵸	쵸	tç ^h iau ²
鑽 ⁺	精			山合一平桓精全清		借官	tsuon	·완	원	찬	찬	tsuan ¹
鑽 ⁺	精	元	tsuan	山合一去換精全清	tsuan	子筭	tsuon	·완	원	찬	찬	tsuan ⁴
租	精	魚	tsag	遇合一平模精全清	tsuo	則吾	tsu	줄·중	주	조	조	tsu ¹
尊	精	文	tsuən	臻合一平魂精全清	tsuən	祖昆	tsuən	존	존	존	존	tsuən ¹
卒 ⁺	精	微	tsuət	臻合一入沒精全清	tsuət	臧沒	tsu	·중 ·출	주추	졸	졸 줄	tsu ²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중 ·중	츄			
宗	精			通合一平冬精全清	tsuŋ	作冬	tsuŋ	중	중	중	중	tsuŋ ¹
鍼 ⁺	精	侯	tsúk	通合一入屋精全清	tsuk	作木	ts'u	·족	추	족	족	tsu ²
疽 ⁺	精	魚	ts ^h jag	遇合三上語精全清	tsio	子與	tsiu	:정 청	쥬	저	저	tɕy ¹
醉	精	微	tsjuəd	止合三去至精全清	tsjuei	將遂	tsui	·정	쥬	:취	취	tsuei ⁴
卒 ⁺	精	微	tsjuət	臻合三入術精全清	tsjuet	子聿	tsu	·중 ·중 ·중 ·중	주 추 쥬	졸	졸 졸	tsu ²
啞 ⁺	精			通合三入屋精全清	tsjuk	子六	tsa		자	잡		ts ^h u ⁴
詐	莊	魚	tsäg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側駕	tʃa	·장	자	사	자 사	tʃa ⁴
債 ⁺	莊			梗開二入麥莊全清	tʃæk	側革	tʃai	·직 ·쟁	재	채	채	tʃai ⁴
盞	莊			山開二上產莊全清	tʃæn	阻限	tʃan	:잔	잔	잔	잔	tʃan ³
榛 ⁺	莊	真	tsen	臻開二平臻莊全清	tʃ(j)en	側訖	tʃən	즌, 쯤	즌, 쯤	진	진	tʃən ¹
債 ⁺	莊			蟹開二去卦莊全清	tʃæi	側賣	tʃai	·직 ·쟁	재	채	채	tʃai ⁴
爪	莊	宵	tsɔg	效開二上巧莊全清	tʃau	側絞	tʃau	:졸	잘			tʃau ³
鍼	莊			流開三去宥莊全清	tʃju	側救	tʃəu	·졸	즐	추	추	tʃəu ⁴
簪	莊			深開三平侵莊全清	tʃjem	側吟	tsam	짐, 잠	ㅈ	짐	짐	tsam ¹
輶	莊	之	tsəg	止開三平之莊全清	tʃi	側持			즈	칙	칙	tsɿ ¹
戰	章	元	tʃjæn	山開三去線章全清	tʃjæn	之膳	tʃjien	·전	전	전	전	tʃan ⁴
烝 ⁺	章	蒸	tʃjən	曾開三平蒸章全清	tʃjən	煮仍	tʃjien	징 ·징	징	증	증	tʃən ¹
烝 ⁺	章			曾開三去證章全清	tʃjən	諸應	tʃjien	징 ·징	징	증	증	tʃən ¹
職	章	之	tʃjək	曾開三入職章全清	tʃjək	之翼		·직	지	직	직	tʃɿ ²
枝 ⁺	章	佳	tʃjeg	止開三平支章全清	tʃje	章移	tʃi	깁, 징	지	지		tʃɿ ¹
檟	章			臻開三入質章全清	tʃjet	之日		·질	지	질	질	tʃɿ ⁴
占 ⁺	章			咸開三去豔章全清	tʃjæm	章豔	tʃjɛm	점 ·점	점	점	점	tʃan ⁴
占 ⁺	章	談	tʃjəm	咸開三平鹽章全清	tʃjæm	職廉	tʃjɛm	점 ·점	점	점	점	tʃan ¹
主	章	侯	tʃjug	遇合三上夔章全清	tʃjuo	之庾	tʃju	:중 ·중	쥬	쥬	쥬	tʃu ³
錐	章	微	tʃjuəd	止合三平脂章全清	tʃjuei	職追	tʃui	정	쥬	쥬	쥬	tʃuei ¹
珍	知	真	tʃjen	臻開三平真知全清	tʃjen	陟鄰	tʃjien	딘	ㅈ	딘	진	tʃən ¹
朝 ⁺	知	宵	tʃjɔg	效開三平宵知全清	tʃjəu	陟遙	tʃjiau	뜰, 풀	질	도	쥬	tʃau ¹
媯	知			假合二平麻知全清	tʃua	陟瓜		당	좌	좌	좌 과	tʃua ¹
柱 ⁺	知	侯	tʃjug	遇合三上夔知全清	tʃjuo	知庾	tʃju	:등 ·등 ·등	쥬	뎡	쥬	tʃu ³
中 ⁺	知	中	tʃjɔŋ	通合三去送知全清		陟仲	tʃjiun	뎡 ·뎡 ·뎡	ㅈ 俗 중	뎡	중	tʃun ⁴
中 ⁺	知	中	tʃjɔŋ	通合三平東知全清	tʃjun	陟弓	tʃjiun	뎡 ·뎡 ·뎡	ㅈ 俗 중	뎡	중	tʃun ¹
忠	知			通合三平東知全清	tʃjun	陟弓	tʃjiun	뎡	ㅈ	뎡	중	tʃun 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搓	清			果開一平歌清次清	ts ^h a	七何	ts ^h uo	창	처	차	차	ts ^h uo ¹
錯 ⁺	清	魚	ts ^h ak	宕開一入鐸清次清	ts ^h ak	倉各	ts ^h u	·작 ·총	추	작	조, 작	ts ^h u ⁴
錯 ⁺	清	魚	ts ^h ak	宕開一入鐸清次清	ts ^h ak	倉各	ts ^h u	·작 ·총	찰	작	조, 작	ts ^h u ⁴
倉	清	陽	ts ^h aŋ	宕開一平唐清次清	ts ^h aŋ	七岡	ts ^h aŋ	창 ·장	창	창	창	ts ^h aŋ ¹
菜	清	之	ts ^h əŋ	蟹開一去代清次清	ts ^h ai	倉代	ts ^h ai	·**	채	치	치	ts ^h ai ⁴
草	清	幽	s ^h ōg	效開一上皓清次清	ts ^h au	采老	ts ^h au	:출	찰	초	초	ts ^h au ³
腩	清			流開一去候清次清	ts ^h u	倉奏		·출	츄	주	주	ts ^h ou ⁴
寢	清	侵	ts ^h jəm	深開三上寢清次清	ts ^h jəm	七稔	ts ^h iəm	침 :침	침	침	침	tɕ ^h in ³
緝	清	緝	ts ^h jəp	深開三入緝清次清	ts ^h jəp	七入		·집	치	즙	즙	tɕi ¹
疽 ⁺	清	魚	ts ^h jag	遇開三平魚清次清	ts ^h jə	七余	tsiu	:정 청	쥬	저	저	tɕy ¹
雌	清	佳	ts ^h jeg	止開三平支清次清	ts ^h jə	此移	tsi	충	츠	즈	즈	ts ^h u ²
七	清	脂	ts ^h jet	臻開三入質清次清	ts ^h jet	親吉	ts ^h i	·침	치	칠	칠	tɕ ^h i ¹
親 ⁺	清			臻開三去震清次清	ts ^h jən	七遴	ts ^h iən	친 ·친	친	친	친	tɕ ^h in ⁴
親 ⁺	清	真	ts ^h jən	臻開三平真清次清	ts ^h jən	七人	ts ^h iən	친 ·친	친	친	친	tɕ ^h in ¹
籤	清	談	ts ^h jəm	咸開三平鹽清次清	ts ^h jəm	七廉	ts ^h iəm	침	침	침	침	tɕ ^h ian ¹
千	清	真	ts ^h iən	山開四平先清次清	ts ^h iən	蒼先	ts ^h iɛn	천	천	천	천	tɕ ^h ian ¹
妻 ⁺	清			蟹開四去霽清次清	tɕ ^h i ⁴	七計	ts ^h i	청 ·청	체	처	처	tɕ ^h i ¹
妻 ⁺	清	脂	ts ^h iɛd	蟹開四平齊清次清	ts ^h iɛi	七稽	ts ^h i	청 ·청	체	처	처	tɕ ^h i ¹
錯 ⁺	清	魚	ts ^h ag	遇合一去暮清次清	ts ^h uo	倉故	ts ^h u	·작 ·총	추	작	조, 작	ts ^h u ⁴
錯 ⁺	清	魚	ts ^h ag	遇合一去暮清次清	ts ^h uo	倉故	ts ^h u	·작 ·총	찰	작	조, 작	ts ^h u ⁴
卒 ⁺	清	微	ts ^h uət	臻合一入沒清次清	ts ^h uət	倉沒	tsu	·죽 ·총 ·죽 ·총 ·죽 ·총	주 주 추 추	졸	졸, 줄	ts ^h u ⁴
寸	清	文	ts ^h uən	臻合一去恩清次清	ts ^h uən	倉困	ts ^h uən	·춘	춘	춘	춘	ts ^h uən ⁴
緘 ⁺	清			通合一入屋清次清	ts ^h uk	千木	ts ^h u	·죽	추	죽	죽	tsu ²
葱	清	東	ts ^h uŋ	通合一平東清次清	ts ^h uŋ	倉紅	ts ^h uŋ		충	충		ts ^h uŋ ¹
娶 ⁺	清	侯	ts ^h juŋ	遇合三去遇清次清	ts ^h juo	七句	ts ^h iu	·츄	츄	취	츄	tɕ ^h y ³
翠	清	微	ts ^h juəd	止合三去至清次清	ts ^h juɛi	七醉	ts ^h ui	칭	취	취	취	ts ^h uei ⁴
又 ⁺	初	歌	ts ^h a	假開二平麻初次清	tʃ ^h a	初牙	ts ^h a	창	채	차	채, 차	ts ^h a ¹
杈 ⁺	初	歌	ts ^h a	假開二平麻初次清	tʃ ^h a	初牙		창	차	차	차	ts ^h a ¹
杈 ⁺	初			蟹開二去卦初次清	tʃ ^h æi	楚懈		창	차	차	차	ts ^h a ¹
又 ⁺	初			蟹開二平佳初次清	tʃ ^h æi	楚佳	ts ^h a	창	채	차	채, 차	ts ^h ai ¹
礎	初			遇開三上語初次清	tʃ ^h jə	創舉	ts ^h u	:총	추	초	초	ts ^h u ³
輜 ⁺	初			止開三平之初次清	tʃ ^h i	楚持			츠	칙	칙	ts ^h i ¹
櫬	初	真	ts ^h en	臻開三去震初次清	tʃ ^h jən	初覲		·춘	춘	친	춘	ts ^h ən ⁴
葛	初			*遇合三平虞初次清	tʃ ^h io	窓俞			츄	추		tsu ²
尺	昌			梗開三入昔昌次清	tɕ ^h jɛk	昌石	ts ^h i	·척	치	척	척	ts ^h i ³
處 ⁺	昌	魚	ts ^h jag	遇開三去御昌次清	ts ^h u ⁴	昌據	ts ^h iu	:청 ·청	츄	처	처	ts ^h u ³
處 ⁺	昌	魚	ts ^h jag	遇開三上語昌次清	tɕ ^h jə	昌與	ts ^h iu	:청	츄	처	처	ts ^h u ³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정				
齒	昌	之	tʰjæg	止開三上止昌次清	tɕʰi	昌里	tɕʰi	:칭	치 今俗 츰	치	치	tɕʰi³
眇	昌			效開三上小昌次清	tɕʰjæu	尺沼		:츰	츰	츰	츰	tɕʰau³
吹 ⁺	昌	歌	tʰjua	止合三平支昌次清	tɕʰjue	昌垂	tɕʰui	칭 ·칭	취	츰	*	tɕʰuei¹
吹 ⁺	昌	歌	tʰjua	止合三去寘昌次清	tɕʰjue	尺偽	tɕʰui	칭 ·칭	취	츰	*	tɕʰuei⁴
冲	昌	東	tʰjun	通合三平鍾昌次清	tɕʰjuŋ	尺容	tɕʰiuŋ	똥	츰	츰	츰	tɕʰuŋ¹
穉	徹	耕	tʰjen	梗開三平清徹次清	tʰjɛŋ	丑貞	tɕʰiɛŋ	팅	칭	뎡	정	tɕʰɛŋ¹
昨	從	魚	dzʰak	宕開一入鐸從全濁	dzʰak	在各		·짜	짜	작	작	tsuo²
才	從	之	dzʰəg	蟹開一平咍從全濁	dzʰai	昨哉	tsʰai	정	제	지	지	tsʰai²
栽 ⁺	從	之	dzʰəg	蟹開一去代從全濁	dzʰai	昨代	tsai	징 ·정	제	지	지	tsai⁴
曹	從	幽	dzʰōg	效開一平豪從全濁	dzʰau	昨勞	tsʰau	쥌	짜	조	조	tsʰau
情	從	耕	dzʰjen	梗開三平清從全濁	dzʰjɛŋ	疾盈	tɕʰiɛŋ	정	징	정	정	tɕʰiŋ²
齏	從			深開三平侵從全濁	dzʰjem	昨淫	siəm	쌈, 썸	쌈	심	심	ɕin²
集	從	緝	dzʰjəp	深開三入緝從全濁	dzʰjep	秦入	tsi	·집	찌	·집	집	tɕi²
自	從	脂	dzʰjed	止開三去至從全濁	dzʰjei	疾二	tsi	·중	쯔	즈	즈	tsi⁴
臻	從			臻開三平真從全濁	dzʰjen	匠鄰		진	진	진	진	tɕʰin²
疾	從	脂	dzʰjet	臻開三入質從全濁	dzʰjet	秦悉	tsi	·짙	찌	질	질	tɕi²
潛 ⁺	從			咸開三去豔從全濁	dzʰjæm	慈豔	tsʰiɛm	짚	짚	즘	침 正 즘	tɕʰian²
齏	從			咸開三平鹽從全濁	dzʰjæm	昨鹽	siəm	쌈, 썸	쌈	심	심	tɕʰin²
潛 ⁺	從	侵	dzʰjəm	咸開三平鹽從全濁	dzʰjæm	昨鹽	tsʰiɛm	짚	짚	즘	침 正 즘	tɕʰian²
樵	從	宵	dzʰjɔg	效開三平宵從全濁	dzʰjæu	昨焦	siəm	쥌	짙	츰	츰	tɕʰiau²
前	從	元	dzʰiæn	山開四平先從全濁	dzʰiɛŋ	昨先	tsʰiɛŋ	:전 ·전	전	전	전	tɕʰian²
臍	從	脂	dzʰied	蟹開四平齊從全濁	dzʰiei	徂奚	tsʰi	쟁	제	제	제	tɕʰi³
坐 ⁺	從	歌	dzʰua	果合一上果從全濁	dzʰua	徂果	tsuo	:짙 ·짙	쥐	좌	좌	tsuo⁴
坐 ⁺	從	歌	dzʰua	果合一去過從全濁	dzʰua	徂臥	tsuo	:짙 ·짙	쥐	좌	좌	tsuo⁴
蹲	從	文	dzʰuən	臻合一平魂從全濁	dzʰuən	徂尊	tsʰuən	쥌, 쥌 ·쥌	쥌 ·쥌	쥌	쥌	tuən¹
叢	從	東	dzʰūŋ	通合一平東從全濁	dzʰuŋ	徂紅	tsʰuŋ	중	중	중		tsʰuŋ²
族	從	侯	dzʰûk	通合一入屋從全濁	dzʰuk	昨木	tsu	·쪽 ·츰	쥌	족	족 주	tsu²
罪	從	微	dzʰuəd	蟹合一上賄從全濁	dzʰuAi	徂賄	tsui		쥌	죄	죄	tsuei⁴
寨 ⁺	崇			蟹開二去夬崇全濁	dʒʰai	豺夬	tɕʰai	·숙	제	채	치	tɕʰai⁴
巢 ⁺	崇			效開二去效崇全濁	dʒʰau	七稍	tɕʰau	:중 ·쥌	짜	소	쥌 正 소	tɕʰau⁴
巢 ⁺	崇	宵	dzʰɔg	效開二平肴崇全濁	dʒʰau	鉏交	tɕʰau	:츰 ·쥌	짜	소	쥌 正 소	tɕʰau²
鋤	崇			遇開三平魚崇全濁	dʒʰjo	士魚	tɕʰu	중	쥌	서	조 俗 서	tɕʰu²
榛 ⁺	崇			*臻開三平臻崇全濁	dʒien	鋤臻	tɕən	즌 ·즌	즌 ·즌	진	진	tɕən¹
饌 ⁺	崇			山合二上清崇全濁	dʒʰua n	雛駘	tɕuan	:쥌 ·쥌 ·쥌	쥌 今俗 쥌	찬	찬 천	tɕuan⁴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饌 ⁺	崇			山合三去線崇全濁	dʒ ^h juæ _n	七戀	tʃuan	:찬 ·찬 :선	찬 今俗 찬	찬	찬 천	tʃuan ⁴
茶	澄	魚	d ^h äg	假開二平麻澄全濁	d ^h a	宅加	tʃ ^h a	땅	짜	다	차 俗 다	tʃ ^h a ²
塵	澄	元	d ^h jæŋ	山開三平仙澄全濁	d ^h jæŋ	直連	tʃ ^h iɛŋ	뎌	쨌	뎌	전	tʃ ^h an ²
直	澄	之	d ^h jək	曾開三入職澄全濁	d ^h jək	除力	tʃi	·직 ·직 ·직	×	직	직 치	tʃi ²
稚	澄			止開三去至澄全濁	d ^h jei	直利	tʃi	·뎌	×	티	치	tʃi ⁴
姪 ⁺	澄	脂	d ^h jet	臻開三入質澄全濁	d ^h jet	直一	tʃi	·뎌 ·뎌 ·뎌	×	딜	질 멀	tʃi ²
朝 ⁺	澄	宵	d ^h jɔŋ	效開三平宵澄全濁	d ^h jæu	直遙	tʃiau	·뎌 ·뎌 ·뎌	쨌	묘	쨌	tʃ ^h au ²
柱 ⁺	澄	侯	d ^h jug	遇合三上麴澄全濁	d ^h juo	直主	tʃiu	·뎌 ·뎌 ·뎌	쨌	뎌	쨌	tʃu ⁴
鍾 ⁺	澄	歌	d ^h jua	止合三平支澄全濁	d ^h jue	直垂		·뎌 ·뎌 ·뎌 ·뎌 ·뎌 ·뎌	쨌	뎌	쨌	tʃ ^h uei ²
鍾 ⁺	澄	歌	d ^h jua	止合三去寘澄全濁	d ^h jue	馳偽		·뎌 ·뎌 ·뎌 ·뎌 ·뎌 ·뎌	쨌	뎌	쨌	tʃ ^h uei ²
蟲 ⁺	澄			通合三去送澄全濁	d ^h jun	直眾	tʃ ^h iun	·뎌 ·뎌 ·뎌 ·뎌	중 俗 중	뎌	쨌	tʃun ⁴
蟲 ⁺	澄	中	d ^h jon	通合三平東澄全濁	d ^h jun	直弓	tʃ ^h iun	·뎌 ·뎌 ·뎌	중 俗 중	뎌	쨌	tʃ ^h un ²
逐	澄			通合三入屋澄全濁	d ^h juk	直六	tʃiu	·뎌 ·뎌	쨌 俗 중	뎌	쨌, 뎌	tʃu ²
叟	心	幽	sōg	流開一上厚心全清	su	蘇后	səu	술 :술	술	수	수	su ³
傘	心			山開一上早心全清	san	蘇早	san	:산	산	산	산	san ³
珊	心	元	san	山開一平寒心全清	san	蘇干	san	산	산 산	산	산	ʃan ¹
寨 ⁺	心			曾開一入德心全清	sək	蘇則	tʃai	·속	재	채	치	sv ⁴
塞 ⁺	心	之	sək	曾開一入德心全清	sək	蘇則	si	·속 ·싱	세	시	시 식	sai ¹
索	心	魚	sak	宕開一入鐸心全清	sak	蘇各	sau	·식 ·삭	살	삭	삭 식	suo ³
桑	心	陽	san	宕開一平唐心全清	san	息郎	san	상	상	상	상	san ¹
穆	心	侵	səm	咸開一上感心全清	sAm	桑感	sam	:삼	삼	참	삼	san ³
塞 ⁺	心	之	sək	蟹開一去代心全清	sAi	先代	sai	·속 ·싱	세	시	시 식	sai ⁴
搔	心	幽	sōg	效開一平豪心全清	sau	蘇遭	sau	술	살	소	소	sau ¹
昔	心	魚	sjək	梗開三入昔心全清	sjek	思積	si	·석 ·착	시	석	착 석	ci ¹
司	心	之	sjөг	止開三平之心全清	si	息茲	si	·승 ·승	스	사	스	sn ¹
蟋 ⁺	心			臻開三入質心全清	sjet	息七		·실	시	실	실	ci ¹
辛	心	真	sjen	臻開三平真心全清	sjen	息鄰	siən	신	신	신	신	cin ¹
宵	心	宵	sjөг	效開三平宵心全清	sjæu	相邀	siau	·술 ·술	설	쇼	쇼	ciau ¹
星	心	耕	sien	梗開四平青心全清	sien	桑經	siən	성	싱	성	성	cin ¹
洗 ⁺	心	文	siən	山開四上銑心全清	siɛn	蘇典	si	:선 :생	선	세	세 선	cian ³
西	心	脂	sied	蟹開四平齊心全清	siei	先稽	si	선, 생	세	셔	셔	ci 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洗 ⁺	心			蟹開四上薺心全清	sici	先禮	ɕien	:선 :생	선	세	세 선	ɕi ³
酸	心	元	suan	山合一平桓心全清	suan	素官	suon	환	원	산	산	suan ¹
素	心	魚	sag	遇合一去暮心全清	suo	桑故	su	·송	수	소	소	su ⁴
孫	心	文	suən	臻合一平魂心全清	suən	思渾	suən	손 ·손	순	손	손	suən ¹
鬚	心			遇合三平虞心全清	sjuo	相俞	siu		슈	슈	슈	ɕy ¹
髓	心	歌	sjua	止合三上紙心全清	sjue	息委	sui	:형	쉬	슈	슈	suei ³
沙 ⁺	生			假開二去禡生全清	ʃa	所嫁	ʃa	상 상	사	사	사	ʃa ¹
沙 ⁺	生	歌	ʃeai	假開二平麻生全清	ʃa	所加	ʃa	상 상	사	사	사	ʃa ¹
索 ⁺	生			梗開二入麥生全清	ʃæk	山責	ʃai	·식 ·삭	살	삭	삭 식	suo ³
索 ⁺	生	魚	säk	梗開二入陌生全清	ʃek	山戟	sau	·식 ·삭	살	삭	삭 식	suo ³
殺 ⁺	生	祭	sæ̃t	山開二入黠生全清	ʃæ̃t	所八	ʃa	·살 ·설 ·싱 ·생 ·성	사	살	시 쇄 살	ʃa ¹
瑟	生	脂	set	臻開二入櫛生全清	ʃ(j)et	所櫛	ʃi	·승	스	슬	슬	ɕy ⁴
衫	生			咸開二平衡生全清	ʃam	所銜	ʃam	삼	삼	삼	삼	ʃan ¹
殺 ⁺	生	祭	sæ̃d	蟹開二去怪生全清	ʃei	所拜	ʃa	·살 ·설 ·싱 ·생 ·성	사	살	시 쇄 살	ʃai ⁴
筭	生	宵	sɔ̃g	效開二平肴生全清	ʃau	所交	ʃau	술	살	쇼	쇼	ʃau ¹
搜	生	幽	sog	流開三平尤生全清	ʃju	所鳩	ʃəu	:술 술	슬	수	수	sou ¹
所	生	魚	sag	遇開三上語生全清	ʃjo	踈舉	ʃu	:송	수	쇼	소	suo ³
師	生	脂	sed	止開三平脂生全清	ʃjei	踈夷	ʃi	승	시	스	스	ʃi ¹
筭 ⁺	生	佳	seg	止開三上紙生全清	ʃje	所綺		·승 ·생	새	식	스	ʃai ¹
筭 ⁺	生			止開三平支生全清	ʃje	所宜		·승 ·생	새	식	스	ʃai ¹
扇 ⁺	書			山開三平仙書全清	ɕjæn	式連	ɕien	선 선	선	선	선	ɕan ⁴
扇 ⁺	書	元	ɕjæn	山開三去線書全清	ɕjæn	式戰	ɕien	선 선	선	선	선	ɕan ⁴
暑	書	魚	ɕjag	遇開三上語書全清	ɕjo	舒呂	ɕiu	:성	슈	셔	셔	ɕu ³
式	書	之	ɕjək	曾開三入職書全清	ɕjək	賞職		·식 ·싱	시	식	식	ɕt ⁴
升	書	蒸	ɕjəŋ	曾開三平蒸書全清	ɕjəŋ	識蒸	ɕjəŋ	싱	싱	승	승	ɕəŋ ¹
室	書	脂	ɕjet	臻開三入質書全清	ɕjet	式質	ɕi	·싱	시	실	실	ɕt ⁴
身	書	真	ɕjen	臻開三平真書全清	ɕjen	失人	ɕjən	신	신	신	신	ɕən ¹
攝 ⁺	書	葉	ɕjɛp	咸開三入葉書全清	ɕjɛp	書涉	ɕjɛ	·삽 ·념 ·섭	셔	섭	섭 념	ɕy ⁴
燒 ⁺	書	宵	ɕjɔ̃g	效開三去笑書全清	ɕjəu	失照	ɕjiau		설	쇼	쇼	ɕau ⁴
燒 ⁺	書	宵	ɕjɔ̃g	效開三平宵書全清	ɕjəu	式招	ɕjiau		설	쇼	쇼	ɕau ¹
水	書	脂	ɕjued	止合三上旨書全清	ɕjuei	式軌	ɕui	:형	쉬	슈	슈	suei ³
春	書	東	ɕjuŋ	通合三平鍾書全清	ɕjuŋ	書容	tɕ ^h iun	송	송 俗	송	송 俗	tɕ ^h un 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송 속 충		용	
錫	邪			梗開三平清邪全濁	zjeŋ	徐盈		썩.팡	썩	성	성.당	cin ²
席	邪	魚	zjäk	梗開三入昔邪全濁	zjek	祥易	si	·씩	씨	석	석	ci ²
涎 ⁺	邪	元	zjäen	山開三平仙邪全濁	zjäen	夕連	siɛn	썩	션	연	선 연	ɕian ²
騫 ⁺	邪			深開三平侵邪全濁	zjem	徐林	siəm	썩.뽕	썩	심	심	cin ²
習	邪	緝	zjɛp	深開三入緝邪全濁	zjep	似入	si	·씩	씨	습	습	ci ²
序	邪			遇開三上語邪全濁	zjo	徐呂	siu	:썩	썩	셔	셔	cy ⁴
詞	邪	之	zjɛg	止開三平之邪全濁	zi	似茲	si	썩	쓰	스	스	tsʰɿ ²
寺	邪	之	zjɛg	止開三去志邪全濁	zi	祥吏	si	·썩 썩	스		스 시	sn ⁴
燼	邪			臻開三去震邪全濁	zjen	徐刃	siən	·썩	썩	신	신	tɕin ⁴
燼	邪	微	zjuəd	止合三去至邪全濁	zjuei	徐醉	sui	·썩	썩	슈	슈	suei ⁴
松	邪			通合三平鍾邪全濁	zjuoŋ	祥容	siuŋ	썩	송	송	송	sun ¹
城	禪	耕	zjeŋ	梗開三平清禪全濁	zjeŋ	是征	tsʰiɛŋ	썩	츠	성	성	tsʰɛŋ ²
盛 ⁺	禪	耕	zjeŋ	梗開三平清禪全濁	zjeŋ	是征	tsʰiɛŋ	썩 썩	썩	성	성	tsʰɛŋ ²
盛 ⁺	禪	耕	zjeŋ	梗開三去勁禪全濁	zjeŋ	承正	ɕiɛŋ	썩 썩	썩	성	성	ɕɛŋ ⁴
石	禪			梗開三入昔禪全濁	zjek	常隻	ɕi	·씩	씨	석	석	ɕi ² , tan ⁴
善	禪	元	zjäen	山開三上彌禪全濁	zjäen	常演	ɕiɛn	:썩 썩	션	션		ɕan ⁴
時	禪	之	zjɛg	止開三平之禪全濁	zi	市之	ɕi	썩	씨	시	시	ɕi ²
臣	禪	真	jjen	臻開三平真禪全濁	zjen	植鄰	tsʰiɛn	썩	썩	신	신	tsʰɛn ²
辰	禪	文	zjɛn	臻開三平真禪全濁	zjen	植鄰	tsʰiɛn	썩	썩 썩	신	신	tsʰɛn ²
瞻	禪			咸開三去豔禪全濁	zjäem	視佳	ɕiem	·썩	썩 썩		섬	ɕan ⁴
樹 ⁺	禪	侯	zjug	遇合三去遇禪全濁	zjuo	常句	ɕiu	:썩 썩	썩	슈	슈	ɕu ⁴
樹 ⁺	禪	侯	zjug	遇合三上夔禪全濁	zjuo	臣庾	ɕiu	:썩 썩	썩	슈	슈	ɕu ⁴
誰	禪	微	zjuəd	止合三平脂禪全濁	zjuei	視佳	ɕui	썩	썩	슈	슈	ɕuei ²
熟	禪			通合三入屋禪全濁	zjuk	殊六	ɕiu	·썩	썩	숙	숙	ɕu ²
耳	日	之	njɛg	止開三上止日次濁	nɿ	而止	rɿ	싱 :싱	시	시	이	ɕ ³
日	日	脂	njet	臻開三入質日次濁	njet	人質	ri	(·)씹	시	실	일	zɿ ⁴
人	日	真	njen	臻開三平真日次濁	njen	如鄰	riɛn	신	신	신	인	zɛn ²
弱	日	宵	njɔk	宕開三入藥日次濁	njak	而灼	riɔ	·삭	살	약	약	zuo ⁴
攘	日	陽	njan	宕開三去漾日次濁	njan	人攘		상 :상 닝	상	상	양. 녕	zan ⁴
攘 ⁺	日			宕開三上養日次濁	njan	如兩		상 :상 닝	상	상	양. 녕	zan ³
攘 ⁺	日	陽	njan	宕開三平陽日次濁	njan	汝陽		상 :상 닝	상	상	양. 녕	zan ³
燒	日			效開三平宵日次濁	njæu	如招		술 :술 불	설	쇼	요. 뇨	zau ²
乳	日	侯	njug	遇合三上夔日次濁	njuo	而主	riu	:슌	슈	슈	유	zu ³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聞	日			臻合三去稊日次濁	n ₂ juen	如順	riuən	·슌 ·순	순	순	눈	zuən ⁴
戎	日	中	n ₂ jon	通合三平東日次濁	n ₂ jun	如融	riuŋ	싱·슌 슌·씽 슌·씽	슌(俗) 슌	슌	융	zuŋ ²
褥	日			通合三入燭日次濁	n ₂ juok	而蜀	riu	·속	수	속	욕	zu ⁴
肉	日	幽	n ₂ jok	通合三入屋日次濁	n ₂ juk	如六	riəu	·육 ·슌 ·슌	실	속	육, 유	zou ⁴
鷗	影	侯	ʔüŋ	流開一平侯影全清	ʔu	烏侯	əu	·홀	홀	구	구	ou ¹
案	影	元	ʔan	山開一去翰影全清	ʔan	烏旰	an	·안	헌	안	안	an ⁴
盎	影	陽	ʔaŋ	宕開一上蕩影全清	ʔaŋ	烏朗	aŋ	·랑 ·양	랑	양	양	aŋ ⁴
惡	影	魚	ʔak	宕開一入鐸影全清	ʔak	烏各	ɔ	·학 ·각 ·학	합(俗) 합(俗)	악	오, 악	ɾ ⁴
鶯	影			宕開一平唐影全清	ʔaŋ	烏郎	iaŋ	·양	양	양	양	iaŋ ¹
盎 ⁺	影	陽	ʔaŋ	宕開一去宕影全清	ʔaŋ	烏浪	aŋ	·양 ·양	랑	양	양	aŋ ⁴
惡 ⁺	影	魚	ʔak	宕開一入鐸影全清	ʔak	烏各	ɔ	·학 ·각 ·학	후	악	오, 악	ɾ ⁴
愛	影	微	ʔəd	蟹開一去代影全清	ʔai	烏代	ai	·형	해	이	이	ai ⁴
煥 ⁺	影	幽	ʔög	效開一上皓影全清	ʔau	烏皓		·후 ·후 ·후	후	후	오, 후	y ⁴
煥 ⁺	影	幽	ʔög	效開一去號影全清	ʔau	烏到		·후 ·후 ·후	후	후	오, 후	y ⁴
夭 ⁺	影	宵	ʔög	效開一上皓影全清	ʔau	烏皓	iau	·후 ·후 ·후	렬	요	요, 오	tsou ³
隘	影	佳	ʔeg	蟹開二去卦影全清	ʔæi	烏懈	iai	·형	해	익	이	ai ⁴
膺	影	蒸	ʔjəŋ	曾開三平蒸影全清	ʔjəŋ	於陵	iəŋ	·형	형	응	응	iŋ ¹
億	影	之	ʔjək	曾開三入職影全清	ʔjək	於力		·혁 ·혁	이	역	역	i ⁴
衣	影	微	ʔjəd	止開三平微影全清	ʔjəi	於希	i	·혁 ·혁	이	의	의	i ¹
衣 ⁺	影	微	ʔjəd	止開三去未影全清	i ⁴	於既	i	·혁 ·혁	이	의	의	i ¹
壹	影	脂	ʔjet	臻開三入質影全清	ʔjet	於悉		·형	이	일	일	i ¹
烟	影	真	ʔjen	臻開三平真影全清	ʔjen	於真		·형 ·형	현	연	연	iŋ ¹
鳶	影	陽	ʔjaŋ	宕開三平陽影全清	ʔjaŋ	於良	iaŋ	·형	향	양	양	iaŋ ¹
印	影	真	ʔjen	臻開三去震影全清	ʔjen	於刃	iən	·형	힌	인	인	iŋ ⁴
夭	影	宵	ʔjög	效開三上小影全清	ʔjæu	於兆	iau	·후 ·후 ·후	렬	요	요, 오	iau ¹
烟	影			山開四平先影全清	ʔien	烏前		·형 ·형	현	연	연	ian ¹
琬	影			山合一平桓影全清	ʔuan	一丸	uɔŋ	·환	훤	완	완	uan ¹
幹	影	祭	ʔuat	山合一入末影全清	ʔuat	烏括		·관 ·관	훤(俗) 훤(俗)	알	알, 관 간	uo ⁴
惡	影	魚	ʔag	遇合一平模影全清	ʔuo	哀都	u	·학 ·학	후	악	오, 악	u ¹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항				
惡 ⁺	影	魚	?ag	遇合一去暮影全清	?uo	烏路	u	·약 ·약	합속 俗령	약	오, 약	u ⁴
縕	影	文	?uən	臻合一平魂影全清	?uən	烏渾		·훈 ·훈 ·훈	훈,훈	:은	은	uən ¹
縕 ⁺	影	文	?uən	臻合一平魂影全清	?uən	烏渾		·훈 ·훈 ·훈	훈,훈	:은	은	uən ¹
屋	影	侯	?uk	通合一入屋影全清	?uk	烏谷	u	·약	후	옥	옥	u ¹
翁	影	東	?uŋ	通合一平東影全清	?uŋ	烏紅	uŋ	·홍 ·홍	홍		웅	uŋ ¹
嫗 ⁺	影			遇合三上嘆影全清 [*]	?io	委羽	iu	:·홍 ·홍	유	구	우, 구	y ⁴
嫗	影	侯	?jug	遇合三去遇影全清	?juo	衣遇	iu	:·홍 ·홍	유	구	우, 구	y ⁴
威	影	微	?juəd	止合三平微影全清	?juəi	於非	ui	·웨 ·웨	휘	위	위	uei ¹
縕	影	文	?juən	臻合三平文影全清	?juən	於云		·훈 ·훈 ·훈	훈,훈	:은	은	yn ⁴
搵	影	文	?juən	臻合三上吻影全清	?juən	於粉	uən		후	은		uən ⁴
壘	影			通合三平鍾影全清	?juoŋ	於容	uŋ	:·홍 ·홍 ·홍	홍,웅		웅	yun ¹
燠	影	幽	?jok	通合三入屋影全清	?juk	於六		·약 ·약 ·약	휴	옥	오, 옥	y ⁴
淵	影	真	?iuen	山合四平先影全清	?iuən	烏玄	iuən	·원	원	연	연	yan ¹
黑	曉	之	ɱuək	曾開一入德曉次清	xək	呼北	xei	·흑	희	흑	흑	xei ¹
海	曉	之	xəg/ xuəg	蟹開一上海曉次清	xAi	呼改	xai	:·hing	해	히	히	xai ³
好	曉	幽	xōg	效開一上皓曉次清	xau	呼皓	xau	:·홍 ·홍	할	·호	호	xau ³
好 ⁺	曉	幽	xōg	效開一去號曉次清	xau	呼到	xau	:·홍 ·홍	할	·호	호	xau ⁴
軒	曉	元	xjān	山開三平元曉次清	xjən	虛言	xiən	·현 ·현	현	현	현	ɕyan ¹
昕	曉	文	xjən	臻開三平欣曉次清	xjən	許斤	xiən	·흔	힌	흔	흔	ɕin ¹
香	曉	陽	xjaŋ	宕開三平陽曉次清	xjaŋ	許良	xiaŋ	·향 ·향	향	향	향	ɕiaŋ ¹
曉	曉	宵	xiəg	效開四上篠曉次清	xiəu	響鼻	xiau	:·hing	협	효	효	ɕiau ³
滅 ⁺	曉			山合一入末曉次清	xuat	呼括		·환 ·환 ·환	휘	예	외, 회, 예, 활	xuo ⁴
虎	曉	魚	xag	遇合一上姥曉次清	xuo	呼古	xu	:·hong	후	호	호	xu ³
昏	曉	文	ɱuən	臻合一平魂曉次清	xuən	呼昆	xuən	·훈	훈	훈	훈	xuən ¹
笏	曉			臻合一入沒曉次清	xuət	呼骨	xu	·홍	후	홀	홀	xu ⁴
烘 ⁺	曉			通合一去送曉次清	xuŋ	呼貢	xuŋ	·홍, ·홍, ·홍	홍	홍	홍	xuŋ ¹
烘 ⁺	曉	東	xūŋ	通合一平東曉次清	xuŋ	呼東	xuŋ	·홍, ·홍, ·홍	홍	홍	홍	xuŋ ¹
賄	曉	之	xuəg	蟹合一上賄曉次清	xuAi	呼罪	xui	:·hing	휘	회	회	xuei ⁴
滅	曉	祭	xuad	蟹合一去泰曉次清	xuai	呼會		·환 ·환	휘	예	외, 회,	xuei ⁴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평			예, 활	
化	曉	歌	xua	假合二去禡曉次清	xua	呼霸	xua	·황	화	화	화	xua ⁴
兄	曉			梗合三平庚曉次清	xjuɛŋ	許榮	xiuəŋ	·황 황	흥	형	형, 황	ɕyɯŋ ¹
訓	曉			臻合三去問曉次清	xjuən	許運	xiuən	·훈	훈	훈	훈	ɕyn ⁴
旭	曉			通合三入燭曉次清	xjuok	許玉		·혹	휴	욱	욱	ɕy ⁴
滅 ⁺	曉	祭	ʔjuəd	蟹合三去廢影全清	ʔjuei	於廢		·활 ·황 ·평	휘	예	외, 正 회, 예, 활	uei ⁴
魂	匣	文	ɣuən	臻合一平魂匣全濁	ɣuən	戶昆	xuən	훈 꺠	꺠	훈	훈	xuən ²
鶴 ⁺	匣	微	ɣuət	山合二入黠匣全濁	ɣuət	戶八	xu	훈	후	골	홀, 골	ku ²
鶴 ⁺	匣	微	kuət	臻合一入沒匣全濁	ɣuət	戶骨	xu	훈	후	골	홀, 골	xu ²
汗	匣	元	ɣan	山開一去翰匣全濁	ɣan	侯汗	xan	한 ·한	현	한	한	xan ⁴
慧	匣	祭	ɣiuəd	蟹合四去霽匣全濁	ɣiuɛi	胡桂	xui	·평	혜	혜	혜	xuei ⁴
骸	匣	之	ɣəg	蟹開二平皆匣全濁	ɣɛi	戶皆	xiai	평	해	히	히	xai ²
湖	匣	魚	ɣag	遇合一平模匣全濁	ɣuo	戶吳	xu	훈	후	호	호	xu ²
汗 ⁺	匣	元	ɣan	山開一平寒匣全濁	ɣan	胡安	xan	한 ·한	현	한	한	xan ²
玄	匣	真	ɣiuən	山合四平先匣全濁	ɣiuən	胡涓	xiuən	훤 ·훤	훤	현	현	ɕyan ²
孩	匣	之	ɣəg	蟹開一平咍匣全濁	ɣAi	戶來	xai	형	해	히	히	xai ²
號	匣	號	ɣōg	效開一平豪匣全濁	ɣau	胡刀	xau	훙 ·훙	훙	호	호	xau ²
紅	匣	東	ɣūŋ	通合一平東匣全濁	ɣuŋ	戶公	xuŋ	훈 ·공 ·강	훈, 공	홍	홍, 공	xuŋ ²
烘	匣	東	ɣūŋ	通合一平東匣全濁	ɣuŋ	戶公	xuŋ	훈, 훈 ·훈	훈	홍	홍	xuŋ ¹
蹊	匣			蟹開四平齊匣全濁	ɣiei	胡雞	xi	평 ·평	혜	계	혜	ɕi ¹
下	匣	魚	ɣǎg	假開二上馬匣全濁	ɣa	胡雅	xia	·훈, 강, ·향 ·향	하	하	하	ɕia ⁴
芄	匣	元	ɣuan	山合一平桓匣全濁	ɣuan	胡官		환	환	환	환	uan ²
括	匣			山合一入木匣全濁	ɣuat	戶括		·훙 ·관 ·관	획	괄	활, 괄	k ^h uo ⁴
華 ⁺	匣	魚	ɣuǎg	假合二平麻匣全濁	ɣua	戶花	xua	평 ·향 ·관 ·광 ·풍	화	화	화	xua ²
華 ⁺	匣	魚	ɣuǎg	假合二去禡匣全濁	ɣua	胡化	xua	평 ·향 ·관 ·광 ·풍	화	화	화	xua ⁴
賢	匣	真	ɣien	山開四平先匣全濁	ɣien	胡田	xiən	현	현	현	현	ɕian ²
行	匣	陽	ɣaŋ	宕開一平唐匣全濁	ɣaŋ	胡郎	xan	평, 향 ·향 ·평 ·향 ·향	향	형	향, 형	xan ²
行 ⁺	匣	陽	ɣǎŋ	梗開二平庚匣全濁	ɣɛŋ	戶庚	xiəŋ	평, 향 ·향 ·평 ·향 ·향	향	형	향, 형	ɕin ²
鶴	匣	宵	ɣōk2	宕開一入鐸匣全濁	ɣak	下各	xɔ	·학	학	학	학	xɣ ⁴
巷	匣	東	ɣuŋ	江開二去絳匣全濁	ɣoŋ	胡絳	xian	·향	향	향	향	ɕian ⁴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學	匣	幽	ɾok	江開二入覺匣全濁	ɾok	胡覺	xiɔ	·학 ·학	학	학	학	ɕye ²
穴	匣	脂	ɾiuet	山合四入屑匣全濁	ɾiuet	胡決	xiɛ	·혈 ·혈	혈	혈	혈	ɕye ²
形	匣	耕	ɾien	梗開四平青匣全濁	ɾien	戶經	xiəŋ	·형	형	형	형	ɕin ²
橫 ⁺	匣	陽	ɾuāŋ	梗合二平庚匣全濁	ɾuen	戶盲	xuŋ	·형, 廣 ·형, 廣 ·형, 廣	·형, 俗 ·형, 俗	형	형	xəŋ ²
橫 ⁺	匣			梗合二去映匣全濁	ɾuen	戶孟	xuŋ	·형, 廣 ·형, 廣 ·형, 廣	·형, 俗 ·형, 俗	형	형	xəŋ ⁴
號 ⁺	匣	宵	ɾɔŋ	效開一去號匣全濁	xau ⁴	胡到	xau	·학, 號	학	호	호	xau ²
后	匣	侯	ɾuŋ	流開一上厚匣全濁	ɾu	胡口	xəu	·후 ·후	후	후	후	xou ⁴
后 ⁺	匣	侯	ɾuŋ	流開一去候匣全濁	ɾu	胡邁	xəu	·후 ·후	후	후	후	xou ⁴
熊	云	蒸	ɾjuəŋ	通合三平東云次濁	ɾjuŋ	羽弓	xiuŋ	·웅	웅	웅	웅	ɕyʊŋ ²
華	曉	魚	xuāŋ	假合二平麻曉次清	xua	呼瓜	xua	·형, 廣 ·형, 廣 ·형, 廣	화	화	화	xua ¹
灰	曉	之	xuəŋ	蟹合一平灰曉次清	xuAi	呼恢	xui	·형	회	회	회	xuei ¹
孝	曉			效開二去效曉次清	xau	呼教	xau	·효	효	효	효	ɕiau ⁴
橫	見			宕合一平唐見全清	kuaŋ	古黃	xuəŋ	·형, 廣 ·형, 廣 ·형, 廣	·형, 俗 ·형, 俗	형	형	kuaŋ ¹
鶴	見	微	kuət	臻合一入沒見全清	kuət	古忽	xu	·후	후	골	홀, 골	ku ²
爺	以			假開三平麻以次濁	øja	以遮	iɛ	·양	여	야	야	ie ²
羸	以			梗開三平清以次濁	øjeŋ	以成	iəŋ	·영	잉	영	영	in ²
筵	以	元	djæŋ	山開三平仙以次濁	øjæŋ	以然	iɛŋ	·연	연	연	연	ian ²
夷	以	脂	djed	止開三平脂以次濁	øjei	以脂	i	·잉	이	이	이	i ²
引	以	真	djen	臻開三上軫以次濁	øjen	余忍	iəŋ	·인 ·인	인	인	인	in ³
溢	以			臻開三入質以次濁	øjet	夷質	i	·잉	이	일	일	i ⁴
緇	以	脂	gjuet	臻合三入術以次濁	øjuet	餘律		·음	유	홀	을	y ⁴
雲	以	文	ɾjuəŋ	臻合三平文云次濁	ɾjuəŋ	王分	iuəŋ	·운	운	운	운	yn ²
引 ⁺	以	真	djen	臻開三去震以次濁	øjen	羊晉	iəŋ	·인 ·인	인	인	인	in ³
陽	以	陽	djaŋ	宕開三平陽以次濁	øjaŋ	與章	iaŋ	·양	양	양	양	ian ²
藥	以			宕開三入藥以次濁	øjak	以灼	iau	·약 ·약	약	약	약	iau ⁴
容	以	東	gjuŋ	通合三平鍾以次濁	øjuŋ	餘封	iuŋ	·용 ·용	용	용	용	zur ²
曜	以			效開三去笑以次濁	øjæu	弋照	iau	·을	열	요	요	iau ⁴
原	疑	元	ŋjuāŋ	山合三平元疑次濁	ŋjuen	愚袁	iuɛŋ	·원 ·원	원	원	원	yan ²
涯	疑			止開三平支疑次濁	ŋjɛ	魚羈	ia	·영, 廣 ·영, 廣	·애, 俗 ·애, 俗	애	의, 애 아	ia ²
鐸	疑			宕開一入鐸疑次濁	ŋak	五各		·약	약	약	약	ɾ ⁴
涯 ⁺	疑			蟹開二平佳疑次濁	ŋjɛi	五佳	ia	·영, 廣 ·영, 廣	·애, 俗 ·애, 俗	애	의, 애 아	ia ²
兒	疑			蟹開四平齊疑次濁	ŋjei	五稽	i	·영, 廣 ·영, 廣	예	으	으, 예	ni ²
友	云	之	ɾjuəŋ	流開三上有云次濁	ɾju	云久	iəu	·을	일	우	우	iou ³

字例	聲母	上古音		中古音		反切	中原音韻	東國正韻	四聲通解	訓蒙字會	全韻玉篇	普通話
		韻部	董同龢	廣韻	董同龢							
位	云	緝微	ɽjuəb/ ɽjuəd	止合三去至云次濁	ɽjei	于愧	ui	·잉 ·링	위	위	위	uei ⁴

3. 漢語 中古音과 『東國正韻』·『四聲通解』·『全韻玉篇』 대조표

표1) 第1韻類 < 궁(楮) : 궁(肯) · 궁(亘) · 극(亟)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ㄹ	會	曾開一平登精全清	tsəŋ	作滕	증	징/징			증正증	tsəŋ ¹
	檜	曾開一平登精全清	tsəŋ	作滕	증	징			징正증	tsəŋ ¹
	駮	曾開三平蒸船全濁	dzʰjəŋ	食陵	쑤	징			증正승	tsʰjəŋ ²
	鄒	曾開三平蒸從全濁	dzʰjəŋ	疾陵	쑤	징			증正증	tsəŋ ¹
	嶂	曾開三平蒸從全濁	dzʰjəŋ	疾陵	쑤	징			증正증	tsʰjəŋ ²
	蠅	曾開三平蒸以次濁	øjəŋ	余陵	응	잉			응俗승	in ²
	賊	曾開一入德從全濁	dzʰək	昨則	·쑤	찌			즉正적	tsei ²
北	曾開一入德幫全清	pək	博墨	·북	비			패正비	pei ³	
ㄹ	陸	曾開三平蒸船全濁	dzʰjəŋ	食陵	씩	ㄷ			증正승	tsʰjəŋ ²
ㄹ	經	梗開二平耕溪次清	kʰjəŋ	丘耕	킹	킹(攄)			킹正경	kʰjəŋ ¹
	攄	梗開二平耕溪次清	kʰjəŋ	口莖	·킹	킹			킹正경	kʰjəŋ ¹
	楨	梗開二平庚澄全濁	dʰjəŋ	直庚	뎡	징			징俗정	tsʰjəŋ ²
	攄	梗開二平庚徹次清	tʰjəŋ	丑庚	뎡	징/뎡			징俗팅	tsʰjəŋ ¹
	盟	梗開二平耕匣全濁	mjəŋ	莫更	명	밍			명正밍	məŋ ²
	盟	梗開三平庚明次濁	mjəŋ	武兵	명	밍			명正밍	məŋ ²
	棚	梗開二平庚並全濁	bʰjəŋ	薄庚	뎡	뎡			뎡正부	pʰjəŋ ²
	棚	梗開二平耕並全濁	bʰjəŋ	薄萌	뎡	뎡			뎡正부	pʰjəŋ ²
	槍	梗開二平庚崇全濁	dʒʰjəŋ	助庚	징	칭(槍)			징正**	tsʰjəŋ ¹
	*撐	梗開二平庚知全清	tʰjəŋ	丑庚	뎡	칭			징俗팅	tsʰjəŋ ¹
	攄	梗開二平庚徹次清	tʰjəŋ	丑庚	뎡	칭			징俗팅	tsʰjəŋ ¹
	莖	梗開二平耕匣全濁	ɽjəŋ	戶耕	헝	헝			헝俗경	tɕin ¹
	莖	梗開二平耕匣全濁	ɽjəŋ	烏莖	헝	헝			헝俗경	tɕin ¹
	宅	梗開二入陌澄全濁	dʰjək	場伯	·뎡	찌		쟁	칙俗탁	tsʰai ²
	澤	梗開二入陌澄全濁	dʰjək	場伯	·뎡	찌			칙俗탁	tsɽ ²
擇	梗開二入陌澄全濁	dʰjək	場伯	·뎡	찌			칙俗탁	tsɽ ²	
斥	梗開二入陌徹次清	tʰjək	丑格	·탁	찌			칙俗탁	tsʰɽ ⁴	
拆	*梗開三入昔咎次清	tʰjək	昌石	·탁	탈			칙俗탁	tsʰa ¹	

표2) 第2韻類 < 굉(航) : 굉(礦) · 횡(橫) · 궤(號)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ㄹ	嶸	梗合三平庚云次濁	ɽjuen	永兵	횡	횡			횡正영	zɽ ²
	隍	梗合二平庚匣全濁	ɽuen	戶盲	횡	횡			횡俗굉	xuan ²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紘	梗合二平耕匣全濁	ɣuæŋ	戶萌	響	響			響俗굉	xuŋ ²
	宏	梗合二平耕匣全濁	ɣuæŋ	戶萌	響	響			響俗굉	xuŋ ²
	翊	梗合二平耕匣全濁	ɣuæŋ	戶萌	響	響			響俗굉	xuŋ ²
	閔	梗合二平耕匣全濁	ɣuæŋ	戶萌	響	響			響俗굉	xuŋ ²
	泓	梗合二平耕影全清	ʔuæŋ	烏宏	響	響			響俗홍	xuŋ ²
	鎬	梗合二平耕曉次清	xuæŋ	呼宏	響	響			響俗굉	xuŋ ¹
	轟	梗合二平耕曉次清	xuæŋ	呼宏	響	響			響俗굉	xuŋ ¹
	*軋	曾合一平登溪次清		苦弘	響	響(紘)/ 굉(宏)			響俗굉	xuŋ ²
꺄	蠲	梗合二入麥見全清	kuæk	古獲	·꺄	꺄			꺄正꺄	kuo ¹
	擱	梗合二入麥見全清	kuæk	古獲	·꺄	꺄			꺄正꺄	kuo ²
	輓	梗合二入麥見全清	kuæk	古獲	·꺄	꺄			꺄正꺄	kuo ²

표3) 第3韻類 < 𦉳(肱) * · 꺄(國)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표4) 第4韻類 < 𦉳(公) : 𦉳(拱) · 𦉳(貢) · 꺄(穀)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꺄	꺄	穀	通合一入屋見全清	kuk	古祿	·꺄	꺄			꺄	ku ³
		鬻	通合一入屋定全濁	d ^h uk	徒谷	·꺄	꺄			꺄正꺄	tu ²
		斛	通合一入屋匣全濁	ɣuk	胡谷	·꺄	꺄			꺄俗꺄	xu ²
		榘	通合一入屋匣全濁	ɣuk	胡谷	·꺄	꺄			꺄俗꺄	xu ²
		酷	通合一入沃溪次清	k ^h uok	苦沃	·꺄	꺄			꺄俗꺄	k ^h u ⁴
꺄	꺄	縱	通合三平鍾精全清	tsjuoŋ	即容	꺄	꺄			꺄正꺄	ts ^h uŋ ¹
		聳	通合三上腫心全清	sjuoŋ	息拱	:꺄	꺄			꺄俗꺄	suŋ ³
		椿	通合三平鍾書全清	ɕjuoŋ	書容	꺄	꺄			꺄俗꺄	ts ^h uŋ ¹
		悤	通合三平鍾書全清	ɕjuoŋ	書容	꺄	꺄/꺄			꺄俗꺄	ts ^h uŋ ¹
		懂	通合三平鍾昌次清	tɕ ^h juoŋ	尺容	꺄	꺄			꺄俗꺄	ts ^h uŋ ¹
		春	通合三平鍾書全清	ɕjuoŋ	書容	꺄	꺄	꺄	꺄	꺄俗꺄	ts ^h uŋ ¹
		鯖	通合三平鍾書全清	ɕjuoŋ	書容	꺄	꺄(春)			꺄俗꺄	ts ^h uŋ ¹
꺄	꺄	蜀	通合三入燭禪全濁	zjuok	市玉	·꺄	꺄	꺄		꺄正꺄	ʂu ³
		蠲	通合三入燭章全清	tɕjuok	之欲	·꺄	꺄			꺄正꺄	ts ^h u ²

표5) 第5韻類 < 𦉳(江) : 𦉳(講) · 𦉳(絳) · 꺄(覺)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꺄	꺄	港	江開二上講見全清	kɔŋ	古項	:꺄	꺄			꺄俗꺄	kaŋ ³
		航	宕開一平唐匣全濁	ɣaŋ	胡郎	:꺄	꺄			꺄俗꺄	xaŋ ²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ㄱ	抗	宕開一平唐匣全濁	ɣaŋ	胡郎	·강	강			강俗항	kʰaŋ⁴	
	炕	宕開一上蕩溪次清	kʰaŋ	苦朗	·강	강			강俗항	kʰaŋ⁴	
	伉	宕開一去宕溪次清	kʰaŋ	苦浪	·강	강			강俗항	kʰaŋ⁴	
	閱	宕開一去宕溪次清	kʰaŋ	苦浪	·강	강			강俗항	kʰaŋ⁴	
	琯	江開二平江溪次清	kʰɔŋ	苦江	강	궁/홍			강俗상	tɕʰyʊŋ₁	
	亢	宕開一平唐見全清	kaŋ	古郎	강	강/강			강俗항	kaŋ¹	
	*厯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莫江	망	망			망正방	maŋ²	
	噎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莫江	망	망			망正방	maŋ²	
	朧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莫江	망	망			망正방	maŋ²	
	雙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所江	상	상			장正상	ɕuaŋ¹	
	艘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所江	상	상(雙)			상正쌍	ɕuaŋ¹	
	艘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所江	상	상			상正쌍	suŋ³	
	牀	宕開三平陽崇全濁	dʒʰjaŋ	士莊	쌍	장			장正상	tɕʰuaŋ₂	
	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ʰjaŋ	士莊	쌍	장	창		장正상	tɕʰuaŋ₂	
ㄴ	鏜	宕開一平唐透次清	tʰaŋ	吐郎	탕	당			탕正당	tʰaŋ¹	
	舡	江開二平江曉次清	xɔŋ	許江	항	항			항俗강	ɕiaŋ¹	
	踔	江開二入覺徹次清	tʰɔk	丑教	·탁	찰(趙)			착俗탁	tɕʰuo₁	
	鯁	江開二入覺並全濁	bʰjuk	弼角	·박	빨			박俗복	fu⁴	
	連	江開二入覺徹次清	tʰɔk	勅角	·탁	찰			착俗탁	tɕʰuo₄	
	確	江開二入覺溪次清	kʰɔk	苦角	·각	갈			각俗확	tɕʰye⁴	
	瘡	宕開三入藥疑次濁	njak	魚約	·약	얇			약正학	nye⁴	
	虐	宕開三入藥疑次濁	njak	魚約	·약	얇			약正학	nye⁴	
	矐	宕開一入鐸曉次清	xak	呵各	·학	할			학正획	xuo⁴	
	ㅇ	驥	宕開三平陽心全清	sjaŋ	息良	상	상			상俗양	ɕiaŋ¹
		饌	宕開三平陽書全清	ɕjaŋ	式羊	상	상			상俗향	ɕiaŋ³
		襄	宕開三平陽心全清	sjaŋ	息良	상	상			상俗양	ɕiaŋ¹
		彰	宕開三平陽章全清	tɕjaŋ	諸良	장	장			장正창	tɕaŋ¹
		纒	宕開三平陽心全清	sjaŋ	息良	상	상			상俗양	ɕiaŋ¹
餉		宕開三去漾書全清	ɕjaŋ	式亮	·상	상			상俗향	ɕiaŋ³	
ㅈ	繳	宕開三入藥章全清	tɕjak	之若	·작	잡			작俗격	tɕuo²	
	ㄷ	幢	江開二平江澄全濁	dʰɔŋ	宅江	뺙	장			장俗당	tɕʰuaŋ₂
		撞	江開二平江澄全濁	dʰɔŋ	宅江	뺙	장/창			장俗당	tɕuaŋ₁
	ㅊ	攫	宕合三入藥見全清	kjuak	居縛	·곽	갈			곽俗확	tɕye²
		*矐	宕合三入藥見全清	kjuak	居縛	·곽	갈			곽俗확	tɕye²
		*擴	宕合一入鐸曉次清	ɣuaŋ	乎曠	·곽	괄			곽俗확	tʰaŋ³
擿		宕合三入藥見全清	kjuak	居縛	·곽	갈			곽俗확	tɕye²	
ㅊ	擿	江開二入覺娘次濁	nɔk	女角	·낙	날			낙正낙	nuo⁴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ㄷ	琢	江開二入覺知全清	tɔk	竹角	·닥	찰			착俗탁	tɕuo ²
	啄	江開二入覺知全清	tuk	丁木	·닥	찰			착俗탁	tɕuo ²
	卓	江開二入覺知全清	tɔk	竹角	·닥	찰			착俗탁	tɕuo ¹
	琢	江開二入覺知全清	tɔk	竹角	·닥	찰			착俗탁	tɕuo ²
	倬	江開二入覺知全清	tɔk	竹角	·닥	찰			착俗탁	tɕuo ¹
	涿	江開二入覺知全清	tɔk	竹角	·닥	찰			착俗탁	tɕuo ¹
	椽	江開二入覺知全清	tɔk	竹角	·닥	찰			착俗탁	tɕuo ²
	濯	江開二入覺澄全濁	d ^h ɔk	直敎	·닥	찰			착俗탁	tɕuo ²
	濁	江開二入覺澄全濁	d ^h ɔk	直角	·닥	찰			착俗탁	tɕuo ²
	擢	江開二入覺澄全濁	d ^h ɔk	直角	·닥	찰			착俗탁	tɕuo ²
	稱	江開二入覺莊全清	tʃɔk	側角	·작	찰(爵)			착正작	tɕuo ¹
	篤	江開二入覺崇全濁	dʒ ^h ɔk	士角	·작				착正작	tɕuo ²
	躐	宕合三入藥見全清	kjuak	居縛	·락	갈			곽正각	tɕye ²
霍	宕合一入鐸曉次清	xuak	虛郭	·학	할			학俗곽	xuo ⁴	

표6) 第6韻類 < 궁(弓) :똥(重) · 쿡(諤) · 국(菊)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ㄱ	娥	通合三平東心全清	sjun	息弓	승	승			승俗응	sun ¹
	*滌	通合三平東崇全濁	dʒ ^h ɔŋ	鉏弓	승	중			중正충	tɕuan ⁴
	崇	通合三平東崇全濁	dʒ ^h juŋ	鋤弓	승	중			중正승	tɕ ^h un ²
	*彫	通合三平東以次濁	øjun	余中	응	응			응俗릉	zun ²
	灑	通合三平東以次濁	øjun	以戎	응	응			응俗릉	zun ²
	彤	通合三平東以次濁	øjun	以戎	응	응			응俗릉	zun ²
ㄷ	縮	通合三入屋生全清	fjuk	所六	·숙	수			숙俗축	suo ¹
	蠹	通合三入屋初次清	tʃjuk	初六	·륙	츄			축正축	tɕ ^h u ⁴
	縮	通合三入屋生全清	fjuk	所六	·숙	수			숙俗축	su ⁴

표7) 第7韻類 < 경(京) :경(景) · 경(敬) · 격(隔)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ㄱ	梛	梗開三上靜以次濁	øjɛŋ	以整	:영	힝			힝正영	in ³
	逞	梗開三上靜徹次清	tʰjɛŋ	丑郢	:팅	칭			칭俗령	tɕ ^h ɛŋ ³
	騁	梗開三上靜徹次清	tʰjɛŋ	丑郢	:팅	칭			칭俗빙	tɕ ^h ɛŋ ³
	脛	梗開四上迥匣全濁	ɣiɛŋ	胡頂	:형	ㄱ			형俗경	tɕiɛŋ ⁴
	脛	梗開四去徑匣全濁	ɣiɛŋ	胡定	:형	ㄱ			형俗경	tɕiɛŋ ⁴
	荊	梗開三平庚見全清	kjɛŋ	舉卿	경	깁			경俗형	tɕiɛŋ ¹
	鶻	梗開三平清精全清	tsjɛŋ	子盈	정	징			정正청	tɕiɛŋ ¹
	蜻	梗開三平清精全清	tsjɛŋ	子盈	정	징			정正청	tɕiɛŋ ¹
革	梗開二入麥見全清	kæk	古核	·격	기/기			격俗혁	ky ²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ㄱ	偪	曾開三入職幫全清	pjək	彼側	·벽	비			벽正픽 픽俗핍	pi ¹
	逼	曾開三入職幫全清	pjək	彼側	·벽	비			벽俗핍	pi ¹
	幅	曾開三入職幫全清	pjuk	彼側	·벽	비			벽俗핍	fu ²
	焞	曾開三入職並全濁	b ^h jək	符逼	·백	삐			벽正픽	pi ⁴
	悞	曾開三入職並全濁	p ^h jək	符逼	·백	삐			벽正팍	pi ⁴
	弈	梗開三入昔以次濁	øjek	羊益	·역	이			역正혁	i ⁴
	奕	梗開三入昔以次濁	øjek	羊益	·역	이			역俗혁	i ⁴
	蜴	梗開三入昔以次濁	øjek	羊益	·역	이			역俗택	i ⁴
	脍	梗開四入錫疑次濁	njek	五歷	·역	히(益)			역正익	i ⁴
	鯽	梗開三入昔精全清	tsjek	資昔	·적	적(鯛)			적正즉	tɕi ⁴
	悞	曾開三入職滂次清	p ^h jək	芳逼	·픽	비			벽正픽	pi ⁴
	埴	曾開三入職滂次清	p ^h jək	芳逼	·픽	비			벽正픽	pi ⁴
	檄	梗開四入錫匣全濁	ɾiek	胡狄	·혁	히			혁俗격	ɕi ²
覘	梗開四入錫匣全濁	ɾiek	胡狄	·혁	히			혁俗격	ɕi ²	

표8) 第8韻類 < ㄱ(根) : ㄱ(懇) · ㄱ(艮) · ㄱ(訖)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ㄷ	𦉳	𦉳	臻開二平臻生全清	ʃ(j)en	所臻	슨	슨		신俗션	ʃən ¹
		巾	臻開三平眞見全清	kjĕn	居銀	근	긴		근俗건	tɕin ¹
	ㄷ	吃	臻開三入迄見全清	kjət	居乞	·금	기		글俗흘	tɕ ^h i ¹
		乞	臻開三入迄曉次清	xjət	許訖	·음	이	잉	을俗흘	i ⁴
		屹	臻開三入迄疑次濁	njət	魚迄	·음	이		을俗흘	i ⁴
		乞	臻開三入迄溪次清	k ^h jət	去訖	·금	키		글俗걸	tɕ ^h i ³
		疙	臻開三入迄疑次濁	njət	魚迄	·음	이		을俗흘	i ⁴
ㄷ	ㄷ	詰	臻開三入質溪次清	k ^h jet	去吉	·깁	키		길俗힐	tɕie ²
		絳	臻開三入質澄全濁	ɕ ^h jet	直一	·땡	ㄷ		·	tɕi ⁴
		鷺	臻開三入質章全清	tɕjet	之日	·△	지		질正즐	tɕi ⁴

표9) 第9韻類 < ㄱ(昆) : ㄱ(袞) · ㄱ(脛) · ㄱ(骨)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ㄷ	ㄷ	遁	臻合一上混定全濁	d ^h uən	徒損	·똥	똥		둔正둔	tuən ⁴
		溥	遇合一上姥滂次清	p ^h uo	滂古	·푼	푸		보正부	p ^h u ³
		悶	遇合一平模明次濁	muən	莫困	·문	문		문俗민	mən ⁴
		崑	臻合一平魂來次濁	luən	盧昆	룬	룬		룬正룬	luən ²
		命	臻合三平諄來次濁	ljuen	力連	룬	룬		룬正룬	luən ²
		痛	*遇合三平虞敷次清	p ^h juo	芳無	푼	푸		포正부	p ^h u ¹
		膺	*遇合三上嘖曉次濁	xio	火羽	훈	후		호俗무	xu ¹
		輿	*遇合三上嘖曉次濁	xio	火羽	훈	후		호俗무	xu ¹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ㄷ	扈	臻開三入迄見全清	kjət	居乞	·꺄	그(紘)			골俗홀	ku ³
	率	臻合三入質生次清	fjuei	所律	·숑	수/류	쑤		솔正솔	suai ⁴
	蟀	臻合三入質生全清	fjuet	所律	·숑	수			솔正솔	suai ⁴
	砒	臻合一入沒溪次清	k ^h uət	苦骨	·꺄	쿠			골正골	k ^h u ¹
	鶻	臻合一入沒見全清	kuət	古忽	·꺄	후			홀俗골	ku ²

표10) 第10韻類 < 간(干) :간(筭) ·간(肝) ·꺄(葛)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ㄱ	간	幹	山開一去翰見全清	kan	古案	·간	건			관俗간	kan ⁴
		澗	山開一上旱定全濁	d ^h an	徒旱	:뎡	뎡			탄俗단	t ^h an ¹
		袒	山開一上旱定全濁	d ^h an	徒旱	:뎡	뎡/잔			잔俗탄	t ^h an ³
		綻	山開二去禡澄全濁	d ^h æŋ	丈莧	·뎡	잔			잔俗탄	t ^h an ⁴
		袒	山開二去禡澄全濁	d ^h æŋ	丈莧	·뎡	잔			잔俗탄	t ^h an ⁴
		剗	山開二上產初次清	t ^h æŋ	初限	:찬	찬			찬俗잔	t ^h an ³
		鏟	山開二上產初次清	t ^h æŋ	初限	:찬	찬			찬正산	t ^h an ³
	꺄	戛	山開二入黠見全清	kæt	古黠	·꺄	가			갈俗알	t ^h ia ²
		刮	山開一入曷見全清	kat	古達	·꺄	과(刮)			갈俗할	ky ¹
		𪚩	山開二入黠影全清	ʔæt	烏黠	·꺄	꺄			열俗설	ia ⁴
		曷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胡葛	·꺄	꺄			할俗갈	xy ²
		獨	山開三入月曉次清	xjət	許竭	·꺄	꺄			할俗갈	ɕie ¹
		喝	山開二去夫影全清	ʔai	於轄	·꺄	꺄			할俗갈	xy ⁴
		鞞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胡葛	·꺄	꺄			할俗갈	xy ²
간	꺄	鰈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胡葛	·꺄	꺄			할俗갈	xy ²
		鯨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胡葛	·꺄	꺄			할俗갈	xy ²
		𪚩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胡葛	·꺄	꺄			할俗갈	xy ²
		𪚩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胡葛	·꺄	꺄			할俗갈	xy ²
		𪚩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胡葛	·꺄	꺄			할俗갈	xy ²
		𪚩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胡葛	·꺄	꺄			할俗갈	xy ²
		𪚩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胡葛	·꺄	꺄			할俗갈	xy ²
		𪚩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胡葛	·꺄	꺄			할俗갈	xy ²
		𪚩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胡葛	·꺄	꺄			할俗갈	xy ²
		𪚩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胡葛	·꺄	꺄			할俗갈	xy ²
	꺄	鯨	山合二平山見全清	kuæŋ	古頑	관	관			관俗환	kuan ¹
		癩	山合二平刪見全清	kuan	古還	관	관			관俗환	kuan ¹
		莞	山合二平山見全清	ɣuan	胡官	관	권/꺄			환正완	kuan ¹
		矜	山開三平蒸見全清	kjəŋ	居陵	관	관			관俗환	t ^h cin ¹
꺄	꺄	僕	山合三上獮崇全濁	d ^h juæŋ	士免	:꺄	꺄			전正션	t ^h uan ⁴
		𪚩	山合三上獮崇全濁	d ^h juæŋ	士免	:꺄	꺄			전正션	t ^h uan ⁴
		綰	山合二上擘影全清	ʔuan	烏板	:꺄	꺄			완俗관	uan ³
		灣	山合二平刪影全清	ʔuan	烏關	꺄	꺄			완俗만	uan ¹
		浣	山合一上緩匣全濁	ɣuan	胡管	:꺄	꺄			환正완	xuan ⁴
		澣	山合一上緩匣全濁	ɣuan	胡管	:꺄	꺄			환俗한	xuan ⁴
	꺄	巒	山合一平桓來次濁	luan	落官	꺄	꺄			란俗만	luan ²
		闊	山合一入末溪次清	k ^h uat	苦括	·꺄	꺄			꺄俗꺄	k ^h uo ⁴
		掇	山合一入末端全清	tuat	丁括	·꺄	꺄			탈俗꺄	tu ¹
		𪚩	山合一入末端全清	tuat	丁括	·꺄	꺄			탈俗꺄	tu ²

표11) 第11韻類 < 君(君) : 君(擲) · 君(擲) · 屈(屈)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ㄱ	鷓	山開一入曷匣全濁	ɾat	胡葛	·꺄	꺄			분俗갈	xv ²
	*颺	臻合三入迄云全濁	ɾjuət	王勿	·꺄	유			울正을	y ⁴
	綈	臻合三入物非全清	pjuət	分勿	·꺄	부			불俗불	fu ²
ㄷ	筠	臻合三平真云次濁	ɾjuən	為贗	·꺄	윤			윤俗균	yn ²
	窳	臻合三平諄知全清	tjuen	陟綸	·꺄	준			준正둔	tɕuən ¹
	輻	臻合三平諄徹次清	tʰjuen	丑倫	·꺄	춘			춘俗순	tɕʰuən ¹
	肫	臻合三平諄章全清	tɕjuen	章倫	·꺄	준			준俗순	tɕuən ¹
	迕	臻合三平諄知全清	tjuen	陟綸	·꺄	준			준正둔	tɕuən ¹
	諄	臻合三平諄章全清	tɕjuen	章倫	·꺄	준			춘正순	tɕuən ¹
	隼	臻合三上準心全清	sjuen	思尹	·꺄	순			순正준	suən ³
	竣	臻合三去稕心全清	sjuen	私閏	·꺄	순			순正준	tɕyn ⁴
	浚	臻合三去稕心全清	sjuen	私閏	·꺄	순			순正준	tɕyn ⁴ 、 ɕyn ⁴
	霽	臻合三入術以次濁	øjuet	餘律	·꺄	유			을正홀	y ⁴
	茁	臻合三入術莊全清	tjuet	鄒律	·꺄	규			굴正줄	tɕuo ²
	朮	臻合三入術船全濁	dzʰjuet	食聿	·꺄	쑤			술正출	ɕu ²
ㅈ	秣	臻合三入術船全濁	dzʰjuet	食聿	·꺄	쑤			술正출	ɕu ²
	恤	臻合三入術心全清	sjuet	辛聿	·꺄	슈			술俗홀	ɕy ⁴
	鷓	臻合三入術以次濁	øjuet	餘律	·꺄	유			을正홀	y ⁴
	通	臻合三入術以次濁	øjuet	餘律	·꺄	유			을正홀	y ⁴

표12) 第12韻類 < 韃(韃) : 建(塞) · 建(建) · 諍(諍)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ㄱ	*獻	山開三平阮疑次濁	njen	語偃	·꺄 :꺄	연			연俗현	ian ³
	子	山開三入薛見全清	kjæt	居列	·꺄	겨			결俗혈	tɕie ²
	訐	山開三入薛見全清	kjæt	居例	·꺄	겨			갈俗알	tɕie ²
	竭	山開一入曷影全清	?at	烏葛	·꺄	겨			결俗갈	ɾ ⁴
	碣	山開三入月羣全濁	gʰjet	其謁	·꺄	겨			결俗갈	tɕie ²
	喝	山開三入月影全清	?jet	於歇	·꺄	혀			알俗갈	ie ¹
ㄷ	趁	山開三上獮娘次濁		尼展	·꺄 :꺄	년			년正년	nian ³
	殄	山開四上銑定全濁	dʰien	徒典	·꺄 :꺄	편			년俗딘	tʰian ³
	踁	山開三平僊澄全濁		澄延	·꺄 :꺄	년			년正년	niæn ³
	偏	山開四上銑幫全清	piæn	方典	·꺄 :꺄	변/뺑			변正편	pian ³
	編	山開三上獮幫全清	pjæn	方緬	·꺄 :꺄	변/편			변俗편	pian ³
	挺	山開三平仙書全清	ɕjæn	式連	·꺄 :꺄	션			션俗연	ɕan ¹
	羶	山開三平仙書全清	ɕjæn	式連	·꺄 :꺄	션			션俗전	ɕan ¹
	擅	山開三去線禪全濁	zjæn	時戰	·꺄 :꺄	션			션俗천	ɕan ⁴
鋌	山開三平仙以次濁	øjæn	以然	·꺄 :꺄	션			션正연	tɕʰan ²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韻	*戔	山開四平先精全清		將先	전	전			전正전	tɕiæn ¹
	殄	山開四上銑泥次濁	niɛn	乃殄	:전	년			년正년	nian ³
	嗎	山合四平先匣全濁	ɾiuɛn	胡涓	현	현			현俗언	ɕian ¹
	挈	山開四入屑溪次清	kʰiɛt	苦結	·경	겨			결俗설	tɕʰie ⁴
	捏	山開四入屑泥次濁	niɛt	奴結	·녕	녀			널俗날	nie ¹
	涅	山開四入屑泥次濁	niɛt	奴結	·녕	녀			널俗날	nie ⁴
	茶	山開四入屑泥次濁	niɛt	奴結	·녕	녀			널俗날	nie ⁴
	埵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명	며			덜俗덜	tie ²
	𪔐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명	며			덜俗덜	tie ²
	迭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명	며			덜俗덜	tie ²
	跌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명	며			덜俗덜	tie ¹
	凸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陀骨	·명	며			덜正탈	tʰu ¹
	𪔑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명	며			덜俗덜	tie ⁴
	摑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명	며			덜正탈	ti ⁴
	佚	山開四入屑定全濁	øjet	夷質	·명	이			덜俗덜	i ⁴
	𪔒	山開四入屑定全濁	dʰiɛt	徒結	·명	며			덜俗덜	tie ²
	𪔓	山開四入屑疑次濁	ɲiɛt	五結	·영	여			얼俗설	nie ⁴
	緘	山開四入屑匣全濁	ɾiɛt	胡結	ㄱ	혀			혈俗힐	ɕie ²
	頤	山開四入屑匣全濁	ɾiɛt	胡結	ㄱ	혀			혈俗힐	ɕie ² 、 tɕie ²
	𪔔	山開四入屑匣全濁	ɾiɛt	胡結	ㄱ	혀			혈俗힐	ɕie ²
𪔕	山開四入屑匣全濁	ɾiɛt	胡結	ㄱ	혀			혈俗힐	ɕie ²	
韻	船	山合三平仙船全濁	dzʰjuæn	食川	췌	췌			전俗션	tɕʰuan ²
	宛	山合三上阮影全清	?juæn	於阮	:윈	윈			윈俗완	uan ³
	婉	山合三上阮影全清	?juæn	於阮	:윈	윈			윈俗완	uan ³
	宛	山合三平元曉次清	xjuæn	況袁	:윈	윈(宛)			윈俗완	yan ¹
	埧	山合三平元曉次清	xjuæn	況袁	윈	윈			윈正훈	cyn ¹
	涓	山合四平先見全清	kiuɛn	古玄	권	권			견俗연	tɕyan ¹
	椽	山合三平仙澄全濁	dʰjuæn	直孃	췌	췌			전俗연	tɕʰuan ²
	涎	山開三平仙邪全濁	zjæn	夕連	췌	췌			선正연	ɕian ²
	鑄	山合四入屑見全清	kiuɛt	古穴	·꿍	꿍			결俗홀	tɕye ²
	譎	山合四入屑見全清	kiuɛt	古穴	·꿍	꿍			결俗홀	tɕye ²
	滴	山合四入屑見全清	øjuɛt	古穴	·꿍	꿍			결俗홀	tɕye ²
	拙	山合三入薛章全清	tɕjuæɛt	職悅	·스	췌			절俗졸	tɕuo ¹
曰	山合三入月云次濁	ɾjuɛt	王伐	·윽	윽			윽俗왈	ye ¹	
𪔖	臻合三入術曉次清	xjuɛt	許聿	·훙				혈俗일	cye ⁴	
玃	山合三入月曉次清	xjuɛt	許月	·훙				혈正일	cye ⁴	
埵	山合三入薛來次濁	ljuæɛt	力	·ړ	ړ			렬正날	lie ⁴	

표13) 第13韻類 < 𪔑(簪) : 𪔑(痒) · 𪔑(譜) · 𪔑(戔)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可	可	欽	深開三平侵溪次清	k ^h jem	去金	금	김		금俗흠	tɕ ^h in ¹
		泣	深開三入緝溪次清	k ^h jep	去急	·꺍	키		꺍俗읍	tɕ ^h i ⁴
		湑	深開三入緝溪次清	k ^h jep	去急	·꺍	키(泣)		꺍俗읍	tɕ ^h i ⁴
		燭	深開三入緝云次濁	ɽjep	為立	·읍	히		읍俗습	i ⁴
可	可	枕	深開三平侵禪全濁	zjem	氏任	썸	썸		썸正침	tɕ ^h ən ²
		箴	深開三平侵章全清	tɕjem	職深	침	침		침俗죤	tɕən ¹
		瀋	深開三上寢昌次清	tɕ ^h jem	昌枕	:침	침	신	침正심	ɕən ³
		沁	深開三去沁清次清	tɕ ^h jem	七鳩	·침	침		침正심	tɕ ^h in ⁴
		闕	深開三去沁徹次清	t ^h jem	丑禁	·팀	침		침正츄	tɕ ^h ən ⁴

표14) 第14韻類 < 감(甘) : 감(感) · 감(紺) · 감(閭)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可	可	耽	咸開一平覃定全濁	d ^h Am	徒含	담	담		담正담	tan ¹
		耽	咸開一平覃端全清	tAm	丁含	담	담		담正담	tan ¹
		耽	咸開一平覃端全清	tAm	丁含	담	담		담正담	tan ¹
		憨	咸開一平談曉次清	xam	呼談	함	함		함俗감	xan ¹
		紺	咸開一平談曉次清	xam	呼談	함	ㄱ		함俗감	xan ¹
		撼	咸開一上感匣全濁	ɽAm	胡感	ㄱ	ㄱ		함俗감	xan ⁴
		憾	咸開一去勘匣全濁	ɽAm	胡紺	ㄱ	ㄱ		함俗감	xan ⁴
可	可	酣	咸開一平談匣全濁	ɽam	胡甘	ㄱ	ㄱ		함俗감	xan ¹
		頷	咸開一入合見全清	kAp	古沓	·갑	가		갑俗합	xɽ ²
		夾	咸開二入洽見全清	kɛp	古洽	·갑	가/갸		갸俗협	tɕia ¹
		狹	咸合三入乏溪次清	k ^h juɛp	起法	·갑			갸正갑	xɽ ⁴
		湑	咸開一入合溪次清	k ^h Ap	口答	·갑	카		갑俗합	k ^h ɽ ⁴
		榼	咸開一入盍溪次清	k ^h ap	苦盍	·갑	카	경	갑俗합	k ^h ɽ ¹
		恰	咸開二入洽溪次清	k ^h ɛp	苦洽	·갑	카		갸正갑	tɕ ^h ia ⁴
		恰	咸開二入洽溪次清	k ^h ɛp	苦洽	·갑	카		갸俗흠	tɕ ^h ia ⁴
		筴	咸開二入洽知全清	tɕɛp	竹洽	·답	자		잡俗차	tɕa ¹
		狎	咸開二入狎匣全濁	ɽap	胡甲	·협	햐		협正압	ɕia ²
匣	咸開二入狎匣全濁	ɽap	胡甲	·협	햐		협俗갑	ɕia ²		
洽	咸開二入洽匣全濁	ɽɛp	侯夾	·협	햐		협俗흠	tɕ ^h ia ⁴		

표15) 第15韻類 < 冓(筍) : 冓(檢) · 冓(劔) · 冓(劫)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ㄱ	ㄱ	欠	咸合三去梵溪次清	k ^h juem	去劔	·검	검		검俗흠	tɕ ^h ian ⁴	
		泛	咸合三去梵敷次清	p ^h juem	孚梵	·범	팸		범俗핍	fan ⁴	
		驗	咸開三去豔疑次濁	njæm	魚窆	·엄	엄		엄俗흠	ian ⁴	
	ㄱ	乏	咸合三入乏奉全濁	b ^h juɛp	房法	·뵤	뵤		뵤俗핍	fa ²	
ㄴ	ㄴ	慊	咸開四上忝溪次清	k ^h iɛm	苦箴	·검	검		검俗헝	tɕ ^h ian ³	
		拈	咸開四平添泥次濁	niɛm	奴兼	·념	념		념俗덤	nian ¹	
		恬	咸開四平添定全濁	d ^h iɛm	徒兼	·땨	땨		땨俗념	t ^h ian ²	
		苫	咸開三去豔書全清	ɕjæm	舒瞻	·섬	섬		섬正점	ɕan ⁴	
		僭	咸開四去栳精全清	tsiɛm	子念	·점	점		점正츰	tɕian ⁴	
		粘	咸開三平鹽娘次濁	njæm	女廉	·점	념		념正덤	tɕan ¹	
		塹	咸開三去豔清次清	ts ^h jam	七豔	·침	침		침俗참	tɕ ^h ian ⁴	
		*斬	咸開三去豔清次清	ts ^h jam	七豔	·침	침(塹)		침俗참	tɕ ^h ian ⁴	
		僭	咸開三平鹽精全清	tsjæm	子廉	·점	점		점正츰	tɕian ¹	
		殲	咸開三平鹽精全清	tsjæm	子廉	·점	점		점正섬	tɕian ¹	
		潛	咸開三平鹽從全濁	dz ^h jæm	慈鹽	·점	점		점正츰	tɕ ^h ian ²	
		*檻	咸開三平鹽從全濁	dz ^h jæm	慈鹽	·점	점		점正츰	tɕ ^h ian ²	
		佔	咸開四平添端全清	tiɛm	丁兼	·땨	땨		땨正덤	tian ¹	
		覘	咸開三平鹽徹次清	t ^h jæm	丑廉	·땨	땨		땨正점	tɕ ^h an ¹	
		檐	咸開三平鹽以次濁	ɔjæm	余廉	·염	염		염俗침	ian ²	
		阡	咸開三平鹽以次濁	ɔjæm	余廉	·염			염正덤	tian ⁴	
	鎌	咸開三平鹽來次濁	ljæm	力鹽	·렴	렴		렴俗검	lian ²		
	ㄷ	ㄷ	筴	咸開四入帖見全清	kiɛp	古協	·겁	겨		겁俗헝	tɕia ²
			鉞	咸開四入帖見全清	kiɛp	古協	·겁	겨		겁俗헝	tɕia ²
			腴	咸開三入 琰溪次清	k ^h iɛp	謙琰	·겁	겨		겁俗헝	tɕ ^h ian ³
			挾	咸開四入帖見全清	kiɛp	古協	·겁	겨		겁俗헝	tɕia ¹
			頰	咸開四入帖見全清	kiɛp	古協	·겁	겨		겁俗헝	tɕia ²
			篋	咸開四入帖溪次清	k ^h iɛp	苦協	·겁	겨		겁俗헝	tɕ ^h ie ⁴
			愜	咸開四入帖溪次清	k ^h iɛp	苦協	·겁	겨		겁俗헝	tɕ ^h ie ⁴
快			咸開四入帖溪次清	k ^h iɛp	苦協	·겁	겨		겁俗헝	tɕ ^h ie ⁴	
鐮			咸開三入葉娘次濁	njæp	尼輒	·녘	녀		녘俗섬	nie ⁴	
*鉞			咸開三入葉泥次濁	njæp	昵輒	·녘	녀		녘俗섬	nie ⁴	
躡			咸開三入葉娘次濁	njæp	尼輒	·녘	녀		녘俗섬	nie ⁴	
聶			咸開三入葉娘次濁	njæp	尼輒	·녘	녀/뺌		녘俗섬	nie ⁴	
*驪			咸開三入葉泥次濁	njæp	昵輒	·녘	녀(聶)		녘俗섬	nie ⁴	
備			咸開三入葉章全清	tɕjæp	之涉	·점	저		점俗섬	ɕy ⁴	
譬			咸開三入葉章全清	tɕjæp	之涉	·점	저		점俗섬	tɕy ²	
摺			咸開三入葉章全清	tɕjæp	之涉	·점	저		점俗섬	tɕy ²	
浹			咸開四入帖精全清	tsiɛp	子協	·점	저		점正헝	tɕia ¹	
挾			咸開四入帖匣全濁	ɣiɛp	胡頰	·뵤	뵤		뵤俗헝	ɕie ²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講	咸開三入某日次濁	ŋjæp	而涉	·섭	녀			넙俗섭	nie ⁴

표16) 第16韻類 < ㄱ(高) : ㄱ(果) · ㄱ(誥)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高	皓	效開一上皓見全清	kau	古老	·골	갈/할			고正호	kau ⁴
	縞	效開一上皓見全清	kau	古老	·골	갈			고俗호	kau ³
	搞	效開一去號溪次清	k ^h au	苦到	·골	갈			고俗호	k ^h au ⁴
	耗	效開一去號曉次清	xau	呼到	·물	말(笔)/ 할(耗)			호正모	xau ⁴
	燥	效開一上皓心全清	sau	蘇老	·술	살			소俗조	tsau ⁴
	噪	效開一去號心全清	sau	蘇到	·술	살			소俗조	tsau ⁴
	噪	效開一去號心全清	sau	蘇到	·술	살			소俗조	tsau ⁴
	翱	效開一平豪疑次濁	ŋau	五勞	·을	알			오俗고	au ¹
	臊	效開一平豪心全清	sau	蘇遭	·홉	살			.	sau ¹
	醪	效開一平豪來次濁	lau	魯刀	·를	랄			로正료	lau ²
洮	效開一平豪透次清	t ^h au	土刀	·를	탈/말			도正도	t ^h au ¹	
高	澆	效開四平蕭見全清	kiɛu	古堯	·골	결/열			교俗요	tɕiau ¹
	凈	效開四平蕭見全清		堅堯	·골	결			교俗요	iɛu ¹
	傲	效開四平蕭見全清	kiɛu	古堯	·골	결			교俗요	tɕiau ¹
	梟	效開四平蕭見全清	kiɛu	古堯	·골	결			교俗요	ɕiau ¹
	徼	效開四去蕭見全清	kiɛu	古堯	·골	결			교俗요	tɕiau ⁴
	噉	效開四去嘯見次濁	ŋiɛu	五甲	·골	결			교俗구	iau ⁴
	叫	效開四去嘯見全清	kiɛu	古甲	·골	결(脚)			교俗구	tɕiau ⁴
	燒	效開二平肴溪次清	k ^h au	口交	·를	결(燒)			교俗요	tɕ ^h iau ¹
	敵	效開二平肴溪次清	k ^h au	口交	·를	결			교正고	tɕ ^h iau ¹
	覈	效開四去嘯溪次清	k ^h iɛu	苦甲	·를	결			교俗구	tɕ ^h iau ⁴
	獯	效開二上巧知全清	t ^h au	張絞	·똥	렬			조正료	lau ³
	掉	效開四上嘯定全濁	d ^h iɛu	徒甲	·똥	렬			도正도	tiau ³
	召	效開三去笑澄全濁	d ^h jæu	直照	·똥	절/설			쇼俗쇼	tɕau ⁴
	棹	效開二去效澄全濁	d ^h au	直教	·똥	살			조俗쇼	tɕau ⁴
	杪	效開三上小明次濁	mjæu	亡沼	·물	멸			묘俗쇼	miau ³
	鞞	效開三去笑心全清	sjæu	私妙	·술	설			쇼俗쇼	tɕ ^h iau ⁴
	稍	效開二去效生全清	ʃau	所教	·술	살			쇼正쇼	ʃau ¹
	綯	效開三平宵心全清	sjæu	相邀	·술	설			쇼俗쇼	ɕiau ¹
	巢	效開二平肴崇全濁	dʒ ^h au	鉏交	·줄	잘			쇼正소	tɕ ^h au ²
	灑	效開三上小精全清	tsjæu	子小	·줄	잘			쇼正소	tɕ ^h au ²
	沼	效開三上小章全清	tɕjæu	之少	·줄	절			쇼俗쇼	tɕau ³
	沼	效開三去笑章全清	tɕjæu	之少	·줄	절			쇼正쇼	tɕau ⁴
	釗	效開三平宵章全清	tɕjæu	止遙	·줄	절			쇼正쇼	tɕau ¹
	敵	效開二上巧疑次濁	ŋau	五巧	·을	알	양		요俗교	iau ³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昭	效開三平宵以次濁	øjæu	餘昭	음	열			요俗쇼	iau ¹
	僥	效開四平蕭疑次濁	ŋjɛu	五聊	음	결/열			교俗요	iau ²
	杳	效開四上篠影全清	ʔjɛu	烏皎	·롬	열			요俗묘	iau ³
	趙	效開二去效徹次清	t ^h ʌu	丑教	·툼	찰			착俗탁	tɕ ^h uo ⁴

표17) 第17韻類 < 冑(鳩) : 冑(九) · 冑(救)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冑	姆	流開一上厚明次濁	mu	莫後	·물	믄(母)			모正무	mu ³
	蠡	*流開一平侯明次濁	məu	迷浮	물	믄			무俗모	mau ²
	牟	*流開一上厚明次濁	məu	莫後	물	믄			무俗모	mou ²
	眸	*流開一平侯明次濁	məu	莫浮	물	믄			무俗모	mou ²
	謀	*流開一平侯明次濁	məu	迷浮	물	믄			무俗모	mou ²
	眸	*流開一平侯明次濁	məu	迷浮	물	믄			무俗모	mau ²
	矛	*流開一平侯明次濁	məu	迷浮	물	믄			무俗모	mau ²
	旃	*流開一平侯明次濁	məu	迷浮	물	믄			무俗모	mou ²
	嘔	流開一平侯影全清	ʔu	烏侯	훙	훙			우俗구	ou ¹
	漚	流開一去侯影全清	ʔu	烏侯	·훙	훙			우俗구	ou ⁴
	*菹	流開一去侯曉次清	xu	呼漏	·훙	훙			후俗구	k ^h ou ⁴
冑	黠	流開一上厚透次清	t ^h u	天口	·툼	툼			두正듀	t ^h ou ³
	黠	流開一平侯來次濁	lu	落侯	룸	룸(婁)			구正루	lou ²
	彪	流開三平幽幫全清	pjəu	甫然	불	빌			표俗표	piau ¹
	謬	流開三去幼明次濁	mjəu	靡幼	·물	밀			묘俗류	miou ⁴
冑	愁	效開一平豪豪全濁	dzaʊ	財勞	중	중			추正수	tɕ ^h ou ²
	驩	流開三平尤昌次清	tɕ ^h ju	赤周	·*	질			츄正쥬	tɕ ^h ou ¹

표18) 第18韻類 < 冑(賁) : 冑(紫) · 冑(恣)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冑	緝	止開三上紙生全清	fje	所綺	·쑤	세			스俗쇄	ɕi ³
	兕	止開三上旨邪全濁	zjei	徐姊	·쑤	쓰			스正시	si ⁴
	齋	止開三平脂精全清	tsjei	即夷	중	즈/제			즈俗지	tɕei ¹
	泚	蟹開四上齋清次清	tshje	此禮	·중	체			츠正즈	tɕ ^h ɛi ³
	漬	止開三去寘從全濁	dz ^h j	疾智	·중	즈			즈正지	tsɿ ⁴
冑	憤	止開三去至知全清	tjei	陟利	·딩	지			지正치	tɕɿ ⁴
	憤	止開三去至章全清	tɕjei	脂利	·딩	지			지正치	tɕɿ ⁴
	彪	止開三去至明次濁	mjɛi	明祕	·밍	뮈			미俗미	mei ⁴
	魅	止開三去至明次濁	mjɛi	明祕	·밍	뮈			미俗미	mei ⁴
	寐	止開三去至明次濁	mjei	彌二	·밍	메			미俗미	mei ⁴
	弛	止開三上紙書全清	ɕje	施是	·싱	시			시俗이	tɕ ^h ɿ ²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𪗇	止開三上紙船全濁	dz ^h je	神紙	·쌍	씨			시俗디	ʃl ⁴
		嗜	止開三去至禪全濁	zjei	常利	·쌍	씨			시俗기	ʃl ⁴
		伎	止開三去眞章全清	tɕje	支義	·징	지			지俗기	tʃl ⁴
		蟬	止開三平支章全清	tɕje	章移	징	지			지俗치	tʃl ⁴
		擣	止開三平支徹次清	t ^h je	丑知	팅	치			치俗리	tʃ ^h l ¹
		𪗇	止開三平支徹次清	t ^h je	丑知	팅	치			치俗리	tʃ ^h l ¹
		𪗇	止開三平支徹次清	t ^h je	丑知	팅	치			치俗리	tʃ ^h l ¹
		𪗇	止開三平支徹次清	t ^h je	丑知	팅	치			치俗리	tʃ ^h l ¹
으	으	*碌	蟹開一去代定全濁		待戴	·뎡	때			타俗테	tʰai ⁴
		𪗇	蟹開一去代定全濁	d ^h ʌi	徒耐	·뎡	때			타俗테	tai ⁴
		𪗇	蟹開一平哈心全清	sʌi	蘇來	싱	새			시俗식	sai ¹
		𪗇	蟹合一平灰心全清	suʌi	素回	싱	새			시俗식	suei ¹
		猜	蟹開一平哈清次清	ts ^h ʌi	倉才	**	채			치俗식	ts ^h ai ¹
		𪗇	蟹開一平哈清次清	ts ^h ʌi	倉才	**	채			치俗식	ts ^h ai ¹
으	으	姬	止開三平之見全清	ki	居之	깁	계			기俗희	tɕi ¹
		泊	止開三去至見全清	kjɛi	几利	·깁	계			기正계	tɕi ⁴
		埒	止開三去至羣全濁	g ^h jɛi	其冀	·깁	끼			기俗계	tɕi ⁴
		樞	止開三平之莊全清	tʃi	側持	징	즈			치正치	tsɿ ¹
		沂	止開三平微疑次濁	njɛi	魚衣	잉	이			의俗괴	i ²

표19) 第19韻類 < 𪗇(傀) : 𪗇(隗) · 𪗇(儂)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으	으	滄	蟹合一去泰見全清	kuai	古外	·깁	귀			괴俗회	k ^h uai ⁴ , xuei ⁴
		鄗	蟹合一去泰見全清	kuai	古外	·깁	귀			괴俗회	k ^h uai ⁴
		𪗇	蟹合一去泰見全清	kuai	古外	·깁	귀			괴俗회	k ^h uai ⁴
		滄	蟹合一去泰見全清	kuai	古外	·깁	귀			괴俗회	k ^h uai ⁴
		膾	蟹合一去泰見全清	kuai	古外	·깁	귀			괴俗회	k ^h uai ⁴
		詼	蟹合一平灰溪次清	k ^h uʌi	苦回	깁	귀			괴俗회	xuei ¹
		恢	蟹合一平灰溪次清	k ^h uʌi	苦回	깁	귀			괴俗회	xuei ¹
		盔	蟹合一平灰溪次清	k ^h uʌi	苦回	깁	귀			괴俗회	k ^h uei ¹
		碎	蟹合一去隊精全清	tsuʌi	子對	·깁	취			채正쉬	tsuei ⁴
		概	蟹合一去泰精全清	tsuai	粗外	·깁				채正	tsou ¹
		粹	蟹合一去隊清次清	ts ^h uʌi	七內	·깁	취			채正쉬	ts ^h uei ⁴
		淬	蟹合一去隊清次清	ts ^h uʌi	七內	·깁	취			채正쉬	ts ^h uei ⁴
		倅	蟹合一去隊清次清	ts ^h uʌi	七內	·깁	취			채正쉬	ts ^h uei ⁴
		薈	蟹合一去泰影全清	ʔuai	烏外	·깁	휘(蔚)			외正회	xuei ¹
		滅	蟹合一去泰曉次清	xuai	呼會	·깁	휘			외正회	xuei ⁴
		闕	蟹合一去隊匣全濁	ɾuʌi	胡對	·깁	휘			회俗괘	xuei ⁴
潰	蟹合一去隊匣全濁	ɾuʌi	胡對	·깁	휘			회俗괘	k ^h uei ⁴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庑	蟹合一上賄匣全濁	ɣuAi	胡罪	:형	휘			회正외	xuei ⁴
	樞	蟹合一平灰來次濁	luAi	魯回	:링	뤼(儡)			뤼正외	lei ²
	偏	蟹合一平賄來次濁	luAi	落猥	:링	뤼			뤼正외	lei ³

표20) 第20韻類 < 갡(佳) :갡(解) ·갡(蓋)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갡	階	蟹開二平皆見全清	kei	古諧	갡	개			기俗계	tcie ¹
	咳	蟹開一平哈見全清	kAi	古哀	갡	개			기俗히	kai ¹
	垓	蟹開一平哈見全清	kAi	古哀	갡	개			기俗히	kai ¹
	芑	蟹開二平皆見全清	kei	古諧	갡	개			기俗히	kai ¹
	偕	蟹開二平皆見全清	kei	古諧	갡	개			기俗히	cie ²
	咳	蟹開一平哈見全清	kAi	古諧	갡	개			기俗히	kai ¹
	佻	蟹開一平哈溪次清	k ^h Ai	苦哀	갡	개(咳)			기俗히	kai ¹
	岐	蟹開一平哈見全清	kAi	古哀	갡	개			기俗히	kai ¹
	*咳	蟹開一平哈見全清		柯開	갡	개			기俗히	kAi ¹
	痍	蟹開二平皆見全清	kei	古諧	갡	개			기俗히	tcie ¹
	楷	蟹開二平皆見全清	kei	古諧	갡	개			기俗히	tcie ⁴
	懈	蟹開二去卦見全清	kæi	古隘	갡	개			기俗히	cie ⁴
	懈	蟹開二去卦見全清	kæi	古隘	갡	개			기俗히	cie ⁴
	效	蟹開一去代溪次清	k ^h Ai	苦愛	갡	개	귀		기俗히	k ^h ai ⁴
	咳	蟹開一平哈匣全濁	ɣAi	戶來	갡	개/해			기俗히	xai ²
	柴	蟹開二平佳崇全濁	dʒ ^h æi	士佳	쟁	재			지俗식	tʂ ^h ai ²
	豺	蟹開二平皆崇全濁	dʒ ^h ei	士皆	쟁	재			지俗식	tʂ ^h ai ²
	儗	蟹開二平皆崇全濁	dʒ ^h ei	士皆	쟁	재			지俗제	tʂ ^h ai ²
	柴	蟹開二平佳崇全濁	dʒ ^h æi	士佳	쟁	재			지俗식	tʂ ^h ai ²
	脰	蟹開二平佳匣全濁	ɣæi	戶佳	행	해			기俗히	cie ²
諧	蟹開二平皆匣全濁	ɣei	戶皆	행	해			.	cie ²	
鞋	蟹開二平佳匣全濁	ɣei	戶佳	행	해			히俗혜	cie ²	
鞞	蟹開二平佳匣全濁	ɣæi	戶佳	행	해			히俗혜	cie ²	
械	蟹開二去怪匣全濁	ɣei	胡介	행	해			히俗계	cie ⁴	
갡	媯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古蛙	광	과			광正외	ua ¹
	媯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古蛙	광	과			광俗외	kua ¹
	*媯	蟹合二平佳見全清	kuæi	古蛙	광	과			광正외	kua ¹

표21) 第21韻類 < 궡(媯) :궡(軌) ·궡(媯)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궡	宥	止合三上旨見全清	kjuëi	居洧	:궡	귀			귀俗광	kuei ³
	晷	止合三上旨見全清	kjuëi	居洧	:궡	귀			광正귀	kuei ³
	*玆	止合三去寘見全清		居偽	·궡				광正기	kuei ⁴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喟	止合三去至溪次清	k ^h juēi	丘愧	·킹	귀			귀俗위	k ^h uei ⁴
	虧	止合三平支溪次清	k ^h juē	去為	킹	귀			귀俗휴	k ^h uei ¹
	彙	止合三去未云次濁	ɾjuəi	于貴	·잉	위			위正휘	xuei ⁴
	巍	止合三平微疑次濁	njuəi	語韋	잉	위			위俗외	uei ¹
	魄	止合三上尾影全清	ʔjuəi	於鬼	:킹	위(鬼)			위俗외	uei ³
	畏	止合三去未影全清	ʔjuəi	於胃	·킹	휘			위俗외	uei ⁴
경	癸	止合三上旨見全清	kjuei	居誅	:굉	귀			귀俗계	kuei ³
	諉	止合三去寘娘次濁	njue	女恚	·닝	늪			늪正위	uei ³
	葵	止合三平脂心全清	sjuei	息遺	싱	쉬			쉬俗유	suei ¹
	棼	止合三去至邪全濁	zjuei	徐醉	·썩	쉬			쉬俗혜	xuei ⁴
	瑞	止合三去寘禪全濁	zjue	是偽	·썩	쉬			쉬俗셔	zuei ⁴
	捰	止合三去寘章全清	tɕjue	之睡	·썩	쥬			* 俗쥬	tɕuei ⁴
	悴	止合三去至從全濁	dz ^h juei	秦醉	·썩	쥬			쥬俗쥬	ts ^h uei ⁴
	萃	止合三去至從全濁	dz ^h juei	秦醉	·썩	쥬			* 俗쥬	ts ^h uei ⁴
	頤	止合三去至從全濁	dz ^h juei	秦醉	·썩	쥬			* 俗쥬	ts ^h uei ⁴
	瘁	止合三去至從全濁	dz ^h juei	秦醉	·썩	쥬			* 俗쥬	ts ^h uei ⁴
	桂	*止合三去寘影全清	ʔiuəi	於避	·굉	혜			유正계	uei ¹
	恚	止合三去寘影全清	ʔjue	於避	·굉	휘			휘俗에	xuei ⁴

표22) 第22韻類 < 경(雞) :경(啓) ·경(闕)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경	荆	蟹開三去祭見全清	kjæi	居例	·경	계			계正제	tɕi ⁴
	繫	蟹開四平齊溪次清	k ^h iei	口奚	·경	계/혜			혜俗계	tɕi ⁴
	禰	蟹開四上薺泥次濁	niəi	奴禮	:녕	네			니正네	ni ³ ,mi ²
	荔	蟹開四去霽來次濁	liəi	郎計	·랭	레			리正레	li ⁴
	際	蟹開三去祭徹次清	t ^h jaei	丑例	·텡	제			제正제	tɕ ^h i ⁴
	柶	蟹開三平齊禪全濁	zjaei	成羈	썩	이			세正테	i ²
	賁	蟹開四平齊心全清	tsiei	祖稽	쟁	제			제俗지	tɕi ⁴
	奚	蟹開四平齊匣全濁	ɾiei	胡雞	헙	혜			혜俗히	ɕi ¹
	系	蟹開四去霽匣全濁	ɾiei	胡計	·헙	혜			혜俗계	ɕi ⁴
경	莧	蟹合三去祭精全清	tsjuəi	子芮	·ㅅ	쥬			제正체	tɕye ²
	桂	蟹合四平齊影全清	ʔiuəi	烏攜	헙	혜			유正계	uei ¹

표23) 第23韻類 < 공(孤) :공(古) ·공(顧)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하	枯	遇合一平模溪次清	k ^h uo	苦胡	공	쿠			고正구	k ^h u ¹
	鏞	遇合一上姥明次濁	muo	莫補	:몽	무			모正무	mu ³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樛	遇合一平模明次濁	muo	莫胡	몽	무			모正무	mo ²
	酥	遇合一平模心全清	suo	素姑	송	수			소正수	su ¹
	齟	遇開三上語崇全濁	dʒ ^h jo	牀呂	·宗	주			조正주	tɕy ³
	鉏	遇開三平魚崇全濁	dʒ ^h jo	士魚	·宗	주			조俗서	tɕ ^h u ²
	鋤	遇開三平魚崇全濁	dʒ ^h jo	士魚	·宗	췌			조俗서	tɕ ^h u ²
	耨	遇開三平魚崇全濁	dʒ ^h jo	士魚	·宗	췌			조俗서	tɕ ^h u ²
	*涸	遇合一去莫匣全濁		下各	·宏	후			호正후	xɥ ²

표24) 第24韻類 < 강(歌) : 강(哿) · 강(箇)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강	嘏	假開二上馬見全清	ka	古疋	·강	가			가俗하	ku ³
	妫	假開二去禡知全清	t̚a	陟駕	·당	차			차俗타	tɕ ^h a ⁴
	荼	假開二平麻澄全濁	d̚ ^h a	宅加	땅	짜			차俗다	tɕ ^h a ²
	椽	假開二平麻澄全濁	d̚ ^h a	宅加	땅	짜			차俗다	tɕ ^h a ²
	咤	假開二去禡知全清	t̚a	陟駕	·당	차			차俗타	tɕa ⁴
	詫	假開二去禡徹次清	t̚ ^h a	丑亞	·당	차			차俗타	tɕ ^h a ⁴
	槎	假開二平麻崇全濁	dʒ ^h a	鉏加	쌍	짜			차正사	tɕ ^h a ²
	楂	假開二平麻崇全濁	dʒ ^h a	鉏加	쌍	짜/자			차正사	tɕ ^h a ²
	植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側加	장	자			차正사	tɕa ¹
	柎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側加	장	자			차正사	tɕa ¹
	詐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側駕	·장	자			자正사	tɕa ⁴
	昨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側駕	·장	자 (詐)			자俗사	tɕa ⁴
	呵	果開一平歌曉次清	xɑ	虎何	항	허			하俗가	xɥ ¹
	訶	果開一平歌曉次清	xɑ	虎何	항	허			하俗가	xɥ ¹
	暇	假開二去禡匣全濁	ɣɑ	胡駕	·향	하			하俗가	ɕia ²
	苛	果開一平歌匣全濁	ɣɑ	胡歌	향	해			하俗가	k ^h ɥ ¹
砢	果開一上哿來次濁	la	來可	·랑	커(珂)			라正가	luo ³	
강	置	假開三平麻精全清	tsja	子邪	장	저			차俗저	tɕy ¹
	姐	假開三上馬精全清	tsja	茲野	·장	저			자俗저	tɕie ³
	*她	假開三上馬精全清	tsja	子野	·장	저			자俗저	t ^h a ¹
	担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側加	·쌍	쳐 (且)			자俗저	tɕa ¹
강	適	假合二平麻知全清	t̚ua	陟瓜	광	좌 (槌)			좌俗과	tɕua ¹
	*適	假合二平麻知全清		張瓜	당	좌			좌俗과	tɕua ¹
	槌	假合二平麻知全清	t̚ua	陟瓜	당	좌			좌俗과	tɕua ¹
	座	果合一平戈從全濁	dz ^h ua	昨禾	짙	쩌			차正좌	ts ^h uo ²
	*藹	假合二平麻曉次清	xua	呼瓜	황	화 (花), 휘			뢰正위	xua ¹
	輶	果合一上果匣全濁	ɣua	胡果	·향	휼			화正과	kuo ³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蹠	假合二上馬匣全濁	ɾua	胡瓦	·響	響			화正마	xuai ²
	夥	果合一上果匣全濁	ɾua	胡果	·響	響			화俗과	xuo ³

표25) 第25韻類 < 𠄎(拘) : 𠄎(矩) · 𠄎(屨)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𠄎	楸	遇合三上麌見全濁	kjuo	俱雨	·𠄎	𠄎			구俗우	y ³
	踭	遇合三上麌溪次清	k ^h juo	驅雨	·𠄎	𠄎			구俗우	tɕy ³
	𦉳	遇合三平虞生全清	ɸjuo	山芻	승	𦉳 (穩)			슈俗유	su ¹
	娛	遇合三平虞疑次濁	ŋjuo	遇俱	응	유			우俗오	y ²
	嫗	遇合三去遇影全清	?juo	衣遇	·홍	휴			우俗구	y ⁴
	吁	遇合三平虞曉次清	xjuo	況于	홍	휴			후俗우	ɕy ¹
	吁	遇合三平虞曉次清	xjuo	況于	홍	휴			후俗우	ɕy ¹
	訐	遇合三平虞曉次清	xjuo	況于	홍	휴			후俗우	ɕy ¹
	栩	遇合三上麌曉次清	xjuo	況羽	·홍	휴			후俗허	ɕy ³
	翹	遇合三上麌曉次清	xjuo	況羽	·홍	휴			후俗허	ɕy ³
	敏	遇合三平虞曉次清	xjuo	況于	·홍	휴			후俗구	ɕy ¹
	眴	遇合三去遇曉次清	xjuo	香句	·홍	휴			후俗구	ɕy ⁴
响	遇合三去遇曉次清	xjuo	香句	·홍	휴			후俗구	xou ³	
𠄎	渝	遇合三平虞以次濁	øjuo	羊朱	응	유			유俗투	y ²

표26) 第26韻類 < 𠄎(居) : 𠄎(舉) · 𠄎(據) * >

NO	字例	中古音		反切	東韻	四聲通解			全韻玉篇	普通話	
		廣韻	董同龢			正音	俗音	今俗音			
𠄎	𠄎	嘯	遇開三平魚溪次清	k ^h jo	去魚	경	큐			거俗허	tɕhy ¹
		墟	遇開三平魚溪次清	k ^h jo	去魚	경	큐			커俗허	ɕy ¹
	𠄎	煮	遇開三上語章全清	tɕjo	章与	·정	쥬(鸞)			저俗자	tɕu ³
		攄	遇開三平魚徹次清	t ^h jo	丑居	텅	쥬			저俗터	su ¹
		蜡	遇開三去御清次清	ts ^h jo	七慮	·청	쥬			자正사	tɕhy ⁴
		蜍	遇開三平魚以次濁	øjo	以諸	영	쥬			저正여	y ²